

# 한중인문학연구

76

한중인문학회



## 한중인문학연구 제76집 목차

### ■ 기획 논문

기획 주제-연변조선족 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이은홍 · 한담 ·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	1
차성연 ·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조선족 소설사 시론(試論) .....	47

### ■ 일반 논문

이명아 · 중국어 속담에서 개의 상징 의미와 의미 자질 분석 .....	71
이서이 · 한용수 · 중국어 교육에서 AIED 보조 도구의 활용 가능성 탐구 .....	89
진염평 · 진연 ·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나타나는 태도 자원에 대한 긍정적 담화분석 .....	115
진선영 · 여성역사소설과 장르믹스물의 기원 .....	145
이영란 · 량치차오(梁啓超) 도덕적 상상과 근대 담론 .....	169
남성우 · 『논어』와 『맹자』에 나타난 경영윤리 사상 고찰 .....	193
李学堂 · 牧隱李穡의君子意識小考 .....	221
张鑫 · 孙惠欣 · 佛家视域下的“一场春梦” .....	253
杨昕 · 朝鲜朝文人卢以渐与清蒙古族学者博明交流初探 .....	275
单清丛 · 汉语自由转述体在韩国语译本的对应类型研究 .....	299



#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 \*\*

-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의 비교를 중심으로 -

이은홍\*\*\* · 한담\*\*\*\*

## 국문요약

이 연구는 중국 조선족의 조선어문 교과서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을 비교함으로써, 시진핑 시기에 조선족의 민족어교육의 위축 양상을 확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선어문 교과서는 민족 정체성 담론과 소수민족 교과서 정책의 배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족 정체성 담론의 측면에서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한반도의 국민국가 단위에서 모색되는 민족 정체성과 변별되면서도 혼효된다는 점, 조선어문 교과서는 민족의 언어문화 교육 자료이면서도 국민 정체성 형성의 목적도 달성해야 하는 국정교과서이기에 국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의 역학 관계가 나타난다는 점,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은 변화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또한 시진핑 시기의 소수민족 교과서 정책 측면에서 초중등 소수민족언어 교과서에 대한 교육 행정부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고, ‘삼과통편교재(三科統編教材)’, ‘푸통화(普通話) 교재 보급으로 인해 국정 교과서의 채택 비율이 확대되는 배경 속에서 조선어문 교과서가 편찬되고 사용되고 있다.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표상을 ‘조선족의 이주와 거주역사’와 ‘조선민족 문화의 계승과 수용’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조선족의 이주와 거주역사’에는 항일전쟁과 조선족이 갖는 특수성으로서 모빌리티, 자생력, 자부심의 표상이 속한다. 구판(2007-2011년 판)에서 항일전쟁은 한반도 조국의 독립을 위한 전쟁이었지만, 신판(2021-2022년판)에서 항

\* 이 논문은 2017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입(NRF-2017S1A6A3A02079082)

\*\* 이 논문은 제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회의 “연변조선족 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2022.07.02.)에서의 발표문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변화」를 수정·보완한 것임.

\*\*\* 주저자, 순천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 교신저자, 원광대학교 한중관계연구원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및 전담대 강사

일전쟁은 중국의 애국주의와 국제주의의 맥락에서 국민 정체성의 표상이 된다. 구판에서는 한반도로부터 이주해 온 조선족 정주의 역사, 자생력과 문화적 자부심이 나타나 있지만, 신판에서 조선족이 중국으로 귀속된 역사는 명확히 드러나 있지만 한반도로부터의 이동과 정착의 양상 등이 추상적으로 나타나 있다. '조선민족 문화의 계승과 수용'의 측면에서 조선민족 문화의 역사성은 해방 이전의 문학, 민족 문화 등을 통해 드러내며, 조선민족 문화의 공유 양상은 해방 이후 북한 및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 드러난다. 구판에서는 반제·반봉건 지향의 사회주의 이념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증명할 수 있는 다양한 해방 이전의 조선민족 문화를 수용하며, 조선민족의 문화를 가치 있는 것으로 표상했지만, 신판에서는 해방 이전의 작품이 대거 축소되었으며 가치보다는 지식의 차원에서 조선민족의 문화가 다루어지고 있다. 구판에서는 북한과 한국이 중국 조선족과 고국, 과거와 현재의 유사한 세대 등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신판에서 북한과 한국에 대한 문화적 배경 없이도 이해 가능한 작품이 수록되며 중국 조선족과의 공유 가능한 지점이 축소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주제어** 조선어문교육, 중국 조선족, 조선어문 교과서, 민족 정체성, 중국 소수민족 교과서 정책, 푸통화(普通話), 항일전쟁, 모빌리티, 조선민족 문화

#### 〈목차〉

1. 들어가며
2. 조선어문 교과서의 담론적·정책적 배경
3.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표상의 변화 양상
4. 나오며

### 1. 들어가며

조선족의 위기 대응의 역사 속에서 구심점 역할을 한 것이 조선족 교육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1920~1930년에는 일제의 황민화·우민화 정책에 대응하여 동북3성 지역에 반일애국 사립학교교육이 부흥했다. 교육을 통해 민족의 말과 글을 수호했던 것이다. 또한 해방 후에는 자치주 내에서 소수민족 언어 사용과 교육

1) 정미량,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 그 지속과 변화—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조선족 소학교(1945-2009)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3(1), 한국교육사학회, 2010.

의 권리를 획득하여 민족 문화교육이 활성화됐다. 1949년에는 소수민족 최초의  
 고등교육기관인 연변대학이 설립된다. 문화대혁명 시기에 민족어문 교육 사업  
 이 전면적으로 폐기되면서 조선족의 민족교육은 크게 위축되었으나 1980년대  
 이후 추진된 소수 민족교육진흥정책에 의해 다시 활성화되었다. 개혁개방 이후  
 나타난 도시화 현상으로 조선족 학교가 통폐합되는 등의 위기를 겪고 있으나 산  
 재 지구에서 새로운 조선족 교육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임  
 을 만들고 있다.<sup>2)</sup> 이처럼 부침 속에서도 민족교육을 통해 민족어와 민족 문화  
 를 계승하면서 조선족 사회는 민족 동화 현상을 적극적으로 저지해 왔다.

그런데 최근 시진핑 집권기에 강조하고 있는 민족 단결 정책의 영향 속에서  
 조선족 교육의 새로운 위축 현상이 감지된다. 중국 정부는 ‘푸통화(普通話)’, 즉  
 현대 중국 표준어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2035년까지 전국에서 푸통화를 사용  
 하는 것을 목표로 소수민족 학교에서도 소수민족용 중국어 교과서가 아니라 중  
 국 인민교육출판사가 제작한 중국어 표준 교재인 ‘어문’(국어) 교과서를 채택하  
 도록 하고 있다. 기존에는 조선족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조선족의 민족 문화가  
 포함된 내용이나 조선어를 병기한 형태로 연변교육출판사가 제작한 ‘한어’(중국  
 어) 교과서가 사용됐다. 교과서 명칭 변화(한어/중국어→어문/국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책은 모국어로서 중국어의 위상을 공고히 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대학입시에서 소수민족 가산점 제도를 폐지하는 중국 내 지역들이 확대  
 되는 추세와 맞물리면서, 조선족 학교에서 수학, 역사 등의 교과서를 중국어로  
 된 표준 교재로 채택하는 경향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조선어문 교과서는 여전히 연변교육출판사가  
 만들고 출판하면서 굳건한 위치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2021-2022년에 출판된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전에 없던 새로운 속표지가 삽입  
 된 것이 눈에 띈다. 교과서 차례 앞에 “우리나라는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통일  
 된 다민족국가입니다.”로 시작되는 짧은 글이 모든 교과서에 일괄적으로 수록되

2) 박초영, 「조선족 디아스포라 정체성 교육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  
 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재외동포와 다문화』,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9, pp.235-246.

어 있다. 이 글은 “중화민족대가정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국가통용문자”인 중국어를 “우선적으로” 학습하고, 조선어문도 학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푸통화 정책의 영향을 단적으로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는 최근 출판된 조선어문 교과서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

조선족의 교육위기에 관한 연구들이 이미 많이 축적되었다. 다만, 가시적인 요인(연변 자치주 내 조선족의 (학령)인구 감소, 한족 학교로의 진학 증가, 조선어문 교사 부족, 한어와 조선어의 이중언어 사용 실태 등)을 중심으로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거시적인 연구들은 민족교육으로서 조선족 교육의 위상을 총체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sup>3)</sup>, 조선어문 교수·학습 과정에서 비롯되는 조선족의 교육 위기와 대응 양상을 살펴보는 데는 한계가 있다. 특히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형성이라는 조선족 교육의 기능이 축소되는 위기 현상은 미시적인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반면에 조선어문 교과서를 매개로 한 연구들은 텍스트와 교육 목표 등을 바탕으로 조선어문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방향을 파악하도록 돕는다. 특히 조선어문 교과서의 텍스트 선정 및 구성을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의 위기, 조선족 사회의 변화와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sup>4)</sup>나 조선족의 복합적인 정체성, 조선어문교육에 대한 역할을 조선어문 교과서 구성과 관련지어 분석한 연구<sup>5)</sup>, 조선어문 교과

- 3) 리광일, 「연변 조선족 중학교 조선말 교육의 실태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6(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박금혜, 「조선족중소학교에서의 민족 정체성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대안모색」, 『역사문화연구』 41), 한국의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2012. 김혜영, 「연변조선족사회와 민족교육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사상연구』 28(1), 한국교육사상학회, 2014. 임형재·김효신, 「중국의 이중 언어 정책의 변화와 민족 학교 중국어 교수의 도입」, 『국제어문』 65), 국제어문학회, 2015. 김영수, 「조선어문 교육과 사용의 현황과 과제」, 『중국조선어문』 2015(1),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5. 등
- 4) 김경훈, 「조선족 초중 <조선어문> 교재 연구-소설과 시 교육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황규수, 「中國 朝鮮族 「조선어문」의 南北韓 小說 受容 樣相과 統合 「국어」 編纂의 한 方案 考察」, 『어문연구』 3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등
- 5) 김영, 「중국 조선족 중학교 문학교육 현황 고찰-『조선어문(新編, 2014~2016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오현아·오지혜·진가연·신명선, 「제의동포 현지 교과로서의 ‘조선어’ 교과의 복합적 위상 분석 연구를 위한



서의 변화를 분석한 연구<sup>6)</sup> 등은 조선어문 교과서를 통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의 변화와 위기를 분석할 수 있는 유용한 접근법을 제시해준다. 다만, 이들 연구는 조선어문 교과서와 교육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가 목표이기에,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은 조선어문 교과서 구성의 외재적인 변인으로 다루어진다. 그러나 중국 조선족 사회에서 조선어문교육의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조선어문 교과서와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은 상호 영향 관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조선어문 교과서가 교수·학습 실천을 통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형성 및 변화를 추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선어문 교과서에 수록된 작품과 소재, 표현, 관점 등은 문제적일 수 있다.<sup>7)</sup>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선어문 교과서 전체의 장르별, 작품별 수록 양상 전체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면서도 재구성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제재, 내용을 중심으로<sup>8)</sup> 2021-2022년에 출판된

시론, 『국어국문학』(177), 국어국문학회, 2016. 등

- 6) 황규수, 「북한 고중 『국어』 및 『문학』과 중국 조선족 『조선어문』 수록 시의 비교 고찰」, 『새국어교육』(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이영태·박향란, 「중국 조선족 고중(高中) 신편(新編) 《조선어문》 소재(所載) 고전시가의 양상과 특징 - 〈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8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임질성·류마리아·元愛蓮, 「2014년 심사 전후 『조선어문』 어휘의 계량언어학적 비교 연구 - 조선어 교육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3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등
- 7) 이홍매(2012)에서는 조선어문 교과서에 수록된 “조선족 소설 작품에서마저 ‘조선어 구어’를 기피 대상으로 하고 대화에서 한국어 어투를 사용하는 것은” 조선족 학생들로 하여금 “조선어에 대한 자긍심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선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p.488)라고 보았다. 이러한 접근에는 조선어문 교과서의 구성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력이 전제돼 있다. 이홍매, 「중국 조선족 문학교육 연구 - 조선족 초급중학교 『조선어문』에 수록된 조선족 작품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 8)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나타난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을 두 가지 범주에서 분석하였다. 하나는 조선족(인)이 중국 등으로 이주하고 그곳에서 거주한 역사를 표상하는 부분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족의 뿌리인 조선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수용하는 양상 부분이다. 중국 국민으로서의 정당성 확보 문제, 중국 내 다른 민족과의 차별점, 조선족의 문화적 연속성, 한국 및 북한과의 관계 문제 등이 이들 두 범주의 표상에 관여한다. 또한 이 두 범주는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에 모두 존재하면서도, 그 표상 방식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조선어문 교과서와 2007-2011년에 출판된 초중(중학교)과 고중(고등학교) 조선어문 교과서<sup>9)</sup>를 비교하고자 한다.

## 2. 조선어문 교과서의 담론적·정책적 배경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다양한 민족 정체성 표상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담론이 형성된 맥락과 최근의 조선어문 교과서 정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9) 이 연구는 2021-2022년에 출판된 조선어문 교과서의 특성을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위기의 측면에서 조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다만 현재의 위기는 과거의 비교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는 지점이 있기에 2021-2022년 판을 2007-2011년 판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것은 초중(중학교)과 고중(고등학교) 조선어문 교과서이다. 고중은 필수와 선택 가운데 필수로만 한정하였다. 비교 지점으로 삼은 2007-2011년은 소수민족 정책적 측면, 조선족 사회의 측면, 조선어문교육의 사적 측면에서 유의미한 시기이다. 이 시기는 후진타오 집권 후기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을 앞두고 중국 문화(소수민족 문화 포함)의 세계화가 강조됐다. 또한 이 시기는 한중수교 이후 10년 이상 지난 시기로서, 조선족 사회 구성원이 조선족 사회의 위기를 종합적인 시선으로 성찰하고 인식하는 것이 가능해졌던 시기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2007-2011년은 조선어문 교육의 체계화가 단행됐던 시기이기도 하다. 2004년에는 중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의무교육조선족학교 조선어문과정표준』이, 2007년에는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조선족고급중학교 조선어문과정표준』이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이 교육과정 개편은 두 가지의 큰 맥락 속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중국이 2004년부터 펼쳤던 신과정개혁(新課程改革) 정책의 일환이라는 점이다. “몇몇 과목의 편중에서 벗어나는 것과 선택과목의 배정, 그리고 학생 소질평가의 대학입시 반영” 등의 지향점을 강조했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선어문》 교과서 소재 시가에서 중국문학, 한국문학, 외국문학의 작품 수의 증가와 장르의 확장으로”(이영태·박향란, 2010: p.209) 나타나기도 한다. 다른 하나는 한국과의 교류이다. 이 교육과정에는 한국의 7차 교육과정(1997년)을 참고해서 만들었음을 밝히고 있으며, 실제 구성상에서도 유사점이 발견된다(김기창·정상섭, 2011). 소련·북한과의 친연성 속에서 이루어졌던 조선어문교육은 2004년을 기점으로 중국, 한국, 북한 등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민족 정체성 표상의 과제를 수행해야 했다. 2007-2011년 교과서가 역동적인 관계 속에서 발산적으로 민족 정체성을 표상한 산물이라면, 2021-2022년 교과서는 중국 정책 등의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민족 정체성을 수렴적으로 표상한 산물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런 공통점과 차이점의 측면에서 두 시기의 교과서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이영태·박향란, 앞의 글, 2010. 김기창·정상섭, 「조선족 소학교 국어 교육과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육의 비교 연구(1) -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1)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담론의 자장과 조선어문 교과서의 특수성

조선족의 정체성은 이중성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이중성 논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2000년대에 나타났던 조성일 선생과 황유복 선생의 논쟁이다. 조성일 선생은 조선족을 “중국 국민이며 중화민족의 구성원으로서 조선반도의 국민과 동일선상에 있는 조선민족”<sup>10)</sup>이라고 정의하고, 황유복 선생은 조선족을 “조선민족집단(族群)의 한 부분에 소속되며, 우리는 중국국적을 가진 중국 소수 민족의 일원”<sup>11)</sup>이라고 정의했다. 전자가 국가와 민족의 두 가지 범주를 나누고 이를 같은 선상에서 논의하며 조선족의 이중성으로 설명하는 반면 후자는 국가와 민족을 상위와 하위의 관계로 논의하며 이중 범주가 아니라 중국의 국가라는 하나의 범주에 귀속된 소수민족으로 설명한다.<sup>12)</sup>

추후 진행된 여러 연구에서는 이러한 이중성이 병렬이나 귀속의 관계로 해소되지 않는다는 점이 전제됐다. 병렬, 공존의 관점은 통합과 분리라는 두 가지 방향에서 확대되며 새롭게 규정되어 왔다. 우선 통합의 관점에서는 국가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이 다른 데서 발생하는 이중성은 조선족 사회의 발전과 성장을 위해 유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관점에서 나온 것이 조선족문화를 ‘변연문화’, ‘다원화된 문화’, 북한과 한국의 ‘문화중개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중국 조선족은 중국에 거주하지만 조선 문화적 요소로 인해 중국 한족의 문화와도 다르고, 중국 문화적 요소로 인해 다른 한민족들과도 다른 정체성을 형성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느 쪽에 비중을 두는가에 따라서 통합 논의는 달라질 수 있다. 한반도와의 교류를 활성화하면서 중국 내에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둔 통합 전략이 될 수도 있고<sup>13)</sup>, 조선족 사회의 개방을 가속화하면서 민족 정체성의 순수성을 고집하기보다는 중국문화 습득의 필요성

10) 조성일, 2009, “조선족과 조선족문화의 이중성 재론,” <http://koreanc.com/xyy.asp?idx=3897>, 검색일자: 2011.10.17. 강진웅, 「디아스포라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종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46(4), 한국사회학회, 2012, p.113 재인용.

11) 황유복, 〈조선족정체성에 대한 담론〉, <http://www.kywf.com/blog/read/huangyoufu/62956/0/0>, 2009.8.31. 검색일자: 2022.6.12.

12) 강진웅, 앞의 글, pp.113-114.

13) 김호웅,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연구』 29, 한중인문학회, 2010.

을 역설하는 통합의 전략이 될 수도 있다.<sup>14)</sup> 이처럼 조선족 사회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 문화적 이중성을 통합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통합의 담론에서 민족 정체성의 위상은 달라질 수 있다.

분리의 관점에서는 조선족 정체성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민족 정체성과 호환할 수 없는 개별성과 독립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이런 관점에서는 “남북한을 통합하고 한반도를 넘어 탈영토화된 종족을 포괄”하는 대범주의 민족 개념과 달리 “중국 국가/국민 정체성의 귀속과 이로 인해 한민족의 범주에서 분리된 모순된 상황에서 조선족만을 의미하는”<sup>15)</sup> 소범주의 민족 개념으로 조선족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는 한국과 조선족을 같은 민족 혹은 한반도의 문화가 이식돼 형성된 민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형성한 특수성의 측면에서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한편 중국의 국민 정체성과 조선족의 정체성 사이의 관계에 주목한 관점도 있다. 조선족은 중국이라는 국가에 속해 있기에 국가와 종족<sup>16)</sup> 사이의 역동성,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조선족의 정체성을 “중국 국가에 의해 부여된 종족성에 근거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성의 경험을 선별하고 의미를 전환 시키면서”<sup>17)</sup> 형성해 온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에 끼치는 국가의 영향력을 단선적으로 상정하지 않고, 조선족의 선택과 결정, 조선족 사회 내부에서 종족성에 대한 다양한 위상 부여 등을 통해 국민 정체성과 조선족의 정체성을 ‘상호 긴장 관계’에서 보는 것이 가능하다.<sup>18)</sup> 한편 국민

14) 김강일, 「조선족사회 문화성격과 민족 정체성」,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평화변영과 재외한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3.

15) 강진웅, 앞의 글, pp.101-102.

16) 종족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은 모두 ethnic group, ethnic identity로 표기된다. 다만 이 둘을 구분해서 쓰는 연구들에서 보면, 후자가 민족국가 단위에서 논의되는 민족 정체성이라면, 전자는 민족의 단위와 국가의 단위가 불일치하는 상황에서 모색되는 민족 집단의 독자적인 정체성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17)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p.63.

18) 강진웅, 앞의 글, pp.117-124.

국가의 경계에 얽매이지 않고 조선족의 정체성을 확대하는 관점도 존재한다. 세계화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며 새로운 삶의 패턴을 형성한 조선족을 ‘글로벌 조선족’, ‘동아시아 조선족’<sup>19)</sup>이라고 명명하는 것이다. 폐쇄된 민족 정체성의 프레임에서 조선족을 보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지역과 생활공간을 초월한 문화적 공동체의 형성 가능성”<sup>20)</sup>을 접치는 것도 가능하다.

조선어문 교과서에 표상된 조선족의 정체성은 앞서 살펴본 조선족 정체성 담론의 자장에 있지만, 그 특수성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

첫째,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은 한반도의 국민국가 단위에서 모색되는 민족 정체성과 변별되면서도 혼호한다. 조선족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 혹은 북한이라는 한반도에 존재하는 국민 국가와의 관련성에서 벗어나 그 독자성을 읽으려는 지향과 한민족 공동체로서 조선족과 한반도 문화의 공통성을 찾으려는 지향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둘은 사실 엄격한 의미에서 분리되기 어렵다.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조선민족의 문화, 혹은 조선족으로 편입되기 이전의 역사·문화가 나타나고, 이는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조선족의 독특한 정체성을 표상하는 기호체가 되기도 한다. 조선족과 한반도의 민족이 공통의 문화 자원을 공유하더라도 조선족이 그 가운데 선별하고, 재해석하고, 조직해서 드러내는 민족 정체성은 조선족에 의해 변용된·구성된 민족 정체성이며, 이는 중국 내에서 그들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한 일면이 된다. 물론 조선족의 정체성은 국민 정체성,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의 일면과도 상호작용하기 때문에 민족 정체성만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온전히 해명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이런 이유로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을 한반도와 동일화하거나 혹은 절연시키는 관점은 지양돼야 할 것이다.

둘째, 조선어문 교과서는 민족의 언어문화 교육이라는 목표를 지니면서도, 국민 정체성 형성이라는 목표를 지니는 국정 교과서라는 점 때문에 국민 정체성과

19) 최우길, 「조선족 정체성 다시 읽기: 세 차원의 의식에 관한 시론」, 『재외한인연구』 (34), 재외한인학회, 2014, pp.118-122.

20) 허명철, 「조선족공동체와 정체성의식」, 『통일인문학논총』 (52),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p.316.

민족 정체성의 역학 관계가 나타난다. 중국 조선족은 조선어문 교과서를 통해 중국 국민 공동체로서의 보편성을 입증해야 하며, 다른 민족과의 관계 속에서 민족 정체성의 특수성을 구체화하기도 하며, 중국 국민 정체성이 허용·요청하는 범위 안에서 민족 정체성을 선별하거나, 이질화된 민족 집단과의 관계 속에서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구성하거나, 때로는 국민 정체성과 배치되는 민족 정체성을 표출하기도 하는 등 역동적인 양상이 나타난다. 이 때문에 국민 정체성과 민족 정체성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로 나타난다. 민족 정체성이 국민 정체성으로 대치되거나, 국민 정체성의 틈새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혼성성으로 민족 정체성이 나타나기도 하고<sup>21)</sup>, 중심과 주변의 관계 등으로 공존할 수도 있다. 이러한 관계성에 주목해서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이 국가 정체성과 타협하거나 경합, 경쟁하는 양상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셋째,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민족 정체성은 변화한다. 조선어문교육은 조선족 사회에서 민족 정체성 유지와 수호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 때문에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문화 역시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기가 쉽다. 그러나 “특정한 시·공간에 머물지 않고 구체화되고 활성화된 기억”<sup>22)</sup>, “새로운 정치적 공동체를 향한 지향”<sup>23)</sup>으로서 중국의 동북 지역 조선인, 조선족이 겪은 역사와 문화, 그리고 해방 이전의 문학, 문화 등은 현재의 시점에서 다양하게 변주되며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수록된 작품의 목록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은 작품도 어떠한 학습활동과 목표, 해당 시기의 공통적인 지향 속에서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민족성을 표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sup>24)</sup>

21) 윤의섭, 「1950-60년대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27,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박지혜, 「윤림호 소설의 민족의식 표출양상과 의미」, 『현대소설연구』 (33),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22) 김은영, 「중국 조선족 시 작품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8), 한중인문학회, 2006, p.176.

23) 이성천, 「중국 조선족 문학에 ‘고향’과 ‘민족’의 표상-해방기와 건국시기 리옥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p.357.

24) 이 연구가 더욱 발전되는 데 필요한 것은 양상 확인을 넘어서,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

(2)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 소수민족 교과서 정책

시진핑 집권 이후에는 국가통합 차원에서의 민족대단합이 전면 강화되었다. 시진핑 정부의 국정 장기 목표인 ‘중국몽’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실현은 56개의 민족을 중국 영토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민족 즉, ‘중화민족’으로 단결시키는데 달려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 문화, 사회 전 분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sup>25)</sup> 공고화를 위한 ‘사회주의 핵심가치관’<sup>26)</sup> 사상학습이 강화되었고, 교육 정책에서도 이념 학습과 애국심 고양이 강조되고 있다.<sup>27)</sup> 그런데 교육 측면에서 또 한 가지 주목되는 것은 소수민족지역의 민족어로 된 자체 교과서 관리와 ‘푸통화’ 교재 사용 확대, ‘삼과통편교재’의 점진적 사용을 골자로 하는 교과서 제도 개혁이다.

다민족 국가인 중국에서는 민족어교육이 실시되어왔다. 민족자치와 함께 중국 소수민족 정책의 주요 성공 요인으로 평가되는 민족어교육은 민족어 보존은 물론 소수민족의 민족 정체성을 발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차원에서는 다양한 언어로 출판되는 교과서들을 일률적이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가통용문자인 ‘푸통화’ 보급에도 걸림돌이 될 수

---

에 대해서 해석하는 일일 것이다. 조선족 교육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에 대한 심층 인터뷰가 뒷받침된다면, 조선족이 지닌, 국민 정체성으로의 동화에 대한 욕망이나 우려 등에 대한 다양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교과서의 작품과 학습활동 등을 위주로 그 변화 양상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어, 변화의 의미를 심층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미치지 못했음을 밝혀 둔다.

- 25) 시진핑은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확고히 주조할 것(鑄牢中華民族共同體意識)”을 제기했고,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은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서와 당헌에 공식 기록되었다. 이후 민족사업과 관련된 크고 작은 행사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중화민족 공동체의식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는 시진핑의 발언이 반복됐다.
- 26)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은 시진핑 집권을 알리는 제18대 전국대표대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중국식 사회주의 가치관으로 총 12개의 가치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부강, 민주, 문명, 조화의 ‘국가 가치관’, 자유, 평등, 공정, 법치의 ‘사회적 가치관’, 애국, 직업정신, 성심과 신용, 우호의 ‘개인적 가치관’으로 분류된다.
- 27) 시진핑 정부 1, 2기의 전반적인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는 공봉진, 김창경, 「시진핑 시대 중국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6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참고.

밖에 없었다. 교과서 체계 개혁의 필요성은 시진핑 집권을 알리는 당 18대 이후 중대 사안으로 떠올랐고 2017년 교육부 교재국(教材局)과 교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이후 2019년에는 교육부에서 <초중등 교재관리방법(中小學教材管理辦法)>을 내놓았고, 같은 해 국가교재위원회는 소수민족 지역 내 국가통용어 교재사용의 점진적 추진과 ‘삼과통편교재’ 사용 시기를 규정 한 내용이 담긴 <전국 대중소 교재건설계획(2019-2022)>(이하, 계획)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다. 소수민족지역 내 교과서 사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초중등 소수민족언어 교과서 관리가 강화되었다. 2021년 교육부가 반포한 <초중등소수민족문자교재관리방법(中小學少數民族文字教材管理辦法)>에 따르면, 민족언어 교재 편찬의 총괄, 지도, 관리, 감독을 교육 행정부가 주관하여 통일적으로 기획하고, 소수민족 어문교재 및 기타 과목의 번역(편역)판 교재 심사 또한 통일적으로 조직한다. 특히 개정판 편찬과 번역(편역)에서는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교과서에 융합하고, 중화민족의 공통 역사를 구현한 전형적 인물과 생생한 이야기를 발굴, 각 민족의 선생님과 학생들이 올바른 국가관·역사관·민족관·문화관·종교관을 확고히 확립하도록 교육하며, 위대한 조국, 중화민족, 중화문화, 중국공산당, 중국특색사회주의에 대한 공감대를 끊임없이 증진해야”하고(3장 9조), “소수민족의 어문교재는 중앙의 교육 공작과 민족공작에 관한 최신 정책 결정과 통편어문교재(統編語文教材) 개정 주기에 따라 즉각 수정되어야 한다.”(12조)<sup>28)</sup>고 적시하고 있다.

둘째, ‘삼과통편교재(三科統編教材)’ 편찬과 소수민족지역으로의 확대 적용이다. 이번 교과서 개혁의 핵심은 소수민족 지역에서의 ‘푸통화’ 교재 보급과 특히 ‘삼과통편교재’ 사용에 있다. ‘삼과통편교재’란, 도덕·법치(고교는 사상·정치), 어문, 역사, 이 세 과목의 교과서를 국가가 통일적으로 편찬한 국정 교과서를 일컫는다. 교육부는 2012년부터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편찬한 도덕·법치, 어문,

28)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教育部關於印發《中小學少數民族文字教材管理辦法》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2110/t20211015\\_572561.html](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2110/t20211015_572561.html).  
검색일자: 2022.06.18.



역사 교과서를 2017년부터, 일반 고교에서는 2019년부터 사용해왔다. 소수민족 지역에서도 2019년 발표된 <계획>에 따라, 국가통용언어 교재의 단계적 사용이 권고되었을 뿐 아니라 ‘삼과통편교재’ 사용 시기 또한 확정되었다. 기존에 소수민족지역에서는 교육부가 2013년 발표한 <민족중소학한어과정표준(의무교육)>에 따라 민족어를 ‘어문’ 즉, 모어로 배우고 푸통화는 ‘한어’ 즉, 제2언어로 학습해왔다. 그러나 <계획> 실행에 따라, 현재 전국 11개 민족성(자치구)에서 통편교재 사용을 점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조선족이 집거한 헤이룽장, 지린성은 2020년 가을학기부터 채택하고 있다.<sup>29)</sup> 소수민족지역 내 통편교재 사용 시행 이후, 지역 내 반응과 개선책을 제시하는 기사와 연구들이 나오고 있다. 한 예로, 중국교육신문에 실린 <국가통편교재가 민족지역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한다: 관련 민족성(자치구)에 기초한 조사연구>는 민족어로 된 교재와 통편 교재를 비교하며, 민족어 교재의 집필 수준이 낮고 시대정신의 변화와 새로운 교육 이념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오히려 민족교육의 질적 향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필자가 근거로 든 교재의 작품 선택에서 경전성이 부족하고 그 민족의 민간 고사와 전설이 시대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은 그 평가 기준이 모호해 설득력이 떨어진다.<sup>30)</sup> 또한 ‘삼과통편교재’의 경우, 국가 이데올로기적 특징이 강한 사상, 역사, 어문 세 과목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 외에 ‘중화민족공동체의식’을 주조한 국민 만들기의 사상 강화 목적이 깔려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이처럼 시진핑 집권기 전격 추진된 교과서 제도 개혁은 민족어 교과서 입지를 축소시켜 소수민족 정체성의 유지, 보존 측면에서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선족의 경우에도 어문 교과서 교육은 지속되고 있지만, 본고에서 다루는 2007-2011년 판과 2021-2022년 판의 제재, 내용 변화 분석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민족어 교육의 명맥을 이어갈 뿐 민족 고유의 정체성 표상은 희미해져

29) 中國教育新聞網, <國家統編教材助力民族地區教育質量提升—基於相關民族省(自治區)的調研>, [http://www.jyb.cn/rmtzcg/xwy/wzxw/202206/t20220614\\_697085.html](http://www.jyb.cn/rmtzcg/xwy/wzxw/202206/t20220614_697085.html), 검색일자: 2022.04.16.

30) 위의 기사.

가고 있다.

### 3.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 표상의 변화 양상

#### 1) 조선족의 이주와 거주역사

##### (1) 민족 정체성과 국민 정체성의 길항 관계: 항일전쟁

중국 거주 조선인은 일제로부터의 독립·해방을 쟁취해야 하는 조선민족의 사명을 중국 내에서 수행해야 했기 때문에 한반도 조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항일전쟁의 목적과 실행 전반에서 개입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은 중국 조선족이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항일전쟁 역사를 통해 중국 국민으로의 위상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1910년 국권피탈 이후 동북 지역을 근거지로 한 항일투쟁의 역사 가운데서도 1930·40년대에 중국공산당과 조직적으로 연합전선을 구축하여 활동했던 동북항일연군과 조선의용군의 활동을 중심으로 중국 조선족의 항일전쟁사 역사가 형상화되는 것이다.<sup>31)</sup> 중국 조선족에게 항일전쟁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중국 국민성과 조선민족으로의 민족성의 관계 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조선어문 교과서의 구판(2007-2011년 판)과 신판(2021-2022년 판) 모두 항일전쟁을 제재로 하거나, 항일전쟁에 관한 서술을 일부 담고 있는 텍스트들이 [표 1], [표 2]<sup>32)</sup>와 같이 존재한다. 항일전쟁 서술 전체의 분량에 대한 비교가

31) 최병우(2009)에서 조선족은 조선족의 정체성 형성을 위해 항일 투쟁의 역사를 서사화하는 전략을 취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는 “그들 자신의 체험을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망각함으로써 그들의 역사를 만들어 민족 정체성을 획득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p.513)” 최병우,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 (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pp.511-514.

32) [표 1]~[표 16]에서 교과서는 의무교육조선족학교교과서(중학교에 해당)의 경우 7~9학년의 숫자와 상·하로 구분하고, (필수)조선족고급중학교교과서(고등학교에 해당)의 경우 1~4권의 숫자와 '고'의 약자로 구분하였다. 또한 [표 1]~[표 16]에서 목록화한 글들은 제목과 주제의 측면에서 적합한 작품뿐만 아니라, 글 전체의 내용 가운데 일부라도 관련된 서술이 있는 경우와 암시적으로 해당 내용을 표상하고 있는 경우 등을 폭넓게 포함했다. 또한 전문 작가뿐만 아니라 교과서에 예문으로 실린 학생 작품, 작가명이 명시되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판에서는 항일전쟁이 다양한 종류의 텍스트에서 자주 노출되고 있다.

중국 조선족의 정체성을 표상하는 매개물로서 항일전쟁의 표상 양상을 분석하고자 할 때 주요한 기준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는 항일전쟁에서 아군으로 포함되는 집단들이 누구이며, 아군들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이다. 다른 하나는 항일전쟁의 정당화 논리로서 항일전쟁의 목적과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이다. 중국 내 항일전쟁은 다양한 민족과 이념이 다른 집단들이 연합하기도 했기 때문에 아군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아군으로 연합하게 하는 어떤 논리가 필요했다.

〈표1〉 항일전쟁(2007-2011년)

구분	작가	국적	작품
8-상	조기천	북한	영남이
8-상	김통익	북한	눈빛
9-상	조성일	중국 조선족	민요 "아리랑"
고-3	김효용	중국 조선족	불굴의 투혼- 김학철선생
고-4	임범송	중국 조선족	자연미의 민족 색채

〈표2〉 항일전쟁(2021-2022년)

구분	작가	국적	작품
7-상	손리	중국	백양전에서
7-상	빙심	중국	조그마한 굴등
7-하	류정일	중국	로산계
8-상	-	-	목단강에 몸을 던진 여덟 너 용사
8-하	리실	중국 조선족	벗을 사림에
고-1	손리	중국	련꽃늪
고-3	모순	중국	풍경이야기
고-3	진목	중국	땅
고-3	리성권	중국 조선족	태항산맥은 바 래지 않다
고-4	임범송	중국 조선족	자연미의 민족 색채

않은 작품, 설명글, 기사문 등도 포함했다. 작가의 국적은 교과서에 명시된 대로 분류하되,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맥 혹은 외부 정보를 동원해 추측할 수 있을 때는 국적을 표기하되 괄호로 처리하고, 어려울 때는 '-'으로 표기해 비워두었다. 중국 조선족의 국적은 중국이지만, 별도의 주목이 필요한 대상이기에 '중국 조선족'으로 표기하여 변별하였다. 그리고 북한의 경우 교과서에는 '조선'으로 표기되어 있으나 해방 전의 조선민족 문화와 겹쳐서 의미가 혼동되기 때문에 '북한'으로 표시하였다.

첫째, 아군의 표상이다. 구판에서 조선민족 이외에 다른 아군의 형상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영남’, ‘철호’(<영남이(백두산)>), 처녀유격대원 ‘무명 씨’와 ‘장숙’(<눈빛>), ‘연변조선족인’(<자연미의 민족색채>)이 등장한다. 반면 신판에서는 조선민족이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는 항일전쟁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그 양상은 다양하다. 우선, <벚을 사궂에>, <목단강에 몸을 던진 여덟 녀용사>, <자연미의 민족색채>의 경우 독자가 작품 외적으로 조선족을 연상시킬 수 있는 정보(작가가 조선족이거나, 조선족(인)이 포함된 팔녀투강(八女投江)에 대한 지식 등)를 바탕으로 텍스트의 내용, 주로 상징적인 진술과 관련 지어 조선족(인)의 항일전쟁을 연상할 수 있다. 다음으로 <풍경 이야기>에서처럼 구체적으로 지칭되지 않은 소수민족 전체가 항일전쟁에 참여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련꽃눈>, <땅>처럼 소수민족과 관련 짓지 않고 항일전쟁을 중국 전체의 역사, 인민의 차원에서 서술하고 있는 예도 있다.

둘째, 항일전쟁의 목적과 의미이다. 구판에서는 한반도 ‘조국의 독립’과 제국주의에 대한 ‘국제주의적 항전’이라는 두 가지 의미역이 공존하며, 특히 전자가 분명하게 드러난다.<sup>33)</sup> 그래서 동료의 죽음 앞에 철호는 “끝까지 싸우라! 조선독립 만세!”(<영남이>)를 외치고, 김학철 선생은 일제에 “빼앗긴 조국”을 되찾기 위해 항일투쟁에 투신한다.(<불굴의 투혼>) 북한 지역의 조선어를 사용하는 항일유격 혁명 동지 ‘장숙’의 비극적 죽음과 거룩한 희생이 그려진다(<눈빛>). 한편, 구판에서는 항일전쟁이 제국주의에 대한 혁명적 계급 전쟁이자, 피압박 민족의 전쟁이라는 의미도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정의전쟁’에 대한 서술 부분이 그렇다. 8학년 상권 제2단원의 단원학습 안내 부분에는 정의적인 전쟁과 비정의적인 전쟁이 구분되어 있다.(p.48) 이러한 구분은 중국공산당의 지도권이 모택동으로 바뀐 뒤, 강조된 정의(正義)전쟁론과 궤를 같이한다. 이 논의에 따르면 정의의 전쟁은 일제의 진보를 저해하는 행위에 저항하며 한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의 영구적 평화를 추구하는 전쟁이며, 모택동은 항일전쟁을 정의전쟁으

33) 중국 조선족 작가인 조성일이 쓴 <민요 “아리랑”>에서는 일제강점기에 창작된 신아리랑을 설명하면서, “전통적인 애정주제와 항일투쟁의 주제를 재치있게 결부시”(p.179)했다고 적고 있다. 항일투쟁이 조선민족의 문화 양식으로 노래된 것이다.

로 격상하면서 “중국 자신의 민족혁명전쟁은 물론이고 이를 지원하는 제3국의 전쟁도 정의전쟁에 포함”한다.<sup>34)</sup> 구판의 항일전쟁 관련 글에서는 ‘조국으로의 조선’과 조선의 독립이 우선적으로 분명히 표시되면서도 국제주의적 차원에서 항일전쟁의 당위성이나 항일전쟁과 공산주의 이념의 친연성이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신판에서 항일전쟁은 국제주의와 애국주의의 차원에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건이 항일전쟁은 중국공산당이 영도했던 전쟁이라는 점이다. 〈백양전에서〉, 〈목단강에 몸을 던진 여덟 녀용사〉, 〈태항산맥은 바래지 않다〉의 시작 부분에는 해당 글을 통해 성취해야 하는 목표와 배경 지식 등을 전달하는 소개글이 있는데 이곳에서 항일유격투쟁과 동북항일연군의 항일전쟁을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전쟁이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국제주의의 맥락에서 항일전쟁은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피압박민족, 세계 인민의 해방을 위한 연대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목단강에 몸을 던진 여덟 녀용사〉의 글에서 여덟 용사의 민족명이 노출돼 있지는 않지만, ‘안순복’과 ‘리봉선’이 조선족(인)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이 글의 본문에서는 “조국과 독립을 위하여 전사하는 것”을 동북항일연군의 영광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때의 독립은 한반도 조선 혹은 피압박 민족의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겠지만, ‘조선’의 독립임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오히려 전사의 순간 동북항일연군은 “제국주의를 타도하자!”를 외치며, 〈국제가〉를 합창한다. 세계반파쇼전쟁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항일전쟁 참여의 의미가 설명되는 것이다. 구판에서는 아군에 조선인 이외의 다른 민족의 흔적을 발견하기가 어려웠지만, 신판에서는 아군에 조선인을 특별히 드러내기보다는 다양한 민족이 함께 하는 모습을 드러내 국제주의적 항전의 의미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다음으로 중국공산당이 영도하는 애국주의의 맥락에서 항일전쟁은 설명된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국토, 땅에 대한 보위 의식이 나타난다. 제국주의자들과 싸운 중국의 민족영웅들은 “한치의 땅이라도 침범당해서는 안될”(p.120), “자기의

34) 유용태, 「현대중국의 正義戰爭論의 형성과 전개—항일전쟁에서 항미전쟁까지—」, 『중국 근현대사연구』 (92), 중국근현대사학회, 2021, p.98.

육신처럼 귀중한 조국의 령토”(p.120)를 수호하려고 했고(〈땅〉), 중국의 소수민족은 각자 다른 풍습을 지니면서도 중국 영토와 하나가 되어 조화롭게 살아가며 이들은 “항일전쟁시기에 국내 각 민족이 단결하여 항일하는”(p.40) 내용을 담은 영화 〈변강의 풍운〉의 잠정적 주인공이 된다(〈풍경이야기〉). 서로 다른 민족이더라도 이들은 혁명동지로서 조국을 수호한 ‘벗’(〈벗을 사귀에〉)이다. 적군인 일본군은 구체적인 생활 터전을 공격하고 훼손하며 인민들은 생활터전을 지키기 위한 항일투쟁을 벌인다.(〈백양전에서〉, 〈런꽃눈〉)<sup>35)</sup>

신판에 있는 글 가운데 조선인의 정체성이 명시적으로 드러난 〈태항산맥은 바래지 않다〉는 국토 의식의 측면에서 구판에 있는 항일전쟁 표상과 흥미로운 비교점이 된다. 우선 구판에서는 동북항일연군의 전투 가운데서도 보천보전투(〈영남이〉)를 배경으로 하지만, 신판에서는 호가장전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보천보전투는 동북항일연군 소속인 김일성 부대가 함경북도 보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전투로 알려져 있다. 보천보전투는 중국공산당이 확대 개편한 동북항일연군의 전투지만, 전투가 행해진 곳의 특성상 한반도 조선의 땅과 그곳에 살고 있는 인민들을 지켜낸 의미가 있다. 반면 호가장전투는 중국 화북지역 태항산 일대 호가장 지역에서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인 팔로군과 조선의용군이 연합하여 벌인 전투로서, 전투가 행해진 곳의 특성상 중국의 땅과 인민을 지켜낸 의미가 있다. “기념 장소는 대체로 기념 대상과 관계될 뿐만 아니라 기념 주체의 정체성과 해당 장소의 영토성을 확인시키는 장소로 선정된다.”<sup>36)</sup> 〈태항산맥은 바래지 않다〉에서 호가장 마을에 있는 조선족의 〈항일문학기념비〉와 그 근처에 있는 〈원시현애국주의교양기지〉 간판이 말해주듯이, 이 글에서 조선의용군의 헌신은 중국 인민을 보호하기 위한 애국주의 전쟁의 의미를 강력하게 지닌다.<sup>37)</sup> 신판에서 항일전쟁은 중국 지역에서 치러진 조선민족의 독립 전쟁이라는

35) 빙십의 〈조그마한 굴뚝〉과 류정일의 〈로산계〉는 항일전쟁을 소재로 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글의 소개 부분에서 글의 시대적 배경이나 내용을 ‘항일’을 관련 짓고 있다. 국민당의 부당함(‘소극적으로 항일’)과 공산당의 정당함, 정의로움(‘적극적으로 항일하기 위해’)이 대조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36) 김신정, 「윤동주 기억의 담론화 과정-연변의 집단 기억과 조선족 정체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1), 국제한인문학회, 2014, p.72.

의미를 상실한다.<sup>38)</sup> 신판에서 말하는 ‘조국’은 한반도 조선이 아니라 중국이며, 공산주의 이념과 국민 정체성의 차원에서 항일전쟁의 당위성이 명시적으로 설명된다.

(2) 조선족의 특수성: 모빌리티, 자생력과 자부심

조선족은 중국 내 다른 소수민족과 달리 월경(越境)과 천입(遷入)을 통해 유입된 민족으로 한반도에 조국이 있음에도 중국의 소수민족이 되었다. 조선족에게 모빌리티와 거주국에서 자생했던 능력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헤명하는 데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그리고 이는 중국 내 다른 민족과 다른 조선족의 고유성, 뛰어남을 설명하는 일과도 연결된다.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조선족의 모빌리티를 이동과 정착의 양상, 고향에 대한 인식, 최근 20~30년에 나타난 조선족의 해외 및 도시로의 이주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동과 정착의 양상이다. 구판에서는 조선족이 되기 이전 시기에 조선인이 동북지역으로 이동한 양상이나 이동의 경로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탈출기>에는 1920년대 간도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인의 기대와 그 기대가 좌절되고 빈곤이 지속되는 현실을 그리고, <불굴의 투혼>에는 김학철 선생이 한

37) 해방 이전의 조선의용군의 활동 목표를 중국의 애국주의의 맥락으로 치환하는 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 조선의용대 화북지대가 조선의용군으로 개편한 데는 “중국공산당의 지원과 협조를 바탕으로 그들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해방 후 독립 국가 건설에 대한 전망을 모색한다고 하는 조선의용대 창설 이래 한인 민족해방 운동가들의 숙원을 실현” (장세운, 2007: 67)하는 목표가 있기 때문이다. 해방 전까지 조선의용군은 “조국해방을 위해 무장 투쟁을 하는 항일무장투쟁 단체(조양환, 2018: 155)”로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다. 장세운,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 (4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p.67. 조양환, 「해방 후 (1945년 이후) 조선의용군의 정체성과 재만 조선인」, 『군사연구』 (146), 육군군사연구소, 2018, p.155.

38) 임범송의 「자연미의 민족색채」는 주의를 요하는 글이다. 제목과 필자는 바뀌지 않았지만, 세부 내용의 삭제와 수정이 빈번히 확인되기 때문이다. 구판의 글에서는 “장백산을 중심으로 이어진 장백산맥은 항일투쟁의 성지로, 근거지로 되어 혁명의 영웅업적을 남겼으며”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신판의 글에서는 해당 부분(항일 투쟁 관련 사실)을 삭제하였다. 그렇지만 구판과 신판 모두 “귀중한 청춘도 목숨도 바친 의로운 사람들의 피로써 붉어졌다는 진달래의 민족정신”라는 내용을 동일하게 담고 있어서 조선족의 역사로서 항일전쟁을 간접적으로는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반도의 원산에서 태어나 항일 운동을 위해 상해로 이동한 과정이 나타나 있다. <정관룡선생>에는 1931년에 전남 담양에서 태어나 1939년에 만주로 이주해서 타향살이를 하며 광복을 맞이했고 연변대학에서 수학한 정관룡 선생의 역사가 나타나 있다. <연변>에서도 할아버지로부터 아이들로 이어지는 연변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나타나 있다. 이처럼 구판에는 생계와 독립 운동을 위해 동북 지역으로 이동한 조선족(인)의 역사가 드러나 있다.

<표3> 조선족의 모빌리티(2007-2011년)

구분	작가	국적	작품
7-상	석화	중국 조선족	어머님생각
7-상	-	(중국 조선족)	사랑의 바구니
7-하	석화	중국 조선족	연변
7-하	류연산	중국 조선족	정관룡선생
7-하	학생 작품	(중국 조선족)	별
8-하	학생 작품	(중국 조선족)	선물
9-상	박화	중국 조선족	산향의 샘물
고-2	최서해	(해방전 조선)	탈출기
고-3	김호웅	중국 조선족	불굴의 투혼- 김학철선생
고-3	리삼월	중국 조선족	접목
고-4	임범송	중국 조선족	자연미의 민족 색채

<표4> 조선족의 모빌리티(2021-2022년)

구분	작가	국적	작품
7-상	김성휘	중국 조선족	내가 만약 물 방울이라면
7-하	조룡남	중국 조선족	고향생각
7-하	-	(중국 조선족)	어머니, 좀 쉬 세요
9-상	박화	중국 조선족	산향의 샘물
고-1	학생 작품	(중국 조선족)	콩나물행진곡
고-3	진목	중국	땅
고-4	임범송	중국 조선족	자연미의 민족 색채

신판에서는 어디에서부터 이동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글은 수록되지 않았지만, 어떤 방식으로 정착했는지를 담고 있는 글은 수록됐다. <자연미의 민족색채>는 구판과 신판 모두 수록된 글이지만 개작 양상이 발견된다. 구판에



서는 “(인용자: 장백산맥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을 개척하고 보위한 연변인민들의 빛나는 력사”(p.51)라고 되어 있지만, 신판에서는 “장백산은 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중화민족의 일원이 되어 이 땅을 개척하고 보위한 연변인민들의 빛나는 력사(강조는 인용자)”(pp.10-11)라고 되어 있다. 신판에서는 ‘중화민족의 일원’으로 뿌리 내렸다는 점을 강조되고 있다. 특히 <땅>에서는 중국인들이 해외로 이주하면서도 고향의 흙, 중국 땅의 흙을 가져는 등 지극한 국토애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신판에서는 조선족이 뿌리내린 공간으로 중국에 대한 소속을 분명히 하며 조선족의 모빌리티를 “국가 귀속에 따른 중국의 소수민족 집단 성원들의 해외 이동과 정착의 시각”<sup>39)</sup>, 화교의 이동으로 보는 관점도 나타난다.

둘째, 고향에 대한 인식 양상이다. 구판에서 조선족의 고향은 ‘떠나온 고국의 고향’으로 표상된다. 석화는 <어머님생각>에서 “고향은 멀고멀어서 천만리 아득해도/어머님 사랑 끝없이 이 몸을 안아주오”라고 노래하며, 리삼월은 <절목>에서 “먼 이웃/남의 뿌리에서/모지름을 쓰면서 자랐다”라고 노래한다. 반면 신판의 작품들은 ‘떠나온’ 고향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다. 그래서 조룡남의 <고향생각>에서는 고향은 정든 사람들이 있던 추억의 고향으로서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그런데 김성희의 <내가 만약 물방울이라면>의 경우 세심한 관찰을 요한다. ‘작품’과 ‘단원 구성’ 사이의 괴리가 발견되기 때문이다. 작품상으로 보면, 시적 화자가 그리워하는 고향은 ‘팔간 집’이 있는 고향이다. 팔간 집은 조선민족의 전통적인 초가나 와가가 8칸으로 구성된 집을 뜻한다. 이 때문에 시에 등장하는 “어머니조국”이나 “내 고향 형제들 땀”은 한반도 고국 혹은 조선족의 고향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그렇지만 팔간 집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없으며 이 작품 바로 뒤에 “우린 모두 한가족 이름은 중국/ 수많은 형제자매 경치도 좋다네”로 시작하는 <위대한 중국>이 배치된다. 이런 단원 구성은 <내가 만약 물방울이라면>에 나타난 ‘어머니조국’, ‘내 고향 형제들 땀’이 가질 수 있는 의미 자장을 축소시킬 수 있으며, 학습자가 조선족의 모빌리티를 인식할 기회를 축소시킬 수 있다.

39) 허명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공존의 인간학』 (3),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0, p.7.

셋째, 최근 20~30년에 나타난 조선족의 해외 및 도시로의 이주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글은 구판과 비교해서 비슷한 양으로 수록된 것으로 보인다. 구판에서는 “지난해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출국수속을 해주고 몇 달 사이에 벼락부자로 된 이웃”의 태도를 통해 이웃간의 정이 상실된 인정세대를 그리고(〈사랑의 바구니〉), 멀리 “이국타향”에 있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노래하는(〈별〉) 등의 글이 수록되었다. 신판에서는 “출국하신 아버지가 달마다 돈”을 부치고, 어머니는 억척스럽게 생계를 꾸려가며(〈어머니, 좀 쉬세요〉), 아버지의 실직으로 어려움을 겪지만, 어머니는 출국해서 돈을 벌고 남은 가족들은 콩나물을 키우며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콩나물행진곡〉). 구판과 달리 신판에서는 조선족의 해외 및 도시 이주로 인한 위기와 고통뿐만 아니라 그 위기를 극복하는 텍스트를 수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조선족에게는 이주한 거주국에서 생존하는 능력으로서 자생력과 거주국에서 뿌리내리고 살아가는 자신들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조선족의 자생력과 자부심의 표상은 [표 5], [표 6]과 같이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나타난다.

우선, 자생력의 측면에서 조선족 자생의 역사를 표상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다. 구판에서는 중국 사회의 역사적 변천과 질곡 가운데 살아남은 조선족의 정체성이 적극적으로 드러난다. 조룡남의 〈옥을 파간 자리〉와 립원춘의 〈몽당치마〉는 반우파투쟁과 문화대혁명 시기에 중국 조선족의 환난과 극복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미 정치적으로 관련 인사들이 복권됐지만, 구판에서는 학습활동과 작품 설명에서 조선족 집단이 중국 사회에서 겪은 수난의 역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sup>40)</sup> 반면에 신판에서는 집단의 차원보다는 개인의 차원에서 조선족의 수난과 극복의 역사가 드러나 있다. 〈내 마음 속의 위인-아버

40) 〈몽당치마〉는 구판에서 “당의 11기 3차 전원회의 전후의 사회적현실을 시대적배경으로 하여 민속적인 화폭을 펼쳐보이면서 생활속에 열기설기 얽힌 인간 관계를 깊이있게 보여주고 있다.(p.79)”라고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신판에서는 이 설명이 없다. 또한, 〈옥을 파간 자리〉의 경우 “22살인 1957년에 우파모자를 쓴후 45살, 시정받게 되는 1979년까지 조룡남시인은 참으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으며 살았다.”(p.101)와 같은 서술에서 볼 수 있듯이 반우파투쟁의 역사가 명시돼 있다.

지)는 1950년대에 조선족 농촌 집거구에서 태어난 조선족 아버지의 일생을 아들의 시선으로 쓴 전기문이며, <콩나물행진곡>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조선족 사회의 가정 해체 현상과 그 극복 과정을 담고 있다. 신판에서는 조선족 사회에 있음직한 가상적 인물의 일화를 통해 조선족의 자생력을 보여주지만, 이들 서사는 조선족이 공유할 수 있는 집단의 문화적 기억으로 자생의 역사가 되기에는 글에 나타난 중국 역사·사회와의 상호작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sup>41)</sup>

다음으로 조선족이 갖는 자부심은 조선족의 자생력, 모빌리티와 깊은 관련이 깊다. 이 자부심은 조선족이 갖는 특수한 조건들에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 때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해 뿌리를 내린 지역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거나(<연변>, <접목> 등), 한반도와 중국의 경제·문화를 매개할 수 있는 조선족 사회의 강점을 드러내는(<독서-행복의 샘을 파는 일> 등)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조선족의 발전을 위한 헌신(<정관룡선생> 등)과 오랜 역사 동안 지켜왔던 조선민족의 문화(<자랑스러운 우리 말과 글>, <파>), 험한 바위 틈새에도 자라나는 진달래처럼 “붉고 강한 생명력과 남먼저 일찍이 피어나는”(p.51) 조선민족의 특색(<진달래-불이 붙는 봄> 등)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신판에서도 조선족이 갖는 민족적 특색이 드러나고 있다. ‘장백산문화, 진달래문화’로 표상되거나(<자연미의 민족색채>), 모두 살 곳을 찾아 떠나가도 “이름없는 산야에/고스란히 뿌리 내리고” 살아가며 인생의 철리를 깨달은 썸바귀의 표상(<썸바귀>)이 여기에 속한다. 그러나 구판과 비교해서 신판에서는 조선족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나 애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지 않으며, 자부심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조선족의 문화의 고유성과 역사성 역시도 구판과 비교해서 추상적이다.

41) <몽당치마>는 구판과 신판에 모두 수록됐지만, 구판에 있던 “이 소설의 민족적특색은 어떤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는가?”(p.79)라는 학습 활동, 즉 자생의 힘으로서 민족적 특색, 민족적 정체성을 찾는 학습 활동이 신판에는 없다. 신판의 조선어문 교과서는 소설의 기능을 학습하는 자료로서 ‘인간사회’ 전체의 일반성 측면에서 몽당치마를 소개하고 있다.

〈표5〉 조선족의 자생력, 자부심(2007-2011년)

구분	작가	국적	작품
7-상	-	-	천지(전설)
7-하	조통남	(중국 조선족)	진달래-불이 붙는 봄
7-하	석화	중국 조선족	연변
7-하	류연산	중국 조선족	정판룡선생
7-하	-	(중국 조선족)	자랑스러운 우리 말과 글
8-하	학생 작품	(중국 조선족)	파
고-2	장정일	중국 조선족	독서-행복의 샘을 파는 일
고-2	림원춘	중국 조선족	몽당치마
고-2	조통남	중국 조선족	옥을 파간 자리
고-3	리삼월	중국 조선족	접목
고-3	김호웅	중국 조선족	불굴의 투혼- 김학철선생
고-4	임범송	중국 조선족	자연미의 민족 색채

〈표6〉 조선족의 자생력, 자부심(2021-2022년)

구분	작가	국적	작품
7-상	-	-	천지(전설)
8-하	김경석	중국 조선족	썸바귀
8-하	-	(중국 조선족)	내 마음 속의 위인-아버지
9-상	학생 작품	(중국 조선족)	파
고-1	학생 작품	(중국 조선족)	콩나물행진곡
고-3	림원춘	중국 조선족	몽당치마
고-3	-	-	문리학 기초지식 연역추리의 이해와 응용 (1) <sup>42)</sup>
고-4	임범송	중국 조선족	자연미의 민족 색채

## 2) 조선민족 문화의 계승과 수용

### (1) 조선민족 문화의 역사성: 해방 이전의 문학, 민족 문화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조선민족 문화를 표상하는 해방 이전의 문학과 조선민족 문화에 대한 글들이 수록돼 있다. 조선민족 문화에는 조선족이 신중국에 편입되기 이전의 문화와 그 문화의 계승과 창조의 역사가 포함된다. 그리고 그 역사적 전개 과정의 끝에 조선족의 현재가 위치한다. 즉, 조선어문 교과서에 나타나는 조선민족 문화는 현재의 조선족 문화의 기원을 설명하는 기능을 갖는 것이

42) 여기서는 논리적 추리의 오류를 찾는 예문으로 이러한 문장이 사용되고 있다. “조선족은 근로하고 레절이 밝다. 그는 조선족이다. 그러므로 그는 근로하고 레절이 밝다.”(p.24)

다. 이런 이유로 해방 이전의 문학과 언어, 풍습 등의 민족 문화 가운데 어떤 부분이 선택됐는가를 살펴보는 일은 조선족이 선택하고 구성한 민족 정체성의 일면을 살펴보는 일이 된다. 해방 이전 시기 문학은 일제강점기와 그 이전의 문학으로 나누고, 민족 문화는 언어, 풍습, 정신·자연 문화로 나누어 보았다.

〈표 7〉 일제강점기 전 문학(2007-2011년)

구분	작가	작품
7-상	-	해와 달(전설)
7-하	양사언	태산이 높다 하되
7-하	김천택	잘 가노라 달지
7-하	리직	가마귀 겁다 하고
7-하	정철	이보소 저 늙은 이
7-하	성삼문	이 몸이 죽어가서
7-하	리숙량	부모님 계신제는 부모인 줄~
8-상	김학송	태산에 오르며
8-상	최영	록이상제 살지게 먹여
8-상	김중서	식풍은 나무끝에 차고
8-상	남이	장검을 빼어들고 백두산 에
8-상	-	고봉에 오르라 부르는 소리-양사언의 시조 “태 산이 높다 하되”를 읽고 서
8-하		나비아 청산 가자
9-상	조성일	민요 “아리랑”
9-하	리황	청산은 어찌하고 만고에
9-하	정철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 란
9-하	정몽주	이 몸이 죽고죽어
9-하	윤선도	오우가
9-하	-	춘향전
9-하	리순신	한산섬 달 밝은
9-하	길재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9-하	신흠	산촌에 눈이 오니
고-2	-	청산별곡
고-2	박지원	량반전
고-4	정철	관동별곡

〈표 8〉 일제강점기 전 문학(2021-2022년)

구분	작가	작품
7-하	양사언	태산이 높다 하되
7-하	정철	이고 진 저 늙은이
7-하	김천택	잘 가노라 달지
8-상	김학송	태산에 오르며
9-상	윤선도	오우가
고-2	정철	관동별곡
고-2	정몽주	이 몸이 죽고
고-2	성삼문	이 몸이 죽어서
고-2	황진이	청산리 벽계수야 쉬어
고-2	리직	가마귀가 겁다 하고
고-2	박맹년	가마귀 눈비 맞아
고-2	길재	오백년 도읍지를 필마로
고-2	변계량	내 해 좋다
고-2	한호	질방석 내지 마라
고-2	서경덕	마음이 어린 후이니
고-2	우탁	한손에 막대 잡고
고-2	맹사성	강호사시가
고-3	-	심청전
고-4	-	어머님 마음(회심곡)
고-4	-	춘향전

[표 7], [표 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이전의 문학은 갈래와 주제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구판과 신판 모두를 보면 갈래 상으로는 설화, 시가(민요, 고려가요, 시조, 가사 등), 소설(판소리계소설, 한문소설)이 포함돼 있다. 특히 두 시기 모두 시조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신판의 경우 전체적인 작품 수도 줄었지만, 한문소설, 민요, 고려가요 갈래의 작품이 사라져서 갈래의 다양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구판에서 고려가요로 수록된 <청산별곡>에는 중국의 정곡(正曲)과 다른 “조선의 고유노래”(p.3)로서 별곡(別曲)의 갈래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구판에서는 중국 문화의 영향권에 있으면서도 고유성을 지닌 조선 문화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다.

주제 측면에서 보면 크게 두 가지 경향의 작품군이 수록됐다. 하나는 반봉건의 해방 정신의 전통을 표상하고 있는 작품군이다. 구판에서는 “봉건사회말기 몰락된 량반들의 처지와 당시 사회계급관계의 변화, 봉건적 신분제도의 와해 과정을 사실주의적으로 보여”(pp.18-19)주는 <량반전>과 사랑과 이별의 정서를 노래하면서도 그 가운데서 “인민들의 생활”과 “중세기질곡(발전을 억누르며 자유를 엮매는 고통을 주는 상태나 환경)으로부터의 개성해방의 지향”(p.179)을 담고 있는 “20세기 이전의 구 아리랑”(〈민요 ‘아리랑’), 그리고 “자유롭고 행복한 세상을 간절히 바라며 악한자는 징벌을 받고 선한자는 불행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근로인민의 지향”(p.162)을 담고 있는 <해와 달> 전설은 구판에 명시적으로 드러난 조선민족의 반봉건 해방 전통이다.

신판에서는 <춘향전>에서만 민족 해방 전통이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다. 구판에서도 <춘향전>이 있었는데, 신판에서는 양반통치계급(변학도)에 대한 인민(춘향)의 투쟁을 주제로 하는 작품임을 명시하고 있다. 사회주의 이념의 국가에서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에게 이들 작품은 사회주의 해방 전통의 유산이라는 맥락에서 선택되고 해석된 조선민족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조선어문교육은 사회주의 해방 전통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조선민족 문화를 통해 입증하는 셈인데, 신판에서 이들 작품군이 줄어들면서 조선민족 문화가 갖는 가치와 위상도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나는 옛사람들의 사상, 정서, 혹은 보편적인 가치를 지니는 인생의 지

해를 담고 있는 작품군이다. 구판에서는 위국충절의 정신을 담은 작품(〈이 몸이 죽어가서~〉, 〈삭풍은 나무끝에 차고~〉 등), 효·노인 공경 정신을 담은 작품(〈이보소 저 늙은 이~〉, 〈부모님 계신제는 부모인줄~〉 등), 정진·끈기의 정신을 담은 작품(〈태산이 높다 하되~〉, 〈청산은 어찌하고 만고에~〉 등), 물아일체·은일의 정신을 담은 작품(〈산촌에 눈이 오니~〉, 〈나비아 청산 가자~〉) 등이 수록돼 있다. 신판은 구판과 전반적으로 비슷한 구성이지만, 〈청산리 벽계수야 쉬어~〉, 〈마음이 어린 후이니~〉, 〈한손에 막대 잡고~〉 등의 작품처럼 인간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을 담고 있는 작품이 수록된 점이 눈에 띈다.

이들 주제는 교훈적인 주제를 담고 있기에 교육 자료로서 손색이 없으나 다양한 맥락에서 해당 작품 선택의 의미를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해외 및 연안 도시로의 이주로 인해 조선족 집거구가 해체되면서 조선족 사회에 발생한 가정 및 세대 간 문제 등에 적극적으로 효·노인 공경의 전통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조선족이 다른 소수민족과 다른 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지런함과 끈기, 효 문화 등을 이들 작품을 통해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또한 이는 조선어문교육의 맥락에서는 집단을 위한 개인의 희생과 헌신을 강조하는 사회주의 도덕과도 호환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봉건사회에서 군주에 대한 충성과 우국의 정서를 주제로 하는 작품은 꼭 맞아 들어가지는 않지만, 조선어문교육의 맥락에서는 애국주의의, 조국애의 주제로 호환될 가능성이 있다. 수록된 시조는 조선족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조선족의 특수성과 중국 국민으로의 보편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런데 신판에서는 시조 전반의 작품 수가 감소한 것뿐만이 아니라, 주로 본체제, 혹은 단원의 보충 학습에 수록돼 있던 구판에서와 달리 마지막에 부록으로 제시돼 시조의 위상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또한 조선족의 특색으로 삼았던 효, 끈기, 부지런함 등이 신판에서는 전국 도덕 모범, 그러니까 중국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도덕 모범으로서 소개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1학년 고급중학교 교과서에는 전국 대표로 뽑힌 도덕 모범 인물들을 조선족의 설날 특집 프로그램인 《음력설야회》에 초대하는 신문기사와 효성을 지닌 요족 람런청의 이야기, 효자 형제 왕도와 왕파 이야기가 수록돼 있다. 신판에서는 효, 노

인 공경 등이 조선족만의 특색이 아니라 다른 소수민족과 공유할 수 있는 중국 국민의 덕목으로 나타난다.

〈표9〉 일제강점기 문학(2007-2011년)

구분	작가	작품
7-상	윤동주	새로운 길
7-상	김소월	엄마야 누나야
7-상	윤동주	소년
8-하	김소월	접동새
8-하	리상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9-상	김소월	초혼
9-상	박팔양	진달래-봄의 선구자를 노래함
9-상	윤동주	참회록
9-상	최서해	담요
9-상	조성일	민요 "아리랑"
9-하	윤동주	서시
고-1	김소월	진달래꽃
고-1	홍명희	립격정
고-2	최서해	탈출기
고-3	리기영	고향
고-4	김소월	풀 따기

〈표10〉 일제강점기 문학(2021-2022년)

구분	작가	작품
7-상	김소월	진달래꽃
9-상	박팔양	진달래-봄의 선구자를 노래함
고-1	김소월	진달래꽃

조선족에게 일제강점기 조선민족 문학은 반제국주의 혁명 전통의 측면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구판에서는 “나라를 잃은 울분과 설움, 빼앗긴 국토 회복의 념원과 자유로운 로동에 대한 갈망”(p.125)을 담고 있는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일제통치시기 조선인민들의 날로 심해가는 비참한 생활”(p.138)을 반영하고 있는 〈담요〉, “전통적인 애정주제와 항일투쟁의 주제를 재치있게 결부시”(p.179)킨 20세기 이후에 창작되고 전승된 “신아리랑”(〈민요 “아리랑”〉), “1920년대 조선인민들의 비극적인 운명과 생활 감정을 그린”(p.35) 〈탈출기〉, “식민지시대 일제에 의한 조선농촌의 황폐화와 몰락한 농민이 로동자”(p.112)가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고향〉, “조선 식민지시대 발표된 력사소설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p.99) 〈립격정〉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이들 작품처럼 일



제강점기와의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윤동주의 작품들이 전통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김소월의 작품 가운데 〈초혼〉은 “잃어버린 조국에 대한 애뜻한 마음을 님과의 리별에 비겨”(p.3) 그런 작품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김소월의 다른 작품들에서는 일제강점기의 시대성이 부각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신판을 보면 구판의 다양한 작품들이 대거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살펴보았던 조선인의 항일투쟁 기록이 축소되는 경향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중국이 아닌 조국, 국토의 상실과 회복의 염원을 담은 작품은 신판이 강조하는 중화민족대가정의 애국주의와 배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인물과 사건, 배경을 드러내는 소설보다는 역사적 배경 없이도 수난과 극복의 상황에 두루 적용될 수 있는 박팔양의 시 〈진달래-봄의 선구자를 노래함〉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표 11], [표 12]에서처럼 조선민족 문화를 언어, 풍습, 정신 문화, 자연 문화의 측면에서 구판과 신판에서 어떻게 표상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민족 문화 가운데서도 ‘언어’는 조선족에게 민족 정체성 유지 및 수호의 가장 강력한 표지이다. 그런데 이 조선어에 대한 태도가 구판과 신판에서 명확하게 차이를 보인다. 구판에서 조선어는 가치 있는 민족의 언어로서의 위상을 지녔다. 그래서 조선어를 만든 세종대왕은 애민 정신과 자애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세종대왕〉) 보수주의적 유학자에 맞서 새로운 전통을 창조한 위인이다(〈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조선어는 과학성과 체계성을 갖춘 뛰어난 민족의 언어이며(〈자랑스러운 우리 말과 글〉), 이런 조선어를 선조들은 일제강점기에 지키고 계승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던 것이다(〈사랑스러운 우리 말〉, 〈주시 경선생〉). 또한 언어는 중립적인 도구가 아니라 가치 태도가 반영된 사회적 실천 행위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으르렁말과 가르렁말〉). 신판에서는 조선어에 대한 지식 교육이 주를 이룬다. 교과서의 매 단원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언어교실’, ‘조선말교실’에서는 어원, (조선말) 속담, (한자어) 성구 등에 대한 지식이 제공되고 있다. 물론, 신판의 〈말작! 슬기〉, 〈언어레절을 지켜야〉, 〈바르고 고운 말〉의 글에서는 무분별한 외래어 대신 고운 조선어를 사용하고, 예절 바르게

〈표11〉 민족 문화(2007-2011년)

구분	작가	작품	문화 종류
7-상	김옥결	사랑스러운 우리 말	언어
7-하	-	사랑스러운 우리 말 과 글	
7-하	-	바르고 고운 말	
7-하	-	주시경선생	
9-하	리병도	세종대왕	
고-4	리기백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고-4	고종석	으르렁말과 가르랑 말	풍습
7-상	김태길	가정교육의 어제와 오늘	
7-상	전숙희	설	
7-상	-	5월단오	
7-상	최상수	추석의 민족놀이	
7-상	-	우리 민족의 미풍양 속	
9-상	조성일	민요 “아리랑”	
고-4	리규태	탈여가의 문화	
7-상	학생 작품	효녀 심청, 불효녀 심청	
7-상	김태길	가정교육의 어제와 오늘	
7-상	전숙희	설	
9-상	조성일	민요 “아리랑”	
고-4	리기백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고-4	리규태	탈여가의 문화	
고-4	임범송	자연미의 민족색채	
8-상	강학태	금강산을 찾아서	자연
8-상	-	박연폭포를 찾아서	
고-4	임범송	자연미의 민족색채	

〈표12〉 민족 문화(2021-2022년)

구분	작가	작품	문화 종류
7-상	학생 작품	딸각! 슬기	언어
7-상	-	언어레절을 지켜 야	
7-상	-	바르고 고운 말	
7-상	-	성구나 속담을 사용하여 말하기	
7-상	-	언어교실(×6)	
7-하	-	언어교실(×6)	
8-상	-	언어교실(×6)	
8-하	-	언어교실(×6)	
9-상	-	언어교실(×6)	
9-하	-	언어교실(×6)	
고-1	-	조선말교실(×4)	
고-2	-	조선말교실(×4)	
고-3	-	조선말교실(×4)	
고-4	-	조선말교실(×4)	
고-2	성삼문	이 몸이 죽어서	풍습
7-상	-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수집 하기(사물놀이)	
고-2	-	론리학 기초지식 (×2)	
고-3	-	론리학 기초지식	
고-4	-	론리학 기초지식	
고-4	임범송	자연미의 민족색 채	
8-상	-	장백산을 찾아서	자연
고-4	임범송	자연미의 민족색 채	

조선어를 사용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구판과 같이 신판에서는 조선어 사용의 필요성을 전제하고 있지만, 학습자에게 조선어가 민족의 언어이기에 가치가

있다고 설명하거나 설득하지 않는다.<sup>43)</sup>

둘째, 문화 풍습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것이면서, 민족 정체성을 가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문화 양식이기도 하다. 구판에서는 ‘설’, ‘단오’, ‘추석’의 명절과 함께 이때 즐겼던 ‘웃놀이’, ‘널뛰기’, ‘연날리기’, ‘강강수월래’, ‘씨름’ 등의 다양한 민속 문화에 대한 설명글이 수록돼 있다. 그리고 이런 문화 풍습은 ‘우리 조상의 훌륭한 정신’, ‘미풍양속’, ‘정성과 사랑’의 가치를 담고 있는 것으로 그려진다. 그런데 신판에서는 조선민족의 문화 풍습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글들이 모두 삭제됐다. 대신에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 수집하기>의 실습 예시로서 ‘조선족의 전통놀이’인 <새해맞이 사물놀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논리학에 대한 기초 개념을 학습하는 단원 보충 학습의 예시로서 근대 이전의 조선민족 문화를 배경으로 한 이야기들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이 이야기들은 혼례, 생일잔치 등을 배경으로 하는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문화 풍습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구판에서처럼 민족 문화로서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지는 않다. 이처럼 조선민족 문화 풍습에 대한 글은 사라졌지만, 9-상에는 ‘우리 나라’의 ‘전통문화’로 소개되는 <북경의 설명절>이 수록돼 있다.

셋째, 정신문화에는 조선민족의 가치관, 민족성, 세계관, 사상 등이 포함된다. 구판에서는 조선민족의 정신문화를 다양하게 드러내고 있다. 부단히 움직이며 일하는 근면한 노동관(<탈여가의 문화>),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정신(<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저항적이고 정감적인 민족 문화(<민요 “아리랑”>) 등 뿐만 아니라 효 문화를 비판적으로 계승하려는 태도(<효녀 심청, 불효녀 심청>)도 포함되어 있다. 반면 신판에서는 조선민족의 정신문화 부분이 대부분 삭제되었다. 구판에도 있었던 <자연미의 민족색채>에서 조선족의 정신문화를 ‘장백산문화 진달래꽃문화’로 명명하면서 진달래의 성질을 근거로 민족성을 설

43) 신판에서 시조 <이 몸이 죽어서>의 소개글에서 성삼문이 “훈민정음” 창제에도 참여한 조선의 문신”(p.152)이라는 설명이 등장한다. 구판에서는 세종대왕의 전기문을 통해 훈민정음 창제의 배경을 설명했었는데, 신판에서는 부가 설명도 없이 특정 인물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훈민정음 창제 사실을 간략하고 부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명하고 있다. 그런데 구판과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다면 구판의 〈자연미의 민족색채〉에서 ‘한족’과 ‘조선족’을 구분해서 서로 다른 민족성으로 설명했었는데 신판의 〈자연미의 민족색채〉에서는 ‘한족’으로 표시됐던 부분이 ‘중국인민’으로 교체됐고(p.11), ‘조선족’을 한족과 구분해서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족의 정체성이 중국 국민 정체성으로 대체되는 일은 조선족에게는 오래된, 익숙한 일이지 몰라도, 해당 글에서의 범주명 변화는 통일된 국가 정체성으로의 귀속 경향이 강화되는 신판 조선어문 교과서 전반의 현상과 궤를 같이하는 변화로 읽혀야 할 것이다.

넷째, 민족 문화로서 자연 문화를 표상하는 방식에서도 구판과 신판의 차이가 확인된다. 구판에서는 북한에 있는 “자랑찬”(p.9) 금강산(〈금강산을 찾아서〉)과 “조국명”(p.30)에 있는 박연폭포(〈박연폭포를 찾아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신판에서는 조선족의 자연 문화로서 ‘장백산’만을 포함하고 있다.(〈자연미의 민족색채〉) 민족의 자연 문화를 북한까지 포함했던 것에서 중국의 영토에 있는 조선족 거주 지역만을 포함하는 양상으로 변화된 것이다.

종합해서 보면, 전체적으로 구판과 비교해 신판에서 일제강점기 문학의 반제국주의 혁명 전통과 일제강점기 이전 문학의 반봉건적 해방 전통이 그 양과 질 측면에서 위축된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신판에서는 조선민족의 문화를 가시화하고 다른 문화와 구별 짓고 가치화하는 일에 소극적인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일련의 변화들 속에서 조선족 학습자는 중국 내에서 조선민족 문화가 갖는 보편성과 특수성, 조선족의 역사적 현재를 이해하고 탐색할 기회가 줄 것이며 전통 문화를 공유하는 조선민족이라는 집단적 정체성도 희미해질 우려가 있다.

## (2) 조선민족 문화의 공유: 해방 이후 북한 및 한국과의 관계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조선민족 문화는 다양하게 분화되는 문화이다. 이는 조선족의 문화이면서도 북한과 한국의 문화이기도 하고, 따로 함께 만들어가는 문화이기 때문이다.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해방 이전의 문학이나 문화의 경우 앞서

보았던 것처럼 사회주의 혁명·해방 전통의 맥락에서 해석하고 인용하고 있더라도 이념적 차이가 분화되기 이전이기에 텍스트의 동질성이 확보되었다. 그러나 해방 이후 서로 다른 사회와 국가가 수립된 이후에 각 나라에 귀속된 조선민족의 문화는 이질적으로 분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선족은 북한과 한국과 어떤 공통점을 선별하고 구성하며 조선민족 문화 공동체로서 관계를 형성할 필요가 있었다. 물론 이 관계는 교과 내적인 논리뿐만 아니라 국제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공유 양상의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작가의 국적 귀속을 근거로 문화적 측면에서 어떤 공통성을 기반으로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살펴보는 데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sup>44)</sup>

북한과의 문화 공유 양상은 [표 13], [표 14]에서 볼 수 있다. 구판의 조선어문 교과서는 북한과 고국, 조선민족의 문화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전통의 상징성을 공유하고 있었다. 우선, 고국 및 조선민족과의 관련성을 지니는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북한 작가가 쓴 글은 조선민족의 항일전쟁(〈영남이〉, 〈눈빛〉)을 표상하였고, 조선의 민족 문화 가운데서도 자연 문화(〈금강산을 찾아서〉)<sup>45)</sup>와

44) 조선족에게 한국은 조선족 사회의 위기를 유발하는 대립적 관계(임추락·이혜영, 2021)이기도 하고, 조선족의 사회·문화의 변화를 촉발하는 영향 관계(양문규, 2001)이기도 하다. 조선족에게 북한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고향이자 이념을 공유하는 형제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김광희(2018)에 따르면, 조선족은 인민지원군으로 북한을 원조하기 위해 한국전쟁에 참여했고 휴전 후에 북한에 남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휴전 이후에도 북한 내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국에서 조선족이 입북하는 사례가 많았다. 1960년대 초에는 경제적 빈곤 등의 이유로, 1960년대 말에는 민족정풍운동의 영향으로 북한으로 조선족이 대거 이주했다. 북한과는 정치·경제·문화적 교류가 활발했고, 1950년대까지도 조선족 사회에서는 북한을 고향, 조국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점차로 중국이 북한 사회의 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부터 거리를 두며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강화되었다. 이처럼 중국 조선족과 한국과 북한의 관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며 여전히 변화 중이며, 복합적인 관계 양상을 지니고 있기에, 교과서에 나타난 평면적인 공통성만을 확인해서는 이들 관계를 해명하는 데 역부족이다. 그렇지만 교과서에 표상된 관계성이 조선족 학생들의 조선 문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어떤 문화적 공통성을 전제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일은 필요할 것이다. 임추락·이혜영,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성의 재결집」,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양문규, 「중국 조선족의 한국 현대문학 인식 및 향후 수용 전망」, 『배달말』 28, 배달말학회, 2001. 김광희, 「1949~1962년 중국조선족의 북한 이주와 민족 정체성」, 『한국학연구』 (5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언어 문화(〈주시경선생〉)를 공유하고 있다. 〈티끌 모아 태산〉은 주인공의 유년 시절 성장의 기록을 담고 있는데, 주경야독하며 정진했던 민족의 위인들로 을파소, 온달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표13〉 북한 작가(2007-2011년)

구분	작가	작품
7-하	-46)	주시경선생
7-하	-	티끌 모아 태산
8-상	강학태	금강산을 찾아서
8-상	조기천	영남이
8-상	김룡익	눈빛
8-하	김상오	나의 조국
9-상	박팔양	진달래 봄의 선구자를 노래함
9-하	정성훈	미래를 위한 초소

〈표14〉 북한 작가(2021-2022년)

구분	작가	작품
7-상	조기천	흰 바위에 앉아서
7-하	-47)	티끌 모아 태산
9-상	박팔양	진달래 봄의 선구자를 노래함
9-상	정성훈	미래를 위한 초소

다음으로 사회주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는 작품도 수록하고 있다. 카프 문학의 전통을 잇는 박팔양의 〈진달래—봄의 선구자를 노래함〉은 일제강점기 민중의 수난이 갖는 의미와 해방의 예언적 미래를 그리고 있는 작품이고, 정성훈의 〈미래를 위한 초소〉도 사회주의 조국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모범 교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이들 작품은 고국으로의 북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민 정체성과도 호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김상오의 〈나의 조국〉에서는 ‘비내리는 타향의 부두’에 서서도 잊을 수 없는 고향, 고국이 나타나 있다. “수령님이 찾아준 우리의 삶”이라고 되어 있는 원작의 표현을 “당이 찾아준 우리의 삶”으로 일부 개작한 흔적이 보이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위대하신 수령님”의 표현도 남겨두고 있어서 고국으로서 북한을 드러내면서도

45) 〈박연폭포를 찾아서(8-상)〉도 여기에 포함할 수 있지만, 해당 글을 쓴 작가의 이름과 국적을 확인할 수가 없어 제외하였다.  
 46) “이 글은 조선 《아동문학》 1963년 7월호에서 선택하여 부분적으로 수정하였다.”(p.88)를 근거로 하였다.  
 47) 신판 “이 글은 조선 《천리마》 1966년 2월호에서 선택하여 일부 수정하였다.”(p.22)라고 표기되어 있다. 구판에서는 표시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북한 작가로 처리하여 포함하였다.

사회주의 전통으로의 보편성을 지닐 수 있도록 지나치게 특정 인물을 미화한 부분을 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판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북한과 고향, 조선민족 문화를 공유하기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관계가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고향, 고국으로 북한을 암시하는 작품들은 모두 교체되었고, <티끌 모아 태산>만이 남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는 양상도 구판과 신판은 차이를 보인다. 신판에서는 북한과 사회주의 이념을 공유하더라도 북한의 특유한 정치 체제를 연상시키는 부분은 의도적으로 삭제한 양상을 보인다. 조성훈의 <미래를 위한 초소>는 구판에도 수록되었지만, 신판에서는 일부 개작 양상이 나타난다. “비록 오늘은 30여명에 불과한 꼬마대오이지만 이제 멀지 않는 래일 저 대오속에서 위대한 조국에 끝없이 충직하는 공화국의 영웅(강조는 인용자)”이라고 되어 있던 부분이 “비록 오늘은 30여명에 불과한 꼬마대오이지만 이제 멀지 않는 래일 저 대오 속에서 조국에 끝없이 충직한 영웅”으로 바뀌었다. ‘공화국’이란 표현이 삭제된 것이다. 또한, “나의 머리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사회에서 교원은 후대들을 혁명의 계승자로, 공산주의자로 키우는 직업적인 혁명가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다.”라는 부분은 신판에서 아예 삭제되었다. 또한 남아 있는 작품들은 함축성이 강해서 북한 사회에 한정된 사회주의 이념의 특수성보다는 사회주의 이념의 보편성을 드러내기에 수월한 작품들이다.

한국과의 문화 공유 양상은 [표 15], [표 16]에서 볼 수 있다. 구판의 조선어문 교과서는 한국과 조선민족 문화, 과거와 현재의 세태, 도덕적 주제를 공유하고 있다. 우선 조선민족 문화의 경우 자연 문화를 제외한 언어 문화(<세종대왕>,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등), 문화 풍습(<설>, <가정교육의 어제와 오늘>, 등), 정신 문화(<탈여가의 문화> 등) 전반을 공유하고 있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조선어문 교과서 구판에는 이념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전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한국과 조선민족의 공통성을 발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우리 민족’으로 조선족과 한국인은 묶이며, 때로는 조선민족명이 ‘한국인’으로 표시되며 호환되기도 한다(<탈여가의 문화>). 반면 신판에서는 한국과 조선민족 문화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조선민족 문화에 관한 기술 자체가 전반적으로 줄어든 것 때문이겠

지만, 한국과 조선족이 공유하고 있던 조선민족 문화의 공유 양상이 사라진 것이다.

또한 구판에서는 과거와 현재의 세대와 도덕적 주제를 담은 한국 작가의 작품을 수록하고 있다. 이웃 간, 가족 간의 정과 정성, 절약 등의 가치가 남아 있던 과거<sup>48)</sup>를 그린 글(〈사랑이 있는 생활〉, 〈보이지 않는 선물〉, 〈마음의 보름달〉 등)과 더 나아가 그런 가치들이 현재에는 사라졌음을 아쉬워하거나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글(〈설〉, 〈닭알의 꿈〉 등)이 수록돼 있다. 또한,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문화(〈우리의 친구 텔레비존〉, 〈정보사회와 인간생활〉 등)도 한국 작가의 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들 구성은 한국과 조선족 사회가 서로 다른 이념과 사회 체제를 가지고 생활해 왔지만, 과거와 현재에 유사한 세대 풍습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 외의 글들에는 한국 사회의 모습이 일부 반영되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한국이라는 배경 없이도 수용될 수 있는 도덕적인 주제가 담겨 있다. 반면에 신판에서는 이러한 유사성을 보여주는 글이 수록돼 있지 않아,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문화의 폭이 구판에서만큼 확보되지 않고 있다.

종합하면, 구판에는 한국과의 이념적 차이와 무관하게 공유할 수 있는 민족 문화나 도덕 가치의 공통점을 만들고, 북한과는 사회주의 이념, 고국이나 고향의 이미지를 공유하였다. 그러나 신판에서는 이들과 공유하는 지점이 축소되고 조선민족의 특수성보다는 이념이나 가치의 보편성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48)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구판에 실린 한국 작가의 글 가운데는 과거에 가난했던 한국의 모습을 배경으로 하는 글들이 발견된다는 점이다. 〈마음의 보름달〉,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 〈닭알의 꿈〉, 〈가난한 날의 행복〉 등이 여기에 속한다. 한중수교를 시작으로 2000년대 조선족 사회가 낯설게 마주했던 한국 사회를 이해하고 접점을 만들 방법으로 60~70년대의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을 수록했을 가능성이 있다. 신판에서도 〈틀이〉, 〈마음의 보름달〉과 같은 글에서 비슷한 양상이 발견되지만, 구판과 비교해 확실히 축소되었다.



〈표15〉 한국 작가(2007-2011년 판)

구분	작가	작품
7-상	리영희	사랑이 있는 생활
7-상	허영자	행복
7-상	진숙희	설
7-상	박문하	약손
7-상	김태길	가정교육의 어제와 오늘
7-상	최상수	추석의 민속놀이
7-하	박동규	보이지 않는 선물
7-하	조병화	해마다 봄이 되면
7-하	(신경림)	동해바다
7-하	리철환	마음의 보름달
8-상	리남호	문학작품의 감상
8-상	정현종	모든 순간이 꽃봉오리인것을
8-상	안도현	우리가 눈발이라면
8-하	김현승	깨달음
8-하	홍미숙	신호등
8-하	리시형	축복받은 성격
8-하	리철환	반디불
8-하	정진권	작은 운동장의 큰 가르침
9-상	김동환	산너머 남촌에는
9-상	김규	눈으로 씹는 껌 텔레비존
9-상	김기태	우리의 친구 텔레비존
9-상	박동규	내 생애 가장 따뜻한 날들
9-상	리장배	생활의 기쁨
9-상	안수길	일하는 행복
9-하	김춘수	꽃
9-하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9-하	김동길	성공과 실패
9-하	리은성	집념(동의보감)
9-하	리병도	세종대왕
고-1	리은영	답알의 꿈
고-1	법정	무소유
고-1	정범모	정보사회와 인간생활
고-2	김소운	가난한 날의 행복
고-3	피천득	수필
고-4	리규태	탈여가의 문화
고-4	리기백	민족 문화의 전통과 계승
고-4	고종석	으르렁말과 가르랑말

〈표16〉 한국 작가(2021-2022년 판)

구분	작가	작품
7-상	박성룡	풀잎
7-상	정채봉	별명을 찾아서
7-하	리철환	마음의 보름달
8-상	류경환	틀이
8-하	정호승	내가 사랑하는 사람
9-하	박완서	꼴지에게 보내는 박수갈채
고-1	류안진	지란지교를 꿈꾸며
고-2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연설
고-4	(윤춘병)	어머님 은혜(노래)

#### 4. 나오며

조선어문교육은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의 정합성과 공통성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한다. 중국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담론이 조선족 사회에서 활성화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역할을 조선어문교육이 하는 것이다. 그런데 2007-2011판과 2021-2022판 조선 어문교과서를 비교해 보면,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 표상 방식의 차이가 발견된다.

항일전쟁 표상의 경우, 구판의 교과서에서는 공산주의 이념의 자장에서 설명될 수 있는 항일전쟁을 조선족의 역사로 표상함으로써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표면에 드러냈다.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을 충실히 드러내는 것이 곧 중국 공민으로의 당위성을 보증해주는 증표가 되었다. 반면 신판 교과서에서는 조선족의 특별한 역사로서의 항일전쟁 표상은 사라지고, 소수민족 일반이나 중국 인민의 역사로서의 항일전쟁 표상이 나타난다.

모빌리티와 자생력 표상의 경우, 구판에서는 한반도로 이주해 정착한 역사가 나타나 있지만, 신판에서는 이주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고 중화민족으로 귀속된 역사가 강조되고 있다. ‘떠나온’ 고향의 상징이 신판에서 보이지 않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자생력의 표상도 구판에서는 중국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서 조선족 집단이 겪었던 수난을 구체적으로 드러냄으로써 민족의 집단 기억을 전승하는 역할을 충실히 했다면, 신판에서는 집단보다는 조선족 가정과 개인의 경제적 수난과 극복기가 수록되어 있다.

조선민족 문화의 역사성 측면에서도 구판에서는 조선민족의 혁명·해방 전통의 문학 작품을 발굴하고 해석하며 조선민족 문화가 갖는 사회주의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민족 문화에서 입증하려는 양상을 보였다면, 신판에서는 조선민족의 특수성으로 표상됐던 문화적 가치들이 다른 소수민족과 공유할 수 있는 보편 문화로 나타난다. 조선민족의 문화 측면에서도 흥미로운 변화가 눈에 띈다. 구판에서 언어는 민족어로서의 가치를 담고 있었다면, 신판에서는 기능어로서의 위상을 지닌다. 구판에서 문화 풍습은 조선민족의 것이었지만, 신판에서는 중화민족의 것으로 나타난다. 구판에서 정신문화는 조선민족의 특수성을 드러

내 줄 수 있는 노동관, 민족성 등이 강조되었지만, 신판에서는 이들 부분이 대거 삭제되었다.

조선민족 문화의 공유 측면에서는 구판에서는 북한과 사회주의 전통, 조국, 민족 문화의 접점을 공유하였지만, 신판에서는 민족적 색채,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상징하는 표현을 제거하고 사회주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구판에서는 한국과 조선 민족 문화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신판에서는 한국의 사회문화, 조선민족의 문화를 연상시키지 않으면서도 통용될 수 있는 보편적 도덕 가치를 담은 내용을 한국 작가의 글로 공유하고 있다.

이들 변화를 종합하면 최근 2021-2022년 판 교과서에서 조선족의 민족 정체성은 고유성을 상실한 채 중국의 국민 정체성에 귀속·잠식되는 양상이 나타난다. 물론, 2007-2011년과 2021-2022년은 대략 10년 정도의 간격이 있기에 이러한 변화를 급격한 변화로 보아서는 곤란할 것이다. 또한 조선어문 교과서를 실제로 가르치고 배우는 어문교육 현장에 대한 조사연구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어문 교과서의 변화만을 두고 조선어문교육 전반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다. 조선족에게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고, 만들어가는 과제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고 적응하는 과제도 중요할 것이다.

그렇지만 최근 조선어문 교과서에서 감지된 변화는 심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 민족 통합·융합의 기조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오는 와중에도 조선족은 조선어문 교과서를 통해 국민 정체성과 타협하고 경쟁하고 교섭하며 민족 정체성을 탐색해 왔었다. 그러나 최근 2021-2022판 조선어문 교과서에는 ‘조선민족’의 기표는 남아 있지만, 민족이 상징하거나 지향하는 기의는 찾아보기가 어려워졌다. 특히 2000년대 초중반 한중수교 등으로 인해 조선족 사회가 급격한 변화의 기로에 섰을 때, 조선족의 ‘교육을 통해’ 위기를 타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그러나 최근의 변화는 조선족의 ‘교육에서부터’, ‘교육에서도’ 시작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지만, 위축과 회복을 반복했던 조선족 민족 교육의 역사를 떠올린다면 변화에 대한 기대를 품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자료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7학년 상권, 연변교육출판사, 2005<sup>49)</sup>(2011)<sup>50)</sup>.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7학년 하권, 연변교육출판사, 2005(2007).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8학년 상권, 연변교육출판사, 2005(2010).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8학년 하권, 연변교육출판사, 2005(2009).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9학년, 연변교육출판사, 2007(2011).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조선족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1, 연변교육출판사, 2007(2009).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조선족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2, 연변교육출판사, 2007(2009).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조선족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3, 연변교육출판사, 2007(2010).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조선족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4, 연변교육출판사, 2008(2010).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7학년 상권, 연변교육출판사, 2014(2021).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7학년 하권, 연변교육출판사, 2021(2022).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8학년 상권, 연변교육출판사, 2020(2021).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8학년 하권, 연변교육출판사, 2016(2022).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9학년 상권, 연변교육출판사, 2016(2021).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의무교육조선족학 교교과서 조선어문』 9학년 하권, 연변교육출판사, 2017(2021).

49) 최초 출판연도.

50) 해당 교과서의 인쇄연도.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교과서 판본은 인쇄연도 기준임.

-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조선족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1, 연변교육출판사, 2020(2021).
-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조선족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2, 연변교육출판사, 2020(2021).
-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조선족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3, 연변교육출판사, 2020(2021).
- 연변교육출판사조선어문편집실·동북조선문교재연구개발센터 편저, 『조선족고급중학교 교과서 조선어문』 필수 4, 연변교육출판사, 2020(2021).

## 2. 그 외

- 강진웅, 「diaspora와 현대 연변조선족의 상상된 공동체: 종족의 사회적 구성과 재영토화」, 『한국사회학』 46(4), 한국사회학회, 2012, pp.96-136.
- 공봉진·김장경, 「사진평 시대 중국 교육정책에 관한 연구」, 『동북아문화연구』 1(65),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20, pp.285-300.
- 김강일, 「조선족사회 문화성격과 민족 정체성」,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제학술회의, 동북아 평화변명과 재외한인』,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2003, pp.285-300.
- 김경훈, 「조선족 초중 <조선어문> 교재 연구-소설과 시 교육을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26), 한국문학교육학회, 2008, pp.305-320.
- 김경훈, 「해방 후 조선족 시문학에 나타난 민족 정체성의 양상」, 『국제한인문학연구』 1(1), 국제한인문학회, 2011, pp.33-51.
- 김광희, 「1949~1962년 중국조선족의 북한 이주와 민족 정체성」, 『한국학연구』 (5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8, pp.7-27.
- 김기창·정상섭, 「조선족 소학교 국어 교육과 한국의 초등학교 국어 교육의 비교 연구(1)-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청람어문교육』 43, 청람어문교육학회, 2011, pp.339-370.
- 김신정, 「윤동주 기억의 담론화 과정-연변의 집단 기억과 조선족 정체성」, 『국제한인문학연구』 1(1), 국제한인문학회, 2014, pp.61-90.
- 김영, 「중국 조선족 중학교 문학교육 현황 고찰-『조선어문(新編, 2014~2016年)』 교과서를 중심으로-」, 『문학교육학』 (65), 한국문학교육학회, 2019, pp.33-64.
- 김영수, 「조선어문 교육과 사용의 현황과 과제」, 『중국조선어문』 2015(1), 길림성민족사무위원회, 2015, pp.5-9.
- 김은영, 「중국 조선족 시 작품에 나타난 ‘고향’의 의미」, 『한중인문학연구』 (18), 한중인문학회, 2006, pp.166-178.
- 김혜영, 「연변조선족사회와 민족교육의 관계에 대한 고찰」, 『교육사상연구』 28(1), 한국교육사상학회, 2014, pp.95-117.

- 김호웅,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연구』 29, 한중인문학회, 2010, pp.1-20.
- 박금혜, 「조선족중소학교에서의 민족 정체성교육의 새로운 접근과 대안모색」, 『역사문화연구』 (41),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역사문화연구소, 2012, pp.173-200.
- 박지혜, 「윤림호 소설의 민족의식 표출양상과 의미」, 『현대소설연구』 (33),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pp.253-276.
- 박초영, 「조선족 디아스포라 정체성 교육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 연구소 국내학술회의 자료집 재외동포와 다문화』,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 연구소, 2009, pp.215-252.
- 리광일, 「연변 조선족 중학교 조선말 교육의 실태 고찰」, 『한국언어문화학』 6(2), 국제한국언어문화학회, 2009, pp.101-113.
- 양문규, 「중국 조선족의 한국 현대문학 인식 및 향후 수용 전망」, 『배달말』 28, 배달말학회, 2001, pp.295-318.
- 오현아 · 오지혜 · 진가연 · 신명선, 「재외동포 현지 교과로서의 ‘조선어’ 교과의 복합적 위상 분석 연구를 위한 시론」, 『국어국문학』 (177), 국어국문학회, 2016, pp.73-108.
- 유용태, 「현대중국의 正義戰爭論의 형성과 전개—항일전쟁에서 항미전쟁까지—」, 『중국 근현대사연구』 (92), 중국근현대사학회, 2021, pp.83-110.
- 윤의섭, 「1950-60년대 중국 조선족 시에 나타난 탈식민주의적 고찰」, 『현대문학이론연구』 27, 현대문학이론학회, 2006, pp.235-256.
- 이성천, 「중국 조선족 문학에 ‘고향’과 ‘민족’의 표상-해방기와 건국시기 리옥의 시세계를 중심으로-」, 『한국언어문화』 (46), 한국언어문화학회, 2011, pp.347-371.
- 이영태 · 박향란, 「중국 조선족 고중(高中) 신편(新編) 《조선어문》 소재(所載) 고전시가의 양상과 특징 - <청산별곡>을 중심으로」, 『새국어교육』 (84), 한국국어교육학회, 2010, pp.201-220.
- 이현정, 「조선족의 종족 정체성 형성 과정에 관한 연구」, 『비교문화연구』 7(2), 서울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01, pp.63-105.
- 이흥매, 「중국 조선족 문학교육 연구 -조선족 초급중학교 『조선어문』 에 수록된 조선족 작품을 중심으로-」, 『국제한국어교육학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2,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2, pp.481-489.
- 임추락 · 이해영, 「한중 수교 이후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가적 정체성의 재결집」, 『한국학연구』 (61),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pp.439-475.
- 임철성 · 류마리아 · 元愛蓮, 「2014년 심사 전후 『조선어문』 어휘의 계량언어학적 비교 연구 - 조선어 교육의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어문교육』 (32), 고려대학교 한국어문교육연구소, 2020, pp.195-215.
- 임형제 · 김효신, 「중국의 이중 언어 정책의 변화와 민족학교 중국어 교수의 도입」, 『국제

어문』(65), 국제어문학회, 2015, pp.149-174.

장세윤, 「해방 전후시기 만주지역 조선의용군과 동북항일연군의 동향」, 『한국근현대사연구』(42), 한국근현대사학회, 2007, pp.62-96.

정미량, 「중국 조선족 민족교육, 그 지속과 변화-길림성 장춘시 관성구 조선족 소학교(1945-2009)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교육사학』 23(1), 한국교육사학회, 2010, pp.127-156.

조양환, 「해방 후(1945년 이후) 조선의용군의 정체성과 재만 조선인」, 『군사연구』(146), 육군군사연구소, 2018, pp.147-170.

최병우,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민족의 문제」, 『현대소설연구』(4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pp.501-536.

최우길, 「조선족 정체성 다시 읽기: 세 차원의 의식에 관한 시론」, 『재외한인연구』(34), 재외한인학회, 2014, pp.95-131.

황규수, 「북한 고중 『국어』 및 『문학』과 중국 조선족 『조선어문』 수록 시의 비교 고찰」, 『새국어교육』(82), 한국국어교육학회, 2009, pp.721-744.

황규수, 「中國 朝鮮族 「조선어문」의 南北韓 小說 受容 樣相과 統合 「국어」 編纂의 한 方案 考察」, 『어문연구』 38(1),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0, pp.463-487.

황유복, 〈조선족정체성에 대한 담론〉,  
<http://www.ckywf.com/blog/read/huangyoufu/62956/0/0>, 2009.8.31.  
 검색일자: 2022.6.12.

허명철, 「조선족공동체와 정체 의식」, 『통일인문학논총』(52),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11, pp.307-328.

허명철, 「디아스포라의 정체성과 조선족 공동체의 역사 귀속」, 『공존의 인간학』(3),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2020, pp.65-97.

中華人民共和國教育部, 〈教育部關於印發《中小學少數民族文字教材管理辦法》的通知〉  
[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2110/t20211015\\_572561.html](http://www.moe.gov.cn/srcsite/A26/moe_714/202110/t20211015_572561.html).

中國教育新聞網, 〈國家統編教材助力民族地區教育質量提升—基於相關民族省(自治區)的調研〉,  
[http://www.jyb.cn/rmtzcg/xwy/wzxw/202206/t20220614\\_697085.html](http://www.jyb.cn/rmtzcg/xwy/wzxw/202206/t20220614_697085.html).

논문 접수 일	2022년 07월 14일
심사 완료 일	2022년 08월 21일
게재 확정 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

A Study on the Changes in the Way of Representing Ethnic Identity of  
the Korean-Chinese in China in Chosun Language Textbooks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the 2007-2011 edition  
and the 2021-2022 edition -

Lee, Eunhong · Han, Da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shrinkage of Chosun language education for Korean-Chinese during the Xi Jinping period by comparing the ways of representing ethnic identity in the 2007-2011 editions and the 2021-2022 editions of the Chosun language textbooks.

The representation of ethnic identity in Chosun language textbooks was examined in terms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history of migration and residence of Koreans/Korean-Chinese' and 'the succession and acceptance of Korean ethnic culture'. The former includes the representation of the anti-Japanese war, mobility, self-reliance, and pride. In the old version(2007-2011), the anti-Japanese war was a war for the independence of the Korean peninsula, but in the new version(2021-2022), the anti-Japanese war becomes a symbol of national identity in the context of China's patriotism and internationalism. In the old version, the history of settlement, self-reliance, and cultural pride of the Korean-Chinese who migrated from the Korean Peninsula are shown, while the new version clearly reveals the history of Korean-Chinese immigrants to China, but the pattern of migration and settlement from the Korean Peninsula is abstracted. In the latter,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Korean culture is revealed through literature and ethnic culture before liberation, and the aspect of sharing the Korean culture is revealed through the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In the old version, it accepted various pre-liberation Korean ethnic cultures that can prove the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of the anti-imperialist and anti-feudalism oriented socialist ideology, and had a valuable status as the Korean ethnic culture. In the new edition, texts before liberation have been greatly reduced, and the culture of the Korean people is treated in terms



of knowledge rather than values. In the old versio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shared similarities between the Korean-Chinese and their homeland, as well as similarities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but the new version contains texts that can be understood without a cultural background about North Korea and South Korea.

**Keyword** Chosun Language Education, Chinese-Korean, Chosun Language Textbook, Ethnic identity, Textbook Policy of Ethnic Minorities in China, Putonghua, Anti-Japanese War, Mobility, Korean Ethnic Culture



#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본 중국조선족 소설사 시론(試論)\*

- 금희 소설의 소설사적 맥락과 쟁점을 중심으로 -

차성연\*\*

## 국문요약

본고는 한국과 세계문학과의 접점이 점차 찾아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소설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문학사적 연속성을 찾고자 하며, 금희 소설의 문학사적 맥락과 쟁점을 통해 ‘인정투쟁’ 관점의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한다.

중국조선족문학은 ‘경계적 위치’에서 어떤 대상을 향한 말하기의 형식으로 쓰여졌다든 점에서 ‘인정투쟁’의 발화로 볼 수 있다. 늘 약소자 혹은 주변인으로 위치했던 중국조선족의 ‘인정’ 욕망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중심을 향해 ‘존재하고 있음’을 외치는 ‘인정투쟁’의 문학적 형식으로 발화되었다.

한국에서 발표된 금희 소설 〈옥화〉는 한국이라는 문학장 내의 발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소설에 재현된 탈북 여성을 바라보는 조선족 사회의 시선을 통해 조선족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에 대해 비판적 물음을 제기한다. 이처럼 ‘경계적 위치’에서 있는 중국조선족문학은 어떠한 문학장에서 누구를 향해 발화하는가라는 거시적 관점이 중요하다. 한국 내 중국조선족 공동체의 존재가 그러하듯, 금희의 소설은 존재 자체로 ‘인정투쟁’의 발화로 기능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정투쟁의 발화가 상호인정과 이해, 연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또한 경계적 위치에서의 ‘말하기’, ‘자기 세계’의 정립, 그들 간의 상호인정이 서사적 긴장을 유지시키며 ‘디아스포라’의 의미가 보편성이나 특수성 쪽으로 지나치게 기울지 않도록 잡아줄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보고자 했다.

이주민 문학에 뿌리를 둔 중국조선족문학이 오히려 이주가 일반화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조선족문학은 ‘인정투쟁’의 발화를 계속해서나갈 것이지만, 중국과 한국, 나아가 세계문학을 향한 ‘인정투쟁’이 수직적 상승 욕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7006)

\*\*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강사

구가 아니라 '자기 세계'와 '상호인정'에 기반한 것일 때 지금까지의 역사적 독자성을 잃지 않는 '경계적 위치'에 선 문학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중국조선족 소설사, 인정투쟁, 금희, 경계적 위치, 상호인정, 디아스포라

〈목차〉

1. 서론
2. 경계적 위치에서 말하기
3. 유량과 개척; '디아스포라'의 보편성과 특수성
4. '자기 세계'와 상호인정
5. 결론

## 1. 서론

한국 내에서의 중국조선족문학 연구가 일종의 봄을 형성한 지도 20여 년이 넘었다.<sup>1)</sup> 그동안 한국 사회는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격동의 현대사'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한국 현대사의 어느 시기든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은 시기를 찾기 힘들지만, 공동체 내의 갈등과 화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시기의 변화는 특별한 주목을 요한다. 한국 사회 내의 공동체는 급격히 와해되고 '혐오'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한국 내 구성원들의 조선족에 대한 이해는 축적된 시간에 비해 척박한 수준이며<sup>2)</sup> 부정적 이미지의 재현<sup>3)</sup>, 혐오의

---

1)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에서 중국조선족문학 연구의 토대가 형성되었고 2000년대 다문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중국조선족문학 연구가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자료의 발굴과 더불어 민족의식의 표출 양상과 민족 정체성의 유지 혼용 양상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었고 탈식민주의적 방법론을 적용한 연구 및 개별 작가 작품론에 대한 연구들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는 상태이다.

2) 제24회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의 56개 소수민족을 대표하는 참가자들이 등장하는 순서가 있었다. 이때 한복 입은 여성의 등장을 두고 한국과 중국 네티즌 사이에 '문화공정' 논란이 일어났다. 논란에 대해서는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지만, 이

일상화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된다. 팬데믹을 거치며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 확대되었다.<sup>4)</sup>

이러한 가운데 한국 내 조선족의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sup>5)</sup> 대립동을 중심으로 혼종적 문화를 형성하며 나름의 독자적 공동체를 이룬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한국 내 문예지에 시나 소설을 발표하는 등 문화적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문학 활동은 당연히 중국 내의 활동과 병행되거나 깊이 연관되어 있으며 역사적으로도 중국조선족문학사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조선족의 경우에도 중국조선족이라는 자기정체성의 기반 위에서 주변인, 경계인, 이주민으로서의 위치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다.

본고는 재한 조선족의 문학 활동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중국

---

사건을 계기로 한국인 상당수가 조선족이 중국의 소수민족 중 하나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3) 〈청년경찰〉,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통해 한국인에게 대립동이 ‘범죄의 온상지’ 같은 부정적 요소로 부각되면서, ‘이질적이고 비위생적이며 소란한 공간’, ‘위험한 곳’, ‘가고 싶지 않은 곳’ 같은 곳으로 인식되고 있다. —전은주, 「재한 조선족 문학의 ‘대립동’ 재현양상」, 『한국문학연구학회』 Vol. - No.75, 2021, p.49.

관련 연구로는 최인규전범수,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에 나타난 범죄장소로서의 다문화 공간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35권 4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표현의 문제—〈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15권 3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9/ 신동순, 「영화 〈청년경찰〉 속 조선족과 대립동의 문체적 재현」, 『중국학논총』 제69권,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20.

- 4) 팬데믹은 코로나바이러스 외에 차별 바이러스와 혐오 바이러스도 견잡을 수 없이 전파했다. 코로나 사태 초기,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시작됐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인은 기피와 혐오의 대상이 되었다. 바이러스 발생 이전부터 한국에 체류하고 있었던 중국 출신 이주민들조차 애꿎게 숙주나 보균자로 인식됐다. 이주민이 모여 사는 대립동과 가리봉동은 잠재적 집단감염지로 언론에서 대서특필됐다. —박동찬, 「조선족 말하는 순간 나는 비정상 소수자가 된다; 차별금지법이 있는 나라<sup>4)</sup>」, 『한겨레』 2022. 1. 23.
- 5)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시작한 조선족의 국내 거주 인원수는 639,575명에 이른다(2021년 6월 기준). —음영철·김정환·노동욱, 「재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제57호, 2021 가을, p.225.

조선족문학사의 연속성을 찾고자 하며 나아가 상호인정<sup>6)</sup>의 가치를 재한 조선족 작품 내에서 발견하고자 한다. 중국조선족은 역사적으로 늘 ‘주변’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실리적 ‘선택’을 통해 독자적 노선을 보이며 ‘중심’의 질서에 문제를 제기해 왔다. 1992년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 역이주해 온 중국조선족 또한 한국이라는 주류 사회 속에서 배신감과 좌절을 겪었지만 시간이 흘러 나름대로의 독자적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한국 내 조선족 공동체 형성은 그 자체로 ‘혐오’와 ‘차별’에 맞선 ‘인정투쟁’으로 볼 수 있다. 한국인의 시선이 어떠한(조선족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한국 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리’를 갖고 있음을<sup>7)</sup> 발화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의 비판적 사회이론가인 악셀 호네트는 모든 사회적 행위의 근본 동인이 상호주관적 ‘인정’ 욕망에 있다고 보고, 한 개인 혹은 집단이 공동체의 완전한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는 ‘사랑/권리(법)/연대’라는 세 가지 형태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고 말한다. 이러한 호네트의 이론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대한 심리학적 분석에서 출발하여 흑인이나 여성과 같은 배제된 집단의 저항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에까지 나아감으로써 사회적 투쟁이 이상적 관계를 위한 도덕적 형식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up>8)</sup> 여기서의 투쟁은 법적 권리의 쟁취를 위한 투쟁

6) 후술하겠지만, 여기서 사용하는 ‘상호인정’의 개념은 악셀 호네트의 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이주민은 원주민으로부터, 주변은 중심으로부터, 약자는 강자로부터 인정을 받아내야 하는 위치에 있다. 존재 자체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을 획득함으로써 후자로부터의 승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수직적 서열 관계를 수평적으로 전환함으로써 존재 자체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상호인정’의 단계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상호인정의 주체는 이주민과 원주민, 약자와 강자, 주변과 중심 양자 모두가 된다.

7) 김현경은 『사람 장소 환대』(문학과지성사, 2016)에서 “사람이라는 말은 공동체 내에서 성원권을 갖는다”는 의미이며 이는 곧 “사회 안에 자기 자리가 있다는 말과 같다”면서,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그를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게 하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8) 여기서의 이상적 관계란 ‘상호인정’의 상태를 말한다. 호네트는 질리언 로즈의 인륜성 개념(헤겔) 재해석을 받아들여 “상호인정이란 타자의 차이와 동일성을 지배하거나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사회적 관계 형태”로 본다.(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p.67) 인정투쟁이 ‘사회적 갈등의 도덕적 형식’이 될 수 있는 이유이다.

을 포함하지만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소통’에 더 큰 의미를 둔 개념이다. 중국조선족의 인정투쟁이 뚜렷한 저항 운동의 양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일상적 삶의 수행, 문화적 정체성을 통한 사회적 발화를 통해 드러난다는 점에서 호네트의 인정투쟁 개념에 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고는 재한 조선족 문학 활동을 포함하여 중국조선족 소설이 이어져온 과정을 인정투쟁의 문학적 발화 행위로 바라보고자 한다. 현재의 중국조선족의 뿌리에 해당하는 이주 1세대의 이주가 주로 1930~40년대에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해방 이전 식민지 시기의 문학은 이주민으로서 원주민에 대한 인정투쟁의 양상이 담긴 작품으로, 해방과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의 문학은 소수민족으로서 중국공산당에 대한 인정투쟁의 양상이 담긴 작품으로 그 문학사적 흐름이 이어져 왔다고 거칠게나마 정리해볼 수 있다. 또한 한중수교 이후 한국으로의 역이주가 시작되면서 한국에 체류했던 경험이 담긴 작품을 중국이나 한국의 문학 잡지에 발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문학적 행위 또한 한국의 주류 사회를 향한 인정투쟁으로서 중국조선족문학사의 연속성의 맥락 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조선족 작가 금희의 소설은 중국조선족문학사의 현재를 점검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품이다. 금희는<sup>9)</sup> 중국조선족 작가로서 중국에서 첫 작품집을 내고 동시에 한국 문예지에 작품을 발표하면서 한국에서 작품집과 장편소설을 발간하는 등 국가의 경계를 넘나들며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러한 예술적 발화 행위 자체가 인정투쟁의 한 양상이 될 수 있으며 그 목소리는 ‘주변인’의 발화를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지점을 향하고 있다. 이주민과 원주민, 주변과 중심의 위계 속에서 존재 자체로 서로를 인정하고 인정받기를 요구함으로써 그

9) 1979년생, 중국 지린성(吉林省) 주타이(九台市)에서 성장했다. 연변자치주에서 사범학교를 졸업하고 고향의 조선족 소학교에서 교사로 재직하기도 했다. 2007년 운동주신인문학상을 수상한 「개불」을 발표하며 작품활동을 시작했고 2013년 중국에서 첫 소설집 『슈뢰딩거의 상자』(료녕민족출판사)를 출간했다. 2014년 『창작과비평』 봄호에 단편 「옥화」를 발표하며 한국 문단에서의 활동을 시작했다. 2015년 소설집 『세상에 없는 집』(창비)을 출간했고 신동엽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2020년에는 첫 장편소설 『천진시절』(창비)을 냈다.

이분법적 경계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조선족과 조선족 아님의 구분 없이 모든 독자에게 보편적인 울림을 주며 상호인정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즉 금희의 작품은 이주민, 주변인, 약소자로서의 발화로서 중국조선족 소설사의 맥락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 수직적 위계를 전환시킬 상호인정의 가치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호네트의 인정투쟁 관점에서 금희 소설을 바라보는 의의가 될 것이다.

중국조선족 소설사를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하는 본고의 시도는 중국조선족 소설이 존재하고 있는 위치, 그 위치에 소설이 존재하고 발화함으로써 관계망에 던지는 질문들, 질문을 통해 재배치되는 정체성의 의미를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 편의 소논문 안에서 문학사 전체를 개괄하기는 힘들고 가능한 일도 아니기에 금희의 소설이 어떠한 소설사적 맥락을 이어받고 있으며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어떠한 쟁점을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의 문학 활동과 한국에서의 문학 활동을 아울러 중국조선족 문학사를 설명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서 ‘인정투쟁’의 관점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경계적 위치에서 말하기

중국조선족은 중국인이라는 분명한 국가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만 모국(북한 혹은 한국)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는 한편 한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는 ‘경계인’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중국조선족의 성격을 이주민족, 소수민족, 과계민족 등 여러 가지 용어로 말할 수 있지만 여기서 특별히 ‘경계인’ 집단으로 호명하는 이유는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주류 사회를 향해 던지는 문화적 발화로서 중국조선족문학을 바라보기 위해서이다.

‘경계인’ 집단으로서의 발화는 늘 경계의 이쪽과 저쪽을 의식하며 어느 쪽에서든 동등한 위치에 서지 못하는 주변인, 약소자로서의 발화이다. 중국조선족문학은 ‘경계적 위치’에서 경계선의 양쪽 중심을 향한 말하기의 형식으로 쓰여졌다는 점에서 ‘인정투쟁’의 발화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 욕망은,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인정’을 통해 더 높은 위치로 상승하고자 하는 세속적인 욕망이



아니다.<sup>10)</sup> 늘 약소자 혹은 주변인으로 위치했던 중국조선족의 ‘인정’ 욕망은 스스로의 존재를 증명하고 중심을 향해 ‘존재하고 있음’을 외치는 ‘인정투쟁’의 문학적 형식으로 발화되었다.

일제 식민지 시기의 문학은<sup>11)</sup> 이주 개척민으로서 낯선 타지에 정착하기 위한 고군분투를 주로 형상화하고 있다. 이주민의 대부분은 농민이었고 정착을 위한 고군분투란 밭을 논으로 만드는 수전개간이었다. 원주민은 자신들의 땅에 살려온 이주민에게 배타적일 수밖에 없기에, 척박한 땅을 개간하여 벼를 경작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수전개간’의 공로를 내세워 정착의 명분을 보여주는 것이 이 시기 소설에 담긴 ‘인정투쟁’의 양상이었다.

주목할 점은, 소설에 담긴 ‘인정투쟁’의 대상은 원주민이지만, 소설이 발표되고 읽히는 문학장 안에서의 ‘인정투쟁’ 대상은 원주민이 아니라 조선인이었다는 점이다. 이주한 조선인들은 삶의 현장에서 원주민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정착의 명분을 인정받고자 했지만, 그것이 원주민이 읽을 수 없는 조선어로 쓰여지고 발표되었을 때 그 소설은 조선인을 향한 발화가 된다. 식민지 시기였기에 일본 영토에서의 개간 및 개척은 부일 행위가 될 수 있었고<sup>12)</sup> 이를 생존과 정착을 위한 것으로 형상화함으로써(실제로도 그러했지만)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인정투쟁’의 문학적 발화로 기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안수길 소설 「벼」에서 조선인 공동체 내의 학교 설립의 문제가 끝내 해결되지 않자<sup>13)</sup> 일본 영사관에

10) 본고는 제49회 한중인문학회 학술대회에 발표한 글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학술대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하며 논문의 전체적인 방향 설정에 큰 도움일 주신 토론회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린다.

11) 중국조선족은 중화인민공화국의 한 소수민족을 가리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문학은 ‘중국조선족문학’으로 명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중국조선족문학의 전사(前史)로서 중국조선족문학사에 포함하여 서술할 수는 있다.

12) 1930~40년대 조선인이 주로 이주했던 중국 동북지역은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의 영토였다. 한족, 만주족이 원주민인 경우가 많았고 이들에게 조선인은 일본의 앞잡이로 인식되기도 했다.

13) 조선인 마을이 있는 지역에 새로 부임해온 소현장은 조선인이 들어오면 다음은 일본인이 들어오게 된다는 이유로 조선인의 학교 설립을 반대한다. ‘항일’의 관점에서 볼 때 충분히 가능한 논리이다. 하지만 조선인 또한 일본의 식민지인이라는 점에서 연대의 관점도 기대해볼 수 있다. 『중국조선족문학사』(오상순 주필, 민족출판사, 2007)에서는 “평화공

도움을 요청하는 결말을 취하게 되는 것은 원주민과 직접적으로 대립하지 않으면서 ‘법적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나름의 전략적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해석된다.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sup>14)</sup> 이는 중국 동북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을 다룬 문학을 조선인을 향한 ‘인정투쟁’의 발화, 즉 정착을 위해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때론 친일적 행위로도 보이는 불가피한 선택을 왜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하는 문학적 형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에도 경계인 문학으로서 경계의 양쪽, 즉 원주민과 모국민 모두로부터 인정받고자 했던, 혹은 인정받아야 했던 상황을 엿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또 다른 지면을 통해 보다 자세히 논의해야 하겠지만, 본고에서는 소설에서 형상화되는 ‘인정투쟁’과 소설이 유통되는 문학장 내에서의 ‘인정투쟁’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중국조선족 소설사를 ‘인정투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할 때는 문학장 내에서의 ‘인정투쟁’의 맥락을 살피는 것이 오히려 문학사라는 거시적 관점에 부합하는 것일 수 있다. 실제로 중국조선족문학은 중국의 정치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그 영향에 따른 발화양상을 보여 왔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중국조선족문학의 첫 장편소설인 『해란강아 말하라』는 “당조직에서 임무를 주어 창작한 작품”이라는 김학철의 기록이 있고,<sup>15)</sup> 리근전이 『범바위』를 통해 중국해방전쟁(국공내전)에서 조선족이 세운 공을 형상화하는 등, 중국이라는 국가 당국을 인정의 주체로 설정한 ‘인정투쟁’의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sup>16)</sup>

---

존이니 상부상조니 하는것도 원주민의 생존권이 전혀 위협을 받지 않는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하여 소현장, 즉 중국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당시 원주민의 생존 또한 위협받는 상황에서 조선인에게 우호적이기는 힘들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마찬가지로 조선인 또한 조선인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활용가능한 방법(이등국민이라는 법적 지위의 활용) 동원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도 가능해진다.

- 14) 안수길의 『벼』, 『북향보』 등의 작품은 만주국의 정책을 그대로 수렴한 국책문학으로 비판받기도 한다.
- 15) 오상순 주필, 『중국조선족문학사』, 민족출판사, 2007, 233면.
- 16) 이해영은 리근전의 『범바위』를 분석하면서 “당시의 엄혹했던 정치적 상황에서 리근전은 무엇 때문에 굳이 이러한 “민족적 발화”를 했던 것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리근전의 『범바위』는 해방전쟁에서의 조선족의 공헌과 기여를 다룬 혁명서사로서 1958년 초반에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에서 발표되는 중국조선족 작가의 작품들은 한국이라는 문학장 내의 발화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중국조선족 작가 금희가 한국에서 발표한 첫 소설 「옥화」는 조선족 사회가 바라보는 ‘탈북 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한국 사회를 향한 ‘인정투쟁’의 발화로 볼 수 있다. 「옥화」에는 조선족 사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탈북 여성이 등장한다. 주인공 ‘홍’과 ‘홍’의 교회 사람들은 ‘여자’(이름 없이 ‘여자’라 칭해지는 탈북 여성)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지만, ‘여자’는 도움받는 자로서 보여야 할 당연한(당연하다고 여겨지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 ‘여자’는 ‘홍’이나 교회 사람들의 배품에 대해 “그만하든 잘해”줬다며 평가절하한다. “왜 이 사람들은 배품을 한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단 말인가”라는 ‘홍’의 물음에는 분명 배푸는 자로서의 도덕적 우월성을 확인받고 싶은 심리가 깔려 있다. 진정한 환대가 아닌 배품은, 배푸는 자와 배품받는 자 사이의 위계를 고스란히 확인시켜 줄 뿐이다. 이러한 서사는 ‘탈북자’라는 경계인을 등장시킴으로써 조선족 사회 내부의 성찰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나아가 과연 ‘한국 사회는 어떠한가’라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주기도 한다. 「옥화」에서 ‘홍’이 탈북 여성을 이해하게 되는 계기는 바로 한국에서 일하다 온 시형(媳兄)의 등장이다.

우체국 역에 도착했다는 여자의 전화를 받고 나오면서 홍은 시형의 별정계 취한 얼굴을 생각해보았다. 눈만 뜨면 일, 일 잘하는 것 외에 그 나라 일반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도 누릴 수 없는 돈벌이 기계 같은 생활, 그곳에서 시형네는 몸뚱어리 하나와 불법체류자의 신분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여자처럼? 옥화처럼?(「옥화」, 82쪽)<sup>17)</sup>

---

이르는 시기, 조선족의 북한으로의 대량적 역이주로 인해 당시 조선족 사회가 처한 국민적 정체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연변사회에서의 조한 두 민족 간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한 나름의 문학적 대응”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혜영, 「1960년대 초반 동북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민적 정체성의 재정립」, 『민족문화연구』 제91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 pp.417-455) 이는 중국조선족문학을 연구함에 있어 문학장을 둘러싼 거시적 관점이 중요함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특히 ‘민족적 발화’나 ‘문학적 대응’과 같은 용어를 통해, 어떤 대상을 향한 문학적 발화로서 중국조선족문학을 바라본다는 점에서 본고의 맥락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조선족 노동자가 처해있는 상황을, 조선족 사회에서 탈북 여성이 처해있는 상황과 나란히 놓음으로써 비로소 ‘홍’은 ‘여자’를 이해하는 통로에 들어선다. 시형에게서 “자기 편이 아닌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불안함”을 읽은 ‘홍’은 ‘여자’에게서도 똑같은 ‘불안함’을 본다. “어쩌면 저런 불안감 때문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옥화」, 83쪽)라는 질문을 던지며 ‘홍’은 비로소 “길을 떠난 여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 모임에 가야겠다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약자의 위치에 있었던 조선족이 중국에서 반대의 상황으로 ‘자리바꿈’함으로써 역지사지의 태도로 탈북 여성을 이해하고 연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서사를 통해, 이 소설이 중국이 아니라 한국에서 처음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통해<sup>18)</sup>, 소설 「옥화」를 한국인을 향한 발화로 해석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옥화」에는 이름이 부여되지 않은 채 ‘여자’라고 지칭되는 탈북 여성 외에 소설의 제목인 ‘옥화’라는 이름을 가진 탈북 여성도 등장하는데, 그녀는 ‘홍’의 남동생과 연을 맺었던 탈북 여성이다. 당시 조선족 농촌 마을에는 결혼 상대를 찾지 못한 남성이 탈북 여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흔했고 ‘홍’의 남동생도 ‘옥화’와 그렇게 맺어졌던 것이다. 한국에서 발간된 금희의 소설집 『세상에 없는 집』에 실린 「노마드」에도 이러한 사례가 등장한다. 이러한 서사는 한국인에게 2000년대 한국 소설에서 자주 접한 바 있는 ‘농촌 노총각과의 결혼을 통해 이주했던 조선족 여성’의 서사를 떠올리게 한다. 즉 「옥화」와 같은 작품에 재현된 탈북 여성을 바라보는 조선족 사회의 시선은, 조선족 여성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과 나란히 놓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금희 소설의 탈북 여성은 진정한 환대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를 일깨움

17)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이하 작품명과 인용쪽수만 본문 괄호 안에 표기함)

18) 「옥화」는 중국에서 발표한 뒤 한국에서 재발표되는 과정 없이 『창작과비평』 2014년 봄호에 처음 발표된 소설이다.

“문제작 「옥화」가 한국의 『창작과 비평』에 실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족 작가로서 남과 북에 동시에 보내는 메시지가, 작가가 이방인으로 한국에 체류하면서 느꼈던 감각을 실체화해 서사화한 것이 「옥화」다.” 오창은, 「근대 세계체제의 확장과 약소자의 정체성—중국조선족 작가 금희의 소설 세계」, 『국제한인문학연구』 30, 2021, p.82.

과 동시에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조선족 여성의 고통을 돌아보게 한다. 작가의 의도가 어떠한 조선족 농촌 남성과 결혼한 탈북 여성의 이야기가 한국에서 발표될 때, 한국 농촌 남성과 결혼했던 조선족 여성의 이야기는 함께 언급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하위주체가 스스로 발화할 수 없는 구조에서 하위주체의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선명한 방법일 수 있다. 한국에서 겪은 조선족 여성의 고통은 「옥화」와 같은 간접적인 발화를 통해 한국인 독자에게 전해지며, 소설에서 ‘홍’이 보였던 이해와 연대의 태도를 독자 모두에게 요구하게 된다.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작품을 발표하고 있는 작가 금희는 ‘경계인’으로서 중국조선족이 할 수 있는 문학적 발화의 형식을 잘 보여준다. 특히 「옥화」와 같은 작품은 어떠한 문학장에서 발표되고 읽히는가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 중국조선족이라는 경계적 위치에서의 발화는 수신자(인정의 주체)를 매우 민감하게 의식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이 작가의 적극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든 아니든 그 위치이기 때문에 발산되는 효과를 분석하지 않고는 작품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중국조선족문학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 봐야 할 이유이다.

### 3. 유랑과 개척; ‘디아스포라’의 보편성과 특수성

당연한 얘기일 수 있지만<sup>19)</sup>, 금희의 소설을 읽으면 그가 중국조선족문학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음을 곳곳에서 확인하게 된다. 중국조선족이 형성된 역사적 기원이 수전(水田) 개간에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우선 그렇다. 이 장면들은 금희의 소설에서 주로 고향이나 어린 시절을 회상할 때 등장한다. 1979년생인 작가는 아주 1세대인 조부모 세대가 개간한 논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시기, 아직 개혁개방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안정적 농촌 공동체의 풍경 속에서 성장한 것으로 보인다. 수전 개간에 대한 자부심은 중국조선족 소설에서 자

19) 금희의 소설은 신동엽 문학상 수상 등 국내 평단에서 호평받고 있고 국내 독자들에게 이 절감 없이 읽힐 수 있는 작품들이기에 중국조선족문학의 맥락을 다시 환기해보고자 한다.

주 끊임없이 등장해 왔는데, 금희 소설에서는 벼가 익어가는 풍요로운 들판의 풍경으로 형상화되면서 그것의 기원으로서 언급되곤 한다.

당시로서는 막대한 역사였을 것이다. 그 넓고 깊은 강바닥으로 첫 물줄기가 천군처럼 들이닥치는 광경을 내려다보면서 우리의 할아버지들은 어떤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나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으므로, 그들의 흥분을 다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렇게 내려온 물줄기가, 동네 주위를 아득하게 감싸고 있는 논밭 구석구석으로 넘실거리며 흘러드는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뿐이다. 봄이면 까맣게 마른 논밭으로 하얀 물들이 서서히 채워지는 모습을, 여름이면 그 물판 위로 싱싱한 벼모들이 파랗게 줄지어 선 모습을 나는 좋아했다. (『돌도끼』, 178쪽)

시간적으로는 유년기, 공간적으로는 고향이라는 상수가 겹쳐지면서 조선족 공동체 마을은 금희 소설의 원형적 시공간으로 자리잡는다. 원형의 시공간은 훼손되기 마련인데, 그것은 “동네 사람들의 새로운 이주”(『월광무』, 118쪽)로 시작된다.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대규모 자본이 투입된 개발이 난만하면서 조선족 농촌공동체에도 이촌향도의 물결이 찾아온 것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새로운 이주”를 조선족 공동체 형성의 기원과 관련하여 설명함으로써 이주의 의미를 보편화한다는 점이다. 새로운 이주는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멀리 산을 넘고 물을 건너오던 당시처럼 또다시 더 살기 좋다는 곳으로 떠나는 것”(『월광무』, 118쪽)으로 서술된다.

도시로의 이주, 한국으로의 역이주를 더 나은 삶을 향한 이주로 바라보며 이것을 조선족 마을 형성기의 이주와 동일시하는 작가의 시각은, 조선족 1세대의 이주를 ‘정착’을 위한 지난한 투쟁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과 차이가 있다. ‘살기 좋은 곳을 찾아 떠나는 것’과 ‘살 수 없어서 떠나는 것’은 다르다. 1930~40년대에 본격화된 중국 동북지역으로의 조선인 이주는 일제 식민지 시기의 억압과 궁핍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등진 경우였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 별판에 수전을 개간하며 ‘제2의 고향’을 만들고 ‘정착’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자 생존 방식이었다.

이러한 차이는 단편 「월광무」에서 ‘유’와 ‘마로알’이라는 인물의 대비를 통해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교란시킨다. 공무원을 그만두고 비전을 찾아 떠나는 ‘유’와 “증조부 때부터 살아오던 땅인데 내가 어드루 가졌어?”라고 말하는 ‘마로알’. 조선족인 ‘유’는 할아버지 대부터 이어져 오는 유랑의 맥을 이어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사람이 아무 비전 없이 현실만 산다면 얼마나 지긋지긋하고 의미없을까?”라고 말하는 인물이다. ‘유’의 시각에서 볼 때 유랑은 꿈을 쫓는 행위이고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유랑 또한 그러한 맥락 속에 의미화된다.

동네에서는 유의 할아버지가 마을을 개척한 사람들 중 리더였다고 했다. 전쟁이 한창이었고 세상이 어지러워서 할아버지네 고향 조선반도에서는 살길을 찾아 만주 벌로 떠난 사람들이 적잖았다고 했다. 어린 할아버지는 부모님을 따라 두만강을 건너왔지만 전설의 만주벌까지 들어오지는 못하고 연변의 벽촌에 머물러 성장했던 것이다. 총대를 메고 달릴 수 있는 나이가 되자 할아버지는 어린 전사가 되어 군부대를 따라다녔고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공식적인 중국인으로 어영부영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수전을 풀 수 있는 땅을 찾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월광무』, 112쪽)

무엇 때문에 다니는 줄 안다니, 대체 뭘 안다는 걸까. 유의 할아버지 세대가 떠났던 것이 새로운 희망을 찾아서였다는 것? 유의 아버지가 떠났던 것은 자유를 위해서라는 것? 아니면, 유가 떠났던 것이 어떤 꿈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월광무』, 141쪽)

꿈을 찾아 떠났던 ‘유’는 시도하는 사업마다 어려움을 겪으며 빛을 띠안게 된다. 어린 시절 조선족 마을로 이사해 온 한족 ‘마로알’은 “땅을 떠나 살 수 없다”며 마을에 남아 집과 땅을 가진 지방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주와 정주의 차이는 선택의 문제로 표현되며 이주는 도전이자 개척으로, 정주는 현실에의 안주로 의미화되는 것이다. 그러나 ‘마로알’이 보이는 땅에 대한 애정, 노동에 대한 충실성은 결코 현실에의 안주만으로 해석하기 힘든 것이며 오히려 이전 세대 조선족이 지키려 했던 가치였다. 정착하기 위해 땅을 일구고 원주민의 승인을 얻고자 온갖 고난을 감내했던 조선족의 형상은 오히려 ‘마로알’에 가깝다. 조선족이 일군 마을에 최후까지 남은 인물을 한족으로 설정함으로써 조선족/한족, 이주/정주의 의미망은 교란된다. 유랑이자 개척이었던 이주는 실패하고 정주에의 지향

은 안주이자 세속적 성공으로 재배치됨으로써, 정주를 꿈꾸며 개척했던 이주 1세대 ‘디아스포라’의 의미는 불분명해진다.

점점이 별들이 살포시 내려와 파란 반딧불이로 그 주위를 날아다녔다. 인간이 추구하는 다른 모든 것들처럼, 그것 역시 잡으면 벌레가 되고 바라보면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것이었다. (『월광무』, 141~142쪽)

작품 말미의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 유랑을 통해 추구했던 꿈은 “잡으면 벌레가 되고 바라보면 아름다운 빛이 되는 것”으로 제시된다. 다시 말해 길 위에서 바라볼 때 아름다운 것이 꿈이며 그것이 계속 아름다울 수 있으려면 늘 길 위에 있어야 한다는 것. 이는 생존을 위해 목숨 걸고 국경을 넘을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주가 아니라 보편적 인간 삶의 여정으로서의 ‘디아스포라’를 의미한다. 이처럼 금희의 소설은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인간이 추구하는 ‘무엇’을 찾아 떠나는 것으로 서술하면서 조선족 1세대 이주의 의미를 보편화하게 되었고, 그럼으로써 조선족 ‘디아스포라’의 특수성이 희석되고 있다.

중국조선족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규정짓고자 하는 시도는 2000년대 이후 조선족 연구자의 평론<sup>20)</sup>과 중국조선족문학사 서술에서 지속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주류 문단과 한국 문단 모두로부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중국조선족문학만의 독자성을 설명하려는 나름의 시도라 할 수 있다.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서 민족적 독자성을 유지해야 하지만 중국의 소수민족 정책의 강경화에 따라 ‘모국’과의 지나친 유대를 형성해서도 안되는 상황 속에서 취해진 전략적 선택이라는 것이다. 또한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한국문학 및 세계문학과의 접촉이 잦아진 것도 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 또한 중국조선족문학의 ‘인정 투쟁’이라 할 수 있겠지만, 세계문화적 견지에서의 인정, 즉 상호인정을 기반으로 하지 않을 때에는 수직적 상승 욕구로서 세속화될 우려가 있는 시도라 생각

20) 김호웅,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연구』 제29집, 2010, 1-20면.

황유복, 「중국조선족의 문화공동체」, 해외한민족연구소 편, 『한반도 제3의 기회』, 화산문화사, 2009, 273면.



된다. 주류로의 편입을 욕망하는 ‘인정투쟁’은 ‘상호인정’이 전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경계적 위치에서 주류 질서에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로서의 ‘디아스포라 문학’의 의미에서도 멀어지게 된다.

스스로를 “조선어 소설을 쓰는 마지막 세대”일 것이라 말하는<sup>21)</sup> 작가 금희의 작품에서 조선족 1세대 이주의 의미를 예전 그대로 발견하고자 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며 바람직한 일도 아닐 것이다. 여기서 짚어내고자 하는 것은 중국조선족문학을 ‘디아스포라’ 문학으로 보편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그 경계적 위치에서만 할 수 있는 발화를 놓치게 된다는 점이다. 인정의 주체가 ‘세계문학’이 되면 필연적으로 인정의 주체와 객체는 수직적 서열 관계가 된다. ‘상호인정’의 가치를 전제로 한다면 ‘세계문학’이라는 추상(抽象)은 인정의 주체 자리에 놓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의 주체로 호명된다면 이는 ‘호명’을 통해 주체의 자리에 놓이고자 하는 세속적 상승 욕망의 발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경계인의 발화는 경계가 소멸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조선족이라는 경계인적 정체성이 존재하는 한 경계의 소멸도 가능하지 않다. 다만 경계 양쪽에서의 ‘상호인정’으로부터 경계적 발화의 성격이 달라질 뿐이다. 중국조선족의 경우 중국 사회에서의 상호인정(중국인과 조선족), 한국 사회에서의 상호인정(한국인과 조선족)으로 나아감으로써 발화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경계적 위치가 가지는 보편성과 특수성 사이의 긴장은, 상호인정의 관계성을 통해 유지될 수 있음을 다음 장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 4. ‘자기 세계’와 상호인정

중국조선족 소설의 특징 중 하나는 이주민 문학임에도 불구하고 원주민과의 갈등이 첨예하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태준의 『농군』(1939년)이나 안수길의 『벼』(1944년)와 같은 작품에서 수전 개간에 반대하는 현지인과의 갈등이 잠시 등장하지만 이는 조선인이 거둔 수전개간의 공로를 부각하기 위한 장치로

21) 김지영 기자, 「“조선어 소설을 쓰는 마지막 조선족 세대가 될 것 같아요.”, 『동아일보』 2015. 12. 2.

서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이후의 소설에서도 한족 현지인은 어울려 살아가는 동료로서 등장하곤 했다.

현재까지의 중국조선족 소설사에서 가장 구체적인 갈등의 대상은 오히려 같은 민족인 한국인이었다고 볼 수 있다.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연변문학』에 발표된 소설들을 살펴보면, 한국으로의 이주로 인한 가족 해체, 자본주의적 가치관으로 인한 혼란 등 ‘타락한 현실과 그 원인으로서의 한국’을 기본 축으로 하는 서사가 대다수였다.<sup>22)</sup> 이러한 서사들 속에서도 그 원인이 되는 한국은 막연한 원망의 대상일 뿐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형상화되진 않았다.

이러한 조선족 소설의 연장선 상에서 볼 때, 금희 소설은 조선족이 아닌 외부인이 구체적인 형상을 띠고 등장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관계가 서사의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탈북 여성도 그러하지만, 중국인이거나 한국인도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곤 한다. 「돌도끼」에서는 어린 시절 소꿉친구였지만 성장하며 점점 멀어지게 된 한족 친구 ‘홍리’, ‘랑쯔’와의 관계가, 「세상에 없는 집」에서는 중국인 ‘닝’과 한국인 ‘연주’와의 관계가 중심 서사를 이룬다. 이들의 관계는 ‘놀이’를 통한 문화적 소통으로 연결된 수평적 상호인정의 관계이다.

「세상에 없는 집」의 ‘나’는 조선족으로서 한국어 강사로 일하고 있고 ‘닝’은 그 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일하는 중국인이며 ‘연주’는 ‘나’와 학부모 사이로 만난 한국인이다. 어떤 이익 관계가 아닌 이들은 마라탕을 함께 먹는 등 문화적으로 교류하며 그 속에서 서로의 차이도 확인한다.

나와 연주는 본능적으로 많이, 아주 많이 닮아 있었지만, 같은 배경 속에서 살고 있지 않은, 곧 문화의 위기에 놓인 두 마리의 도롱뇽 같아서 도무지 같은 시각으로 함께 현실을 해석할 수 없었다. 반면 닝과 나는 애초부터 한 배경 속에서 살고 있는 오리와 닭이었다. 우리는 우리의 시대와 배경을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개인적인 습관과 취향을 송두리째 공유할 수는 없었다. 「세상에

22) 즐고 「디아스포라 서사의 윤리」(『국제한인문학연구』 제6호, 국제한인문학회, 2009)에서 『연변문학』에 실린 허련순의 「하수구에 돌을 던져라」, 박성균의 「씩수가 노탕다」, 리창현의 「용팔촌의 봉구」, 강호원의 「인천부두」 등을 분석한 바 있다.

없는 나의 집, 20쪽)

이러한 차이는 음식이나 인테리어 등의 문화적 취향을 통해 드러난다. ‘낭’은 매운맛 마라탕을 못 먹고 ‘연주’는 ‘나’보다 더 강하고 자극적인 매운맛을 즐긴다. 그러면서 서로에게 “조선족스럽다”, “한국스럽다”고 말하고 또 서로를 부러워한다. ‘낭’과 ‘연주’는 ‘나’가 한국어와 중국어에 모두 능통함을, ‘나’는 ‘연주’의 완전한 한국어와 ‘낭’의 완전한 중국인임을 부러워한다. 하지만 이 부러움에는 수직적 상승 욕구가 개입되어 있지 않다. 위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완전하게 일치하지도 않고 완전하게 이해할 수도 없지만 “네가 네 ‘말’을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더라”고 말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느슨한 연대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관계야말로 호네트가 말하는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 이상적 관계에 가깝다고 하겠다.

「세상에 없는 나의 집」에서의 ‘낭’과 ‘연주’는 대상화되어 있지 않고 ‘나’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앞에서 살펴본 대상화된 탈북 여성은 서사를 이끄는 화자를 ‘인정’할 수 없는 수직적 위계 속에 놓여 있었다. 탈북 여성이 다른 이의 배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베푸는 자와 배품 받는 자의 관계로서 ‘상호인정’의 전제가 배제된 수직적 관계이기 때문이다. 물론 수평적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은 물질적 토대이므로 탈북 여성과의 관계와 「세상에 없는 나의 집」의 관계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겠지만, 서사적 메커니즘만을 놓고 본다면 대상화되지 않은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 상호인정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서로를 대상화하지 않고 인정할 수 있으려면 저마다의 ‘자기 세계’가 필요하다. ‘나’가 찾은 자기 세계는 최초의 ‘우리 집’을 어떻게 채워 넣느냐의 문제로 표현된다. 분양받은 집의 뼈대에(중국식 분양법) “옛날 조선의 시골풍”, 즉 중국조선족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겨넣는 것. 이는 중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지닌 중국조선족의 표상으로 볼 수 있다. 거기에는 ‘낭’이 선물한 마그리프의 「인간의 아들」이 조화롭게 걸려 있다. 국경을 넘는 이주가 일상이 된 시대에 가질 수 있는 ‘자기 세계’란,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적 토대

위에 서로 다른 문화가 닿아 만들어지는 혼종적 특수성이라 명명할 수 있겠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사람이 있을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그 자체일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이’와 ‘저’ 사이에 존재하는 무수한 회색지대들, 그 지대마다 완전히 그 지대에 속하는 것들이 있을 수도 있는 것이다. 두 개의 완전수 사이에 확실하게 존재하는 무수한 소수들처럼. (『세상에 없는 나의 집』, 21쪽)

‘이도 저도 아님’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회색지대의 정체성을 스스로 인정할 때 상호인정의 관계가 가능해진다. 이러한 관계성 속에서의 ‘자리바꿈’은 수평적 이동이 되고 이를 통한 역지사지는 인간 보편의 존재론적 허무를 공유하는 데에 이른다. 중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중국조선족이든 인간으로서의 그들과 허무를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너의 그늘을 생각해보았다. (...) 나는 아무도 대신 정립해줄 수 없는 나만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 너 또한 아무도 채워주지 못하는 그녀만의 허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세상에 없는 나의 집』, 29쪽)

이러한 인식은 앞에서 살펴본 ‘디아스포라’의 보편성, 즉 인간 보편의 삶의 여정으로서의 의미와 연결되지만 ‘자기 세계’와 상호인정을 전제로 한 것이기에 중국조선족만의 특수성을 잃지 않는다. 디아스포라적 삶의 여정과 존재론적 허무는 인류 보편의 것이지만 저마다의 ‘자기 세계’ 속에 역사적 도정과 문화적 특수성이 담겨 있다면, 서로의 ‘자기 세계’에 투입하며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여지가 계속해서 남아있다면, 보편성과 특수성의 긴장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상호인정의 관계성은 ‘자기 세계’라는 독자성을 기반으로 보편성의 차원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서사적 동력이 된다.

금희 소설이 보여주는 ‘자기 세계’에의 인식은 중국조선족 소설이 나아갈 방향을 타진하는 의미있는 지침이 된다. 앞으로의 중국조선족 소설은 경계적 위치에서 더 많은 외부인 타자와 소통하고 연대하는 서사를 펼치게 될 것이다. 물론

조선족 자치구의 인구가 계속 줄어들면서 조선어를 사용하는 인구도 급격히 감소하며 중국조선족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외부 세계와의 만남과 확장이 문학적 발화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 어떻게 ‘자기 세계’의 혼종적 문화 정체성을 보여줄 것인가가 중국조선족문학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 5. 결론

금희의 소설은 현재의 중국조선족 소설이 가진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중국조선족 소설사의 맥락을 이어받으며 한국문학을 향해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상호인정의 가치를 제시함으로써 특수성과 보편성의 긴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디아스포라의 의미를 확장함으로써 세계문학을 향한 수직적 상승 욕망을 드러낸다는 한계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내 중국조선족 공동체의 존재가 그러하듯, 금희의 소설은 존재 자체로 ‘인정투쟁’의 발화로 기능한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정투쟁의 발화가 상호인정과 이해, 연대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을 분석하였다.

금희의 소설은 중국조선족 소설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이주가 일상이 된 현재의 세대적 감각도 포착하고 있다. 또한 경계를 넘나드는 발화를 통해 혐오와 차별의 질서에 질문을 던지고 상호인정에 기반한 ‘자기 세계’로서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다. 금희 소설이 서 있는 독특한 위치가 사라지지 않도록 그의 인정투쟁에 충실히 응답해야 할 책임이 모두에게 있다.

이주민 문학에 뿌리를 둔 중국조선족문학이 오히려 이주가 일반화된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존립의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중국조선족문학은 ‘인정투쟁’의 발화를 계속해나갈 것이지만, 중국과 한국, 나아가 세계문학을 향한 ‘인정투쟁’이 수직적 상승 욕구가 아니라 ‘자기 세계’와 ‘상호인정’에 기반한 것일 때 지금까지의 역사적 독자성을 잃지 않는 ‘경계적 위치’에 선 문학으로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국과 세계문학과의 접점이 점차 찾아지고 있는 중국조선족 소설을

‘인정투쟁’의 관점에서 바라봄으로써 문학사적 연속성을 찾고자 하며, 금희 소설의 문학사적 맥락과 쟁점을 통해 ‘인정투쟁’ 관점의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했다. 물론 금희 소설만으로 전체 소설사적 논의를 가늠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중국에서 발표한 금희의 소설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제한 조선족 문학을 문학사적 연속성 속에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답하기 위한 하나의 출발 지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론(試論)을 제시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를 통해 더 많은 작품을 포괄함으로써 ‘인정투쟁’의 시대별 양상을 세밀하게 살피는 작업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자료

금희, 『세상에 없는 나의 집』, 창비, 2015.  
 —, 『천진시절』, 창비, 2020.

##### 2. 단행본

김현경, 『사람 장소 환대』, 문학과지성사, 2016.  
 오상순, 『중국조선족문학사』, 민족출판사, 2007.  
 악셀 호네트, 문성훈이현재 역, 『인정투쟁』, 사월의책, 2011.

##### 3. 논문

김미란리해연, 「1950년대 후반 중국사회의 상황과 조선족 문학의 변화—김학철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No.193, 국어국문학회, 2020, pp.365-392.  
 김성수, 「연변 문예지의 역사와 ‘코리아 문학’ 재구성」, 『국제한인문학연구』 제29호, 국제한인문학회, 2021, pp.11-39.  
 —, 「코리아 문학 통일과 디아스포라 담론의 욕망—연변 문예지의 매체사적 쟁점」, 『대동문화연구』 제115집,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21, pp.313-347.  
 김창규, 「한국의 ‘중국조선족’ 인식에 대한 성찰」, 『감성연구』 제16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8, pp.179-208.  
 김형규, 「한중수교 이후 중국조선족 소설의 변화에 대한 비판적 검토—2000년대 소설에 나타난 ‘새로운 이주 체형’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제39집, 한중인문학회, 2013, pp.25-48.

- 김호웅, 「중국조선족과 디아스포라」, 『한중인문학연구』 제29집, 한중인문학회, 2010, pp.1-20.
- 성근재, 「민족어의 정치성—중국 조선족의 문화정치적 상황에 대한 역사적 고찰」, 『중국어문학논집』 No.95, 중국어문학연구회, 2015, pp.219-237.
- 신동순, 「영화 〈청년경찰〉 속 조선족과 대립동의 문제적 재현」, 『중국학논총』 제69권, 고려대학교 중국학연구소, 2020, pp.269-291.
- 안상윤, 「글로벌시대 “과계민족”의 정치적 역할; 중국 조선족을 중심으로」, 『평화학 연구』 제16권 3호, 한국평화연구학회, 2015, pp.89-106.
- 오연옥, 「코리안 디아스포라 소설의 증오인식과 공존의 가치 연구—조선족과 탈북자 서사를 중심으로」, 『한국문학논총』 제90집, 한국문학회, 2022, 4, pp.285-339.
- 오창은, 「근대 세계체제의 확장과 약소자의 정체성—중국조선족 작가 금희의 소설 세계」, 『국제한인문학연구』 30, 국제한인문학회, 2021, pp.67-96.
- 음영철·김정현·노동욱, 「재한 조선족 혐오표현과 타자화 연구: 영화 〈청년경찰〉과 〈범죄도시〉를 중심으로」, 『동서비교문학저널』 제57호, 2021 가을, pp.225-251.
- 이상갑·김영미, 「중국조선족 소설의 주제성향 연구—1990년대 이후 소설을 중심으로」, 『우리어문연구』 54집, 우리어문학회, 2016, pp.203-229.
- 이혜영, 「1960년대 초반 동북 조선족의 혁명서사와 국민적 정체성의 재정립」, 『민족문화연구』 제91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2021, pp.417-455.
- 전은주, 「재한 조선족 문학의 ‘대립동’ 재현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No.75, 한국문학연구학회, 2021, pp.47-75.
- 조주영, 「인정의 정치—윤리학」, 『여성이론』 No.39, 도서출판여이연, 2018, pp.87-124.
- 차성연, 「디아스포라 서사의 윤리」, 『국제한인문학연구』 제6호, 국제한인문학회, 2009, pp.131-152.
- 최병우, 「중국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한국의 이미지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30집, 한중인문학회, 2010, pp.29-50.
- 최우길, 「디아스포라의 자아인식과 글쓰기—중국조선족 작가 김용식, 허련순, 금희를 중심으로」, 『동아인문학』 Vol.45, 동아인문학회, 2018, pp.239-259.
- 최인규·전범수,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에 나타난 범죄장소로서의 다문화 공간 비교」, 『사회과학연구』 제35권 4호,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pp.107-125.
- 한희정·신정아, 「한국 영화의 조선족 재현과 혐오표현의 문제—〈청년경찰〉 손해배상 1심 판결을 중심으로」, 『현대영화연구』 제15권 3호, 한양대학교 현대영화연구소, 2019, pp.109-135.
- 황유복, 「중국의 다민족 국가 환경 속에서 조선족이 보유한 사회적 위상」, 『중국과 중국학』 제4권, 영남대학교 중국연구센터, 2006, pp.81-93.

논문접수일	2022년 08월 10일
심사완료일	2022년 08월 1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

The History of the Chinese–Korean Novel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Struggle for Recognition’

– Focusing on the historical context and issues of Geumhee's novels –

Cha, Seongyeon

This paper aims to find continuity in literary history by looking at Chinese–Korean novels, which are becoming more frequent in contact with Korean and world literature, from the perspective of “recognition struggle” through the literary history context and issues of Geumhee novels.

The Chinese Korean literature can be seen as the utterance of the “recognition struggle” in that it was used in the form of speaking toward an object in the “boundary position.” The desire for “recognition” of the Chinese Korean people, who had always been located as the weak or marginal people, was spoken in the literary form of “recognition struggle” that proved their existence and shouted “exist” toward the center.

The Geumhee novel “Okhwa,” released in Korea, needs to be viewed as an utterance in the literary–field of Korea, and raises critical questions about the gaze of Chinese–Korean women through the gaze of Chinese–Korean society looking at North Korean defectors reproduced in the novel. In this way, the macro perspective of Chinese–Korean literature, which stands in a “border position,” is important in which literary field it fires toward. As with the existence of the Chinese–Korean community in Korea, Geum–hee's novel functions as an utterance of the “recognition struggle” in its existence. In this paper, it was analyzed that the utterance of such a struggle for recognition awaits mutual recognition, understanding, and response of solidarity. It was also intended to examine that the establishment of “talking” and “self–world” in a boundary position and mutual recognition between them maintain narrative tension and prevent the meaning of “diaspora” from tilting too much toward universality or specificity.

Chinese Korean literature, which is rooted in immigrant literature, is facing a crisis

of existence due to the situation of the times when migration has become common. As it has been, Chinese Korean literature will continue to speak of the “recognition struggle,” but it can exist as a literature in a “border position” that does not lose historical uniqueness when the “recognition struggle” toward China, Korea, and even world literature is based on “self-world” and “mutual recognition.”

**Keyword** History of Chinese-Korean Novels, Struggle for Recognition, Geumhee, Boundary Location, Mutual Recognition, Diaspora

# 중국어 속담에서 개의 상징 의미와 의미 자질 분석

이명아\*

## 국문요약

중국어 속담 중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인 개는 인류가 최초로 길들인 가축으로 인간과 친근할 뿐만 아니라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동물의 상징 의미는 언어문화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며 동일한 언어의 어휘체계라고 하더라도 어휘 범주에 따라 감정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예로,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중국어 단어 중 ‘狗[개]’는 주로 부정적 의미로 표현되지만 중국어 속담에서 ‘狗/犬[개]’는 긍정적·부정적 이미지를 내포한다.

중국어 속담에 나타난 ‘狗/犬[개]’의 긍정적 의미 자질은 [+선함], [+의리], [+충실함], [+이익], [+행운], [+부유함] 등이 있으며, 부정적 의미 자질은 [-높은 지위], [-품격이 높다], [+간사하다], [+비열하다], [-선함], [+더럽다], [+천박하다], [-영특하다], [-용맹하다], [+우둔하다], [-유능하다] 등이 있다. 이중 의미 자질 [+선함]과 [-선함]을 모두 포함하는데 이는 중국어 속담에 묘사된 개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 자질을 지니게 된다. 예로, 인간에게 충직한 동물로 평가받는 개는 [+선함]을 갖지만 태생적으로 고칠 수 없는 더럽고 비천한 행동은 악인의 행동에 비유되어 의미 자질 [-선함]을 갖는다. 이외에 중국어 속담에서 ‘狗/犬[개]’는 행운과 부를 가져오는 동물로 여겨지는데 이는 예전 중국 미신이 반영된 것으로 문화적 의미 자질 [+행운], [+부유함]을 내포한다.

**주제어** 중국어, 속담, 개, 상징 의미, 의미 자질

### 〈목차〉

1. 머리말
2. 개와 관련된 중국어 속담의 의미 영역
3. 중국어 속담에서 개의 의미 자질 분석
4. 맺음말

\* 국민대학교 교양대학 조교수

## 1. 머리말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한 동물은 그 나라의 언어문화에 종종 반영되어 다양한 상징 의미를 갖는다. 예로, 중국어 어휘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 ‘狗/犬[개]’의 쓰임을 보면 ‘狗男女[연놈], 狗腿子[앞잡이], 狗命[천한 목숨]’ 중 ‘狗[개]’는 부정적 의미로 쓰이며 ‘犬子[자기 아들을 타인에게 이르는 겸칭]’<sup>1)</sup> 중 ‘犬[개]’는 화자의 겸손함을 표현한다. 또 다른 예로, 우직한 ‘牛[소]’는 형용사 의미로 ‘능력이 대단하고 실력이 뛰어나다’는 의미를 지니는데 ‘牛人[대단한 사람]’<sup>2)</sup>, ‘真牛[정말 대단하다]’ 등의 쓰임을 볼 수 있다. 소는 한국어 어휘에서 ‘소같이 벌어서 쥐같이 먹어라’ 등과 같이 성실한 이미지로 표현되지만 능력이 뛰어나다는 상징 의미를 찾아보기는 어렵다.

이처럼 여러 나라의 공통된 관념이나 풍습 등에 따라 동물의 상징 의미는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게다가 중국어 ‘狗[개]’는 사람이나 사물을 지칭하는 단어에는 ‘狗腿子[앞잡이]’ 등과 같이 부정적 이미지로 쓰이지만 ‘猫认屋, 犬认人[고양이는 밖에서 집만 알아보고 주인을 모르지만 개는 밖에서 주인을 알아본다.]’와 같은 속담에는 긍정적 의미로 쓰여 주인에 대한 충절을 상징한다. 즉, 동일한 언어의 어휘체계라고 하더라도 어휘 범주에 따라 ‘狗[개]’의 감정 의미가 다르게 나타난다.

속담은 예전부터 민간에 전해 오는 교훈이나 경계가 되는 말로 이러한 속담에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고 친근한 동물이 주로 쓰이며 특정 문화권 사람들이 공유하는 공통된 관념과 문화적 의미 자질을 내포한다. 이에 중국어 속담 중 개의 상징 의미를 살펴보고 중국의 문화적 의미 자질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와 관련 있는 중국 선행연구로 黄育红(2015)은 중국어 속담 중 성차별적 내용과 여기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분석했으며, 张慧智(2017)는 중국어 속담의 은유 현상을 분석했다. 高伊莎·林燕(2020)은 중국어와 일본어 속담

1) 韩省之, 『称谓大辞典』, 北京: 新世界出版社, 1991, p.693.

2)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p.959.

중 ‘龙’의 상서로운 이미지를 비교했으며, 劉崧(2021)은 중국어 속담의 화용 표지와 기능을 분석했다.

한국의 선행연구로 박애양(2016)은 날씨와 관련된 한국어와 중국어 속담을 분류하고 표현 특징을 비교했으며, 배다니엘(2018)은 우정 관련 중국어 속담의 교육 방안을 연구했다. 장영희(2019)는 말과 관련된 한중일 속담에 나타난 언어의 효율성, 실천성, 이해성 등의 언어관을 분석했다. 이선희·신지연(2019)은 중국어 속담 중 숫자 ‘三’의 문화적 함의와 주관량을 분석했으며, 이갑남(2020)은 건강, 질병과 관련된 한국어와 중국어 속담을 조사하여 양국의 건강에 대한 인식, 건강과 생활에 대한 태도 등을 대조 분석했다. 장지혜(2020)는 개와 관련된 한국, 중국, 인도네시아 속담을 조사하여 상징 의미와 은유적 표현을 비교 분석했다.

이 논문에서는 중국어 속담에 나타난 ‘狗/犬[개]’의 상징 의미, 의미 자질, 감정적 의미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중국어휘 범주에 따른 ‘狗/犬[개]’의 쓰임 차이와 문화적 의미를 관찰할 수 있는 어휘교육 자료로 활용 가치가 있을 것이다.

## 2. 개와 관련된 중국어 속담의 의미 영역

『中国谚语大辞典』 중 개와 관련된 중국어 속담을 조사하여 총 139개를 수집했으며 이중 개를 지칭하는 중국어 단어형태는 ‘狗’가 112개, ‘犬’이 27개로 나타난다. 우선 『现代汉语词典』에 수록된 ‘狗’, ‘犬’의 의미를 살펴보자<sup>3)</sup>.

### 【狗】

[명사] 포유동물로 종류가 많고 청각과 후각이 모두 예민하며 혀가 길고 얇으며 열을 발산할 수 있고 털은 노란색, 흰색, 검은색 등의 색을 띤다. 인류가 최초로 길들인 가축으로 종류가 많고 경찰견으로 훈련되거나 사냥 또는 양치기 등을 돕는데 쓰인다. ‘犬’이라고도 한다.

—狗腿子[욕설, 권력이 있는 나쁜 사람을 위해 분주하게 뛰어나며 악행을 돕는

3) 위의 책, p.461, p.1085.

사람.], 狗咬狗[개가 개를 물다, 나쁜 사람들끼리 서로 배척하고 싸우는 것을 비유한다.], 狗嘴吐不出象牙[개 주둥이에서 상이를 토해낼 수 없다. 악인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비유한다.]

【犬】

[명사] 개

-犬马[고대 신하들이 군주에게 스스로를 견마라고 비유한 것으로 군주가 마음대로 부리기를 바라는 염원을 나타낸다.], 犬子[겸칭, 타인에게 자기 자식을 낮추어 일컫는 말.]

위의 사전 주해 중 ‘狗’와 ‘犬’은 모두 ‘개’를 뜻하지만 『现代汉语词典』에 수록된 관련 용례의 ‘狗’, ‘犬’의 감정 의미는 차이를 보인다. 예로, ‘狗腿子, 狗咬狗, 狗嘴吐不出象牙’ 중 ‘狗’는 ‘나쁜 사람’을 뜻하여 부정적 의미로 쓰이지만, 겸칭 ‘犬马, 犬子’ 중의 ‘犬’은 스스로를 낮추어 일컫는 말로 부정적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중국어 속담에 나타난 ‘狗’와 ‘犬’의 감정 의미는 3장 중 의미 자질 분석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우선 개와 관련된 중국어 속담의 의미 영역을 다음 <표 1>로 분류하여 살펴본다.

<표 1> 개와 관련된 중국어 속담의 주요 의미 영역

대분류	소분류	중국어 속담 중 관련 묘사 예
신체적 특징	후각	사냥개의 예민한 코
	체온조절 능력	날씨가 추워질 때 개는 입이 가장 먼저 추위를 느낀다./겨울의 三九, 四九 기간에는 가장 추위에 강한 개도 얼어 죽는다.
습성	충절	개는 고양이와 다르게 밖에서 주인을 알아본다.
	식성	개가 똥을 먹는다./개는 생선을 먹지 않는다.
	짖는 버릇	개가 짖어도 사람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무는 버릇	개도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문다.
	땅을 파는 버릇	개는 입이 궁급하면 물막이 독을 판다.
	꼬리 관련	개는 얻어맞은 후 꼬리를 내린다./개가 꼬리를 흔든다.
재주	집 지키는 솜씨	개는 집을 지키는 솜씨가 있다./개를 길러 집을 방어하다.
미신	좋은 징조	개가 집에 들어오면 그 집이 부유해진다./가업이 번창한다.

위의 <표 1>을 보면 개와 관련된 중국어 속담의 주요 의미 영역은 개의 신체적 특징, 습성, 재주, 미신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중국어 속담의 예

를 다음에서 살펴보자.

가. 개의 신체적 특징

- ㉠. 猎狗的鼻子药农的眼[사냥개의 코, 약초 채배 농민의 눈. 사냥개의 코가 가장 예민하고 약초를 캐는 사람의 눈이 가장 밝다는 것을 가리킨다.]
- ㉡. 人冷先冷腿, 狗冷先冷嘴[날씨가 추워질 때 사람은 가장 먼저 다리에 추위를 느끼고 개는 입이 가장 먼저 추위를 느낀다. 사람은 다리의 보온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 ㉢. 三九四九冻死狗[겨울의 삼구, 사구에는 가장 추위에 강한 개도 얼어 죽는다. 삼구, 사구는 일 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인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개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의미 영역은 개의 뛰어난 후각 능력, 추위에 잘 견디는 신체 능력, 추위를 가장 먼저 느끼는 신체 부위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세분할 수 있다. 예로, 예문 ㉠은 사냥개의 예민한 후각 능력을 표현하고, 예문 ㉡는 추울 때 사람과 다르게 가장 먼저 추위를 느끼는 개의 신체 부위 표현을 볼 수 있고, 예문 ㉢은 추위에 강한 개라도 중국의 절기 ‘三九’, ‘四九’<sup>4)</sup>에는 얼어 죽는다는 내용이다. 다음은 개의 습성과 관련된 중국어 속담을 살펴보자.

나. 개의 습성

- ㉣. 猫认屋, 犬认人[고양이는 밖에서 집만 알아보고 주인을 모르지만 개는 밖에서 주인을 알아본다.]
- ㉤. 狗要吃屎, 沙糖换弗转[개는 똥을 먹어야 하고 사탕으로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 ㉥. 人不作贼心不惊, 狗不吃鱼口不腥[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당황하지 않는데 이는 개가 생선을 먹지 않아 입에서 비린내가 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을 가리킨다.]
- ㉦. 狗汪汪拦不住人走路[개가 멍멍 짖어도 사람이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나쁜 사람이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사람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한다는 것을 비

4) 동지 후의 19일째부터 27일까지 세 번째 9일 동안의 기간을 ‘三九’라고 하며 일 년 중 가장 추운 시기이다. 동지로부터 첫 번째 9일 동안의 기간을 ‘一九’라고 하며, 두 번째 9일 동안의 기간을 ‘二九’, 세 번째 9일 동안의 기간을 ‘三九’, 네 번째 9일 동안의 기간을 ‘四九’라고 한다. 百度百科 ‘三九’ <https://baike.baidu.com> 검색일 2022년 7월 5일

유한다.]

- ㉞. 犬若赶到绝望路, 岂不回头咬他人[개도 궁지에 몰리면 사람을 문다. 남을 너무 심하게 쫓박하면, 자기에게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는 것을 비유한다.]
- ㉟. 人饿做媒, 狗馋刨圩, 猫子饿起来吃蛇[사람은 입이 궁금하면 결혼 중매를 하고 개는 입이 궁금하면 물막이 독을 파고 고양이는 입이 궁금하면 뱀을 먹는다.]
- ㊱. 人怕输理, 狗怕夹尾[사람이 이치에 맞지 않아 패하는 것은 매우 난처한 것으로 마치 개가 언어맞은 후 꼬리를 내린 모습과 같다.]
- ㊲. 人不凭嘴, 狗不凭尾[사람은 입을 의지하지 않고, 개는 꼬리를 의지하지 않는다. 사람을 볼 때 그의 말만 들어서는 안 되는데 마치 개가 꼬리를 흔들 수 있는지 없는지 만을 보면 안 되는 것과 같다. 주둥이만 잘 놀리는 사람은 반드시 실속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리킨다.]

개의 습성과 관련된 의미 영역은 주인에 대한 충절, 식성, 짓거나 무는 버릇, 땅을 파는 버릇, 꼬리 관련 습성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예로, 예문 ㉞는 고양이와 다르게 밖에서 주인을 알아보는 개의 충절을 엿볼 수 있으며 예문 ㉟와 예문 ㊱는 똥을 먹고 생선을 먹지 않는 개의 식성을 알 수 있다. 예문 ㊱, 예문 ㉞, 예문 ㉟는 개의 짓거나 무는 버릇, 땅을 파는 버릇 등을 엿볼 수 있으며 예문 ㊱와 예문 ㊲는 감정 또는 특정 상황에 따라 꼬리를 흔들거나 내리는 습성을 묘사한다. 다음은 개의 재주 및 미신과 관련된 중국어 속담을 살펴보자.

다. 개의 재주 및 미신 관련

- ㊳. 马有垂缰之力, 狗有守户之功[말은 고삐를 당기는 힘이 있고, 개는 집을 지키는 솜씨가 있다.]
- ㊴. 狗来富, 猫来贵[개가 오면 부자가 되고 고양이가 오면 현귀하게 된다. 예전 미신에 개가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이 부유해지고, 고양이가 어느 집에 가면 그 집의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된다고 여겼다.]

개의 재주 및 미신 관련 의미 영역의 예로, 예문 ㊳는 개의 집 지키는 솜씨를 묘사하고 예문 ㊴은 개가 어느 집에 가면 부유해진다는 중국의 미신을 엿볼 수



있다.

### 3. 중국어 속담에서 개의 의미 자질 분석

중국어 속담에서 ‘狗/犬[개]’에 대한 중국인들의 공통된 관념과 문화적 의미 자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개와 인간의 관계, 그리고 개의 행동이 인간에게 인지되는 감정 의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인간에게 충직한 동물

인류가 최초로 길들인 가축 ‘狗/犬[개]’는 인간과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여 친근할 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에 비하여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높다. 개의 충직함이 반영된 중국어 속담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 ㉠-1. 野狼养不成家狗[야생 늑대를 집개로 키울 수 없다. 같은 부류의 사람이 아니면 그에게 아무리 잘 대해도 자기와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질이 나쁜 사람을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비유한다.]
- ㉠-2. 猪拾柴, 狗烧火, 野狐扫地请客坐[돼지가 땔나무를 줌과 개가 불을 지피자 여우가 손님 접대에 나섰다. 여우는 사람들 앞에서 알랑거리는 것에 익숙한 위선적인 소인이라는 것을 가리킨다.]
- ㉠-3. 鸡犬认得家[닭과 개는 모두 자기 주인의 집을 안다.]
- ㉠-4. 犬马犹然知恋主[개와 말조차 주인을 그리워할 줄 안다. 사람됨은 더욱 인정과 의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 ㉠-5. 猫儿狗儿识温存[고양이와 개는 정성을 안다. 고양이와 개도 주인이 그들을 자상하게 보살피는 것을 안다는 뜻으로 사람은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의 관심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다.]
- ㉠-6. 犬有湿草之义, 马有垂缰之恩[개, 말 등의 동물도 의리를 지키기 마련인데 하물며 사람이랴.]
- ㉠-7. 犬不弃贱主, 子不扬父丑[개가 가난한 주인을 싫어하지 않듯 아들은 아버지의 추악한 일을 떠벌리지 않는다. 신하가 국왕을 배반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예문 ㉑-1 중 인간에게 길들여진 ‘家狗[집개]’는 좋은 사람을 비유하고 이와 대립되는 본질이 나쁜 사람은 ‘野狼[야생 늑대]’에 비유된다. 여기서 ‘家狗[집개]’는 의미 자질로 [+선함]을 갖지만 ‘野狼[야생 늑대]’는 [-선함]을 지녀 서로 대립 구조를 이룬다.

중국 통속문학 중 대체로 돼지의 이미지는 우직하고 개는 충실하고 여우는 요염하고 품행이 다르지 않다.<sup>5)</sup> 예문 ㉑-2에서도 볼 수 있듯이 ‘狗[개]’는 돼지가 가져온 똥나무로 성실하게 불을 지피는 충실한 이미지로 표현되어 의미 자질 [+충실함]을 지닌다.

예문 ㉑-3~예문 ㉑-6 중 ‘狗/犬[개], 鸡[닭], 马[말], 猫儿[고양이]’는 자신을 자상하게 돌보는 주인의 정성을 알고 주인을 그리워하는 동물로 표현된다. 그러나 예문 ㉑ 중 ‘猫[고양이]’는 밖에서는 집만 알아볼 뿐 주인을 모르지만 ‘犬[개]’는 밖에서도 주인을 알아볼 수 있어 개는 고양이보다 충직한 동물로 표현된다. 예문 ㉑-7 중 ‘犬[개]’는 가난한 주인을 싫어하지 않으며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 의리 있는 이미지로 표현되어 의미 자질 [+의리]를 내포한다. 이로 보아 인간에게 충직한 ‘狗/犬[개]’의 특성은 중국어 속담에서 [+선함], [+의리], [+충실함] 등의 긍정적 의미 자질을 내포한다.

## 2)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

개는 집 지키는 재주를 갖고 있는데 이는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여 인간에게 이익이 되는 유용한 능력으로 평가된다. 이와 관련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㉑-1. 养猫捕鼠, 蓄犬防家[고양이를 길러 쥐를 잡으며 개를 길러 집을 방어한다. 고양이를 기르는 것은 쥐를 잡기 위해서이고, 개를 기르는 것은 도둑을 막기 위해서이다. 고양이와 개는 각각의 쓰임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 ㉑-2. 犬守夜, 鸡司晨[개는 밤에 문을 지키고, 닭은 새벽을 알리며 운다. 개도 닭도 각자 제 몫을 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5) 温端政, 『中国谚语大辞典』,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11, p.1366.

예문 ①, 예문 ①-1, 예문 ①-2에서 ‘狗/犬[개]’를 기르는 목적은 도둑을 막고 밤에 문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인의 재산을 보호하여 인간에게 보탬이 되는 유용한 능력으로 평가받아 긍정적 의미 자질로 [+이익]을 내포한다. 이러한 [+이익] 때문에 개는 주인의 소유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다음의 관련 예문을 살펴보자.

- ①-3. 打狗也看主人面[개를 때리는 것도 주인의 얼굴을 본다. 어떤 사람이나 일을 책망할 때 여러 가지 관계나 체면을 고려해야 하는 것을 비유한다. 그렇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

위의 예문 ①-3 중 ‘狗[개]’는 타인이 함부로 다루거나 상해를 가할 수 없는 주인의 소유물로 표현된다. 즉, 타인이 주인의 허락 없이 ‘打狗[개를 때리다]’는 행동은 개의 사용 가치와 유용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인간관계나 체면 등과 관련한 불편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 3) 인간에게 행운을 가져오는 동물

예전 중국 미신에 개가 어느 집에 들어오면 그 집에 행운을 가져온다고 여겼는데 이와 관련된 다음의 예문을 살펴보자.

- ①-1. 猫衰犬旺[고양이는 쇠하고 개는 번창한다. 예전에는 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 장례 치를 기미가 보이고 개가 집에 들어오면 경사가 생길 기미가 보인다고 여겼다.]
- ①-2. 猪来穷家, 狗来富家, 猫来孝家[돼지는 낡은 울타리의 가난한 집을 자주 에워싸 들어가고, 개는 버린 뼈다귀가 많은 부유한 집으로 자주 들어가고, 고양이는 쥐가 많은 집으로 자주 들어간다. 예전에 돼지가 스스로 어떤 집에 들어가면 그 집안은 빈곤한 기미를 보이고 개가 오면 부유한 기미를 보이고 고양이가 오면 사람이 죽을 기미가 보인다는 것을 가리킨다.]
- ①-3. 犬生独, 家富足[예전에 개가 새끼 한 마리를 낳으면 가업이 번창할 것을 예지한다.]

예문 ㉑-1, 예문 ㉑-2에서 ‘狗/犬[개]’는 집안에 좋은 운을 가져오는 동물로 표현되며 이와는 반대로 ‘猫[고양이]’는 불운을 가져오는 동물로 대립 구조를 이룬다. 예로, 예문 ㉑-1을 보면 ‘犬[개]’가 집에 들어오면 경사가 생긴다고 여겨 의미 자질 [+행운]을 지니지만 이와는 반대로 ‘猫[고양이]’가 집에 들어오면 장례 치를 기미가 보여 ‘猫[고양이]’는 [-행운]을 갖는다. 그러나 일부 속담 중 ‘猫[고양이]’는 의미 자질 [+행운]을 지니기도 하는데 예로, 예문 ㉑에서 ‘猫[고양이]’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의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된다고 여겼다.

예문 ㉑-2에 등장하는 동물은 ‘猪[돼지], 狗[개], 猫[고양이]’가 있으며 이중 ‘狗[개]’가 어느 집에 들어가면 부유한 기미를 보인다고 여겨 의미 자질 [+행운], [+부유함]을 갖지만 이와는 반대로 ‘猪[돼지], 猫[고양이]’는 [-행운]을 갖는데 ‘猪[돼지]’가 들어가는 집은 빈곤한 기미를 보이고 ‘猫[고양이]’가 들어가는 집은 사람이 죽을 기미를 보인다고 여겼다. 중국어 속담에 나타난 이러한 ‘狗/犬[개]’의 의미 자질 [+행운], [+부유함]은 중국의 동물 관련 미신이 속담에 반영된 것으로 이는 다른 언어문화권 어휘 중 보기 드문 것으로 중국 특유의 문화적 의미 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예문 ㉑-3에서 ‘犬[개]’가 새끼 한 마리를 낳으면 가업이 번창한다고 여겼는데 개는 대체로 한 마리 이상의 새끼를 낳는 편이지만 새끼 한 마리를 낳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게 예문 ㉑-3의 경우처럼 개가 새끼 한 마리를 낳으면 집안에 행운을 가져온다고 여기는 중국인들의 관념을 엿볼 수 있다.

#### 4) 개의 행태적 특징 관련

##### (1) 개의 습성

‘狗/犬[개]’의 짖거나 무는 버릇, 똥을 먹거나 여기저기 똥을 싸는 행동 등은 중국어 속담 중 주로 부정적 이미지로 표현되는데 다음의 관련 예문을 살펴보자.

- ㉑-1. 不出声的狗才咬人[소리를 내지 않는 개가 사람을 문다. 겉으로 본심을 드러내지 않는 악인이 가장 사람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비유한다.]

예문 ㉑, 예문 ㉑-1에서 ‘狗[개]’의 무는 버릇, 갹는 버릇 등은 악인의 행동을 비유하여 개는 의미 자질로 [-선함]을 갖는다. 개의 습성을 묘사한 중국어 속담 중 자주 공기하는 단어로 ‘屎[똥]’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의 관련 예문을 살펴보자.

- ㉑-2. 人若不黑心, 狗就不吃屎[사람이 만약에 흑심을 품지 않으면 개는 똥을 먹지 않는다. 나쁜 사람이 양심을 잃지 않는 것은 개가 똥을 안 먹는 것과 같이 불가능한 것을 뜻한다.]
- ㉑-3. 狗改不了吃屎[개가 똥 먹는 버릇을 고칠 수 없다. 나쁜 사람의 악함은 고치기 어려워 어디를 가든지 나쁜 짓만 한다는 것을 비유한다.]
- ㉑-4. 狼行千里吃肉, 狗行千里吃屎[늑대는 천리를 가면 고기를 먹고, 개는 천리를 가면 똥을 먹는다. 개가 똥 먹는 버릇을 고칠 수 없다.]
- ㉑-5. 人狂没好事, 狗狂一摊屎[사람이 제멋대로 행동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없는데 이는 마치 개가 제멋대로 여기저기 똥을 싸는 것과 같다.]

위의 예문 ㉑-2~예문 ㉑-4 중 ‘나쁜 사람이 양심을 잃지 않는 것, 나쁜 사람이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 등은 개가 ‘不吃屎[똥을 먹지 않는다]’ 것에 비유되는데 이는 모두 태생적으로 고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의미한다. 이외에 예문 ㉑-5에서 ‘사람이 제멋대로 하는 행동’은 개가 여기저기 ‘拉屎[똥을 싸다]’는 행동에 비유된다. 이러한 냄새나고 더러운 ‘屎[똥]’은 개의 은유적 심상에 영향을 끼친다. 똥을 먹거나 여기저기 똥을 싸는 습관은 더럽고 천박한 행동으로 ‘狗/犬[개]’는 [+더럽다], [+천박하다] 등의 부정적 의미 자질을 지니며 이로 인해 중국어 속담 중 개의 ‘吃屎[똥을 먹다]’, ‘拉屎[똥을 싸다]’ 등의 행동은 사회적 통념에 비추어 그릇된 행동에 종종 비유된다.

## (2) 개의 능력 및 성격

중국어 속담에서 ‘狗/犬[개]’의 능력 및 성격 등은 용맹한 ‘虎[호랑이]’, ‘狮子[사자]’ 등과 대립 구조를 이루는데 다음의 관련 예문을 살펴보자.

- ㉑-6. 虎父无犬子[호랑이 아버지 새끼 개는 없다. 아버지가 영특하고 용맹하면 자식은 연약하고 무능한 자들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
- ㉑-7. 狮子咬人, 狂狗逐块[사자는 사람을 물고 미친개는 흙덩이를 쫓는다. 흙덩이로 사자를 때리면 사자는 사람을 물고 흙덩이로 미친개를 때리면 미친개는 흙덩이를 먹이로 여겨 흙덩이를 쫓는다. 서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다른 태도와 방법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비유한다.]

예문 ㉑-6 중 ‘虎[호랑이]’는 ‘犬[개]’와 대립 구조를 이루며 ‘虎[호랑이]’는 영특하고 용맹하여 유능한 사람을 비유하지만 이에 비하여 ‘犬[개]’는 연약하고 무능한 자를 비유하여 의미 자질 [-영특하다], [-용맹하다], [-유능하다]를 갖는다.

예문 ㉑-7 중 흙덩이로 ‘狮子[사자]’와 ‘狗[개]’를 때릴 경우 그 반응이 다른데 ‘狮子[사자]’는 흙덩이를 던진 사람을 물지만 ‘狗[개]’는 흙덩이를 먹이로 여겨 흙덩이를 쫓는다. 이는 영리한 ‘狮子[사자]’와 우둔한 ‘狗[개]’가 대립 구조를 이루어 ‘狗[개]’는 의미 자질 [+우둔하다]를 내포한다.

### 5) 인간보다 낮은 지위 또는 가치

중국어 속담 중 공동체 내에서 ‘狗/犬[개]’의 지위 또는 가치와 관련된 예문을 다음에서 살펴보자.

- ㉒-1. 鱼不偶龙, 犬难偕虎[물고기는 용과 결혼할 수 없고 개는 호랑이와 함께하기 어렵다. 지위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사람은 혼인할 수 없는 것을 비유한다.]
- ㉒-2. 清明不带柳, 来生变黄狗[청명절에는 남녀 모두 성묘하고 버드나무 가지를 달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음 생에 누런 개로 태어날 것이다. 사람들에게 조상을 잊지 말 것을 훈계하는 내용이다.]
- ㉒-3. 人爱富的, 狗咬穷的[사람이 부유하면 누구든지 친해지려고 하는데 사람이 가난하면 개도 엽신여긴다.]
- ㉒-4. 是龙不跟蛇斗, 是人不跟狗斗[용은 뱀과 싸우지 않고 사람은 개와 싸우지 않는다. 성품이 고상한 사람은 저속한 사람과 장단점을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 ㉠-5. 虎落平阳被犬欺[호랑이가 평지에 오면 개에게 괴롭힘을 당한다. 영웅이 곤경에 빠지고 불리한 처지에 놓이면 소인의 모욕을 당하는 것을 비유한다.]
- ㉠-6. 牛眼看人高, 狗眼看人低[소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높고 크고 개의 눈으로 사람을 보면 낮고 작다. 권세나 재리에 밝은 소인이 줄곧 일반인을 무시하는 것을 비유한다.]
- ㉠-7. 小勿像猫, 大勿像狗[사람은 어릴 때 고양이처럼 보기 흉하지 말고 커서는 개처럼 비열하지 마라. 어려서부터 잘 배워야 하고 커서는 개처럼 파렴치하게 남에게 아첨하여 환심을 사지 말라는 것을 비유한다.]

개는 태생적으로 천하고 나쁜 습성을 지닌 동물로 이는 바뀌기 어렵다는 중국인들의 관념은 예문 ㉠, 예문 ㉠-1~예문 ㉠-7 등에서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개의 속성은 중국어 속담 중 비천한 존재로 표현되어 개는 의미 자질로 [-높은 지위]를 갖는다. 예로, 예문 ㉠-1 중 [+높은 지위]의 ‘虎[호랑이]’와 대립되는 ‘犬[개]’는 의미 자질 [-높은 지위]를 갖는다. 또한 예문 ㉠-2 중 조상을 잇고 사는 사람은 다음 생에 비천한 ‘黄狗[누런 개]’로 태어날 것이라는 훈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예문 ㉠-3 중 사람이 가난하면 보잘것없는 비천한 ‘狗[개]’도 업신여긴다는 속담 표현에는 ‘狗[개]’를 공동체 내에서 인간보다 낮고 천한 존재로 여기는 중국인들의 관념이 반영되어 있다.

예문 ㉠-4는 성품이 고상한 사람은 저속한 사람과 비교할 가치가 없다는 교훈으로 이중 ‘人[사람]’과 ‘狗[개]’는 대립 구조로 서로 품격의 차이를 보인다. 즉, 고상한 ‘人[사람]’은 의미 자질 [+품격이 높다]를 갖지만 이와는 반대로 저속한 ‘狗[개]’는 [-품격이 높다]를 내포한다.

이처럼 중국어 속담 중 품격이 낮고 비천한 존재로 표현되는 ‘狗/犬[개]’는 간사한 인물로 연상의미가 확대되어 종종 소인을 비유하는 동물로 쓰인다. 예로, 예문 ㉠-5에서 ‘虎[호랑이]’는 영웅을 비유하지만 곤경에 처한 호랑이를 괴롭히는 ‘犬[개]’는 영웅을 괴롭히는 간사한 소인에 비유된다. 또 다른 예문 ㉠-6 중 도량이 넓은 ‘牛[소]’와 도량이 좁은 ‘狗[개]’는 대립 구조를 이루며 ‘狗[개]’는 권세나 재리에 밝은 소인에 비유된다. 이외에 예문 ㉠-7 중 ‘狗[개]’는 파렴치하고

아침을 잘하는 비열한 이미지로 표현된다. 이로부터 예문 ㉠-5~예문 ㉠-7 중 ‘狗/犬[개]’는 의미 자질로 [+간사하다], [+비열하다]를 내포한다.

## 6) 절기

중국의 절기 중 가장 추운 날씨를 표현한 중국어 속담에 ‘狗[개]’가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음의 관련 예문을 살펴보자.

- ㉠-1. 三九四九, 隔门叫狗[가장 추운 삼구, 사구 기간에 농촌의 게으른 여자들은 추워서 밖에 나가기를 꺼려하여 아이에게 집에서 대변을 보게 하고, 문밖의 개를 불러 똥을 처리하게 했다. 삼구, 사구가 가장 추운 것을 뜻한다.]

예문 ㉠, 예문 ㉠-1은 중국의 절기 중 ‘三九’, ‘四九’가 가장 춥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여기에는 ‘狗[개]’가 추위에 강한 동물이라는 중국인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예로, 예문 ㉠ 중 ‘三九’, ‘四九’에는 가장 추위에 강한 ‘狗[개]’도 얼어 죽는다는 표현을 볼 수 있어 의미 자질 [+추위에 강함]을 내포한다. 또한 예문 ㉠-1에서 농촌 여인들이 아이의 대변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밖의 개를 부르는 것으로 보아 ‘三九’, ‘四九’의 추운 날씨에도 밖에서 생활하는 ‘狗[개]’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게다가 아이의 대변을 먹는 ‘狗[개]’는 더러움을 연상시켜 ‘狗[개]’는 의미 자질 [+추위에 강함], [+더러움], [+비천함]을 갖는다. 앞의 분석을 종합하여 중국어 속담 중 ‘狗/犬[개]’ 의미 자질을 다음의 표로 정리할 수 있다.

〈표2〉 중국어 속담에서 ‘狗/犬[개]’의 의미 자질 분류

속담의 주요 묘사 내용		의미 자질
인간에게 충직한 동물		[+선함], [+의리], [+충실함]
인간에게 유용한 동물		[+이익]
인간에게 행운을 가져오는 동물		[+행운], [+부유함]
인간보다 낮은 지위, 가치		[-높은 지위], [-품격이 높다], [+간사하다], [+비열하다]
개의 행태적 특징	개의 습성	[-선함], [+더럽다], [+천박하다]
	개의 능력 및 성격	[-영특하다], [-용맹하다], [-유능하다], [+우둔하다]
절기		[+추위에 강함]



## 5. 맺음말

중국어 속담에 나타난 ‘狗/犬[개]’의 의미 자질 중 [+선함], [+의리], [+충실함], [+이익], [+행운], [+부유함] 등은 긍정적 감정 의미를 지니며, [-높은 지위], [-품격이 높다], [+간사하다], [+비열하다], [-선함], [+더럽다], [+천박하다], [-영특하다], [-용맹하다], [+우둔하다], [-유능하다] 등은 부정적 감정 의미를 지닌다.

이중 ‘狗/犬[개]’는 의미 자질로 [+선함]과 [-선함]을 모두 지니는데 이는 중국어 속담에 묘사된 개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의미 자질을 갖게 된다. 예로, 인간에게 충직한 동물로 평가받는 개는 [+선함]을 갖지만 태생적으로 더럽고 비천한 개의 행동은 악인의 행동에 비유되어 의미 자질 [-선함]을 갖는다.

개와 관련된 중국어 속담에 쓰이는 단어 형태는 ‘狗[개]’, ‘犬[개]’ 등이 있으며 단어 형태에 따른 감정 의미 차이는 보기 어렵다. 즉, 중국어 속담 중 ‘狗[개]’와 ‘犬[개]’는 긍정적 의미 자질과 부정적 의미 자질을 모두 내포한다. 이외에 중국어 속담 중 ‘狗/犬[개]’는 행운과 부를 가져오는 동물이라는 인식을 엿볼 수 있어 의미 자질 [+행운], [+부유함]을 내포하는데 이는 중국 특유의 문화적 의미자질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중국어 속담에 나타난 ‘狗/犬[개]’의 상징 의미와 의미 자질 분석은 중국의 동물 관련 언어문화를 이해하고 중국인들과의 원만한 교류를 위한 중국어휘 교육 자료로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韩省之, 『称谓大辞典』, 北京: 新世界出版社, 1991.  
 温端政, 『中国谚语大辞典』, 上海: 上海辞书出版社, 2011.  
 中国社会科学院语言研究所词典编辑室, 『现代汉语词典(第7版)』, 北京: 商务印书馆, 2016.

2. 논문

박에양, 「한중 날씨 관련 속담에 나타난 특징 비교」, 『중국연구』 제66호, 중국연구소, 2016, pp.103-124.

배다니엘, 「우정 관련 속담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 방안」, 『한중언어문화연구』 제47호, 한국 중국언어문화 연구회, 2018, pp.63-93.

이갑남, 「중국어와 한국어의 건강과 질병 관련 속담 대조 연구」, 『동아인문학』 제50호, 동아인문학회, 2020, pp.199-232.

이선희·신지연, 「중국어 속담 속 숫자 ‘三’의 주관량」, 『동아인문학』 제47호, 동아인문학회, 2019, pp.263-288.

장영희, 「속담을 통해서 본 한 중 일 언어관 비교-‘말’과 관계된 속담을 중심으로」, 『리터러시 연구』 제30호, 한국 리터러시 학회, 2019, pp.703-729.

장지혜, 「한국중국인도네시아 ‘개’ 속담의 상징 의미와 은유에 관한 비교 연구」, 『중국문학연구』 제31호, 한국중문학회, 2020, pp.121-150.

高伊莎·林燕, 「從諺語中祥瑞動物的形象看中日文化差異—以“龍”為例」, 『大眾文藝』第18期, 河北省群眾藝術館, 2020, pp.62-63.

黃育紅, 「汉语谚语中的性别歧视及社会文化阐释」, 『湖南社会科学』第2期, 湖南省社會科學界聯合會, 2015, pp.197-200.

劉菘, 「漢語諺語的語用標記傾向及話語功能」, 『漢語學報』第2期, 華中師範大學, 2021, pp.86-96.

张慧智, 「汉语谚语中的概念隐喻分析」, 『长治学院学报』第34卷 第3期, 長治學院, 2017, pp.75-78.

3. 인터넷

百度百科 ‘三九’ <https://baike.baidu.com>

논문 접수 일	2022년 07월 30일
심사 완료 일	2022년 08월 27일
게재 확정 일	2022년 08월 29일

*Abstract*

## Analysis of Symbolic Meaning and Semantic Features of a Dog in Chinese Proverbs

Lee, Myung A

The dog, one of the animals frequently appearing in Chinese proverbs, is humanity's first domesticated animal. It is friendly toward people and extremely loyal to its owner. The symbolic meaning of animals may differ depending on language and culture. Even if the vocabulary structure of the same language is used, the emotive meaning may differ depending on the lexical category. For example, when referring to people or things, “狗(dog)” as a Chinese word mainly portray a negative image, but “狗(dog)” and “犬(dog)” in Chinese proverbs conta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connotations.

In Chinese proverbs, positive semantic features of “狗/犬(dog)” include [+good], [+loyal], [+faithful], [+profit], [+luck], and [+wealth]. Its negative semantic features are [-high status], [-high dignity], [+cunning], [+vile], [-good], [+dirty], [+vulgar], [-spiritual], [-courageous], [+dull], and [-competent]. Among these, [+good] and [-good]'s semantic features can all be observed, which have different semantic features according to a dog's characteristics. For example, a dog, considered a loyal animal to humans, is [+good]. However, its dirty and lowly behaviors, uncorrectable by nature, are compared to the behavior of an evil person, leading to a [-good] semantic feature.

Additionally, “狗/犬 (dog)” in Chinese proverbs is considered an animal that brings good luck and wealth. This is influenced by the old Chinese superstition and contains cultural-specific [+luck] and [+wealth] semantic features.

**Keyword**

Chinese, Proverb, Dog, Symbolic meaning, Semantic feature



# 중국어 교육에서 AIED 보조 도구의 활용 가능성 탐구

-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ITS를 중심으로 -

이서이\* · 한용수\*\*

## 국문요약

본 연구는 AIED(AI in Education)의 한 갈래로 외국어 교육에서 활용되고 있는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ITS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어 교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과 미국의 AIED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국내 중국어 교육에서 AIED 보조 도구의 활용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먼저, 챗봇은 챗봇 제작 플랫폼에 교수자가 직접 학습 콘텐츠를 탑재할 수 있어 다른 도구에 비해 활용도가 높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는 최근 국내의 IT 기업의 제품이 대중화와 동시에 다국어 지원, 음성 인식 등의 특징으로 인해 많은 연구자가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끝으로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는 개개인을 위한 튜터로 AIED의 궁극적 목적인 개인 맞춤형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아직 성숙한 ITS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외 중국어 교육의 AIED 보조 도구 사례를 살펴보면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를 필두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미국의 경우, 정부보다는 거대 IT 기업의 주도하여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교육 플랫폼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러나 국내의 중국어 교육 관련 AIED 보조 도구는 개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우며, 중국어 교육에서 AIED 보조 도구를 활용한 교수-학습 사례도 많지 않아 향후 관련 연구가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

**주제어** 중국어 교육, 플랫폼 교육, AIED,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ITS

\* 제1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일반대학원 중국어학전공 박사과정

\*\* 교신저자 : 동국대학교-서울, 중어중문학과 교수

## 〈목차〉

1. 서론
2. AIED(AI in Education)의 대표적인 보조 도구
3. 중국어 교육에서의 AIED(AI in Education) 사례 분석
4.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중국어 교육의 보조 수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한 대표적인 학습 도구를 살펴보고, 중국과 미국의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교육 플랫폼 사례들을 소개한 뒤, 국내 중국어 교육에서 그 활용 방안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인공지능 기술은 오늘날 각 산업 분야 전반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고 있다. 교육에서의 인공지능은 ‘AIED(Artificial Intelligence in Education)’라고 하는데 외국어 교육 분야의 경우, 기계번역, 챗봇, AR/VR 등의 기술이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올해로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였다. 지난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정의용 한국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자 떨어질 수 없는 파트너”라고 하였다.<sup>1)</sup> 한중관계는 지리적인 이유에 서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등 많은 측면에서 매우 긴밀하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난 2022년도 중등학교 교원 임용 시험에서 중국어 과목 교원 선발 인원은 전국 0명이었다.<sup>2)</sup> 중국어가 제2외국어 선택 과목으로 대입 관련 주요 과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은 향후 한중관계와 국내 중국어 교육계에 큰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다.

1) 인민망, “왕이 中 외교부장, 정의용 韓 외교장관과 회담”, <http://kr.people.com.cn/n3/2021/0916/c203278-9897358.html>(검색일:2022.07.08.)

2) 조선일보, “중국어가 어찌다... 내년 교사 선발 0명, 24년만에 총원 안해”,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9/01/4HWW5ASESNCFVA3LRS DQRYG6N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9/01/4HWW5ASESNCFVA3LRS DQRYG6N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검색일 2022.07.08.)

학생들이 중국어를 배우기 꺼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 한자, 성조 등 중국어가 어렵다는 인식과 둘째, 중국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부정적인 인식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어 교육의 보조 도구로써 AIED에 관한 연구를 통해 중국어 교육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학습자가 중국어를 더욱 쉽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언어를 매개로 중국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중국어 교육에서의 AIED 관련 국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기계번역을 중국어 교육에서 활용한 선행연구 사례로는 한희정·정유선(2019)<sup>3)</sup>의 인공지능 통·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매 중국어 교육 연구가 있다. 판매 중국어 교육은 일반적인 중국어 교육과 달리 중국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실용 중국어 교육이다. 선행연구에서는 판매 중국어 교육에서 활용 가능한 인공지능 통·번역 프로그램으로 음성 인식 번역, 텍스트 번역, 카메라 번역, 집단 지성 번역<sup>4)</sup>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연구 결론에 따르면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첫째, 디지털 역량을 갖춘 전문 판매 중국어 강사 양성, 둘째, 교수자와 기술이 함께 교육하는 Co-teaching 형태의 새로운 교수-학습 설계, 셋째, 사전이나 교재에서는 보기 어렵지만, 실무 현장에서 대처할 수 있는 판매 중국어 교수-학습 과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기계번역 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매 중국어 교수-학습의 실제 사례를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학습자, 교수자, 그리고 기술이 협업하는 교수-학습 연구 분야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고권태·이효영(2020)<sup>5)</sup>은 인공지능 챗봇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 방안을 연구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CLOSER'라는 챗봇 모듈을 선정하여 중급

3) 한희정·정유선, 「인공지능 통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매중국어 교육방안 탐색」, 『중국어문논역총간』 44, 중국어문논역학회, 2019, pp.351-375.

4) 번역을 주제로 구성된 커뮤니티 안에서 여러 사람이 의견을 공유하며 번역을 완성해나가는 형태로 대표적인 사례로 '플리토(Flitto)'앱이 있다.

5) 고권태·이효영, 「인공지능 챗봇의 중국어 교육 활용 방안 탐색」, 『중국어학』 72, 대한중국학회, 2020, pp.215-233.

독해 및 작문 수업을 위한 중국어 교육용 챗봇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법을 설명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한 교수-학습 방법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챗봇이 학습자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 도구 및 교수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실제 연구에서 제시한 교수-학습 방안에서 챗봇의 활용은 ‘단어 학습, 단어 확인’ 정도에서만 사용되도록 설계한 부분이 아쉽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챗봇에서 나아가 현재 교육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 ITS 등 보다 다양한 AIED 도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AR(증강현실)/VR(가상 현실) 기술을 중국어 교육에서 활용한 사례는 기계번역, 챗봇 활용 사례보다 다양하다. 먼저, 유갑상·전궁(2019)<sup>6)</sup>의 한-중 어학교육 플랫폼 구축 관련 연구가 있다. 연구에서 제안한 어학교육 서비스 플랫폼은 한국어, 중국어, 영어를 모두 학습할 수 있으며 AR/VR 학습 콘텐츠를 토대로 단어 및 회화연습, 게임 등의 활동을 통해 몰입형 학습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이 선행 연구가 플랫폼 중점으로 이루어졌다면 학습 콘텐츠에 주안점을 둔 박찬욱(2021)<sup>7)</sup>의 VR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 교육방안 연구도 있다. 두 선행연구의 교수법은 모두 먼저 학습 내용을 학습자가 선행하고 현장에서 교수자가 준비한 VR 콘텐츠를 학습하는 블렌디드 러닝 방법을 사용하였다. 또한, VR 기기의 특성상 현장 수업은 말하기 학습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살펴볼 국내외 AIED 보조 도구 활용 수업 사례들 또한 기초적인 학습 내용보다는 수업 참여자가 이미 학습 내용을 인지하고 적용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AIED 보조 도구들을 활용하였으며 회화 수업에서의 활용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선행연구 외에도 국내에서 AIED의 대한 관심은 정부의 정책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21년 9월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6) 유갑상·전궁, 「AR/VR 기술을 활용한 한-중 어학교육 서비스 플랫폼 구축방안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9),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9, pp.23-30.

7) 박찬욱, 「VR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 교육방안-개별 연습도구의 개발을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연구』 34,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21, pp.1-30.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8) 이어서 올해 3월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서울시 교육청이 LG CNS와 업무협약을 통해 제공하는 인공지능(AI) 기반 영어학습 콘텐츠인 ‘스피킹 클래스’ 9)와 ‘미션 잉글리시’ 10)가 그 사례다. 11)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영어 외에 중국어와 같은 제2외국어는 지원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이처럼 AIED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새로운 기술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여전히 기술의 발전과 관련 교수-학습 개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이와 같은 연구는 다른 외국어 영역과 비교하면 연구가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장에서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의 교육적 활용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고, 3장에서 국외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중국어 교육을 사례를 소개한 다음, 4장 결론에서는 중국과 미국의 중국어 교육에서 AIED 사례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중국어 교육 분야에서 AIED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 
- 8)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공포”,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6472>
  - 9) 스피킹 클래스는 6개 출판사(동아출판, 천재교육, NE능률, YBM, 대교, 비상교육)의 초·중·고등학교 영어 교과서 콘텐츠를 탑재하여 교사가 수업의 목적에 맞게 리스닝, 스피킹, 리딩학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생들이 스피킹 클래스를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경우 교사는 스피킹 클래스 스튜디오에서 학생의 학습 진도, 평가 결과 등을 제공하는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다.
  - 10) 미션잉글리시는 일상생활 및 비즈니스 주제의 370개 상황 대화를 탑재하였고 ‘mission dialogue’, ‘key expression’, ‘drill practice’, ‘final review’ 총 4단계의 학습 모듈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 이밖에도 발음 연습 챌린지, 말하기 마라톤 대회 등 미션 수행을 통해 학습을 진행한다.
  - 11)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공지능(AI) 기반 영어학습 콘텐츠(스피킹클래스, 미션잉글리시) 매뉴얼”,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8928&ctgCd=206>

## 2. AIED(AI in Education)의 대표적인 보조 도구

인공지능 시대에 외국어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러한 의문 제기와 더불어 외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꼭 필요할까 하는 의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다음 살펴볼 챗봇(Chat-bot), 인공지능 스피커, 그리고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를 통해 이들이 외국어 교육에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교수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 1) 챗봇(Chat-bot)

챗봇은 1950년도 영국의 수학자이자 논리학자인 Alan Turing(1912)이 컴퓨터와의 대화에서 인간과 컴퓨터의 반응을 구별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인 ‘튜링 테스트(Turing Test)<sup>12)</sup>를 시작으로 주목받게 되었다. 챗봇은 전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이 없는 교수자들에게도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 챗봇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 시중에 많이 제공되고 있고, 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교수가 콘텐츠를 직접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챗봇에는 많은 종류가 있고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은 다양하지만, Adamopoulou, Eleni & Moussiades, Lefteris(2020)는 매개변수(parameter)에 따라 챗봇을 다음 5가지로 분류한다. 첫째, 지식 도메인(Knowledge domain) 기준이다. 지식 도메인은 다시 개방형 도메인(Open domain)과 폐쇄형 도메인(Closed domain)으로 나뉘는데 개방형 도메인은 일반적인 주제의 지식에 관해 이야기하고 대응한다. 반대로 폐쇄형 도메인은 특정 지식 영역에 초점을 두고 다른 주제의 질문에는 응답하지 못한다.

둘째, 서비스 제공(Service provided) 기준이다. 이 유형의 챗봇은 다시 대인 관계(Interpersonal)유형, 개인 관계(Intrapersonal)유형, 에이전트 간 관계(Inter-agent)유형으로 세분화할 수 있다. 대인 관계유형은 식당, 항공편 예약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관계유형은 메신저 앱과 같이 개개인이 사용

12) Adamopoulou, Eleni, and Lefteris Moussiades. "An overview of chatbot technology." *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and Innovations*. Springer, Cham, 2020.

하는 개인 도메인 내에 존재한다. 에이전트 간 관계유형은 서로 다른 에이전트의 챗봇끼리 소통하는 것을 가리킨다.

셋째, 목표(Goal) 기준이다. 목표 기준 유형은 챗봇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 정보제공(Informative), 대화형(Conversational), 임무형(Task-based)으로 나뉜다. 예를 들어 정보제공을 목표로 하는 챗봇은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으로 은행, 금융사 등과 같은 플랫폼에서 자주 나타나는 FAQ 챗봇이 바로 이런 유형 가운데 하나이다.

넷째, 입력처리(Input processing) 및 응답 생성(Response generation method) 기준이다. 이 유형의 챗봇은 사용자의 입력을 처리하고 그에 맞는 응답을 생성한다. 응답 생성의 경우 세분화하면 규칙 기반(Rule-based) 모델, 검색 기반(Retrieval-based) 모델, 생성형(Generative) 모델이 있다. 규칙기반 모델은 가장 초기 형태의 챗봇 유형으로 고정된 규칙을 이용하여 응답을 선택한다. 검색 기반 모델은 규칙기반 모델의 대부분이 인간이 관여하는 것과 달리 API를 사용하여 응답 선택 시 일부 응답 후보를 점검하고 매칭 접근법을 적용한다. 생성형 모델은 기계 학습 알고리즘과 딥 러닝 기술을 사용하여 응답을 제공하는 인간에 가장 가까운 챗봇 모델이다.

다섯째, 인간 지원(Human-aided) 기준이다. 인간 지원 챗봇은 적어도 하나의 요소에서 인간의 컴퓨팅이 포함된다. 모든 기계가 그러하듯 완전히 자동화된 챗봇에는 한계가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정보가 기계보다 빠를 수는 없기에 이 유형에서는 기계와 인간이 서로 협업하게 된다.

정리하자면, 챗봇은 누구에게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따라 그 활용도가 다양하다. 챗봇의 5가지 기준과 각 유형을 살펴본 결과 일반적으로 교육에서 활용되는 챗봇은 목표(Goal)를 매개변수로 하는 유형에 가장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목표 기준의 정보, 대화, 임무형 챗봇 기능은 교수-학습 모델에서 먼저 학습 콘텐츠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는 대화형 과정을 거친 뒤 성취 평가의 과정에서 임무를 수행하면 점수를 부과하는 각 단계와 매우 유사하다. 앞서 언급한 서울시 교육청과 LG CNS가 협약한 '스피킹 잉글리시'와 '미션 잉글리시' 또한 이러한 단계를 거치며 학습하는 형태이다.

## 2) 인공지능 스피커

인공지능 스피커는 기존의 음악 감상, 라디오 청취 등의 기능을 하던 스피커에 음성 인식 기술과 클라우드 인공지능 기술을 더한 음성 기반 UI(사용자 조작 화면) 플랫폼이다. 인공지능 스피커는 집 안의 가전 기기를 제어하고 터치 기반 UI 플랫폼인 스마트폰과 연동하여 개인 비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대표적인 세컨드 디바이스로 자리 잡게 되었다. 홍수민·임철일(2021)<sup>13)</sup>의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육에서 활용했을 때, 그 효과를 다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본다.

하나, 인공지능 스피커를 교육에 활용하는 경우 발화 기회를 제공한다. 둘, 외국어 학습 시 느끼는 심리적 불안감 감소, 셋, 인공지능 스피커와의 반복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 능력이 향상된다. 넷, 서로 다른 언어 능력의 학습자에게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 다섯, 인공지능 스피커는 대화형 인터페이스를 사용하므로 사용자에게 특별한 디지털 문해력을 요구하지 않는다. 해당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의 한 중학교 중국어 수업을 대상으로 현장 평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구글(Google)사의 ‘구글 홈 미니’를 중국어로 설정하여 활용하였다. 수업 결과 학생들은 외국어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교수자 또한 학생들의 중국어 발음이 부정확해 기계가 인식하지 못할 때 학생들이 정확한 발음을 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계가 인지할 때까지 지속해서 발화 연습을 진행한 것이 학습에 도움이 된다고 보았다.

인공지능 스피커의 경우 일반적으로 표준어로 구사해야 명령어를 인지한다. 초기 외국어 학습자가 정확한 표준어를 구사하기는 쉽지 않다.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는 ‘발화 유도, 오류 수정, 지속 및 확장’과 같이 학습자와 인공지능 스피커의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새로운 교수 전략이 필요하다.

13) 홍수민·임철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케폴딩 전략 개발」, 『교육공학연구』 37(2), 한국교육공학회, 2021, pp.309-341.

### 3)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

ITS는 'Intelligent Tutoring System'의 줄임말로 '지능형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한다. ITS는 일대일 인간 튜터가 학습자의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한 학습 활동을 통해 가르치는 것처럼 AI 기술이 이를 모방하여 맞춤형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는 기술이다. 'Tutoring'이라는 단어 선택에서 알 수 있듯이 ITS는 학습자를 일대일로 개인 지도하는 튜터와 같다. 교육 효과의 측면에서 누구나 개인 맞춤형 지도를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가장 이상적인 상황일 것이다. 교육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하고 연구를 지속하는 이유 중 하나도 바로 이러한 개인 맞춤형 학습을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ITS는 공교육에서 그 활용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교육 방면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뤼이드'<sup>14)</sup>의 '산타 토익'이 있다.<sup>15)</sup> 산타 토익은 먼저 진단 평가를 시행하여 AI 예측 모델을 통해 AI 튜터가 사용자의 수준을 판단한다. 다음으로, AI 추천 모델을 통해 사용자에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경로를 찾아 핵심 강의, 필수 어휘, 유형별 실전 모의고사를 제공한다. 뤼이드는 사용자들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토익 예상 점수를 예측하고 초개인화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뤼이드의 산타 토익 모델은 AIED 분야 가운데에서 최근 크게 주목하고 있는 ITS(Intelligent tutoring system)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ITS와 같은 개인 맞춤형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보조 도구는 기존 교실 수업의 여러 한계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sup>16)</sup> 중국어 수업을 예로 들면, 교수자는 수업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준에 따라 이전에 중국어를 학습한 경험이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 간의 차이는 크기 때문에 어떤 학생을 기준으로

14) 뤼이드는 2014년 설립된 소프트웨어 개발 및 IT 서비스 기업으로 2016년 '산타 토익'을 서비스하기 시작하면서 국내의 대표적인 AIED 교육 기업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였다.

15) 산타 토익 공식 홈페이지, <https://new.aitutorsanta.com/>, (검색일: 2022.07.25.)

16) Ben Williamson & Rebecca Eynon, "Historical threads, missing links, and future directions in AI in education",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45:3, 2020, pp.223-235.

수업을 설계해야 할지 어려움을 가진다. 이때 ITS가 수업 내 학생들의 부족한 부분에 도움을 준다면 교수자는 더욱더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타 토의 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ITS는 문제가 유형화되어 있고, 정답이 명확한 급수 시험에서 효과적이며 단어의 의미대로 ‘tutoring’의 기능을 수행할 뿐 변수가 많은 학교 현장의 ‘teaching’의 영역에서 ITS가 교사를 대체하는 데는 아직 기술적으로 한계가 있다.

### 3. 중국어 교육에서의 AIED(AI in Education) 사례 분석

#### 1) 중국 대외 한어 교육(对外汉语教育)의 AIED 사례

##### (1) 好未来的 ‘AI开放平台(AI 개방 플랫폼)’

好未来는 중국 최대 교육 기업 중 하나로 중국 교육부의 대외 한어 교육을 견인하고 있는 공자학원(孔子学院)과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sup>17)</sup> 好未来의 대외 한어 교육에 관한 관심은 지난 10월 중국 정부의 쌍감(双减)정책<sup>18)</sup>과도 일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쌍감정책 시행 후 好未来와 같은 사교육 기관은 예체능 계열 과목을 제외하고 모든 입시 관련 과목의 수업을 무료로 전환하고 이전과 같은 수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好未来의 CEO 장방신(张邦鑫)은 회사의 사업 방향을 전달하는 성명에서 향후 5~10년간 해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sup>19)</sup>

好未来의 AI开放平台는 얼굴 인식, 음성 인식, 자세 인식 등의 기술을 활용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상황을 데이터화 하고 평가하여 솔루션을 제공한다. 다음 [그림 1]은 플랫폼의 기능 가운데 중국어 회화연습에서 AI 튜터가 화면

17) 中国新闻网, ““孔子学院合作伙伴计划”签约仪式在成都举行”, <https://baijiahao.baidu.com/s?id=1618997664958613926&wfr=spider&for=pc>, (검색일 2022.08.01.)

18) 쌍감정책이란 2021년 7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교육 정책으로 의무 교육 단계 학생들의 숙제 부담과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을 줄이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한다. 이 정책으로 인해 중국의 많은 사교육 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영업을 중지하고 사업 방향을 전환하였다.

19) 雪球, “好未来将告别K9学科类业务 张邦鑫：以极大耐心推进海外业务”, <https://xueqiu.com/2095268812/203012958>, (검색일 2022.08.01.)

으로 질문을 주고 학습자에게 질문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는 화면이다. 이러한 대화형 튜터링 시스템을 DBTS(Dialogue-Based Tutoring System)라고 하는데 ITS의 또 다른 버전으로 AIED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그림1〉 AI开放平台에서 중국어 회화를 연습하는 화면<sup>20)</sup>

AI开放平台 외에도 好未来는 아래 [그림 2]와 같은 AI 중국어 교실을 선보였다. 제13회 공자학원 컨퍼런스가 열린 쓰촨성 청두의 문화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好未来가 일반적인 말하기, 듣기, 쓰기 중심 외에도 경험 중심의 ‘중국의 전통문화’를 주요 학습 주제로 구성했다는 점이다.<sup>21)</sup>

20) AI开放平台, <https://ai.100tal.com/solution?name=s-csa> (검색일: 2022.08.01.)

21) 扬帆号, “好未来成为全球孔子学院合作伙伴, 教育+AI弘扬传统文化”, <https://www.yangfanhao.com/n/991848.html>, (검색일 2022.08.01.)



〈그림2〉 AI 중국어 교실의 모습<sup>22)</sup>

화면에서 팬더가 학생들의 가이드 역할을 하며 ‘糖油饼子’<sup>23)</sup>, ‘豌豆凉粉’<sup>24)</sup> 그리고 ‘四川火锅’<sup>25)</sup>와 같은 쓰촨 지역의 음식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통 문화학습에 주안점을 둔 好未来는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의 한계를 넘어 학생들이 어디에서든지 중국의 전통문화 체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AI 교실의 장점으로 보았다. 실제로 아래 [그림 2]와 같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체험형 수업이 많아진다면 학습자들이 중국어 학습에 더욱 흥미를 느끼고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22) 搜狐, “好未来助力打造全球孔子学院首个AI汉语课堂, 双方签署战略合作协议”,

[https://www.sohu.com/a/280073209\\_297403](https://www.sohu.com/a/280073209_297403), (검색일: 2022.08.01.)

23) 기름에 튀겨 설탕을 입힌 밀가루로 만든 둥글납작한 떡.

24) 완두콩 전분과 소금, 파 등을 사용하여 묵과 같은 음식.

25) 중국식 샐러드.



(2) 북경어언대학의 ‘国际中文智慧教学平台(국제 중국어 지혜 교육 플랫폼)’

2022년 6월 18일 북경어언대학(北京语言大学)은 ‘국제 중국어 지능형 교육 프로젝트(国际中文智慧教育工程)’의 주요 성과로 ‘국제 중국어 지혜 교육 플랫폼 1.0(国际中文智慧教学平台1.0版)’을 공개하였다.<sup>26)</sup> 국제 중국어 지혜 교육 플랫폼은 북경 어언 대학과 중국 교육부의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中外语言交流合作中心) 주도로 탄생한 만큼 국제 중국어 교육의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 중국어 지혜 교육 플랫폼은 전 세계 중국어 학습자가 가장 많이 모이는 북경 어언 대학이 그동안 축적해왔던 교육 자원 및 기술 자원을 총집합하여 만든 플랫폼으로 그 효과가 기대된다.



〈그림3〉 국제 중국어 지혜 교육 플랫폼의 설계

국제 중국어 지혜 교육 플랫폼 수석 개발자의 따르면 플랫폼의 주요 기능으로는 크게 외국어 교육 빅데이터 지능형 분석(外语教学大数据智能分析), 외국어

26) 中国日报网, “我国首个面向全球中文学习者的智慧教学平台正式发布”, <https://baijiahao.baidu.com/s?id=1736124571478644654&wfr=spider&for=pc>, (검색일: 2022.08.02.)

가상 시뮬레이션 실험 교육(外语虚拟仿真实验教学), 외국어 지능형 동적 시험 평가(外语智能动态考试测评) 등이 있다. 먼저 외국어 교육 빅데이터 지능형 분석이란 플랫폼을 사용하는 학습자의 실력을 진단한 후, 수준에 맞는 개인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외국어 가상 시뮬레이션 실험 교육은 플랫폼을 사용하는 교수자에게 필요한 교육 프로세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끝으로 외국어 지능형 동적 시험 평가란 학습자를 과학적,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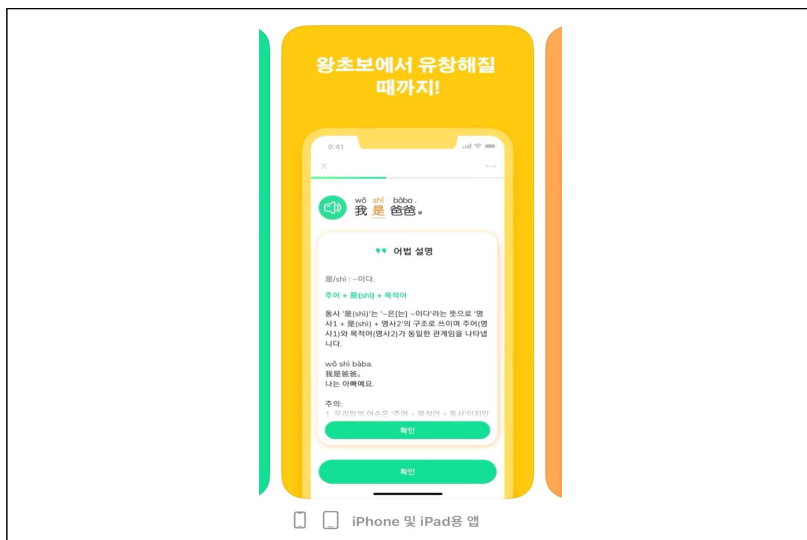
대부분의 교육 플랫폼이 중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것에 비해 국제 중국어 지혜 교육 플랫폼은 교수자 또한 하나의 주요 사용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북경 어언 대학은 실제로 현지 유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범 수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플랫폼이 대학과 정부가 연합하여 구축한 서비스인 만큼 모든 대중에게 공개되는지 그 사용 가능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특히 한국과 같이 중국 외 국가에서 해당 플랫폼을 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3) 북경외과인과기유한공사(北京歪果仁科技有限公司)의 ‘Hello Chinese’

‘Hello Chinese’는 칭화대 대학원에서 음성 인식을 전공하고 마이크로소프트를 거친 리 충(李崇)이 개발한 대외 중국어 학습 플랫폼이다.<sup>27)</sup> Hello Chinese의 커리큘럼은 초급 중국어부터 HSK 4급 수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Hello Chinese의 기본 언어는 영어이며 Hello Chinese를 서비스하고 있는 북경외과인과기유한공사의 공식 홈페이지 또한 모두 영어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지 지난 2020년 서울 강서구 통합도서관에서는 Hello Chinese를 활용한 ‘영어로 배우는 중국어 화상 수업’을 진행하기도 했다.<sup>28)</sup>

27) 白鲸出海, “HelloChinese 创始人李崇:工科男的教育梦”, <http://www.baijingapp.com/article/5941>, (검색일: 2022.08.02.)

28) 강서 영어도서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ngseoelib/222050993695>, (검색일: 2022.08.03.)



〈그림4〉 Hello Chinese 플랫폼 화면

영어 외에도 Hello Chinese는 중국어 학습 수요가 높은 7개 국가의 언어를 지원하는데 이중 한국어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대부분 해외에서 개발한 플랫폼이 한국에서 지원되지 않지만, Hello Chinese는 국내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Hello Chinese의 주목할 만한 기술로는 음성 인식 기능이 있다. 일반적인 중국어 학습 플랫폼이 자료 제시 및 평가에서 끝났다면 이 플랫폼은 음성 인식 기능을 통해 발음 교정 훈련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가 주어진 제시문을 읽었을 때 그것이 표준 중국어 성조에 어긋나는 경우 빨간 글씨로 표시되는데 이때 학습자의 발음을 다시 들을 수 있어 학습자 스스로 틀린 부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학습 전략으로는 게임과 미션 수행을 통한 학습, 연습 및 평가의 과정을 거쳐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중국어 회화 실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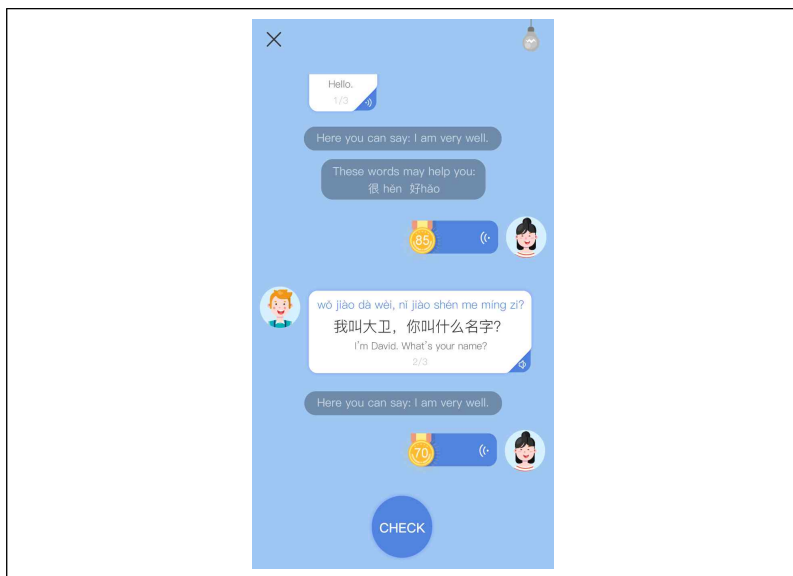
## 2) 미국의 중국어 교육에서 AIED 사례

### (1) Microsoft의 ‘Microsoft Learn Chinese’

Microsoft는 윈도우, 파워포인트, 엑셀 등을 서비스하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Microsoft는 교육 사업 또한 진행하고 있으며 에듀테크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다. 특히 Covid-19 시기에 MS Teams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으로 구글 클래스룸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연구 및 개발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AI 기반의 Microsoft Learn Chinese 앱이라고 볼 수 있다. Microsoft Research Asia에 따르면 이 앱은 음성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어 학습을 위한 기계 학습 모델 챗봇을 개발하였다.<sup>29)</sup> 이 기술은 학습자의 발화를 인식하고 발음을 평가하여 개선이 필요한 단어에는 표시가 되고 정확한 발음이 오디오로 제공된다. 이러한 내용은 위 [그림 5]와 같이 점수 형태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다.

---

29) Microsoft Research Lab-Asia, “Microsoft’s AI-powered app can help you learn Chinese”,  
<https://www.microsoft.com/en-us/research/lab/microsoft-research-asia/articles/microsofts-ai-powered-app-can-help-learn-chinese/>, (검색일: 2022.08.03.)



〈그림5〉 Microsoft Learn Chinese 플랫폼 화면

이 플랫폼 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흥미로운 기계번역 관련 플랫폼을 제안하였는데 바로 ‘중국 문학 번역 (Literary Chinese translation)’이다.<sup>30)</sup> 이 플랫폼의 중국 문학 번역 프로세스는 현대 중국어 번역과는 다르게 훈련되어 사자성어, 속담 등과 같이 중국어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 특징을 고려한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기계번역이 중국어를 번역할 때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오류들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현대 중국어와 중국 문학 번역이 자유자재로 가능한 ITS가 개발된다면 중국어 교육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은 다른 IT 업계의 플랫폼과는 확실히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30) Microsoft Translator Blog, “Microsoft Translator releases literary Chinese translation”, <https://www.microsoft.com/en-us/translator/blog/2021/08/25/microsoft-translator-releases-literary-chinese-translation/>, (검색일: 2022.08.05.)

## (2) IBM의 ‘Cognitive Immersive Room(인지적 몰입형 교실)’

IBM은 ‘왓슨(Watson)’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1년 ‘퀴즈 쇼 제퍼디’에 참가하였다. 이 퀴즈쇼를 통해 왓슨은 인간 대 기계의 대결에서 기계의 압승으로 이목을 이끌었다. 이후 왓슨을 금융, 방송, 의학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이 지속되었다. IBM은 교육에서 또한 왓슨을 활용하였는데 그 예로 AI 기반의 Cognitive Immersive Room(인지적 몰입형 교실, 이하 CIR)이 있다.<sup>31)</sup> CIR에서 이루어지는 중국어 수업에서 학습자는 중국의 식당, 태극권 수업 등 가상 공간에서 AI 조교, 즉 왓슨과 말하기 연습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림6〉 IBM의 CIR에서 중국어 학습을 진행하는 모습<sup>32)</sup>

31) IBM Research Blog, “Mandarin Language Learners Get a Boost From AI”, <https://www.ibm.com/blogs/research/2018/08/mandarin-language-ai/>, (검색일: 2022.08.03.)

32)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How AI helps students learn Mandarin at RPI”, <https://youtu.be/7EuSTuliR2A>, (검색일: 2022.08.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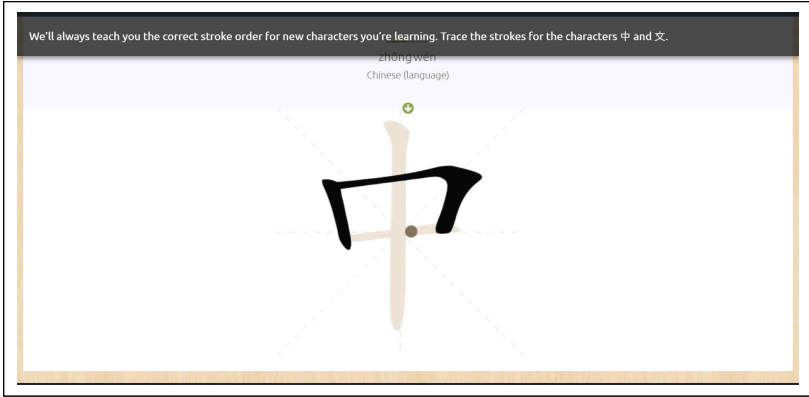
CIR에서의 수업은 학습자가 실제 원어민을 만났을 때와 같은 부담은 없애고, 가상의 파트너와 대화하며 어휘와 발음 연습을 할 수 있다. 또 게임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학생들이 수업에 몰입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IBM이 이러한 교실을 고안하게 된 목적에는 ‘문화적 몰입’이 있다. 앞서 중국의 好未来가 중국의 전통문화 수업을 AI 교실에서 진행한 바와 같은 맥락에서 ‘문화’는 학습자가 새로운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특히 사용자 경험을 중시하는 AI 기반 교육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 (3) Skritter의 ‘Write Chinese’

대부분 중국어 학습 플랫폼이 단어 학습과 말하기 중심이었다면 Skritter는 중국어 한자 학습에 주안점을 둔 플랫폼이다. 또한, Microsoft와 IBM의 사례가 모두 IT 기업의 개발자 중심으로 중국어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Skritter의 CEO 제이크 길(Jake Gill)은 중국어 교육자이면서 모바일과 컴퓨터 보조 언어교육 연구자이다. Skritter는 중국어와 일본어, 그리고 두 국가의 문화에 관심이 있는 교육자와 개발자가 모여 한자 쓰기라는 공통의 난관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앱이다.<sup>33)</sup> 이 앱은 초급 중국어 한자부터 고급 수준의 한자를 확으로 구분하여 한자가 다소 생소한 학습자를 위해 만들어진 앱이다. Skritter는 다음 그림과 같이 학습자에게 한자의 의미와 발음을 보여주고 올바른 획순에 따라 한자를 따라서 쓸 수 있도록 지도한다.

---

33) Skritter about us., <https://skritter.com/about> (검색일: 2022.08.01.)



〈그림7〉 Skritter에서 한자를 따라 쓰는 화면<sup>34)</sup>

Skritter는 브라우저에서 자신이 쓴 한자에 대해 실시간으로 채점을 받을 수 있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통해 올바른 한자 쓰기를 학습할 수 있다. 이때 학습자의 개인 학습 진행률을 통계로 제시하여 학습자에게 더 나은 학습 프로세스를 제안한다. Skritter가 한자 쓰기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 플랫폼은 중국의 교과서와 플래시 단어 카드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성조 연습을 할 수 있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중국어 학습이 디지털화함에 따라 한자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학습자는 기계가 인식할 수 있는, 어느 때보다도 정확한 글씨체가 요구된다. 그러한 점에서 Skritter는 많은 중국어 교육 플랫폼이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소결

이상으로 중국과 미국의 중국어 교육에서의 AIED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두 국가의 중국어 교육에서 AIED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개발 주체의 관점에서 중국은 교육부의 주도하에 교육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AI 기술을 기반으로

34) Skritter try out, <https://skritter.com/demo>, (검색일: 2022.08.01.)



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반면 미국은 IT 기업 또는 중국어 교육 기업의 주도하에 AI 기술을 활용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다음으로 학습 콘텐츠 측면에서 중국과 미국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모두 초급 중국어 수준의 내용을 시작으로 중급 수준까지의 단어 학습, 말하기 연습, 본문 읽기 등의 학습 콘텐츠를 제공했다. 그러나 일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에서는 중국과 미국 모두 '중국 문화'를 주요 콘텐츠로 활용하였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끝으로, AIED의 유형으로는 챗봇, ITS, 그리고 AI 교실이 주로 사용되었다. 챗봇의 경우 플랫폼에서 중국어 학습 콘텐츠를 텍스트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 편리하고 또 학생들이 답글의 형태로 학습한 내용을 바로 확인 및 평가할 수 있기에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ITS 유형은 일반적으로 챗봇 형태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예를 들어, 챗봇 형식으로 학습하는 과정에서 AI 튜터가 피드백을 주거나 학습 결과에 대한 분석 및 솔루션을 제공하기도 했다. 이때 ITS의 새로운 버전인 대화 형태의 DBIS도 종종 활용되었다. 챗봇과 ITS를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었던 반면, AI 교실은 오프라인 교육에서 주로 찾아볼 수 있었다. AI 교실은 AR/VR과 같은 기술을 활용하여 공간적 한계를 뛰어넘은 몰입형 수업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중국 전통문화와 같은 체험형 학습 콘텐츠가 이목을 끌었다.

#### 4. 결론

본 연구는 AIED의 한 갈래로 외국어 교육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챗봇, 인공지능 스피커, ITS에 대해 살펴보고, 중국어 교육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중국과 미국의 AIED의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먼저, AIED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연구되고 있는 도구로는 챗봇이 있다. 챗봇을 교육 분야에서 활용하는 경우, 교수자는 챗봇을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활용하여 직접 학습 콘텐츠를 추가해 제작할 수 있으므로 다른 도구에 비해 활용이 용이하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는 최근 중국어까지 지원되는 국내외 IT 기업의 인공지능 스피커가 많다.

그러나 음성 인식이라는 기술이 특징이지만 일반적인 중국어 교수자가 조작하기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제품의 초기 설정에 의존하여 교육에 활용하게 된다. 끝으로 ITS는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개인을 위한 튜터로 AIED가 가장 주목하고 있는 기술 중 하나이다. 공교육에서 ITS형 플랫폼 활용 사례는 아직 찾아보기 어렵지만, 사교육 시장에서는 ITS형 중국어 교육 플랫폼을 어느 정도 찾아볼 수 있다.

대외 중국어 교육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중국과 미국이다. 먼저 중국의 경우, 중국 교육부가 앞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 예로, 공자학원과 好未来가 협력한 ‘AI开放平台’, 또 중외언어교류협력센터(中外语言交流合作中心)과 북경 어언 대학이 협력한 ‘国际中文智慧教学平台’이 있다. 위 두 사례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출신 개발자의 ‘Hello Chinese’ 플랫폼이 있다. 이 플랫폼은 한국어도 지원하며, 실제 한국 학습자의 활용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정부보다는 거대 IT 기업의 주도하여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교육 플랫폼이 다수를 이루었다. 그 예로, 마이크로소프트의 ‘Microsoft Learn Chinese’와 IBM의 ‘CIR’이 있다. 이 밖에도 ‘Skritter’의 ‘Write Chinese’ 플랫폼이 있는데 대부분 AI 기반의 중국어 학습 플랫폼이 개발자에 의해 시작된 것과 달리 해당 플랫폼은 중국어 교육 전공자의 주도하에 한자 쓰기를 중심으로 중국어 학습이 이루어진다.

한국의 중국어 교육에서의 AIED는 사례는 대부분 AI를 기반으로 한 중국어 교육 전문 학습 플랫폼이 아니거나 학습 시작 전 단계 테스트 정도에서 AI를 활용한 사례에 그쳤다. 무엇보다도 국내의 대표적인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중국어 교육 플랫폼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크게 아쉽다. 앞서 살펴본 국외의 ITS, AI 교실 사례와 같이 향후 국내에서도 다양한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 보조 수단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중국어를 쉽고 편리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교수-학습 연구 및 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언어가 한 국가의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만큼 국내에서 중국어 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단행본

Adamopoulou, Eleni, and Lefteris Moussiades. "An overview of chatbot technology." *IFIP International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Applications and Innovations*. Springer, Cham, 2020.

2. 논문

고권태 · 이효영, 「인공지능 챗봇의 중국어 교육 활용 방안 탐색」, 『중국어학』 72, 대한중국어학회, 2020, pp.215-233.

박찬욱, 「VR을 이용한 중국어 말하기 교육방안-개별 연습도구의 개발을 중심으로」, 『중국어교육과연구』 34, 한국중국어교육학회, 2021, pp.1-30.

유갑상 · 전궁, 「메타버스 기반의 게임형 어학교육 서비스 플랫폼 개발에 관한 연구」, 『디지털콘텐츠학회논문지』 22(9), 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 2021, pp.1377-1386.

이서이 · 한용수, 「중국의 쌍감(双減) 정책과 교육 문화에 대한 소고 -공공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중심으로-」, 『철학·사상·문화』 37, 동국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21, pp.459-477.

홍수민 · 임철일,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언어교육에서 교수자의 스캐폴딩 전략 개발」, 『교육공학연구』 37(2), 한국교육공학회, 2021, pp.309-341.

한희정 · 정유선, 「인공지능 통번역프로그램을 활용한 판매중국어 교육방안 탐색」, 『중국어문논역총간』 44, 중국어문논역학회, 2019, pp.351-375.

Ben Williamson&Rebecca Eynon , "Historical threads, missing links, and future directions in AI in education", *Learning, Media and Technology*, 45:3, 2021, pp.223-235.

3. 기타 웹사이트

강서영어도서관 공식 블로그, <https://blog.naver.com/gangseoelib/222050993695>

산타토의 공식 홈페이지, <https://new.aitutorsanta.com/>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공포",

<http://www.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72&bbsBean.bbsSeq=6472>

서울특별시 교육청, "인공지능(AI) 기반 영어학습 콘텐츠(스피킹클래스, 미션잉글리시) 매뉴얼",

<http://buseo.sen.go.kr/web/services/bbs/bbsView.action?bbsBean.bbsCd=94&bbsBean.bbsSeq=8928&ctgCd=206>

- 인민망, “왕이 中 외교부장, 정의용 韓 외교장관과 회담”  
, <http://kr.people.com.cn/n3/2021/0916/c203278-9897358.html>
- 조선일보, “중국어가 어찌다... 내년 교사 선발 0명, 24년만에 충원 안해”,  
[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9/01/4HWW5ASESNCFVA3LRSDQRYG6N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https://www.chosun.com/national/incident/2021/09/01/4HWW5ASESNCFVA3LRSDQRYG6N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白鲸出海, “HelloChinese 创始人李崇:工科男的教育梦”,  
<http://www.baijingapp.com/article/5941>
- 扬帆号, 好未来成为全球孔子学院合作伙伴, 教育+AI弘扬传统文化,  
<https://www.yangfanhao.com/n/991848.html>
- 搜狐, 好未来助力打造全球孔子学院首个AI汉语课堂, 双方签署战略合作协议,  
[https://www.sohu.com/a/280073209\\_297403](https://www.sohu.com/a/280073209_297403)
- 中国日报网, “我国首个面向全球中文学习者的智慧教学平台正式发布”,  
<https://baijiahao.baidu.com/s?id=1736124571478644654&wfr=spider&for=pc>
- 中国新闻网, “孔子学院合作伙伴计划”签约仪式在成都举行,  
<https://baijiahao.baidu.com/s?id=1618997664958613926&wfr=spider&for=pc>
- 中国青年网, 孔子学院“黑科技”助力对外汉语教学,  
<https://baijiahao.baidu.com/s?id=1622959116129264872&wfr=spider&for=pc>
- 雪球, 好未来将告别K9学科类业务 张邦鑫:以极大耐心推进海外业务,  
<https://xueqiu.com/2095268812/203012958>
- AI开放平台, <https://ai.100tal.com/solution?name=s-csa>
- IBM Research Blog, “Mandarin Language Learners Get a Boost From AI”,  
<https://www.ibm.com/blogs/research/2018/08/mandarin-language-ai/>
- Microsoft Research Lab-Asia, “Microsoft’s AI-powered app can help you learn Chinese”,  
<https://www.microsoft.com/en-us/research/lab/microsoft-research-asia/articles/microsofts-ai-powered-app-can-help-learn-chinese/>
- Microsoft Translator Blog, “Microsoft Translator releases literary Chinese translation”,  
<https://www.microsoft.com/en-us/translator/blog/2021/08/25/microsoft-translator-releases-literary-chinese-translation/>
- Rensselaer Polytechnic Institute, “How AI helps students learn Mandarin at RPI”, <https://youtu.be/7EuSTuliR2A>

Skritter about us, <https://skritter.com/about>

Skritter try out, <https://skritter.com/demo>

논문 접수 일	2022년 08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2년 08월 28일
게재 확정 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

Explore the Usability of AIED Assistants in Chinese Pedagogy  
- Focused on Chatbot, Smart Speaker and ITS -

Lee, Seoyi · Han, Yongsu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usability of AIED(AI in Education) assistants in Chinese pedagogy by examining chatbot, smart speaker, and ITS used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by introducing examples of AIED i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where Chinese education is most active. First, chatbots are more utilized than other tools because instructors can directly add their content. Next, smart speakers or AI speakers that support Chinese are used by many researchers due to their characteristics of voice recognition. Finally, ITS enables personalized education, the ultimate purpose of AIED, as a tutor for individuals. In the case of China, the Chinese Ministry of Education leads the project to realize Chinese language education for foreigners based on AI technology.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Chinese language education platforms based on AI technology were led by IT compani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cases of development of AIED assistance tools related to Chinese language education in Korea. Moreover it is hard to find out teaching-learning research using AIED assistance tools in Chinese language education in Korea so these kind of research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in the future.

**Keyword** Chinese pedagogy, Platform education, AIED, Chatbot, Smart speaker, ITS

#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나타나는 태도 자원에 대한 긍정적 담화분석\*

진엄평\*\* · 진연\*\*\*

## 국문요약

본 연구는 한국과 북한이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보이는 태도 자원을 대조하여 긍정적 담화분석을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올해 한국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추진 중인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고 북한은 북-베를 특수한 동지적 관계, 전략적 관계로 승화·발전시킨 역사적인 한 해에 들어섰다. 남북한 대 베트남의 활발한 교류 현황을 탐구하고자 평가어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UAM Corpus Tool과 AntConc 코퍼스 분석 수단으로 2017년~2022년에 발표된 한국과 북한의 베트남 관련 외교 보도를 연구대상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가 주체의 의제 분석, 태도 자원의 활용 빈도, 그리고 외교상 태도나 입장의 차이가 태도 자원을 통해 어떻게 구현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의제 분석에서 한국은 대 베트남 외교에서 '한-베', '한-베 콩', '한-아세안' 등 관계에 관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보건·의료 등 각 분야 의제를 많이 다룬 것에 비해 북한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공산당과의 친선협조 관계 등 의제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 태도 자원 활용에서는 남북한은 모두 감정평가(사물평가) 행위평가가 경향을 보여주었다. 단, 남북한은 평가 대상에 따른 세부 자원의 활용 양상에서 상이한 측면을 보였다. 또한 외교 담화에서 한국과 북한이 모두 긍정적 태도 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강한 점을 확인하였으며, 각국 입장에서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본成果系国家语委科研机构中国东北亚语言研究中心(大连外国语大学)研究成果, 2022年度大连外国语大学研究生创新项目研究成果(YJSCX2022-010)

\*\* 제1저자: 중국동북아언어연구센터(중국 대련외국어대학교) 연구원, 대련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과 교수

\*\*\* 제2저자: 대련외국어대학교 동북아연구센터 박사과정

**주제어** 남북한 대 베트남, 태도 자원, 긍정적 담화분석, 외교 담화, 평가어 이론

〈목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연구자료 및 방법
4. 결과 및 논의
5. 결론

## 1. 서론

본 연구는 한국과 북한이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보이는 태도 자원을 대조하여 담화 이면에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 데 목적을 둔다. 올해는 한-베 관계와 북-베 관계가 모두 중요한 한 해이다. 한국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베트남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추진 중인 중요한 시기에 들어섰고 북한은 북-베를 특수한 동지적 관계, 전략적 관계로 승화·발전시킨 역사적인 한 해에 들어섰다. 남북한 대 베트남의 활발한 교류 현황을 탐구하고자 한국 외교부와 북한 외무성의 보도자료에 나타난 긍정적 담화분석을 한다.

한국과 베트남은 2009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이래, 양국 간 관계의 발전을 지속 도모하고 있다.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임기 초반부터 동아시아 공동체 구축을 위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고, 그 해 11월에 발표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제고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베트남이 한국과 교역액이 가장 커 신남방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인 것을 인정하였다. 나아가 한-베 수교 30년인 2022년에는 양국 관계가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단계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몇 년간 갈등 분쟁과 화해 교류의 기로에 선 북-베 관계는 2018년



8월 ARF를 계기로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게 되었다. 2022년은 북한과 베트남 사이의 외교관계 수립 72주년이 되는 해이고 2019년 3월에 베트남 공식친선방문으로 올해 양국관계는 특수한 동지적 관계, 전략적 관계로 승화·발전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 (2017년부터) 외교부 뉴스 홈페이지와 북한 (2018년부터) 외무성 뉴스 홈페이지에서 베트남에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보도에 관심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외무성에 보도된 뉴스는 언론사에 실린 보도보다는 정부의 주장이 잘 반영되기 때문에 한 나라의 외교 정책 동향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뉴스 보도들은 국가 주요 기관의 외교 발표와 관련 정부 부처 고위급 관계자들의 발언이나 실무적인 행위를 주목함으로써 국가 간 외교 왕래의 이념과 입장을 잘 보여주는 담화 자료라 판단된다. 외교 담화는 국가 차원에서 외교 정책과 외교 이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언어 및 언어행위로서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담화, 지도자 연설, 조약, 합의, 공동성명, 브리핑 및 인터뷰 등뿐만 아니라 그러한 일련의 정보와 관련된 공식 문서, 공고문, 공지 사항 또는 뉴스 보도를 포함할 수 있다. 외교 뉴스 보도는 이상의 어느 한 텍스트나 담화 종류에만 치우치지 않고 앞서 지적했듯이 외교 정책과 이념을 잘 보여주는 외교 업무와 연계 돼 있으면서 뉴스 방식으로 대외적으로 보도된다. 사람들은 특히 뉴스를 통해 공공의 사안이나 문제를 알게 되고 세상을 인식하게 된다<sup>1)</sup>. 또 이러한 인식에 기반하여 담화문의 사용을 바탕으로 사회나 문화 과정 및 그 구조가 어떻게 구현되는가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을 비판적 담화분석(CDA:critical discourse analysis)이라고 한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지배 관계의 생성과 이에 대한 도전에서 담화가 수행하는 역할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sup>2)</sup>. 이 접근법은 언어 사용에 나타나는 힘과 이데올로기를 주목하여 텍스트에

1) 김정환·연수정·김성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뉴스보도 비교 분석: 언론사의 정치성향과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24집, 한국정보사회학회, 2012, p.5.

2) van Dijk, T. A.,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and Society" 4(2), 1993, p.249.

숨겨진 권력과 지배관계, 사회 조직과 불평등, 갈등, 억압 등 문제를 연구한다. 그러나 비판적 담화분석은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소극적인 태도로 대하여 텍스트에 대한 분석은 부정적인 의미를 도출해 내는 것이 대부분이다. Martin에서 담화분석의 대상은 불평등을 내포하고 있는 나쁜 뉴스 (bad news)만이 아니라 평화를 주장하는 좋은 뉴스(good news)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3)</sup>. 이런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긍정적인 태도로 취하고 해결할 것을 주장하면서 담화분석을 통해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접근법은 긍정적 담화분석(PDA: positive discourse analysis)이라고 한다. 긍정적 담화분석은 비판적 담화분석과 대조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에 대한 보완으로 사회적 맥락 속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과 관련된 텍스트를 분석함으로써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와 세상을 구축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적 담화에서 담화의 힘을 통해 현실을 구축함으로써 국가 간 우호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바로 긍정적 담화분석이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이념에 부합한다.

긍정적 담화분석은 Martin & White의 평가어 이론(appraisal theory)을 주요 분석틀로 하여 텍스트를 분석한다. 기존 연구에서 평가어 이론을 기반하여 다룬 연구들은 주로 신문 사설과 기사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언급한 대부분 연구들은 두 나라 간의 신문 사설을 대조하거나 신문사의 신문 사설을 대조함으로써 평가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었다<sup>4)</sup>. 그리고 어떤 연구들은 평가어 체계의 ‘기입’에 초점을 맞추어 기입 평가어의 사용 특징과 기능을 고찰하였다<sup>5)</sup>. 왕립 외에서는 비판적 담화분석 접근법을 이용하여 입장이 서로

3) Martin, J. R. & Rose, D., *Working with discourse: Meaning beyond the clause*,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03, p.264.

4) 신진원,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한·미 신문 사설 비교 연구: 평가어 체계를 기반으로, 『담화와 인지』 제21-3집, 2014; 김병건, 「신문의 사설·칼럼에 나타난 ‘진보’에 대한 비판적 담화 분석」, 『사회언어학』 제24-1집, 한국사회언어학회, 2016; 이정림·강대중·정제영,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 과정을 다룬 신문 사설의 프레임 분석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30-2집, 한국교육사회학회, 2020.

5) 맹강,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한·중 신문 사설 개입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제69집, 이중언어학회, 2017ㄱ; 맹강, 「한·중 신문 사설의 개입 대조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0집, 국어교육연구소, 2017ㄴ; 맹강, 「한·중 정치류 신문 사설의 ‘개입

다른 두 신문사 사설에 드러난 태도 평가어의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각 신문이 의식적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회적 신념이나 사회적 질서가 어떻게 언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탐구하였다<sup>6)</sup>. 진염평·진연에서는 남북한 정치 사설의 대인적 기능을 검토하면서 담화 이면에 작용하는 이데올로기를 고찰하였다<sup>7)</sup>. 논의된 바에 의하면 평가어 이론에 기반한 텍스트에 대한 담화분석은 주로 신문 사설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텍스트에서 특정 어휘나 어구의 사용 특징에 대한 비교를 통해 어휘나 어구의 함축적 의미와 담화생산자의 의도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데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평가어 이론에 의하여 긍정적으로 담화에 대한 분석은 아직 희소하다.

현재 정치와 언론에 관련된 담화분석은 비판적 시각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연구들이 대부분이다. 이런 분석 접근법은 담화를 통해 재현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드러내어 보인 목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언어적으로 구현되는 긍정적 요소를 간과하였다. 긍정적 담화분석 접근법은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도 주목하지만 긍정적인 시각으로 불평등 문제를 대처하고 조화로운 사회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을 취지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남북한 대 베트남 간의 활발한 교류 현황을 탐구하고자 평가어 이론에 기반을 두고 2017년~2022년에 발표된 한국과 북한의 베트남 관련 외교 보도자료에 대한 긍정적 담화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과 북한이 대 베트남에 보인 외교적 태도를 언어 자원으로 어떻게 구현되는지, 어떤 외교적 주제에 집중하여 주로 다루어지는지가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

대조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9집,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신문적·왕림·김진혜, 「코로나19 백신 관련 신문 사설의 '개입' 표현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50집, 인문학연구원, 2022.

6) 왕림·신문적·김진혜, 「코로나19 백신 관련 신문 사설의 '태도' 평가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62집, 한말연구학회, 2021.

7) 진염평·진연, 「태도평가 관점에서 본 남북한 정치 사설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 『한국어문교육』 제31집, 담화·인지언어학회, 2020.

## 2. 이론적 배경

### 1) 긍정적 담화분석

담화 분석은 주로 담화와 사회의 관계를 비판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인 비판적 담화분석과 담화와 사회의 관계를 긍정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학문인 긍정적 담화분석이라는 두 가지를 가리킨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1990년대에 본격적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담화를 사람의 행위와 관련된 사회적 관행(social practices)의 하나로 간주한다<sup>8)</sup>. 사회, 정치적 맥락에서 담화를 통해 권력 구조나 헤게모니가 생성되고 재생산하는 과정을 연구하는 학문으로<sup>9)</sup>, 권력, 통치, 지배와 같은 개념들이 주제로 거론되곤 한다. 비판적 담화분석은 늘 비판적인 태도로 담화를 통해 재현되는 사회적 행위자들 사이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평가하기 때문에 텍스트에 대한 분석에 부정적인 의미가 많다. 이에 관련된 부족한 점과 부작용에 대해 1999년에 Martin은 ‘긍정적 담화분석’이라는 분석법을 제시하였다.

긍정적 담화분석은 적극적인 태도로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대처하고 해결함으로써 담화분석을 통해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구축하는 것을 주장한다. Martin에서는 사회적 불평등과 갈등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데만 그쳐서는 실제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안 되고, 긍정적인 태도로 평화언어학(peace linguistics)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하여 화해하고 공존하는 인류사회를 이루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sup>10)</sup>. 긍정적 담화분석이 의지하는 분석들은 주로 평가어 이론을 들 수 있다. 평가어 이론을 기반으로 텍스트나 담화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저자나 화자의 태도 및 입장, 정서의 강도, 그리고 윤리적 평가의 척도, 가치 평가의 수준 등은 언어적 평가어 자원들에 깊은 관련이 있으므로 태도나 입장 등을 통해 나

8) Fairclough, N., *Language and power*, London: Longman, 1989, pp.22-23.

9) Van Dijk, T. A.,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Oxford: Blackwell, 2001, pp. 352-371.

10) Martin, J. R. & Rose, D., *Working with discourse: Meaning beyond the clause*,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03, p.2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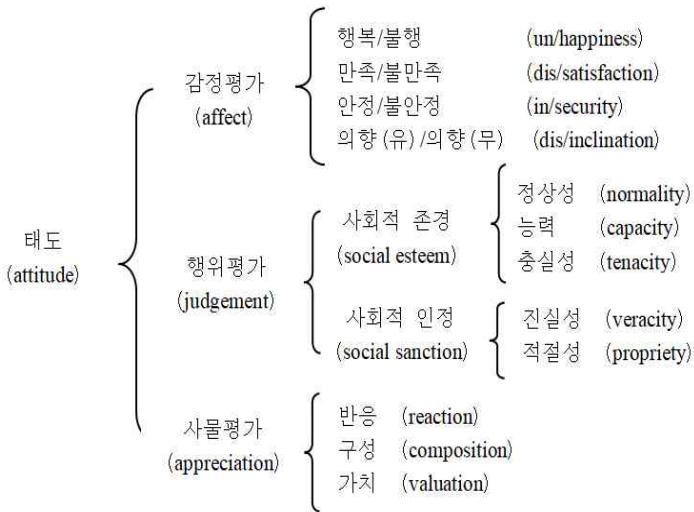
타나는 이데올로기도 이런 언어적 자원들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평가어 이론은 Martin&White에서 Halliday의 체계기능언어학의 대인적 기능을 발전시켜 성립된 이론이다. 대인적 기능을 다루기 위해 사회적 행위자가 담화에서 언어 자원을 이용하여 자신의 태도와 입장을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언어를 평가어라고 한다. 즉 ‘어휘문법적’(lexio-grammatical) 틀에서 사회적 행위자의 의견을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태도를 통해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언어적 표현이다. 이는 독자가 사물이나 대상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주며, 저자와 독자 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상호주관성과도 관련되는 요인이 된다. 평가어 이론은 ‘태도(attitude)’, ‘개입(engagement)’, ‘강도(graduation)’ 세 가지 하위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평가어의 특성으로 담화 참여자들은 사람이나 행위, 사물 등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있고(태도), 텍스트에 대한 화자/저자의 입장을 표현할 수 있으며(개입), 그 평가에 대해 크기, 세기, 정도 등에 따라 등급을 조절할 수 있다(강도). ‘태도’는 이 중에서 핵심적인 자리를 잡고 있는 영역이다.

## 2) 태도

태도는 평가어 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으로 감정평가(affect), 행위평가(judgement), 사물평가(appreciation) 세 가지 하위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감정 평가는 행복/불행(un/happiness), 만족/불만족(dis/satisfaction), 안정/불안정(in/security), 의향의 유무(dis/inclination) 등의 감정에 대한 평가로 화자/저자가 표현한 정서적 태도나 느낌을 나타낸다. 이런 특성을 가진 평가어들은 주로 기쁨, 슬픔, 두려움, 신뢰 및 자신감과 같은 정감을 내포한 언어적 자원을 다룬다. 행위평가는 사회적 존경(social esteem)과 사회적 인정(social sanction)으로 나눌 수 있으며 사회적 존경은 다시 정상성(normality), 능력(capacity), 충실성(tenacity)을 표현하는 자원으로 사회적 인정은 다시 진실성(veracity)과 적절성(propriety)을 표현하는 자원으로 구성되어 타인 행위에 대해 평가를 내린다. 행위 평가는 사람의 행위에 대한 평가로, 주로 사회적 규범과 윤리적 도덕 기준에 따라 긍정 혹은 부정 평가를 판단한다. 사물평가는 사회적 가치나 규범에 의거하여

미적으로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평가로 반응(reaction), 구성(composition), 가치(valuation)를 통해 실현한다. 감정평가, 행위평가 그리고 사물평가의 하위범주들이 모두 긍정 혹은 부정 언어적 자원을 포함한다. 태도는 최대한 한 담화의 대인적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으므로 긍정적 담화분석에 유용한 분석틀이 될 것을 감안하여 본 연구는 태도에 초점을 맞춰 담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Martin & White에서 제시한 태도의 하위범주는 아래 <그림1>과 같다<sup>11)</sup>.



<그림1> 태도의 하위범주

외교 담화는 담화 장르 중에 특별한 영역으로서 특정한 사회, 문화, 역사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사회적 가치관과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반영할 수 있다. 그래서 외교 담화에서 나타난 평가어 특징은 일상 담화와 구별된다. 본 연구에서 평가어를 판단할 때는 아래와 같은 기준을 참고로 한다. 감정평가는 주로 국가 대표 및 정부 대변인을 비롯한 사람들은 외교 업무에 대해 표출된 정서적

11) Martin, J. R & White, P. R. R.,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pp.48-56.

반응, 느낌, 신념, 의지 등과 관련된다. 행위평가는 주로 국가 및 정부의 행위를 평가하는 언어 자원으로, 외교 사상과 외교 경향을 내포하고 있는 행위, 그리고 어떤 사건에서 정부의 입장, 더욱이 정부 행위의 합법성을 판단할 때에는 이런 자원을 많이 사용한다. 사물평가는 국가 및 정부의 문화적 가치관, 정치적 이념, 사회적 의식 등에 관련이 있다. 또는 외교적 가치에 의거하여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감상한다.

### 3. 연구자료 및 방법

#### 1) 연구자료

2017년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 발표에 따라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이 크게 확대되었으며, 특히 베트남은 한국의 가장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로 되어 양국 간 다자협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북한은 2018년 8월 ARF를 계기로 외교장관 회담 개최를 시작으로 고위급 교류를 재개하였으며 두 나라 사이의 협조 관계를 계속 공고·발전시키고 있다. 또한, 북한 외무성에는 2017년 이후에 발표한 정보만 수록돼 있고 2017년 이전에 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는다. 이런 최근 몇 년 동안 한-베 관계와 북-베 관계가 계속 심화·발전하는 배경과 정보를 검색하는 데에 시간적인 제한이 있는 맥락에서 본 연구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일<sup>12)</sup>(2017년 5월 10일)을 기점으로 최근 5년 간(2017년 5월 10일~2022년 5월 10일)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sup>13)</sup>에서 발표된 한-베 관련 외교적 보도자료와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sup>14)</sup>에서 발표된 북-베 관련 외교적 보도자료를 수집하였다. 한-베 관련 보도자료는 총 217건, 북-베 관련 보도자료는 총 167건을 통계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아래 <표1>과 같다.

12) 북한과 베트남의 관계는 2018년 8월에 재개했지만 한국측의 한-베 교류 상황을 고려하여 남북측에 관한 자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017년에 발표된 북-베 관련 보도자료도 수집하였다. 다만 2018년 8월 이전에 발표된 북-베 관련 정보들이 아주 적다.

13) 한국 외교부 홈페이지 주소는 <https://www.mofa.go.kr/www/main.do>이다.

14) 북한 외무성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mfa.gov.kp/article/page/homepage>이다.

〈표1〉 한국과 북한 대 베트남의 외교적 보도자료 통계 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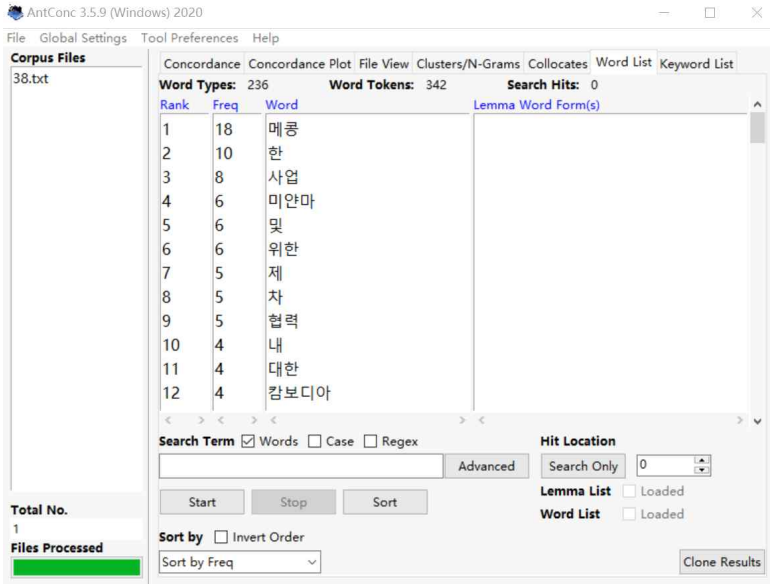
연도	한국		북한	
	건수	글자수	건수	글자수
2017년 (5월10일이후)	26	45181	10	4129
2018년	30	46376	27	8558
2019년	32	61192	55	47280
2020년	63	113892	27	24836
2021년	50	76166	29	19898
2022년 (5월10일이전)	16	32980	19	12842
총계	217	375787	167	117543

##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로 세 가지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코퍼스 도구를 이용하여 한국 대 베트남 측에 주로 어떤 외교적 의제를 다루었는지 북한 대 베트남 측에 어떤 외교적 의제에 관심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긍정적 담화분석 접근법을 활용하여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 나타나는 태도나 입장의 차이가 평가어 자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는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언어적 자원을 통해 다르게 평가하는 원인을 탐구해 보고자 한다.

먼저, 첫 번째 문제에 관해 외교적 의제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AntConc 3.5.9라는 분석 도구를 사용하여 어휘목록을 작성했다. AntConc의 Word List는 선택된 텍스트에 어휘들의 목록을 만들어 주는 도구로서 각 어휘의 출현 빈도와 순위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시는 다음 〈그림2〉와 같다. 본 연구는 이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217 개(한-베)와 167 개(북-베) 텍스트를 분석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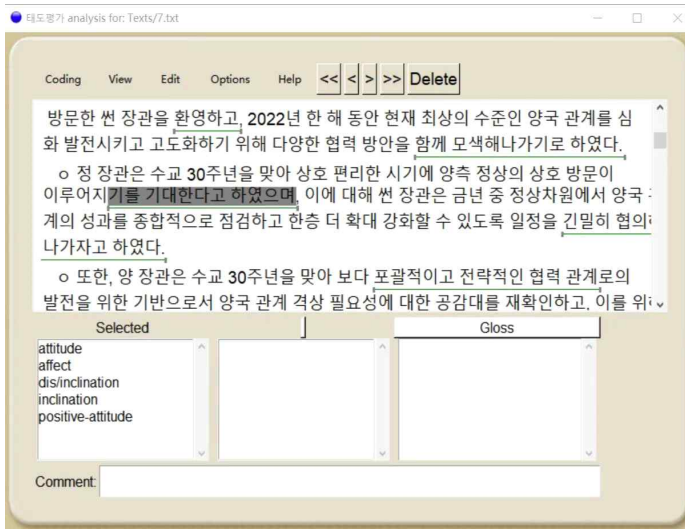


〈그림2〉 Word List의 예

두 번째 문제에 관해 한-베와 북-베 간 외교 담화에 대한 긍정적 담화분석을 하기 위해 평가어 자원들을 대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 부분에서의 분석은 UAM Corpus Tool 3.3이라는 코퍼스 도구를 이용하였다. UAM Corpus Tool은 텍스트에 대해 자동적으로나 수동으로 마크를 할 수 있다. 이 코퍼스 도구는 사용자가 기존에 있는 평가어 체계의 마크 층(layers)에 따라서 분류해도 되고,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기준을 새로 설정해도 된다. 본 연구에서는 UAM Corpus Tool에서의 평가어 체계 틀 하에 평가어 범주의 개념에 따라 수동으로 텍스트를 마크하였다<sup>15)16)</sup>. 마크를 끝낸 다음에 최종 통계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이 부분

15) Martin & White(2005)의 ‘태도’ 정의에 따르면 이의 3가지 하위분류는 모호할 경우도 있고 교차될 경우도 있다. 연구자가 혼자서 수동으로 텍스트를 마크하는 주관성을 낮추기 위해서 본 연구는 연구원 3명(A, B, C)이 같이 마크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원 A(본 연구자), B(중국인 언어학 대학원생)와 C(한국인 한국어 강사)는 모두 평가어 이론을 익숙한 언어학자이다. 무작위로 일부분 남북한 텍스트 자료를 선택하고 샘플로 삼고 A, B와 C는 각자 스스로 이를 마크하였다. 연구원 3명의 마크 결과에 따르면 결과의 일

은 한-베 보도자료와 북-베 자료를 대조하기 위해서 텍스트 건수의 균형을 확보해야 할 것을 감안하여 랜덤 샘플링(random sampling)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무작위로 선택한 자료들을 UAM Corpus Tool에 입력시켜 마크를 하였다. UAM Corpus Tool 마크 예시는 아래 <그림3>과 같다.



<그림3> UAM Corpus Tool 마크의 예

마지막 문제에 관해서는, 위와 같이 양적으로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보도 의제와 평가어 자원을 통해 표현된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여주는 원인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치성은 80% 이상에 달하였다(A와 B의 일치성: 86.7%; A와 C의 일치성: 80%). 일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A, B와 C는 같이 토론하고 최종 비교적 일치된 마크 표준이 형성 돼서 A는 이 표준에 따라 모든 텍스트 자료를 마크하였다.

- 16) 텍스트를 마크했을 때 다음 예시와 같이 한 문장에서 한 구절 또는 표현이 두 가지 이상의 하위 범주에 속하는 경우, 이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범주를 통계하였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베트남을 공식 방문하는 첫 외교장관으로서 이번 방문은 한-베트남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만족/+가치)

#### 4. 결과 및 논의

##### 1)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의 의제 분석

본 절에서 AntConc의 Word List 도구를 사용하여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적 보도자료 텍스트에 대한 어휘목록을 작성하였다. 어휘목록을 작성할 때는 산출될 어휘목록에 포함될 단어들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연구 목적에 따라 어휘목록에 일부 어휘를 제외하도록 할 수도 있고 특정 어휘만을 포함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부분의 분석은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적 보도자료에서 자주 다루어지는 의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Word List를 기반으로 고빈도 어휘들을 생성하였다. 이 중에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15개 명사를 통계한 결과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어휘목록에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15개 명사

순위	한국		북한	
	어휘 (명사)	빈도수 (회)	어휘 (명사)	빈도수 (회)
1	아세안	705	중앙위원회	208
2	베트남	703	나라	196
3	메콩	689	월남사회주의공화국	138
4	코로나	527	월남공산당	122
5	한국	495	조선로동당	120
6	협력	491	김정은동지	114
7	외교부	305	당	106
8	장관	25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103
9	관련	253	대통령	93
10	이번	251	최고령도자	92
11	개최	239	수령	82
12	대응	207	정치국	82
13	역내	206	국무위원회	64
14	양국	178	위원	60
15	지원	163	위원장	58

<표2>에서 보듯이 한국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자주 다룬 명사는 ‘아세안(705회)’, ‘베트남(703회)’, ‘메콩(689회)’, ‘코로나(527회)’, ‘한국(495회)’, ‘협력

(491회), ‘외교부(305회)’, ‘장관(254회)’, ‘개최(239회)’, ‘대응(207회)’, ‘역내(206회)’, ‘양국(178회)’, ‘지원(163회)’ 등이 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베 관련 보도자료에서는 물론 두 주인공 국가를 자주 언급하기 때문에 ‘한국’과 ‘베트남’이라는 어휘가 어휘목록에 자주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아세안<sup>17)</sup>’과 ‘메콩<sup>18)</sup>’이라는 두 가지 어휘도 자주 다루어진 것을 볼 수 있다. 2017년 발표된 신남방정책 추진과 함께 한-아세안 관계는 계속 심화하고 발전해 왔다. 아세안과 한국의 협력관계는 정치·경제 협력을 넘어 보건·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보다 다층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베트남은 아세안의 회원국으로서 한-베 관련 외교왕래 상에 ‘아세안’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다루어 사용한다. 2011년 한-메콩 협력 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한국과 메콩 5개국 간 경제·문화 및 인적 교류가 크게 증가하였다. 그래서 ‘메콩’이라는 키워드도 한-베 관련 외교 담화에서 자주 나타난 것이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의 시사와 관련된 ‘코로나’라는 단어도 보도에서 출현 빈도가 높다. 주로 한-베, 한-아세안, 한-메콩 간 코로나 대응 협력, 코로나 백신 관련 협력, 그리고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 및 평화 증진 등 방안을 논의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사용한다. 나머지 단어들은 일반적으로 위에 말한 의제들에 종속되고 보도자료에서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중략)...한국과 아세안간의 교역이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역내 최고를 기록하는 등 경제·교역,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남방정책이 성과를 거두었다는 것을 소개하고, 아세안 국가의 사람 중심의 포용적 성장을 위해 한국의 강점 및 경험을 활용하여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2022.2.9)”에서는 상위 15개 어휘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외교부’, ‘장관’, ‘한국’, ‘아세안’, ‘코로나’, ‘역내’, ‘협력’이 동시에 나타난다.

〈표2〉에 따르면 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많이 다루어진 명사는 ‘중앙위

17) 아세안(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회원국은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10개국이다.

18) 메콩 5개국은 메콩 강 유역(총 길이: 약 4,020km)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지칭한다.

원회(208회), ‘월남사회주의공화국(138회)’, ‘월남공산당(122회)’, ‘조선로동당(120회)’, ‘김정은동지(114회)’, ‘당(106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103회)’, ‘대통령(93회)’<sup>19)</sup>, ‘최고령도자(92회)’, ‘수령(82회)’, ‘국무위원회(64회)’ 등이 있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북한과 베트남 간의 교류는 주로 국가 정상 간의 교류에 집중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고령도자’, ‘수령’, ‘김정은동지’ 등 단어들은 모두 북한 정상을 지칭한 것이다. 그리고 보도자료에서 두 주역 국가인 ‘월남사회주의공화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어휘목록에 자주 나타났다. 또한, 월남공산당은 베트남의 집권 정당이고 조선로동당은 북한의 집권 정당이다. 같은 사회주의 진영에 선 북한과 베트남은 외교 담화에서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월남공산당’과 ‘조선로동당’ 등 어휘들을 많이 사용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정은동지와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신 웬 푸 쯙동지 사이의 회담이 3월 1일 주석부에서 진행되었다. (2019.3.2)”에서 두 나라 정상회담 일정에 대한 보도에는 상위 15개 어휘목록에 속한 많은 어휘가 나타났다.

요컨대 한국이 대 베트남 외교에서 ‘한-베’, ‘한-베콩’, ‘한-아세안’ 등 관계에 관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코로나 방역 등 각 분야 의제를 많이 다룬 것에 비해 북한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와의 친선 협조 관계 등 의제에 관심을 더 기울였다. 한국과 북한은 각국 입장에서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긍정적 담화 분석의 시각에서 어떤 평가어를 통하여 실현되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

19) 베트남 최고영도자는 ‘주석’이라고 부르는데 본 연구에서 ‘대통령’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난 이유는 첫째로 외교적 보도자료에서 북한 최고영도자와 베트남 주석 외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까지 언급되기 때문이다. 특히, 둘째로 북한에서 새해 무렵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과 정당지도자들, 각계인사들이 연하장을 보내기 때문에 늘 많은 나라 대통령을 열거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몽골 대통령, 싱가포르 공화국 대통령, 따위끼스탄 공화국 대통령, 푸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등등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출현 빈도가 높지만 본 연구의 연구 초점과 그다지 연관이 없어서 여기에 설명을 한다.

## 2) 태도 자원 분류 및 긍정적 담화분석

대조적인 시각에서 남북한 대 베트남 태도 자원을 분석하는 취지에 따르면 먼저 대조하는 코퍼스 텍스트의 균형을 확보해야 한다. 본 절에서는 대조 텍스트의 글자 수가 비슷한 수준에 있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베 보도자료는 48건(글자 수: 60779자), 북-베 보도자료는 70건(글자 수: 61571자)을 추출하였다. 코퍼스 도구 UAM Corpus Tool을 이용하여 텍스트에 정보를 마크한 후 생성한 통계 결과는 다음 <표3>과 같다.

<표3>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의 태도 자원 분류 및 분포

Feature	북한		한국		Chisqu	Signif.
	N	Percent	N	Percent		
태도ATTITUDE	N=469		N=400			
감정평가affect	200	42.64%	149	37.25%	2.61	
행위평가judgement	120	25.59%	110	27.50%	0.41	
사물평가appreciation	149	31.77%	141	35.25%	1.18	
감정평가AFFECT	N=200		N=149			
행복/불행un/happiness	66	14.07%	9	2.25%	38.26	+++
만족/불만족dis/satisfaction	25	5.33%	51	12.75%	14.89	+++
안정/불안정in/security	42	8.96%	15	3.75%	9.54	+++
의향 유/의향_무dis/inclination	67	14.29%	74	18.50%	2.82	+
행위평가JUDGEMENT	N=120		N=110			
정상성normality	9	1.92%	15	3.75%	2.70	
능력capacity	71	15.14%	25	6.25%	17.36	+++
충실성tenacity	31	6.61%	65	16.25%	20.42	+++
진실성veracity	2	0.43%	2	0.50%	0.03	
적절성propriety	7	1.49%	3	0.75%	1.05	
사물평가APPRECIATION	N=149		N=141			
반응reaction	18	3.84%	25	6.25%	2.67	
구성composition	0	0.00%	23	5.75%	27.70	+++
가치valuation	131	27.93%	93	23.25%	2.47	
태도_경향ATTITUDE-POLARITY	N=469		N=400			
긍정적_태도positive-attitude	462	98.51%	392	98.00%	0.33	
부정적_태도negative-attitude	7	1.49%	8	2.00%	0.33	

+ Weak Significance (90%) ++ Medium Significance (95%) +++ High Significance (98%)

<표3>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의 태도 자원의 분포는 <감정평가> <사물평가> <행위평가> 경향을 보여주었다. 태도 자원은 한-베 관련 보도

자료에서나 북-베 관련 보도자료에서나 비슷한 수준을 나타냈지만 각 하위분류에 분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 우측에 있는 카이제곱(Chi square)의 값에 따른 유의확률(significance)을 보면 한국과 북한은 감정평가의 행복/불행, 만족/불만족, 안정/불안정, 행위평가의 능력, 충실성, 사물평가의 구성 등에서 유의수준이(0.02로 높은 유의미한 차의(high significance)를 보였다. 또한 긍정적 담화분석은 평가어 자원에 긍정적 자원만 나타나고 부정적 자원은 나타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로 텍스트를 분석하여 텍스트 중에 조화로운 요소와 평화로운 요소에 초점을 맞춰 담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때문에 통계 결과에 따라 부정적 자원은 매우 적은 통계수치로 나타났지만 이에 대한 해석은 필요가 있다. 이런 구체적인 통계 수치는 <표3>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한국의 부정적 태도 자원은 불만족(3, 0.75%), 불안정(1, 0.25%), -<sup>20</sup>반응(3, 0.75%), -가치(1, 0.25%)가 있고, 북한의 부정적 태도 자원은 불만족(1, 0.21%), 불안정(1, 0.21%), -적절성(2, 0.43%), -반응(2, 0.43%), -가치(1, 0.21%)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정적 태도 자원의 빈도수는 한국에서 8인데 2.00%만 차지하였으며 북한에서 7인데 1.49%만 차지하였다. 논술의 길이를 고려하여 부정적 태도 자원에 대해서 한국과 북한의 예를 각 하나씩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1ㄱ) 【한국】 (-만족)

강 장관은 우선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투명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총력 대응하고 있음을 설명하였으며, 신남방 정책의 핵심 파트너인 베트남이 우리 국민에 대한 과도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한국내 실망감이 매우 크다고 하였다.

(『한국-베트남 외교장관 통화』, 2020.2.28)

(1ㄴ) 【북한】 (-적절성)

이밖에도 신문, 인터넷, 사회교제망 등 각종 출판, 언론, 대중보도수단을 통한 의도적인 여론조작과 비방중상으로 주권국가들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반정부세력들을 부추기는 것과 같은 주권침해행위들이 련이어 감행되어 많은 나라들의 강한 반발

20) 본 연구는 긍정적 평가어 자원은 '+', 부정적 평가어 자원은 '-'로 표기한다.

과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정의와 량심의 대변자가 되어야 한다』, 2020.11.7)

예문(1ㄱ)과 같이 ‘만족감’측면에서, 한국측은 ‘실망감’이라는 감정자원을 통해 베트남측에 대한 불만족을 표출하고 있다. 그리고 ‘매우 크다’라는 표현으로 베트남의 과도한 대 한국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한국의 불만족감을 격화시키고 있다. (1ㄴ)과 같이 행위평가 자원인 ‘적절성’측면에서, 북한은 서양언론들이 대중보도수단을 통해 실시한 주권침해행위들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하는데 이런 부적절한 행위는 많은 나라들의 강한 반발과 규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이런 부정적 평가를 통해 북한과 베트남은 적대세력들이 공산당과 사회주의제도를 비난하거나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높일 것을 강조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부정적 태도 자원을 사용하였지만 모두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예문(1ㄱ)에서 한국측은 베트남측의 조치가 한-베 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였지만 양국간 우호·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함께 극복하고 계속해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야 할 것을 전망한다. (1ㄴ)의 부정적 평가의 대상은 베트남이 아니라 서양언론들인 서드 파티이기 때문에 이런 평가는 북-베 간의 친선 관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지금까지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매우 낮은 빈도로 나타난 부정적 태도 자원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래 빈도수가 매우 높은 긍정적 태도 자원에 대해 구체적인 긍정적 담화분석을 하고자 한다. <표3> 통계 결과에 따라 긍정적 자원을 추출한 결과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의 긍정적 태도 자원 분류 및 분포

태도	한국		북한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감정평가(긍정적)				
+행복	9	2.25%	66	14.07%
+만족	48	12.00%	24	5.12%
+안정	14	3.50%	41	8.74%
+의향	74	18.50%	67	14.29%



총계	145	36.25%	198	42.22%
행위평가(긍정적)				
+정상성	15	3.75%	9	1.92%
+능력	25	6.25%	71	15.14%
+충실성	65	16.25%	31	6.61%
+진실성	2	0.50%	2	0.43%
+적절성	3	0.75%	5	1.06%
총계	110	27.50%	118	25.16%
사물평가(긍정적)				
+반응	22	5.50%	16	3.41%
+구성	23	5.75%	0	0.00%
+가치	92	23.00%	130	27.72%
총계	137	34.25%	146	31.13%

〈표4〉에 따르면 감정평가의 경우, 한국과 북한은 긍정적 자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의향’(한국:18.50% 북한:14.29%) 자원을 선호한 공통점이 있었지만 현저한 차이점도 있었다. 한국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의향’ 자원 외에 ‘+만족’(12.00%) 자원이 그 뒤를 이었다. 그리고 ‘+안정’(3.50%)과 ‘+행복’(2.25%) 자원은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북한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행복’(14.07%) 자원은 ‘+의향’(14.29%) 자원과 엇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차지하였다. ‘+안정’(8.74)과 ‘+만족’(5.12%) 자원은 그 뒤를 이었다. 행위평가의 경우 한국은 ‘+충실성’(16.25%) 자원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에 북한은 ‘+능력’(15.14%) 자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위를 차지한 자원은 한국에서는 ‘+능력’(6.25%)인 것에 비해 북한에서는 ‘+충실성’(6.61%)이었다. 사물평가의 경우 ‘+가치’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23.00%)과 북한(27.72%)은 비슷한 선택 양상을 보였다. 그리고 한국에서 ‘+반응’(5.50%)과 ‘+구성’(5.75%) 자원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반응’(3.41%) 자원이 적게 나타났으며 ‘+구성’ 자원은 아예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통계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 행위평가 그리고 사물평가의 각 하위범주별로 가장 많이 사용된 1, 2위를 예로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감정평가:**

(2ㄱ) **【한국】** (+의향)

정 장관은 베트남이 우리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임을 강조하면서 ... (중략)... 양국관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베트남 신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결과』, 2021.6.23)

(2ㄴ) **【한국】** (+만족)

베트남측은 평창 동계올림픽 이래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를 긍정 평가하고 우리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아세안 지역문제에도 한국측의 지속 관심을 요청하였다.

(『신남방정책 下의 한-베트남 협력 강화를 위한 「한-베트남 공공외교 대화」 개최 결과』, 2018.3.16)

(3ㄱ) **【북한】** (+의향)

우리 인민은 월남인민이 웬 푸 종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월남공산당의 령도밑에 월남공산당 제13차대회결정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국가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또다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있다.

(『조선월남친선협조관계발전의 력사적인 리정표』, 2022.3.1)

(3ㄴ) **【북한】** (+행복)

나는 우리 두 당사자의 협조관계가 특히 위원장동지의 2019년 3월 월남공식친선 방문이후 끊임없이 강화되고있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축전을 보내여왔다』, 2020.10.9)

예문(2ㄱ)과 같이 '+의향'에 있어서, 한국측은 '기대하다'라는 단어를 통해 베트남 신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지속 발전하기를 바란 의향을 표출한다. 이에 양국은 30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를 한 단계 격상할 기대를 나타낸다. (2ㄴ)과 같이 '+만족'에 있어서, 베트남측은 직접적인 표현으로 만족감을 표하지는 않았지만 '긍정 평가하다'와 '높이 평가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대한 인정과 만족을 나타낸다. (3ㄱ)은 북한에서 북한 인민이 베트남 인민들의 새로운 승리를 바란다라는 의향을 표출하는 예다. 이런 정서를 가진 평가 자원을 통해 북한측은 양국 인민간의 친선협조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희망을 표현

할 수 있다. (3ㄴ)은 베트남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가 북한 최고영도자 김정  
은에게 보낸 축전의 일부 원문이다. ‘기쁘게 생각하다’라는 표현을 통해 북-베  
두 당 사이의 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즐거움과 행복감을 나  
타낸다.

이상 한-베 관련 예문과 북-베 관련 예문을 볼 때 남북한은 평가 자원을 다  
르게 선택하고 사용하지만 모두 자기 나라와 베트남의 관계가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표현을 구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행위평가:**

(4ㄱ) **【한국】** (+충실성)

(전략)...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된 점을 감안하여 과학기술 및 정보  
통신기술분야 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나가자고 하였다.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공식오찬 결과』, 2022.2.10)

(4ㄴ) **【한국】** (+능력)

지난 2009년 한국과 아세안간 실질협력 증진을 위해 출범한 국제기구인 한-  
아세안센터는 ... (전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혁 前 주베트남대사 제4대 한-아세안센터 사무총장 취임』, 2018.4.16)

(5ㄱ) **【북한】** (+능력)

김일성주석동지와 김정일총비서동지 그리고 김정은총비서, 국무위원장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령도밑에 형제적조선인민은 지난 73년간 나라의 건설  
과 발전위업에서 많은 중요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월남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와 월남사회주의공화국  
주석이 축전을 보내어왔다』, 2021.9.9)

(5ㄴ) **【북한】** (+충실성)

우리는 앞으로도 특수한 동지적관계, 전략적관계로 승화·발전된 월남과의 친선  
협조관계를 언제나 귀중히 여기고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해나갈것이다.

(『조선월남친선협조관계발전의 역사적인 리정표』, 2022.3.1)

통계 결과에 따르면 ‘+충실성’을 표출할 수 있는 자원은 본 연구에서 ‘노력’,  
‘협력’, ‘강화’, ‘발전’, ‘모색’, ‘확대’ 등과 관련이 있다. 예문(4ㄱ)과 (5ㄴ)처럼, (4

ㄱ)의 경우, 한국측은 한-베 양국 협력의 미래 기반 조성을 위해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5ㄴ)의 경우, 북한측은 북-베 간의 친선협조 관계를 더욱 확대하고 발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지적한다. ‘+능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국가, 정부, 국민, 그리고 정당의 능력과 힘을 평가하고 있다. (4ㄴ)에서는 한-아세안이 교역, 투자, 관광,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는 능력을 평가한다. (5ㄱ)과 같이 베트남 주석이 북한 최고영도자에게 보낸 축전에서 북한은 나라의 건설과 발전을 위한 노동당의 적극적 행동에 대해 평가한다. ‘많은 중요한 성과들을 이룩하다’라는 표현은 지난 73년간 북한노동당의 나라 건설 능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이런 분석에 의하여 한국과 북한이 국가, 정부, 국민 그리고 정당의 행위를 평가할 때 모두 ‘+충실성’과 ‘+능력’ 자원을 선호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단, 한국의 경우 ‘+충실성’ 자원은 조금 높은 수준으로 더 많이 나타난 것에 비해 북한은 ‘+능력’ 자원을 더 많이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능력’은 국가나 정부, 또는 양국 간의 과거에 이룩한 성과와 사업을 평가한 경우가 많은 반면, ‘+충실성’은 양국이 앞으로 협력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을 평가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한국측은 한-베 간 장래의 발전을 더욱 중시하며 북한측은 북-베 간 이미 이룩한 외교적 결실을 더욱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 사물평가:

##### (6ㄱ) 【한국】 (+가치)

금번 한-베콩 외교장관회의는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9.9-12) △강 장관의 베트남 공식방문(9.17-18) △외교부 김 건 차관보의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방문(9.24-29) 등 코로나19라는 난관 속에서도 계속 이어져 온 신남방 외교의 연장선상이다.

(『제10차 한-베콩 외교장관회의 개최 결과』 2020.9.28)

##### (6ㄴ) 【한국】 (+반응) (+구성)

강 장관은 베트남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교통, 공공행정, 교육, 물관리, 보건 분야를 중심으로 베트남과의 개발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과학기술연구 및 분야별 고급인력 양성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마트시티 사업 등을 통해 베트남의 지역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한-베트남 외교장관회담 및 오찬 협의 결과』 2020.9.18)

(7ㄱ) **【북한】** (+가치)

참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웰남공식친선방문은 두 나라 선대수령들의 숭고한 심혼이 어리어있고 사회주의의기지를 높이 들고 공동의 목적과 리상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진 조선웰남친선협조관계를 특수한 동지적관계, 전략적관계로 승화·발전시킨 역사적인 이정표로 되었다.

(『조선웰남친선협조관계발전의 역사적인 이정표』 2022.3.1)

(7ㄴ) **【북한】** (+반응)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지난 세기 50년대 중엽 반동회의에서부터 하나의 독자적인 정치세력으로 국제정치무대에 등장한 발전도상나라들을 하나의 반제자주력량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벌리시였다.

(『발전도상나라들의 새 사회건설을 위하여』 2021.4.20)

예문(6ㄱ)과 같이 ‘+가치’에 있어서, ‘신남방 외교의 연장선상’이라는 표현으로 한-베트남 외교장관회의를 평가한다. 이런 가치 평가 자원을 통해 이번 회의의 중요성과 의의를 지적함으로써 신남방 외교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요지를 강조한다. 통계 결과를 보면 한국에 ‘+반응’과 ‘+구성’ 자원은 골고루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자원은(6ㄴ)에서 확인할 수 있다. (6ㄴ)에서는 ‘균형’과 ‘포용적’이라는 구성 자원을 통해 베트남의 지역 발전과 지역 성장을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적극’이라는 반응 자원을 통해 어떤 정도의 기여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한다. 통계 결과에 의하면 외교적 보도에서 ‘반응’ 자원과 관련이 있는 평가들은 대부분 ‘적극(적)’을 나타낸다. (7ㄴ)에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적극적’이라는 반응 자원을 이용하여 발전도상나라들이 열성적으로 대외활동을 벌인 것을 평가한다. (7ㄱ)에서는 ‘역사적인 이정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북한 최고영도자인 김정은의 베트남 공식친선방문을 평가한다. 이런 가치 평가 자원은 이번 방문이 북-베 친선 관계를 특수한 동지적 관계, 전략적 관계로 승화·발전 시킬 수 있는 역사적인 의미와 중요성을 가진 것임을 표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여 한국과 북한은 외교상의 회담, 방문, 회의를 비롯한 사건이나 사물을 평가할 때 일반적으로 가치 자원을 통해 외교 업무에 대한 가치와 의의를 긍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긍정적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외교 담화에서 양국 관계의 협력과 도약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마 이러한 긍정적 기능 때문인지 ‘태도’ 하위범주에서 ‘가치’는 남북한 외교 담화에서 모두 가장 많이 나타났다.

### 3) 논의

올해 한국은 한-베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추진 중인 중요한 한 시기에 들어섰다. 한국과 베트남이 1992년 수교 이래 눈부시게 발전해 온 양국 관계가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더욱 긴밀해졌다는 것, 양국 간 활발한 고위급 교류 및 효과적인 협력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과 특별함을 부각하는 것, 또한 앞으로의 양국 관계 발전과 도약을 기대하는 것들은 모두 긍정적 태도 자원에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외교적 의제 분석 결과, 한-베 교류는 한국과 베트남 양국 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한국과 메콩 5개국 및 아세안 관련 외교 업무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은 아세안 회원국으로서 신남방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한국과 아세안과의 협력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여러 가지 긍정적 태도자원을 통해 한-아세안 양자 협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신남방정책의 모멘텀 유지와 한-아세안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 방안 모색에 긍정적인 기대를 표출한다. 긍정적 태도자원을 사용하여 한국은 메콩 지역 내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고 한-메콩 협력을 강화하며 메콩 5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발전을 증진하는 데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코로나 대응 협력 관련 의제는 한국과 베트남, 메콩 5개국, 아세안 간에 많이 다루어졌다.

외교적 의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한국측은 주로 장관급 간 교류를 한 경우가 더욱 많은데 북한측은 베트남과의 교류에 있어 주로 국가정상들 간에 집중된 경우가 더욱 많다. 예를 들면, 북한 최고영도자가 베트남 주석에게 축전이나 답전

을 보냈다는 것과 북한 최고영도자 김정은동지가 베트남에 공식친선방문을 하였다는 것 등이 있다. 외교 담화에서의 긍정적 태도 자원을 통해 두 나라, 두 당 사이의 활발한 우호적 왕래와 경제, 과학기술, 국방, 체육문화예술, 출판보도 부문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와 교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런 긍정적 평가 맥락에서는 북한과 베트남, 북한 노동당과 베트남 공산당이 인민들의 공동의 노력으로 인민들의 이익에 맞게 협조와 발전을 위하여 계속 공고 발전할 적극적인 의향이 표현된다.

지난 5년간 발표된 외교적 뉴스 보도를 연구자료로 담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과 북한은 나라 이익의 출발점이 다르지만 모두 베트남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려고 하며 양자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다했다는 태도를 비슷하게 엿볼 수 있다.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표현된 태도는 모두 훨씬 많은 긍정적 자원을 나타냈는데 태도 자원의 분류와 분포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뉴스 보도에서 사람들은 텍스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 자원과 사물평가 자원을 더 흔히 사용하지만 본 연구의 통계 결과에 따르면 이런 뉴스와는 달리 외교적 뉴스 보도에서는 감정평가 자원이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 대상국의 지지와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 나라 관계 발전에 대한 기쁨, 지속적인 협력에 대한 기대감 등을 비롯한 정서나 느낌을 표현할 때 이런 감정평가 자원을 사용하는 것은 양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나라 정상과 외교 장관들은 자주 긍정적 태도를 표하는 것을 통해 자국의 선의를 보여 준다. 한국과 북한의 외교담화에서는 모두 기대감과 희망 등 의향을 표출하는 정서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한국에서 만족감을 의향 다음으로 자주 사용했고 행복감을 가장 적게 사용한 반면에 북한에서는 행복감이 의향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만족감이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한국은 한-베 관계에 있어 만족과 사의를 표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북한은 북-베 관계에 있어 기쁨과 희열을 표하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한 자원은 외교적 가치, 반응, 구성과 함께 표현된 사물평가 자원이다. 남북한은 베트남과의 외교업무에서 가치를 긍정 하는 자원을 많이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어떤 회의, 방문, 회담, 조약, 문서 등

의 중요한 의미를 강조할 때 가치 자원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치 자원이 조화로운 대화 분위기에서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태도 자원에서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행위평가 자원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한-베 간의 협력과 노력을 더 중시하는 충실성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 것에 비해 북한은 북-베 간 성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능력 자원을 가장 많이 사용한다. 노력은 미래를 지향하고 성과는 과거에 이룬 것을 뜻한다. 그 뜻에서 보면 한국은 한-베 간 장래의 발전을 더욱 중시하고 북한은 북-베 간 이미 이룩한 외교적 결실을 더욱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남북한은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다른 의제도 다르고 평가 자원의 사용에도 차이를 보이지만 양국은 모두 긍정적 자원을 사용해 각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베트남과의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에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부터 한국측은 국익에 맞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중점적으로 외교 다변화를 추진해 왔다. 한국은 한·미 동맹을 외교 근간으로 한국 주변 4국(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과의 역내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어 나가는 동시에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한·아세안, 한·메콩, 한·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 수준을 고도화하게 된다. 분석 결과에 의해 한국은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결집하는 선도적 다자 외교와 외교 다변화를 달성하고자 계속 노력하는 외교적 모습을 엿볼 수 있다. 한국측의 다자 외교 정책과 달리 북한측은 국익에 맞게 주로 북한과 베트남 양자 간의 협력을 집중한다. 두 나라 사회주의 위업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중심으로 친선협조 관계를 변함없이 발전시킨다.

## 5. 결론

본 연구는 한국과 북한이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보이는 태도 자원을 대조함으로써 긍정적 담화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평가어 체계 분석틀을 활용하여 UAM Corpus Tool과 AntConc 코퍼스 분석 수단으로 2017년~2022년에 발



표된 한국과 북한의 베트남 관련 외교적 보도를 연구대상 자료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남북한 평가 주체의 의제 분석, 태도 자원의 활용 빈도, 그리고 외교상 태도나 입장의 차이가 태도 자원을 통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AntConc의 Word List 도구를 이용하여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의 의제 분석에 있어서, 생성한 어휘목록에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상위 15개 실재적 의미를 가진 명사를 통계하여 외교적 의제를 분석하였다. 어휘목록을 의하여 한국은 대 베트남 외교에서 ‘한-베’, ‘한-메콩’, ‘한-아세안’ 등 관계에 관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등 각 분야 의제를 많이 다룬 것에 비해 북한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베트남 공산당과 두 나라 두 당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 등 의제에 관심을 더 기울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측에서는 코로나와 관련 있는 코로나 대응 협력, 코로나 백신 관련 협력, 코로나 위기극복과 경제 회복 및 평화 증진 등 의제를 많이 다루었다.

코퍼스 도구 UAM Corpus Tool을 이용하여 태도 자원을 분석하는 데에 있어서, 남북한 대 베트남 외교 담화의 태도 자원의 분포는 감정평가>사물평가>행위평가의 경향을 보여주었다. 단, 통계 결과인 카이제곱의 값에 따른 유의확률을 보면 태도 자원은 각 하위분류에서 분포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통계 결과에 따르면 부정적 자원(남: 2.00%; 북: 1.49%)을 아주 적게 나타냈고 긍정적 자원(남: 98.00%; 북: 98.51%)은 압도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부정적 자원을 보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평가어를 사용하였지만 모두 긍정적인 지향을 가지고 있었다. 긍정적 자원을 보면 감정평가에 있어서, 한국과 북한은 긍정적 자원을 선택하는 데 ‘+의향’ 자원을 선호한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에서 ‘+만족’을 ‘+의향’ 다음으로 자주 사용했고 ‘+행복’을 가장 적게 사용한 반면에 북한에서는 ‘+행복’이 ‘+의향’ 다음으로 많이 사용되었고 ‘+만족’이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행위평가의 경우 한국은 ‘+충실성’ 자원이 가장 많이 나타난 반면에 북한은 ‘+능력’ 자원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사물평가의 경우 ‘+가치’ 자원을 많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한국과 북한은 비슷한 선택 양상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국에서 ‘+반응’과 ‘+구성’ 자원이 비슷한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북한에서는 ‘+반응’자원이 적게 나타났으며 ‘+구성’ 자원은 나타난 적이 없었다.

통계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면, 남북한은 대 베트남 외교 담화에서 다른 의제도 다르고 평가 자원의 사용에도 차이를 보이지만 양국은 모두 긍정적 자원을 사용해 각국의 이익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베트남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는 데에 적극적인 추진 역할을 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정치, 외교와 언론에 관련된 담화분석은 주로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데에 초점을 두어 담화를 통해 재현되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를 드러내어 보인 목적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며 언어적으로 구현되는 긍정적 요소를 간과하였다. 긍정적 담화분석 접근법은 담화에서의 조화로운 요소와 평화로운 요소에 주목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 접근법을 이용하여 남북한 대 베트남 간의 활발한 교류 현황을 탐구하고자 하는 데에 유익한 시도라고 할 수 있다.

## ◆ 참고문헌

### 1. 단행본

- Fairclough, N., *Language and power*, London: Longman, 1989.  
 Martin, J. R. & Rose, D., *Working with discourse: Meaning beyond the clause*, London & New York: Continuum, 2003.  
 Martin, J. R & White, P. R. R., *The Language of Evaluation: Appraisal in English*,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5.

### 2. 논문

- 김병건, 「신문의 사설·칼럼에 나타난 ‘진보’에 대한 비판적 담화 분석」, 『사회언어학』 제24-1집, 한국사회언어학회, 2016, pp.65-90.  
 김정환·연수정·김성철,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뉴스보도 비교 분석: 언론사의 정치성향과 유형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정보사회와 미디어』 제24집, 한국정보사회학회, 2012, pp.1-30.  
 맹강, 「한국어 논증적 글쓰기 교육을 위한 한·중 신문 사설 개입 대조 연구」, 『이중언어학』 제69집, 이중언어학회, 2017, pp.81-111.  
 \_\_\_\_\_, 「한·중 신문 사설의 개입 대조 연구」, 『국어교육연구』 제40집, 국어교육연구소, 2017, pp.119-151.

- \_\_\_\_\_, 「한·중 정치류 신문 사설의 ‘개입’ 대조 연구」,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제59집, 언어연구교육원 한국어학당, 2020, pp.111-143.
- 이경림·강대중·정계영, 「‘조국 사태’ 이후 문재인 정부 대입제도 개편 과정을 다룬 신문 사설의 프레임 분석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제30-2집, 한국교육사회학회, 2020, pp.75-103.
- 왕림·신문적·김진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신문 사설의 ‘태도’ 평가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제62집, 한말연구학회, 2021, pp.125-153.
- 신문적·왕림·김진해, 「코로나19 백신 관련 신문 사설의 ‘개입’ 표현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중심으로-」, 『인문학연구』 제50집, 인문학연구원, 2022, pp.67-95.
- 심영숙, 「영어교육 정책을 다룬 신문 사설 텍스트 분석: 평가어 체계를 기반으로」, 『중등 영어교육』 제13-4집, 한국중등영어교육학회, 2020, pp.21-46.
- 신진원, 「세월호 사고’에 관한 한·미 신문 사설 비교 연구:평가어 체계를 기반으로」, 『담화와 인지』 제21-3집, 2014, pp.123-143.
- 진염평·진연, 「태도평가 관점에서 본 남북한 정치 사설 텍스트의 대인적 기능」, 『한국어 문교육』 제31집, 담화·인지언어학회, 2020, pp.143-177.
- van Dijk, T. A., "Principles of critical discourse analysis", *Discourse and Society* 4(2), 1993, pp.249-283.
- Van Dijk, T. A., "Critical discourse analysis", In D. Schiffrin, D. Tannen, and H. E. Hamilton (eds.), *The Handbook of Discourse Analysis*, 2001, pp.352-371.

논문 접수 일	2022년 08월 03일
심사 완료 일	2022년 08월 26일
게재 확정 일	2022년 08월 29일

*Abstract*

---

## A Positive Discourse Analysis of Attitude Resources in North and South Korea towards Vietnam's Diplomatic Discourse

Chen, Yanping · Chen, Juan

This article aims to make a positive discourse analysis of the Diplomatic Discours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owards Vietnam through the comparison of attitude resources. This article based on the analytical framework of appraisal theory, employs diplomatic reports related to Vietnam published by North and South Korea from 2017 to 2022 as corpus, by means of UAM Corpus Tool and AntConc, to analyse the topic setting of evaluation subjects in North and South Korea,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attitude resources and the differences of diplomatic positions and attitudes revealed by their resources. The results show that on the topic setting, South Korea often focus on political diplomacy, economic cooperation, social culture, health and medical care between “Korea–Vietnam”, “Korea–Mekong” and “Korea–ASEAN”, while North Korea pays more attention to the friendly and cooperative relations with the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and the Communist Party of Vietnam. In the use of attitude resources,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display the convergence characteristics, namely affect resources > appreciation resources > judgment resources.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specific subordinate classification resources. In Diplomatic Discourse, both North and South Korea tend to adopt positive attitude resources to maintain and develop friendly relations with Vietnam from the standpoint of each country.

**Keyword** North Korea and South Korea towards Vietnam, attitude resources, positive discourse analysis, Diplomatic Discourse, appraisal theory

## 여성역사소설과 장르믹스물의 기원\*

- 장덕조의 『벽오동 심은 뜻은』을 중심으로 -

진선영\*\*

### 국문요약

본고는 장덕조 작품세계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도정으로,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의 작가적 위치를 확립하고 여성적 역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가능케 한 『벽오동 심은 뜻은』의 분석을 통해 장덕조 여성역사소설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작가의 역사관, 국가관, 여성관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장덕조는 역사에서 취재거리를 찾아 여성의 역사를 사랑을 통해 풀어냄으로써, 부차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의 삶이 아닌 더 큰 사랑을 위해 존재를 기투한 여성인물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장덕조의 여성역사소설은 멜로풍 역사소설의 장르성을 가지면서도 사랑의 완성과 희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랑을 지키고 이루어나가는 여성인물의 속성(지모(智謀), 부덕(婦德), 색향(色香))에 방점을 찍는다. 감수와 인고의 자세로서 개체의 존재 가치와 역사적 귀속(논리와 정도)을 찾아내어 그것을 문화적인 심미영역에까지 승화시켰다.

작가가 계속해서 잘 읽히는 역사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구성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특별한 역사에 기대지 않고 전체가 완곡하게 흘러가는 서사가 대중소설의 하위 장르(역사물, 로맨스물, 무협물)로 부분적 혹은 집중적으로 믹스될 때 독자들의 다양한 욕구를 수용할 수 있었으며 당시의 대중들에게 큰 부담감 없이 재미있게 읽힐 수 있었다.

**주제어** 장덕조, 벽오동 심은 뜻은, 여성역사소설, 장르믹스, 지모, 부덕, 색향

\* 본 논문은 제 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주제 : 연변조선족 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2022.07.02.)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 〈목차〉

1. 서론
2. 장덕조 장편 역사소설의 양상과 여성역사소설
3. 남성의 역사, 여성의 유랑사
4. 봉황을 기다리는 벽오동의 상징성
5. 무협물의 심미화와 ‘협(俠)’으로서 인간의 순리
6. 결론

## 1. 서론

장덕조는 한국문학사에서 광복을 가진 여성작가로 손꼽힐 만하다. 이때의 광복은 다중, 다양, 다작을 뜻한다. 하지만 작가의 활동 폭에 비해 비평적 성과는 불비한 면이 있었는데, 최근 작가적 명성이 확립된 1950년대 이후 작품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장덕조의 작품 세계를 통시적으로 고찰한 선행 연구에 따르면 작가의 소설은 한국전쟁을 기점으로 변화되었다고 한다.<sup>1)</sup> 소설의 배경은 현저히 도시 쪽으로 기울어졌고 1950년대 새로운 군상으로 부상한 전쟁미망인, 여대생 등의 자극적이고 상업적인 연애담이 부각되었다는 것이다.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 소설의 한 축을 담당한 신문연재 대중연애소설은 앞선 경향을 대변하는데, 최근 이루어진 장덕조 소설의 비평적 성과는 미발굴 작품에 대한 관심<sup>2)</sup>과 함께 이 시기 로맨스물에 집중되어 있다.<sup>3)</sup>

1) 김윤서, 「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1950년대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조리, 「장덕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7.

2) 김윤서, 「해방공간, 장덕조 소설의 젠더화된 인식 고찰 -장편소설 『十字路』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1, 우리말글학회, 2021, pp.507-534; 임경순, 「장덕조 장편소설 『십자로(十字路)』 연구」, 『우리말글』 83, 우리말글학회, 2019, pp.355-378.

3) 김연숙, 「전쟁 경험과 피난사회의 가정 -장덕조의 『여인애가』(1953)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pp.223-250; 김윤서, 「장덕조 소설에 내재한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고찰 - 『地下女子大學』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81, 우리말글학회, 2018, pp.273-299; 진선영, 「1950년대 이후 장덕조 대중연애소설의 변화와 관습 - 『격』

하지만 장덕조의 작품 세계를 오롯이 이해하기 위해서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 있다. 1950년대 이후 장덕조 소설의 인기를 담당하는 다른 한 축, 오늘날 대중들에게 장덕조의 이름을 각인시킨 신문연재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서울의 유력 일간지나 각 지방신문의 연재소설을 석권하면서 스케일이 크고 문장이 유려한 그의 역사소설은 독자들에게 신문을 기다리는 재미를 안겨주었다”<sup>4)</sup>는 평가나 문단의 반세기 여성문인들의 소설 세계를 총망라하는 기사에서 장덕조를 “역사소설로 일가를 이루었다”고 평한<sup>5)</sup> 것을 바탕으로 한다면, 장덕조 작품 세계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펼쳐지는, 작가의 노년기를 지배하는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은 장덕조의 작품 세계를 온전히 평가하기 위한 새로운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김병익의 글을 참조할 때 작가의 역사소설 집필은 1950년대 후반 글쓰기 소재의 고갈로 인한 임시방편적 선택은 아니다. 장덕조는 이화전문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2세대 신여성 작가였지만 당시 야담 집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독특한 인물이었다. 식민지 시대 대중적이고 오락적인 야담의 부흥을 이끌었던 『월간 야담』의 대표적 필진이었으며 서너 개의 필명을 바꾸어가며 가장 많은 야담을 연재한 작가이기도 하다. 장덕조는 야담을 통해 한문세대의 습속을 유지하는 한편 가족과 애정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가치관을 옹호하는 문학적 색채를 드러내었다.<sup>6)</sup>

특히 이 잡지에 실린 역사소설 <정청궁 한야월>은 연산군 왕비 신 씨의 여성으로서의 심경을 그린 역사소설로 후에 『조선일보』에 ‘여성단편’으로 총 15회에

량』(1957)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7, 한국여성문학회, 2019, pp.215-341.

4) 이세기, 『예술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 푸른사상, 2004, p.350.

5) “장덕조는 「개벽」 사에 근무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 「매일신보」에 장편 「은하수」를 발표하고 「야담」지 등에 「근친전후」, 「정연기」 등으로 동인과 함께 역사담과 역사소설을 개척한다.” 김병익, 「문단 반세기, 제2기 여류문인들」, 『동아일보』, 1973.6.19.

6) 권기성, 「근대 야담 작가 연구의 외연 확장 and 시선의 전환—『월간야담』의 작가군과 ‘장덕조」, 『동방한문학』 80, 동방한문학회, 2019, pp.241-275; 진선영, 「『월간야담』의 여류야담가의 정체와 전통적 글쓰기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7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pp.245-272.

연재되기도 하였다.<sup>7)</sup> 한자어의 언어학적 친연성과 전통적 세계관을 바탕으로한 야담과 역사소설의 문학적 밀접성을 고려해 볼 때 한국전쟁기 이후 역사소설의 집필은 자연스러운 서사적 도정으로 보인다.

장덕조는 역사소설 작가로서 완숙경에 도달하고 있다는 찬탄을 받았으며 여성작가로 역사소설의 1인자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현재 장덕조의 신문연재소설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거의가 대중연애소설에 집중되어 있다. 최근 장덕조의 야담 창작과 관련한 논문이 산출된 만큼 이제 장덕조 역사소설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가장 앞서 장덕조 역사소설에 관심을 둔 조리는 장덕조가 전 생애를 걸쳐 다종다양한 작품을 썼지만 그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것이 역사소설이라고 평가하면서 여성적 역사소설이라는 측면에서 분석의 가치가 높다고 강조하였다.<sup>8)</sup> 이에 본고에서는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의 작가적 위치를 확립하고, 여성적 역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가능케 한 『벽오동 심은 뜻은』<sup>9)</sup>의 분석을 통해 장덕조 역사소설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 2. 장덕조 장편 역사소설의 양상과 여성역사소설

장덕조는 소설 창작을 시작한 이래 많은 야담, 역사소설을 집필하였는데 이러한 연속성은 한국전쟁 이후에도 지속된다. 장덕조의 야담 쓰기는 식민지 시기에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도발적인 신문연재 대중소설을 집필하여 큰 인기를 얻었던 1950년대에도 잡지 『아리랑』, 『야담』 등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졌고<sup>10)</sup>

7) 장덕조, <한야월>, 『조선일보』, 1938.8.12. -8.31.

8) 조리, 앞의 논문, p.114.

9) 『벽오동 심은 뜻은』은 『한국일보』에 1963년 8월 20일부터 1964년 9월 10일까지 총 310회 연재되었다. 본고는 한국문학전집으로 1973년 선인문화사에서 출간된 작품을 저본으로 삼는다.

10) 장덕조가 잡지 『아리랑』과 『야담』에 연재한 야담의 목록만 보면 다음과 같다. 여타의 잡지나 야담의 표지를 달지 않은 단편소설까지 확인해 본다면 목록은 훨씬 늘어날 것이다. <어옹(漁翁)과 간녀(奸女)>, 『아리랑』 1권 4호, 1955.6; <왕자의 사랑>, 『청사(靑史)』 1호, 1955.6; <은원>, 『야담』 1권 1호, 1955.7; <비상(砒霜) 주머니>, 『야담』 1권 2호,



전업 작가로 생활한 이후에는 장편역사소설에 집중한 것으로 보인다.<sup>11)</sup> 아래의 표는 한국전쟁기 이후 발표된 장덕조의 역사소설 목록을 정리한 것으로 방대하고 지속적인 장덕조 역사소설의 전모를 확인할 수 있다.

〈표1〉 장덕조 역사소설 현황

작품명	연재지면	연재일자	단행본	출간일
광풍	동아일보	1953.8.20. -1954.3.9. (200회)	인화출판사	1954
낙화암	동아일보	1956.7.1. -1957.3.19. (258회)	신태양 출판사	1959
대신라기	연합신문- 서울일일신문	1959.7.1. -1961.12.31. (735회)	을유문화사 (전8권)	1975
여화 (麗花)	대한일보	1961.6.21-1962.7.30.		
벽오동 심은 뜻은	한국일보	1963.8.20. -1964.9.10. (310회)	삼성출판사	1964
요승 신문	농원	1964.1-1965.10. (18회)	삼중당	1967
춘풍추우	매일신문	1964.1.10. -12.30. (300회)		

1955.8; 〈과거여담〉, 『아리랑』 1권 8호, 1955.9; 〈충신의 후손〉, 『야담』 1권 3호, 1955.9; 〈현처〉, 『야담』 1권 5호, 1955.11; 〈기지(機智)〉, 『신태양』 5권 1호, 1956.1; 〈충신의 피〉, 『소년소녀만세』, 1956.1; 〈대인의 흥도〉, 『아리랑』 2권 2호, 1956.2; 〈붕우유신〉, 『야담』 2권 2호, 1956.2; 〈폭군의 최후〉, 『야담』 2권 3호, 1956.3; 〈명장의 죽음〉, 『야담』 2권 4호, 1956.4; 〈왕가의 후예〉, 『야담』 2권 5호, 1956.5; 〈대상의 일면〉, 『야담』 2권 6호, 1956.6; 〈남자의 마음〉, 『아리랑』 2권 7호, 1956.7; 〈요녀(妖女)의 말로〉, 『야담』 2권 7호, 1956.7; 〈인과 보복〉, 『야담』 2권 8호, 1956.8; 〈문장 수난기〉, 『야담』 2권 9호, 1956.9; 〈탐욕무한〉, 『아리랑』 2권 9-10호, 1956.9-10; 〈의인 유종호〉, 『야담』 2권 10호, 1956.10; 〈귀신과 친한 재상〉, 『야담』 2권 12호, 1956.12; 〈낙운궁비사〉, 『야담』 3권 1호, 1957.1; 〈구국이담〉, 『야담』 3권 3호, 1957.3; 〈방랑하는 도승(사제정화)〉, 『학원』 6권 8호, 1957.8; 〈애증의 성화〉, 『야담』 3권 8호, 1957.8; 〈은의무한(恩義無限)〉, 『야담』 3권 11호, 1957.11; 〈만가(輓歌)〉, 『야담』 3권 12호, 1957.12; 〈추우(秋雨)〉, 『야담』 4권 1호, 1958.1; 〈탕자〉, 『야담』 4권 4호, 1958.4; 〈추물〉, 『야담』 4권 5호, 1958.5; 〈선견지명〉, 『야담』 6권 1호, 1960.2.

- 11) “장덕조는 대구 피난 시절 여성작가로 유일하게 육군 중군작가로 활약하였고 〈영남일보〉 문화부장직을 수행하였다. 직업생활과 가정생활의 이중고를 겪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소설만을 쓰게 된 것은 『벽오동 심은 뜻은』을 연재하면서부터다.” 이세기, 앞의 책, p.359.

한양성의 달	국제신문	1964.5.1.-1965.6.30. (365회)		
민비	경향신문	1965.6.1.-1966.8.22. (369회)		
대원군	TBC 드라마 소설	1966.10. 매주 수요일 9:30-10시 방송	삼중당 (전4권)	1967
이조의 여인들 <sup>12)</sup>	한국일보	1968.5.8.-1972.1.30. (513회)	삼성출판사 (전8권)	1972
천추궁 깊은 밤에	서울신문	1974.1.1-1979.5.31.		
여인의 궁전	전남매일	1976.1.6.-1977.7.17.		
이조 여인열전			고려서관 (전10권)	1982
오백년 조선왕조			고려서관 (전11권)	1983
여인잔혹사			동양문고 (전10권)	1985
고려왕조 오백년			고려서적 (전14권)	1989

위 표에 정리한 작품을 주제별로 대별해 보면, 실제의 역사적 사실에 기대어 특정 실존 인물이나 역사적 사건을 재구성하는 소설로 『광풍』(김시습), 『대신라기』(김유신), 『요승 신돈』(신돈), 『한양성의 달』(이방원), 『민비』(민비), 『대원군』(대원군) 등이 있다. 또한 김윤서의 분류에 따르면 『낙화암』, 『천추궁 깊은 밤에』, 『이조의 여인들』, 『춘풍추우』는 ‘풍운’을 다룬 작품이다.<sup>13)</sup>

장덕초 역사소설의 면면을 살펴다 보면 작품의 제목에 여성 혹은 여성 상징물이 많이 명명되고 작품의 내용 또한 여성 중심 서사임을 알 수 있다. 작가의 첫 단편 역사소설인 <정청군 한야월>은 폭군 연산의 비참한 말로를 연산의 입이 아닌 연산비 신 씨의 쓸쓸하고 소외된 심경으로 그리고 있다. 한국전쟁 이후 쓰인 첫 역사소설 『광풍』은 세종 별세 후 혼탁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오직 대의를 위하여 천하를 방랑하는 김시습의 대인다운 풍모를 그리고 있지만 이와 함께 운명

12) 『이조의 여인들』, 『이조 여인열전』, 『오백년 조선왕조』는 동일한 작품이다.

13) 김윤서는 박사논문에서 1950년대 현대 소재의 작품 분석에 주안점을 두며 역사소설에 대한 분석을 차후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김윤서, 앞의 논문, pp.21-24.

같은 사랑으로 오직 김시습만을 기다린 소옥의 사랑으로 본다면 새롭게 읽힐 여지가 있다. 『대신라기』 또한 김유신과 가야 소녀 아로의 사랑 이야기로서 로맨스담이 중심에 놓인다.

제왕의 통치에 의한 왕조사가 주요 플롯인 『낙화암』은 백제의 망국사를 배경으로 버들아기와 상현의 이루지 못한 사랑을 그린다. “20대 여성의 지모로 역사의 한 쪽을 주름잡았던, 이상한 여자의 소설 같은 생애”<sup>14)</sup>를 담은 『민비』, “이씨 조선 창건부터 엄비 승하에 이르기까지 519년간에 걸친 궁중을 중심으로 한 여인들의 이야기”<sup>15)</sup>인 『이조의 여인들』, 개성 있게 살다간 역사상의 여인들을 소재로 한 『여인잔혹사』<sup>16)</sup>, 왕조사를 여인들의 삶과 사랑, 죽음으로 풀어낸 『오백년 조선왕조』, 『고려왕조 오백년』 등 대부분의 서사가 여성을 중심으로 한 가족사, 풍속사, 사랑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페미니즘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여성역사소설에 적용하여 시학과 내적 형식의 원리를 규명한 김복순의 논의에 따르면 여성역사소설은 운명 공동체로서의 타자성의 발생 및 성찰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다고 한다. 여성역사소설은 가족을 매개로 역사를 서사화하며 여성적 경험과 고유의 삶에 입각하여 역사를 인식하기에 남성 중심적 역사 해석을 다시 쓰게 한다. 가족사, 풍속사, 일상사 중심의 비영웅주의적 역사관을 통해 여성의 위치성을 인식 재정립하므로 여성적 경험과 진리를 표현하는 하나의 대안을 제시해 준다고 하였다.<sup>17)</sup>

역사 속 실존 인물(특히 남성 영웅형 인물)을 소설 형식으로 재해석하는 역사소설은 흔히 권력적이고 거시적인 것을 선호하는 남성작가의 영역이었다. 하지만 장덕조의 여성역사소설은 역사에서 취재거리를 찾아 여성의 역사를 사랑을 통해 풀어내었다. 이때의 사랑은 수동적이지 않으며, 부차적이고 의존적인 여성의 삶이 아닌 더 큰 사랑을 위해 존재를 기투한 여성인물을 창조하고자 하였다.

14) 「민비의 생애를 소설화」, 『경향신문』, 1965.5.24.

15) 장덕조, 『이조의 여인들』, 삼성출판사, 1972, pp.8-9.

16) 「작가 장덕조 씨 『여인잔혹사』 첫권 발간」, 『동아일보』, 1985.7.12.

17) 김복순,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여성역사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pp.243-282.

그리고 이것을 스스로 짊어진 여성작가의 의무라고 다짐하였다.

장덕조의 경우 여성 상황의 보편성을 인식하고 역사적 담론과 여성적 담론을 동시에 구비함으로써 자신만의 여성역사소설 세계를 구축하였다. 신문연재 역사소설 집필 전 연재예고나 집필 후 연재소감에서 역사 속 여성인물들을 소환하여 한국 여인들의 면목이나 철학을 부각시켜 보려는 오랜 의욕을 갖고 있었음을 피력한 것을 통해서 이를 알 수 있다.

대체로 이 소설에서는 여성의 힘이 크다는 점이 강조되어 있는데 그것은 필자가 여성작가이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버들아기, 월명부인, 달이(월녀), 모두 사모하는 남자의 앞에서는 언제나 연약하고 온순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폭포와 같이 우렁찬 힘의 근원이 되는 여인들이다. 그들의 정숙함과 고결함과 정당함과 선량함은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더라도 이 땅 여성들의 동경과 향수를 모을 줄 믿는다.<sup>18)</sup>

장덕조는 식민지 시기부터 다채로운 활동으로 창작의 영역을 확장시켰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전쟁 이후의 사회 현실에서 대중소설의 하위 장르를 연접시킴으로써 대중독자들의 다양한 호기심을 충족시켰다. 한국전쟁기 이후 신문연재 대중연애소설과 역사소설은 현대물과 과거물이라는 점에서 대척점에 있는 듯 보이지만 로맨스가 갖는 광의성은 언제나 역사소설의 영웅들의 삶과 맞닿아 있다. 더불어 “하이틴들의 생활과 심리를 탐구하여 그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기괴한 이 시대의 조류 위에 부각”<sup>19)</sup>시켜 모럴과 보수의 승리로 선회하는 주제의식이 대중연애소설을 쓰는 작가의 자세였다면, “전란 후, 이 비극의 토양 위에 한 떨기 전통의 시정을 소생”<sup>20)</sup>시켜 “인생의 불면하는 한 개 진리를 탐구해 볼 의욕”<sup>21)</sup>에 가득 찬 역사소설 작가로서의 의지는 작가의 세계관이 일맥상통하고 있음을 반증케 한다.

『벽오동 심은 뜻은』은 연애물이 갖는 감각적 호기심과 사랑의 숭고함, 역사

18) 「낙화암 후기」, 『동아일보』, 1957.3.20.

19) 장덕조, 「『원색시대』 연재 예고」, 『서울신문』, 1958.10.29.

20) 「다음의 연재소설 『광풍』」, 『동아일보』, 1953.8.3.

21) 「다음의 장편소설 『낙화암』」, 『동아일보』, 1956.6.17.

물이 갖는 현실을 비유하거나 풍자하는 측면과 함께 1960년대를 대표하는 대중 문학의 하위 장르로서 무협물을 수용하여 장르믹스(genre mix)적 성격을 갖는다. 장르적 속성 안에 다른 장르적 특색을 산발적으로 혹은 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장르믹스는 소설이 내장하고 있는 다양함과 끊이지 않은 영역 확장에 대한 실험 정신의 소산이다.<sup>22)</sup>

대중소설이 갖는 도식성과 잡식성을 다양한 장르믹스를 통해 보여준 장덕조의 작품은 소설 읽기의 재미와 함께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구축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장덕조는 역사소설을 민족지의 서사물로 인식하고 문학적인 언어로써 민족문화의 이야기를 강술하였고, 독자들로 하여금 민족정신에 접근하고, 다시 역사문화 속에서 개인 생명의 의미와 현실에 대응하는 능력을 찾도록 하였다.

### 3. 남성의 역사, 여성의 유랑사

이 소설은 역사적으로 정조 대, 경상도 인동현의 용성마을을 배경으로, 지주 유풍헌의 손자 유언서와 소작농 두원이 영감의 딸 옥이의 사랑과 봉별(逢別)을 그리고 있다. 경상도의 대지주이자 마을에서 토반을 형성해온 가문의 손자 유언서는 전도가 트인 득세의 길에 오를 인물이지만, 귀어짜면 짚수록 기름이 나온다는 꺾묵에 비유되는 소작농의 딸 옥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같이 먼 사람으로, 이들의 사랑은 들뜨고 설레야 할 시작부터 계층적 굴레를 전제하기에 애달픈 비감의 정조로 가득하다.

일찍이 아버지가 죽고 어머니와 떨어져 할아버지 유풍헌의 손에서 자란 유언서는 잔인하고 지독한 조부와 달리 가난한 백성들을 보며 혼자 부귀를 누리려는 것은 차마 못할 일이라고 생각하는 착한 심성을 가진 인물이다. 마음이 울적할 때마다 산에 오르던 유언서는 건대산에서 조상 제사를 주관하는 열댓 살의 옥이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그러나 “양반의 추잡한 손톱에 희생이 된 무력한 농군

22) 오혜진, 『대중, 비속한 취미 ‘추리’에 빠지다』, 소명출판, 2013, pp.43-68.

딸들의 이야기를 귀가 아프게 듣고” 자란 옥이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착하고 선한 유언서의 행동에 서서히 마음을 열어 가던 옥이에게 또 다른 시련이 겹쳐진다. 언서의 조부에게 옥이가 겁탈 당할 만한 일이나 두원이 영감이 이를 알고 스스로 자결하는 사건 등은 계층적 속박과 함께 원수의 집안이라는 한 층 높은 불가능성의 벽을 쌓아 올린다. 결국 이들은 몰래 첫날밤을 치르지만 옥이는 자취를 감추고 언서는 옥이를 그리다 한양으로 떠나게 되는 이야기가 소설의 초반부를 형성한다.

소설의 초반부는 사농공상의 계급적 폐해를 다룬 역사적 배경과 계층적 차이와 원수의 집안 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룬 짧지만 강렬한 감상적 멜로 풍으로 그려졌다면, 이후의 내용은 서로를 여전히 그리워하지만 어긋나는 생을 다룬다. 한양에 온 언서는 외숙모의 꾀에 빠져 어쩔 수 없이 흥 판서의 딸인 금아와 결혼하게 된다. 옥이는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아버지에게 받기 위해 서울로 길을 나선다. 언서는 데릴사위 같은 자신의 처지와 옥이에 대한 그리움으로 고향으로 향한다. 옥이는 서울에 와 소춘풍의 일을 돌보아 주다가 언서가 낙향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시 고향으로 발걸음을 돌린다. 언서는 옥이를 찾아 다니다 결국 만나지 못하고 서울의 처가댁으로 돌아간다. 옥이는 고향에 와서 언서가 다시 서울로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자신을 도와준 기절을 따라 나선다.

언서와 옥이의 상경과 낙향은 병렬된다. 서로 나란히 올라가고 내려가는 동선은 다시 역전의 구조를 가지면서 교차되지 않는다. 이들의 어긋남은 정작 당사자 간의 엇갈림이 약간의 시차를 두고 주변인물을 통해 고백됨으로써 극절은 강화되고 애달픔은 배가된다.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이를 만나기 위한 이동의 모티프는 동일한 목적을 갖는다 해도 서로 다른 도달점에 이르게 된다. 권문세가인 처갓집이 “백성들의 기름, 피를 굶어가는 도둑놈의 집”이라고 불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언서는 몹시도 부끄러움을 느낀다. 홀로 낙향하여 옥이의 소식을 듣게 된 언서는 육, 칠 개월 전국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병도 앓고 주리기도 하면서 세상에 눈뜨게 된다. 언서는 상경과 낙향의 공간 이동을 통해 그간의 유아적이고 의존적인 생활에서 벗어나 주변을 둘러보고 현실을 발견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입신양명하기로 결심한

다.

이 소설에서 사실로서의 역사가 개입하는 순간은 유언서가 벼슬길에 오른 이후 전면화된다. 영조의 계비 정순왕후가 정조 사후 수렴청정을 하면서 사도세자에게 동정적이었던 시파인물을 숙청하였고 이들을 내몰기 위해 천주교를 탄압한 신유사옥을 주도한 일문이 홍명수, 즉 유언서의 처갓집이다. 홍 판서 일문이 세도를 유지하기 위한 당파 싸움과 관리들의 부패상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이와 잇대어 도탄에 빠진 백성들의 탄식이 뒤따른다.<sup>23)</sup>

유언서는 모든 부당한 것을 타파하기 위해 벼슬길에 올랐지만 호조참의까지 오른 자신의 승승장구가 세도가의 그늘에서, 자신 또한 처갓집의 사리사욕을 채워주는 부역자임을 깨닫게 된다. 이에 언서는 자신의 고향인 인동현의 도적떼를 소탕<sup>24)</sup>하러 순무사로 출정함으로써 의를 실천하고자 한다. 그리고 관군과 화적이 만난 마지막 대규모 전투에서 은장도를 걸고 출전한 아들 무쇠를 알아보고 생포하지만 기결이 던진 칼을 맞아 사망한다. 유언서는 어질고 부드러운 양반의 후예로 백성을 사랑하고 폐단을 개혁하려 하였으나 스스로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아이러니에 빠졌다. 진정으로 사랑했던 연인과 아들 찾기를 뒤로 하고 선택한 역사와 정치는 오히려 그들과 적으로 조우하는 운명을 조직함으로써 비애를 고조시킨다.

유언서는 일반적인 역사소설의 영웅형 남성 주인공은 아니다. 착한 심성과 너그러운 성품을 지녔지만 빠 속 깊은 양반 가문의 허위의식을 떨치지 못하였고

23) “같은 동네서도 홍 판서네 집은 저렇듯 곡간마다 양곡이 썩어나고 이 근처 백성들은 술 찌개미, 밀기울, 비지 죽으로도 주린 배를 채우지 못합니다. 게다가 홍 판서네는 이 개천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 보기 싫다고 개천가 한 동네를 모조리 헐어 버리려고 한답니다. 이런데도 한탄이나 하고 살아가야 합니까. 굶고 헐벗고 하늘을 우러러 구슬피 울부짖는 백성들은 건져 낼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벽오동 심은 뜻은』 하권, p.50)

24) 유풍현의 집은 화적 떼의 습격을 받아 수라장이 되었고 풍현과 언서의 어머니 홍 씨는 비명횡사를 하였다. 마을 사람들은 화적 떼의 습격을 알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고혈을 빨아 호위호식 했던 지주에게 이를 알리지 않았다. 화적 떼는 유풍현의 곳간 문을 열어 곡식과 가축을 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쌀을 받아 들고 어둠 속에서 춤을 추며 돌아갔다.” 이 소식이 전국에 퍼지자 화적 떼가 가는 곳 마다 백성들을 화동을 하고 소위 의병이 되었다.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굳센 의지와 노력이 불비한 면이 있다. 그러나 개인이면서 동시에 가문의 이름으로 역사와 마주하거나 또는 개인의 삶이 정치와 역사의 한 현장이 되는 역사소설의 남성 주인공의 서사를 따른다는 점에서는 전형성을 획득한다.

이 소설이 갖는 감상적 비장미는 절대적 고난에 대처하는 옥이의 신념에서 미감된다. 언서가 옥이를 처음 본 것은 건대산에서 상달의 조상 제사를 진두지휘하는 모습이였다. 열댓 살의 어린 여성이 마을의 아낙네들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품위나 능한 일솜씨를 가졌고 다른 사람들을 위압하는 지휘력은 기이한 아름다움을 발한다. 특히 소설의 초반부 옥이를 통해 용성마을에서 이루어지는 조상 제사, 관례식, 치성을 드리는 방식 등은 풍부한 민속을 바탕으로 민속지적 정보를 담은 역사소설의 풍속사적 면모를 관찰할 수 있게 한다.

옥이는 보통의 소작인의 딸이 가질 법한 팔자소관이나 체념적 정조가 없다. 언서를 찾아갔다 조부인 유평헌에게 유린당하기 직전, 이 모든 비리와 무도를 저주하면 자결을 결심하거나 언서와 헤어진 후 스스로 머리를 올리고 무쇠를 낚아 기른 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죽고 언니와 함께 무쇠를 키우며 나름의 편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으나, 정인과의 인연은 끊어졌으나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그렇지 않음을 주장하고 입경을 단행하는 모습은 뜨거운 모성과 굳센 결단력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다.

소설의 초반부가 깜찍하고 영악한 계집애 옥이의 사랑을 지키기 위한 과단성에 초점이 있었다면 이후의 이야기는 폭풍처럼 휘몰아친 사랑의 대가를 책임 있게 지키는 어머니로서의 모습이 그려진다. 옥이와 아들 무쇠의 상경 길은 부랑(浮浪)에 가까웠다. 물 한 모금, 나물죽 한 술로 하루를 견뎠고, 주막 집 아궁이 앞에서 풀밭의 바위 그늘에서, 언서가 주고 간 은장도를 어루만지며 잤다. 이들 모자는 거지와도 같은 신세였으나 그러면서도 발길을 돌리지 않은 것은 오직 아들 무쇠를 아버지에게 보여야 하겠다는 신념 때문이었다. 그 고난은 실로 끔찍할 정도로 비참한데, 시련에 대처하는 모자의 모습이 마치 아이의 이름처럼 강하고 굳세어 숭고하기까지하다.

이 소설에서 남성 주인공 유언서가 역사와 만나는 방식은 개인이자 일문으로,



개인적 싸움이 역사적 투쟁이 되는 방식이지만 여성 주인공 옥이는 풍속을 주관하거나 일상을 견디고 가족을 결속하는 현장 속에서, 유랑의 길에서 자신의 역사를 구현한다.

#### 4. 봉황을 기다리는 벽오동의 상징성

장덕조는 소설 『이조의 여인들』을 출간한 자리에서 역사소설을 집필하는 이유에 대하여 한국 여성들의 면목과 철학을 그리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면목으로 지모(智謀), 부덕(婦德), 색향(色香)을 지목하는데, 여성인물들은 이것을 무기로 자신의 삶과 역사 속에서 호흡한 진정한 이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작가 자신의 역사관, 국가관, 인생관, 여성관을 구속 없이 그렸다고 밝힌다.<sup>25)</sup>

작가가 한국 여성의 속성으로 지목한 지모(智謀)는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유용하고 슬기로운 지혜와 꾀를 뜻하며 부덕(婦德)은 어질고 너그러운 포용성을, 색향(色香)은 여성의 색과 향기를 말함인데 아름다움을 뜻한다. 작가에게 앞서 언급한 여성인물의 속성은 소설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주요한 장치이다. 이 소설에는 유언서를 사랑한 세 명의 여성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각각의 속성을 대변하기도 반대하기도 한다.

유언서가 유일하게 사랑한 옥이는 열여섯에 스스로 머리를 엇고 젊은 아낙이 되었으며 아들에게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을 주기 위해 온갖 풍상고초를 겪는다. 장덕조는 옥이라는 인물을 통해 여성이 역사 창조에서 일으킨 능동적인 역할인 부덕 즉 여성의 생육 기능에 방점을 둔다. 이는 소설 초반부의 멜로적 요소의 약화와 함께 이후 아버지 찾기로 어머니 수난사가 펼쳐진다는 점에서 알 수 있다. 여성의 생육은 개인의 생명을 연속시키는 동시에 그 생명력이 민족의 개념으로 확대된 형태이다.<sup>26)</sup> 옥이가 뱃속의 아이에게 어진 마음씨와 굳센 의지를 지닌 아이가 태어나 가난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길 기원하는 장면이나 아들 무

25) 장덕조, 『이조의 여인들』, 삼성출판사, 1972, pp.8-9.

26) 조리, 앞의 논문, p.128.

쇠가 “조정을 뒤엎고 썩은 관리들을 몰아내며 부패한 정치를 뜯어 고치고 새 정사를 펴는 의로운 사람들”<sup>27)</sup>의 선두에 서는 후반부를 볼 때, 옥이는 남편이 부재한 상황에서 홀로 가문을 지키거나 생장을 매개함으로써 민족적 수호자의 양상을 띤다.

옥이의 부랑사는 여성 주인공의 ‘성찰적 모험’을 통해 그들의 타자성이 새롭게 역사에 위치 지어지는 과정을 재현해 보여주며 강인한 생명력과 모성으로 여성이 역사 창조에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어머니는 아버지 찾기를 포기한 후 기결의 연정을 거부하고 끝까지 유언서의 정인이자 무쇠의 어머니로 남는다. 유언서의 죽음 이후 무쇠에게 유언서가 아버지였음을 알리고 기결의 무리를 떠나 깊은 산골로 향하는데 옥이는 굳센 신념과 강인한 모성으로 천륜을 지키고자 한 부덕과 지모의 여성이다.

홍 판서의 고명딸 금이는 우연히 자신의 집에 찾아온 언서를 보고 첫눈에 반한다. 금이는 어려서부터 여자라고 남성에게 놀려 지내야함에 불만이 컸기에, 스스로 배필을 골라 혼인하고 남편을 인재로 만들어 발신시키고자하는 욕심이 있었다. 하지만 언서가 계속해서 혼인을 거부하자 언서의 외숙모와 함께 피를 내어 결국 혼인에 이르게 된다. 금이는 재색을 겸비한 규수로 상당히 주체적이고 강단 있는 여성으로 그려지는데 옥이와 다른 강인함이다.

옥이가 포용하고 인내하는 강인함이라면 금이는 부러뜨리고 바꾸는 강인함이다. 미천한 것들에게 위엄을 보이려는 것, 함께 시골에 내려가자는 것을 거부하고 언서를 한양으로 불러 올린 것, 무과에 가겠다고 놀려 문과로 돌린 것 등이 그것이다. 소설 속에서 금아가 부정적으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금아의 강성에 대조하여 언서의 유약함과 체념이 부각되거나, 금아의 행위가 ‘문관의 아내로 행세’하고 싶다는 개인적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점, 세도가의 안방마님으로 허위의식을 지녔다는 점 등을 볼 때 경계해야 할 여성상으로 그려진다.

기생 소춘풍은 우연히 연회 자리에서 유언서를 보고 그의 풍모와 체취에 빠진다. 소춘풍은 언서에게 정을 주어 십사오 년을 기다렸지만 언서는 마음이 내킬

27) 『벽오동 심은 뜻은』 하권, p.74.

때 한두 번 찾아올 뿐 잦은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 소춘풍은 언서의 이름만 들어도 피가 끓어오르고 그리웠다. 화려한 잔치를 싫어하는 언서에게 누가 될까 연회에 나가지 않았고 이러한 사정으로 살림은 더욱 어려워진다. 기녀의 정이라 사람들이 비웃지만 사랑하는 남성을 위한 여인의 절개는 대장부의 충의와 지조와도 같다. 절개를 지키기 위해 부녀의 인륜도 끊으려는 소춘풍이 유언서가 그리울 때 마다 부르는 노래가 이 작품의 제목인 ‘벽오동 심은 뜻은’이다.

소춘풍이 즐겨 부른 이 노래는 유언서를 찾아 한양에 온 옥이가 소춘풍에 의탁해 있을 때 들어, 옥이가 기결과 함께 산체에서 생활할 때 이 노래를 부르며 마음을 붙였던 것이다. 여성인물 소춘풍에서 옥이의 입으로 전해지는 이 노래는 여성인물들의 삶의 지향이자 소설의 주제의식이며 작가의 여성관을 드러낸다.

벽오동(碧梧桐) 심은 뜻은 봉황(鳳皇)을 보렸더니  
내 심은 탓인가 기다려도 아니온다  
무심한 일편(一片) 명월(明月)이 빈 가지에 걸렸어라<sup>28)</sup>

봉황은 고대 중국의 전설에 나오는 새로 상서롭고 고귀한 뜻을 지닌 상상의 새다.<sup>29)</sup> 봉황은 시조나 회화에서 위대한 정치지도자인 성인의 출현과 태평성대를 상징하는 신조이다. 소춘풍과 옥이가 부른 노래에서 봉황은 당연히 유언서를 뜻한다. 이는 정치적 의미로서 성인의 요구이기보다는 깨끗하고 고고한 유언서를 지조가 굳고 품절이 높은 봉황에 빗대어 노래한 것이다. 이 봉황은 유일하게 벽오동 나무가 아니면 깃들지 않는다.<sup>30)</sup> 그래서 벽오동을 심었지만 봉황은 오지 않고 세월만 간다. 범속을 초월한 거룩한 봉황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벽오동은 옥이와 소춘풍의 상징물로 봉황이 올 때까지 온갖 풍상을 겪는 인고의 기다림을 은유화한다.

봉황이 죽은 이후에도 옥이는 무쇠를 뺏을 때처럼 산속으로 들어가 화전을 일

28) 이 시는 작자 미상의 시로, 조선 정조 때 편찬된 것으로 추측되는 시조집 『병와가곡집』에 실려 있다. 김용찬, 『교주 병와가곡집』, 월인, 2001, p.286.

29) 기태완, 「봉황이 머무는 신령한 나무」, 『열린시학』 10, 열린시학회, 2005, pp.291-302.

30) 서영훈, 『벽오동 심은 뜻은』, 백산서당, 1998, p.393.

구며 그를 그리워하며 살겠다고 다짐하고, 소춘풍은 흥법산의 여승이 되어 유언서를 모시겠다고 다짐한다. 유언서를 꼭 빼앗은 무쇠를 보며 영원히 사모함을 다짐하는 옥이와 소춘풍의 결의는 여성들의 유대와 공생을 만들어낸다.

장덕조의 소설은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멜로 풍 역사소설이지만 사랑의 완성과 희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랑을 지키고 이루어 나가는 인물의 속성에 방점을 찍는다. 감수와 인고의 자세로서 개체의 존재 가치와 역사적 귀속을 찾아내어 그것을 문화적인 심미영역에까지 승화시킨다.

반면 이 소설을 또 다른 여성주의적 입장에서 볼 때 여성적 삶의 고통과 질곡을 너무 무겁고 힘든 민족적 담론 속으로 회귀시키고 이를 인고의 기다림이나 부덕으로 미화할 때의 문제점을 간과할 수 없다. 장덕조는 여성을 구원의 모성으로 인정하고, 영원한 터전으로 민족과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으로 희망하고 있지만 옥이의 수난사는 몰락과 재생의 서사를 통해 민족에 대한 특정한 욕망을 재생산하는 수단으로 읽힐 우려도 다분하다. 여성 수난사가 갖는 복합적인 표상 체계는 여성을 민족 통합을 위해 동원하는 전형적인 방식이며 한국인이 민족을 상상하는 전형적인 서사 방식으로 자리잡기 때문이다.<sup>31)</sup>

## 5. 무협소설의 심미화와 ‘협(俠)’으로서 인간의 순리

이 소설에서 절대적이며 유일한 악의 형상화는 구체적 인물이라기보다 세력이나, 제도 등에 가깝다. 부패와 파벌을 조장하여 일문의 영달을 꾀하는 세력, 사농공상의 계층적 분화, 백성을 사지로 내모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제도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정치적 상황과 들끓는 민심을 바탕으로 월담과 기결은 협천자 이릉제후(挾天子以令諸侯)<sup>32)</sup> 홍명수 부자와 그 사위를 처단하려는 계책을 세

31)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3, pp.149-177.

32) 이 말은 『삼국지』 조조와 원소 편에 나오는 말로 ‘천자를 끼고 제후를 호령한다.’는 뜻이다. 원래는 더욱 큰 세력 확장과 외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를 꾀할 수 있는 돌도 없는 양괘의 의미였으나, 이를 빗대어 권문에 기대어 권력을 남용하는 부정적으로 의미로 사용된다.

우는 중이다.

월담은 언서를 만나기 위해 상경하던 옥이 모자가 무덤가에 쓰러진 것을 발견하고 절에 데려와 보양해 준 인물이며, 기절은 절에 숨어 있던 화적으로 옥에게 연모의 감정을 갖고 있다. 옥이의 후반부 방랑을 곁에서 지키며 유언서를 대신해서 무쇠를 자식처럼 기른다.

홍명수 집안은 세도의 개로서 대도의 적이자, 월담은 그의 모함으로 집안이 망멸하는 개인적인 원한을 가지고 있다. 월담의 집안은 흥문과 정치적으로 대등한 세력을 유지하다가 그들의 모략으로 집안이 몰락하여 중이 되었고, 그의 딸 소춘풍은 기생이 되었는데 이러한 내용을 알 리 없는 딸이 홍명수의 사위 때문에 앓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월담은 기막힌 운명을 저주하며 유언서 또한 함께 처단하기로 계획하는 것이다.

비록 도둑의 괴수이지만 대지를 품었다는 기결의 결의와 억울하고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 세상을 뒤집고 근본부터 바꾸겠다는 월담과 기결의 거사 계획은 “무(武)를 빌어 협(俠)을 적는다”라는 무협소설의 심미화라고 할 수 있다. 무협소설에서 무(武)는 무예나 무공을 뜻하는데, 주인공이 적대세력과의 갈등에 직면했을 때 이에 대응하고 극복하는 수단이 된다. 무협에서 협(俠)을 강조하는 이유는 협을 실천하는 객들이 숭고한 사명을 지닌 영웅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바로 무협소설은 협을 통해 무를 합법화, 합리화, 신성화하는 것이다.<sup>33)</sup>

사마천은 「유협열전(游俠列傳)」에서 협객을 신뢰, 과감한 행동, 자기희생, 겸손 등을 갖춘 자로 규정하였는데 이들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부당한 일에 맞서 백성과 연대하는 마음과 행동을 보여 준 인물로, 열악한 사회적 조건 속에서 백성의 보다 나은 삶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빈천한 자를 도와주고 곤궁한 처지에 있는 자를 구하여 민간에서 명성을 얻었다.<sup>34)</sup> 산체에서 뜻이 맞는 사람들을 취합하여 집단생활을 하는 기결과 그의 무리들은 앞서 사마천이 규정한 협객의 면모를 드러낸다.

33) 정동보, 「무협소설 개관」, 『대중서사연구』 6, 대중서사학회, 2001, pp.9-41.

34) 김경희, 「협객에 대한 조선 후기 지배층의 시선 연구」, 『한국민족문화』 7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pp.123-125.

소설 외적으로 볼 때 『벽오동 심은 뜻은』을 연재하던 시기 신문연재 대중소설로서 무협소설의 인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1961년 『경향신문』에 연재된 무협소설 『정협지』는 대만의 무협소설을 번안한 작품이었지만 김광주는 이를 대폭 손질하여 우리 독자의 입맛에 맞도록 바꾸어 무협소설이라는 장르가 뿌리를 내리는 교두보가 되었다.<sup>35)</sup> 장덕조는 신문연재 대중소설의 집필하면서 당대 무협소설의 인기를 생생하게 탐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뛰어난 한문 실력을 갖고 있었으며, 야담이나 역사류 집필에 능숙했기에 무협소설의 한 요소를 자신의 역사소설에 녹이기에 무리가 없었을 것이다.

녹음이 검은 구름처럼 피어오르고 있는 정원에는 밤의 정밀(靜謐)이 어둠 속에 흐르고 사나이가 몸을 움직이는 대로 일진(一陣)의 살기(殺氣)가 따른다. 드디어 별채 분합 앞에 이르렀다. 분합문은 아직 더위가 한창이건만 굳게 닫혔는데 댓돌 위에 놓여 있는 남자의 가죽신과 여자의 비단신 한 쌍이 적연하다. (중략)

삼척 장검이 푸른 섬광(閃光)을 배알고 귀기(鬼氣)가 두 사람의 주변을 둘러싼다. 한참을 그대로 노려보며 서 있었다. 언서의 칼끝이 차츰차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저 칼날이 한 번 백광(白光)을 그어 스며드는 초이레 달빛을 누빌 때 거기 닿은 물건이란 그대로 동강이 나지 않고는 못 배길 것이다.<sup>36)</sup>

거사의 밤중 침실로 잠입하여 대결을 벌이는 유언서와 기결의 무도는 마치 무협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그들의 무술은 서로의 협이 부딪히는 장면으로 고상하고 우아한 의경으로서 무협소설의 요소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유언서의 장검과 기결의 수리검은 무협소설에서 협행수단의 병기로 협객의 이미지를 구현하는 주요 장치가 된다.

기결이 운용하는 수리검은 원래는 외국에서 쓰이던 것을 외세의 침입을 많이 받던 경상도 지방 사람들이 응용하여 만든 민중의 병기다. “끝은 창같이 뾰족하고 양편으로 날이 섰는데 자루가 없는” 수리검은 멀리 있는 사람을 몰래 죽이기 용이한데 여러 개를 동시에 던져 사람을 정통으로 꿰뚫는다. 유언서와 기결의

35) 대중문학연구회,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pp.122-123.

36) 『벽오동 심은 뜻은』 하권, pp.53-57.

첫 결투에서 수리검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결국 관군과의 전투에서 기결이 날린 수리검에 유언서가 그 자리에서 사망한다. 유언서는 ‘애(愛)’로 본다면 정인이지만 ‘협(俠)’으로 본다면 모리배일 뿐이다.

작가는 자신들이 처해있는 역사적 배경이나 생활 속의 감회에 따라 협의 개념을 달리한다. 작가는 허구로 만들어진 창작 인물들을 통해 자신이 지니고 있는 협의 이상을 기탁한다. 따라서 협의는 역사 문헌의 기재에다 허구, 상상이 결합되었으며 각 시대에 따른 사회의 규칙과 사람들의 심리적 수요 및 작가의 이상이 융합된 것이다. 소설 속에 보이는 협의 가치관은 행위의 표준으로 의와 결합된다는 점에서 전통문화의 관념과 일치한다.

장덕조는 자신이 역사소설을 집필할 때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 “인생에 불변하는 어떤 진리를 탐구”<sup>37)</sup>하는 것이며, ‘어떤 진리’로서 “논리(論理)와 정도(正道)”<sup>38)</sup>를 손꼽았다. 사물이 생성하는 이치이자 사고와 행동의 타당한 규범이 되는 논리, 올바른 길로서의 정도는 인간으로서 누구나 지켜할 준거이지만 삶 속에서 이를 거스르지 않은 것은 오히려 쉽지 않다. 권세와 재물이 힘을 쓰는 세상에서 의와 절을 지키고자 할 때 기투와 배신이 인간을 흔들고 유혹한다.

특히 작가가 즐겨 재생하는 역사적 공간이 가장 부패했던 이조의 한 시대에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작가는 ‘수만즉일(水滿則溢), 월만즉휴(月滿則虧)’, 물이 차면 넘치고 달이 차면 기운다는 주역의 말처럼 무슨 일이든 성하면 반드시 쇠퇴하게 되어 있고, 크게 일어나면 필연적으로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순리대로 흐를 것이며 한계적인 상황에서도 인간으로서 논리와 정도를 지키는 것, 협을 이루는 이것이 작가 자신의 역사관이자 국가관, 인생관임을 확실히 하였다.

약정으로 하여 산 모양 들 모양까지 그 형태를 변하고 날짐승, 길버리지까지 원심을 품고 있다는 이 시대다. 오욕에 젖고 악귀 같은 간신떼가 백성들의 기름, 피를 빨고 있는 이 나라가 아직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부지를 하는 것은 이 같은 몇 사람의

37) 「다음의 장편소설 『낙화암』, 『동아일보』, 1956.6.17.

38) 장덕조, 『벽오동 심은 뜻은』, 삼성출판사, 1964, p.456.

옳은 생각, 부드러운 마음씨를 하늘이 살피심이라 생각하는 것이다.<sup>39)</sup>

## 6. 결론

사회와 야담, 역사소설의 관계를 조명한 강민경의 논문에 따르면 사회는 역사적 제재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 독서물을 의미하며 야담은 민간전승의 이야기를 구연자를 전제로 각색한 것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역사소설은 소설로서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것의 경계가 늘 명료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sup>40)</sup> 이러한 해석은 장덕조의 역사물류를 고찰할 때 두드러진 경향이 있다.

이는 작가 스스로가 “역사소설 집필에 있어 참고 서적이 너무 많으면 필자의 자유로운 구상력이 제한을 받기 쉽다”<sup>41)</sup>고 밝힌 바, 작가는 역사적 사실의 꺾어진 재현보다는 역사적 소재를 차용하되 여성중심 서사와 여성적 속성을 통해 작가의 윤리와 철학, 인생관을 양각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장덕조의 야담, 사회, 무협, 역사소설은 손쉽게 경계를 넘나들며 풍부한 이야기성을 구축한다.

이러한 전제를 바탕으로 본고는 장덕조 작품세계의 전모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국전쟁기 이후 장덕조의 작가적 위치를 확립하고, 여성적 역사소설의 새로운 지평을 가능케 한 『벽오동 심은 뜻은』의 분석을 통해 장덕조 여성역사소설의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작가의 역사관, 국가관, 여성관으로 연결시키고자 하였다.

장덕조의 소설은 여성인물을 중심으로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멜로풍 역사소설이지만 사랑의 완성과 희열에 초점을 두지 않고 사랑을 지키고 이루어어나가는 인물의 속성에 방점을 찍는다. 감수와 인고의 자세로서 개체의 존재 가치와 역사적 귀속을 찾아내어 그것을 문화적인 심미영역에까지 승화시킨다.

39) 『벽오동 심은 뜻은』 하권, p.132.

40) 강미정, 「1930년대 역사문학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와 야담, 역사소설의 거리」, 『인문연구』 97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1-54.

41) 「낙화암 후기」, 『동아일보』, 1957.3.20.



전업작가로서 첫 작품이자 장덕조의 역사소설을 대표하는 『벽오동 심은 뜻은』은 사농공상의 계급적 폐해를 다룬 역사적 배경과 계층적 차이와 원수의 집안 간의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다룬 짧지만 강렬한 멜로적 역사소설이자 헤어진 두 남녀의 역사를 왕조사와 수난사로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주제의식을 담고 있는 ‘벽오동’은 옥이와 소춘풍의 상징물로 봉황이 올 때까지 온갖 풍상을 겪는 인고의 기다림을 은유화하는데 이는 여성인물들의 삶의 지향이자 소설의 주제 의식이며 작가의 여성관이기도 하다.

작가가 계속해서 잘 읽히는 역사소설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스토리를 전개시키는 구성력이 강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이고 특별한 역사에 기대지 않고 전체가 완곡하게 흘러가는 서사가 대중소설의 하위 장르로 부분적 혹은 집중적으로 믹스될 때 독자들에게 큰 부담감 없이 재미있게 읽힐 수 있다.

1989년 장덕조는 그의 나이 75세에 원고지 2만 6천장 분량의 대하소설 『고려 왕조 오백년』(전14권)을 완성하였다. 고려왕조 오백년을 통틀어 엮은 소설은 그때나 지금이나 처음이기에 이 분야의 신기원을 이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미 10권으로 발표한 「조선왕조 오백년」에 이어 「고려왕조 오백년」을 끝냈고 계속해서 「해동삼국지」 20권을 다시 쓴 뒤 고대사 6권을 추가, 한민족 5천년사를 50권으로 완결한다는 야심찬 계획<sup>42)</sup>을 발표했던 작가는 더 이상 작품을 출간 하지는 못했다. 고령의 작가가 “집을 옮기고 전화번호를 바꾸고 친한 사람들과의 교류를 끊고” 원고지 2만 6천장 분량을 글씨로 또박또박 써내려간 이 고단한 작업은 말 그대로 생사를 건 고투였을 것이다. 역사소설가로서 장덕조의 집념과 치열성은 다시 평가될 필요가 있으며 그의 역사관에 대한 정치한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이다.

42) 「「고려왕조오백년」 완간한 장덕조 씨 “3년간 남몰래 생사 걸고 싸웠죠”, 『경향신문』, 1989.11.03.

◆ 참고문헌

1. 자료

장덕조, 『벽오동 심은 뜻은』, 선일문화사, 1973.

2. 단행본

- 김용찬, 『교주 병와가곡집』, 월인, 2001.  
 대중문화연구회, 『무협소설이란 무엇인가』, 예림기획, 2001.  
 서영훈, 『벽오동 심은 뜻은』, 백산서당, 1998.  
 오혜진, 『대중, 비속한 취미 ‘추리’에 빠지다』, 소명출판, 2013.  
 이세기, 『예술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 푸른사상, 2004.

3. 논문

- 「민비의 생애를 소설화」, 『경향신문』, 1965.5.24.  
 「작가 장덕조 씨 『여인잔혹사』 첫권 발간」, 『동아일보』, 1985.7.12.  
 강미정, 「1930년대 역사문학론의 관점에서 본 사회와 야담, 역사소설의 거리」, 『인문연구』 97호,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21-54.  
 권기성, 「근대 야담 작가 연구의 외연 확장 and 시선의 전환-『월간야담』의 작가군과 ‘장덕조」, 『동방한문학』 80, 동방한문학회, 2019, pp.241-275.  
 권명아, 「여성 수난사 이야기의 역사적 층위」, 『상허학보』 10, 상허학회, 2003, pp.149-177.  
 기태원, 「봉황이 머무는 신령한 나무」, 『열린시학』 10, 열린시학회, 2005, pp.291-302.  
 김경희, 「협객에 대한 조선 후기 지배층의 시선 연구」, 『한국민족문화』 75,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20, pp.123-125.  
 김병익, 「문단 반세기, 제2기 여류문인들」, 『동아일보』, 1973.6.19.  
 김복순, 「페미니즘 시학과 리얼리티의 문제-여성역사소설을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32, 한국현대소설학회, 2004, pp.243-282.  
 김연숙, 「전쟁 경험과 피난사회의 가정 -장덕조의 『여인애가』(1953)를 중심으로」, 『어문연구』 47,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19, pp.223-250  
 김윤서, 「장덕조 소설에 내재한 ‘섹슈얼리티의 다양성’ 고찰 - 『地下女子大學』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81, 우리말글학회, 2018, pp.273-299.  
 김윤서, 「장덕조 소설의 젠더의식 연구-1950년대 연애소설을 중심으로」, 영남대 박사논문, 2017.  
 김윤서, 「해방공간, 장덕조 소설의 젠더화된 인식 고찰 -장편소설 『十字路』를 중심으로」, 『우리말글』 91, 우리말글학회, 2021, pp.507-534.  
 임경순, 「장덕조 장편소설 『십자로(十字路)』 연구」, 『우리말글』 83, 우리말글학회,

2019, pp.355-378.

정동보, 「무협소설 개관」, 『대중서사연구』 6, 대중서사학회, 2001, pp.9-41.

조리, 「장터조 소설 연구」, 전북대 박사논문, 2007.

진선영, 「『월간야담』의 여류 야담가의 정체와 전통적 글쓰기의 의미」, 『현대소설연구』 76, 한국현대소설학회, 2019, pp.245-272.

진선영, 「1950년대 이후 장터조 대중연애소설의 변화와 관습 - 『격랑』(1957)을 중심으로」, 『여성문학연구』 47, 한국여성문학회, 2019, pp.215-341.

논 문 접 수 일	2022년 08월 03일
심 사 완 료 일	2022년 08월 28일
게 재 확 정 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

Herstorical Novels and Origins of Genre Mix  
- Jang Duk-jo's "Reasons for planting Byeok-dong" -

Jin, Sunyoung

In order to understand the entire world of Jang Duk-jo's works,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Jang Duk-jo's women's Herstorical Novel by analyzing the "reason for planting Byeok-dong", which enabled a new horizon of Jang Duk-jo's women's Herstorical novel after the Korean War.

Jang Duk-jo found a subject in history and solved the history of women through love. At this time, he tried to create a female character who had a desperate existence for greater love, not a dependent woman's life. It focuses on the attributes (wisdom, women's virtues, and beauty) of female characters who have the genre of melodramatic historical novels but do not focus on the completion and joy of love. As an attitude of patience and perseverance, the value of an individual's existence and historical attribution are found, and it is sublimated to the cultural aesthetic area.

The reason why the author was able to write historical novels that continued to be read well was because of the strong composition of the story. When the entire narrative, which flows euphemistically without relying on specific and special history, was partially or intensively mixed into a subgenre of popular fiction (history, romance, and martial arts), it was able to accommodate readers' diverse needs and be enjoyed by the public at the time.

**Keyword** Jang Duk-jo, reason for planting Byeok-dong, Herstorical Novel, Genre Mix, wisdom, women's virtues, beauty

## 량치차오(梁啓超) 도덕적 상상과 근대 담론\*

이영란\*\*

### 국문요약

동아시아의 근대와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인지과학 즉 중국의 전통과 서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량치차오의 근대 개혁 담론을 도덕적 상상이라는 이론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량치차오의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량치차오의 근대 개혁 담론이 어떠한 방식으로 전통과 서구를 수용하면서 변화하였는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량치차오 이성의 상상적 특성 변화를 인간의 도덕적 숙고 즉 마크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에 근거하여 분석해보고자 한다.

량치차오는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신사의 모습으로 성장하였고, 캉유웨이의 만목초당(萬木草堂)에서 공부했던 시기에는 중국의 삼세설과 서양의 사회진화론을 접목하는 근대성이 싹트는 시작점이었다. 일본 망명 후 그는 현실 문제를 실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중국문화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주장하였다. 유럽 유람 후에도 그는 역사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경세치용(經世致用)의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량치차오의 개혁 담론에는 중국 전통에 바탕을 두면서도 서양의 접목하는 도덕적 합리주의에서 출발하였다.

량치차오가 건설하고자 하는 근대 국가는 신민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덕을 확보하는 방법과 또 개인과 군체(群體)의 관계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공덕 역시 도덕적 상상에서 비롯하였다. 량치차오는 새로운 중국 근대의 모습을 그리면서,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도덕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도덕 법칙에 따라 중국 근대 개혁 담론을 만들어갔다.

**주제어** 량치차오(梁啓超), 인지과학, 근대개혁담론, 공덕(公德), 도덕적 상상력, 삼세설, 경세치용(經世致用)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3248) 2021년 제47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함.

\*\* 조선대학교 기초교육대학 자유전공학부 부교수

〈목차〉

- 1 서론
2. 유학 사상의 재발견과 도덕적 상상
  - 1) 공덕(公德) 정치
  - 2) 도덕적 상상 - 경세관
3. 량치차오의 근대 개혁 담론
  - 1) 량치차오의 도덕적 상상력 토대
  - 2) 삼세설(三世說)과 사회진화론의 결합
  - 3) 물질과 정신의 조화
4. 결론

## 1. 서론

중국 근대화의 운동을 일컬어지는 변법자강운동의 주체자인 량치차오는 밀려드는 서구화와 일본 개혁정치 성공 아래 어떠한 중국 근대를 그리고자 하였을까?

량치차오(1873-1929)와 중국 근대 관련 연구는 이미 여러 각도에서 이루어졌다.<sup>1)</sup> 특히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감성인문학연구단에서는 중국 근대성을 서구를 수용하는 입장과 전통을 처리하는 방식의 양쪽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의미로 중국 근대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반을 둔 서구 근대적 시선이 아닌 동아시아의 근대와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을 밝히는 감성 코드를 읽어내겠다는 개념이다.<sup>2)</sup>

---

1) 량치차오(梁啟超)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중국 근대정치개혁, 불교, 서학 수용, 신민 사상, 계몽주의 역사관, 민족주의와 페미니즘, 경제개혁, 과학 담론, 량치차오의 문학, 저술 관련, 한국 사상가들과의 관계 등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2) 김창규, 『중국의 근대와 근대성-감성인문학적 성찰』, 경인문화사, 2018, 이성적 근대 즉 이성 중심의 근대성을 성찰함과 동시에 감성의 복권을 통한 인간학 연구를 수행하였다. 감성인문학을 이성적 근대의 성취를 수용하되, 그 안에 내재된 이론적 개념적 문제점을 짚어보고, 비서구성 근대성은 물론 새로운 근대성의 개념 즉 '감성적 근대성(Emotional modernity)'을 제시하였다.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반을 둔 서구 근대적 시선이 아닌 인간적으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음으로 개혁 담론을 펼쳤다는 입장에서 량치차오의 근대 개혁 담론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마크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 이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크 존슨의 도덕적 품위 개념은 인간의 본성, 필요, 사고, 사회적 상호 작용, 유의미하고 성공적인 삶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의거한 전적으로 인간적인 개념이다. 도덕적 숙고는 직면한 도덕적 문제 상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경험을 재구성하는 과정일 뿐이다. 그런데 상상적인 도덕적인 숙고는 우리의 변화하고 유연한 경험 안에 내재화되고, 신체화되고 행화되어 인간에 맞는 도덕이 실현된다는 것이다.<sup>3)</sup> 량치차오의 정치적 근대 개혁 담론에는 인간의 도덕적 숙고 즉 마크 존슨의 도덕적 상상력에 근거하여 볼 수 있다. 량치차오 자신이 그리고자 하였던 상상된 도덕 정치의 입장에서 중국 근대 개혁 담론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성과 합리주의에 기반을 둔 서구의 근대성이 아닌 량치차오의 도덕 상상이 근대 개혁 담론에 어떠한 방식으로 전통과 서구를 수용하면서 변화를 주장하였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일반적으로 량치차오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량치차오의 사상은 여러 차례 변화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 사상 간의 연계성도 빈약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그의 사상 간의 서로 상충되고 모순되는 부분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는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바뀌는 것이므로 이는 이상할 것은 없다. 스스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 대한 도전이다.”<sup>4)</sup> 라고 말하고 있다. 량치차오는 청말 위기의 상황에서 구국의 길을 찾아 수없이 헤메는 자신의 모습을 가감없이 표현하고 있다. 아마도 량치차오가 청말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글로 표현하다 보니 그때그때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량치차오는 각

3) 마크 존슨 지음, 노양진 옮김, 『인간의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 서광사, 2014, pp.18-19.

4) 梁啓超, 「歷史研究法補編」不惜以今日的我與昨日的我挑戰. 량치차오의 저술은 『飲水室合集』에 수록되어 있다. 그가 만년에 쓴 책들은 대부분 순수 학술 연구서로서 『墨子學案』, 『墨經校釋』, 『清代學術概論』, 『先秦政治思想研究』, 『歷史研究法』, 『廣歷史研究法』, 『中國近三百年學術史』, 『漢書藝文志』, 『諸子略考釋』, 『古書眞僞及年代』, 『朱舜水年譜』, 『辛稼軒年譜』, 『桃花扇傳奇考證』 등이 있다.

국의 상황이나 변화를 보고 느끼는 때 순간 자신의 사고와 생활에 영향을 주었고 이러한 측면에서 량치차오의 변화를 주도하였던 사상적 측면에서의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본고는 량치차오의 사상 변화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왜 자신의 사상이 시시각각으로 변화해야만 했는지, 그의 사상 변화를 그의 인지적 변화로 읽어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는 다양한 글을 저술하여 사람들의 공감을 얻어내려고 했다. 그러한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 전통의 정체성과 함께 서구를 수용하고자 하였던 량치차오의 사상적 변화를 중심으로 근대 개혁 담론의 중심이 무엇이었는가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 2. 유학 사상의 재발견과 도덕적 상상

### 1) 공덕(公德) 정치

량치차오의 초기 학문은 비록 Kangyuei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해도 중국과 서양과 융합하려 한 것이지 어느 한쪽의 견해만을 받아드리려는 것은 아니다.

무술법운동 실패 후, 일본으로 망명하여 일본에 생활하면서 량치차오의 정치사상은 변화하였다. 량치차오는 1897년(光緒 23)에서 1904년(光緒 30)까지는 민권(民權)과 군헌(君憲)의 사이를 배회하였는데, 스승인 Kangyuei(康有爲)의 학설을 따랐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다.

량치차오의 삼십자술(三十自述) 맨 마지막에 “국민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는 것은 한 가지 생각에만 미치지 마음이 놀라 혼을 움직이지 않는 것과 같다.”<sup>5)</sup>라고 한 것처럼 실제로 량치차오는 존공(尊孔)이라는 Kangyuei의 학문에만 영향을 받았다고 보기보다는 서양의 구민(救民)도 함께 접목하여 해석한 개혁 담론을 구상하였다. 결국 량치차오는 군헌을 주장하는 스승과의 길을 달리하며 공화혁명(共和革命)을 제창하였다. 그의 민권사상의 시작은

5) 梁啓超, 「三十自述」, 『飲水室文集』 11, 中華書局, 1996, p.15.



강유웨이와 다른 길을 모색하면서 강유웨이가 생각하는 정치적 개혁보다 더 급진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면서였다.

량치차오가 급진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시기는 일본 망명 시기이다. 1898년 일본의 후쿠자와 유키치(福澤諭吉; 1835-1902), 가토 히로유키(加藤弘之; 1836-1921) 등의 번역과 저작을 읽으면서 독일에서 수입한 국가유기체설을 보고 새로운 정치적 구도를 구상하였다.

그는 “국가는 집단의 최고 단위이며 국가가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구성원들이 국가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였다. 국가를 구성하는 구성원의 자질이 중요함을 아래와 같이 강조하였다.

국가사상이란 무엇인가? 첫째, 자기 한 몸과 상대해서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둘째, 조정과 상대해서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셋째, 외족(外族)과 상대하여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며, 넷째, 세계와 상대하여 국가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른바 자기 한 몸과 상대하여 국가가 있음을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다른 생물에 비해 귀한 이유는 무리(群)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일 뿐이다. .... 즉 개개인은 자기 한 몸에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너와 내가 단결하여 서로 보완하고 서로 막아주며 서로를 이롭게 하는 방법을 별도로 구하게 되었다. .... 매번 생각할 때, 말할 때, 일 처리할 때, 반드시 항상 자기 한 몸 이상의 것에 뜻을 모아야 한다. 이와 같지 않으면 단체는 끝내 성립될 수 없으며, 인도(人道)는 거의 멈춰 버릴지도 모른다. 이것이 국가사상의 첫 번째 뜻이다.<sup>6)</sup>

그는 국가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가유기체설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유기체를 군(群), 군체(群體), 단체(團體) 등으로 표현하였고, 이 유기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뜻을 모아야 한다고 하였다. 그 뜻을 모아 힘이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공덕(公德)’이라 하였다. 공덕이 강해지면 유기체를 결속하는 힘도 강해진다고 보았다.<sup>7)</sup> 그는 중국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회 윤리 덕목인 ‘공덕’에 도덕 정치의 무게를 실었고 그러한 도덕적 숙고를 품었던 량치차오는 자신의 글에서 힘을 모아야 하는 이유를 호소하였다.

6) 양계초 저, 이해경 역, 『신민설(新民說)』,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pp.107-109.

7) 김창규, 「량치차오의 중국적 근대기획」, 『中國史研究』 Vol.97No.-, 2015, pp.322-323.

량치차오는 국가의 주력이 되어야 할 백성은 지, 덕, 체를 갖추어야 한다고 하였는데, 특히 “우리 국민에게 가장 결여되어 있는 것은 공덕(公德) 그 한 가지”라고 하였다. 그는 공덕은 한 사회를 하나로 서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하여, 서양과 중국 전통의 융합한 새로운 공덕 정치를 구상하였다.<sup>8)</sup>

그는 도덕의 본체는 하나인데 밖으로 드러나는 것은 공(公)과 사(私)로 세워진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홀로 자신을 선하게 하면 사덕(私德)이고, 사람들이 그 사회를 좋게 하면 공덕(公德)이라고 하여 사덕과 공덕 모두 중요하다고 하였다. 다만 중국은 사덕에 치우쳐 공덕이 결여되었음을 지적하고 사덕과 공덕을 병행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sup>9)</sup>

다시 말해 량치차오가 말하는 공덕은 개인이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를 위해 백성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도덕적 상상을 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대학(大學)』의 신민(新民)을 인용하여 중국의 근대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백성을 새롭게 하는 데 힘써야 한다며 신민을 강조하였다. 량치차오는 「신민의(新民議)」에서

“내가 신민을 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이 부패하고 타락한 근원을 탐구해서 다른 나라가 발달하고 진보한 이유를 비교하고 국민이 병든 원인을 파악하여 스스로 경계하고 대책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sup>10)</sup>

라고 신민설을 쓰게 된 의도를 설명하였다. 또 그가 ‘신민’의 의미를 해석하여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신민’이란 서양풍(西風)에 심취해서 수천 년의 도덕·학술·풍속을 업신여겨 버리고 타인의 대오에 들어가려는 것도 아니며, 수천 년동안 내려온 도덕·학술·풍속을 오로지 지키기만 하면서 대지에 발을 딛고 설 수 있다고 말하며 옛 것을 묵수하는 것도 역시 아니다.”<sup>11)</sup>

8) 양계초 저, 이해경 역, 위의 책, 2014, p.85.

9) 양계초 저, 이해경 역, 위의 책, 2014, pp.86-92.

10) 梁啓超, 「新民議」, 『飲水室文集』 7, 中華書局, 1996, p.105.

고 하였다. 그는 근대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중국과 서양의 도덕, 학술, 풍속을 융합하는 '신민'을 거듭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그는 중국 안의 모든 민족이 연합하는 민족주의를 주장하였고, 민족과 국가를 내세웠던 그는 공화정 정부의 건설만이 중국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라 믿었다.

량치차오는 일본 망명 이후 일본어로 번역 출판된 많은 서양 사상서를 읽으며 점차 정치에 대한 도덕적 상상을 하였다. 그는 승평의 시대를 거쳐 경쟁과 배타적 욕망이 사라지는 대동의 세계로 진화한다고 본 강유웨이의 삼세설에서 더 나아가 민족주의에서 민족 공화국의 시대로 나아가는 도덕적 상상을 하면서 청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펼쳤다.

이러한 도덕적 상상 안에 만들어진 '신민'의 중요성은 「청의보(淸議報)」(1898), 「신민총보(新民叢報)」(1902)를 발간하여 알렸다. 1902년에 창간해서 1907년까지 계속된 신민총보(新民叢報)에 게재된 글을 통해 량치차오는 그의 도덕적 상상을 그대로 글로 표현하였다. 그는 이 잡지를 통해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베이컨, 데카르트, 칸트, 몽테스키외, 다윈, 벤담, 콩트까지 서양의 새로운 사상들을 중국에 알렸다. 또 그리스와 마케도니아에서 이탈리아, 헝가리 등 각국에 대한 소개와 서양의 철학, 인물, 역사, 지리뿐만 아니라 헌법, 정당, 화폐제도, 학교 제도, 인재 선발 제도 등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사상과 제도를 소개하면서 그가 꿈꾸는 정치 세계를 알리고자 하였다.

량치차오는 제1차대전 후 유럽을 방문하고 돌아와서도 여전히 중국 전통사상이 서양과 무엇이 다른가에 주목했다.<sup>12)</sup> 그러면서 그는 중국인으로서 새로운 문명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를 제시하는 글을 쓰기도 하였다.<sup>13)</sup>

11) 양계초 저, 이해경 역, 위의 책, 2014, p.66.

12) 이러한 이유로 1990년대 이후 일본과 중국 학계에서 량치차오에 대한 평가는 그의 초기 사상의 핵심 주제인 계몽성보다는 '유학 사상의 재발견'에 맞춰져 있다.

13) 이종민, 「량치차오의 『구유심영록(歐游心影錄)』과 신문명의 탐색」, 한국중국현대문학학회, 『中國現代文學』 Vol.0 No.76, 2016, pp.81-83. 『구유심영록』은 세계대전 후 유럽 여행(歐游)을 통해 관찰하고 느낀 생각(心影)에 관한 기록으로, 1919년 10월 11일에 유럽 각국을 유람하다가 파리로 돌아온 시점에서 그 동안 관찰한 것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서

1902년 신민총보에 실린 〈신민설 제7절 진취와 모험〉에서 량치차오는 19세기 시체가 언덕을 이루고 있는데도 유럽에서는 혁명의 풍조가 퍼지고 있다고 하였다. 그러한 일은 백성이 국가를 사랑하기 때문이라며, 목숨을 바치면서 혁명에 임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의 삶보다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했다.<sup>14)</sup> 그 뒤에 실린 〈신민설 제9절 자유〉에서는 “자유는 천하가 추구하는 공리이고 서양의 여러 나라가 근대 국가를 세운 뿌리이고 원천이다. 혁명이 그 자유를 성취하는 수단이다.”<sup>15)</sup>라고 소개하였다.

량치차오가 어떠한 상황을 경험하고 느끼면 그것을 다시 상상해 보고자 하였던 주요 내용은 가족 윤리에 바탕을 둔 사회와 국가였다. 사회와 국가가 중심이 되는 공공성 확보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며, 또 개인과 군체(群體)의 관계 안에서 자유와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공덕을 알아가는 것을 상상하였다. 그리고 그는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잡지에 글로 호소하였다. 그의 도덕적 상상 속에서 청말 국민국가라는 논제에서 시민 사회라는 의미를 찾아낼 수 있다. 량치차오는 도덕적 상상으로 보편공동체를 지향하는 그림을 그리고자 하였다.<sup>16)</sup> 개인의 자유는 중국 민족이라는 운명 공동체의 입장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중국 민족이며 국가라는 것이다. 개인의 무절제하고 무분별한 자유의 외침이 전제 정권을 강화시킬 수도 있기에 개인보다는 민족과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필연적이라고 생각하였다.<sup>17)</sup>

량치차오는 마크 손슨의 도덕적 개념에 따라 인간의 본성, 필요, 사고, 사회적 상호 작용, 유의미한 성공적 삶을 향한 인간의 욕구에 의거하여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상상하였다. 즉 청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사회와 국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

술한 기행문이다.

14) 『新民叢報』 제5호, 新民說五 第七節 論進取冒險, 1902.04.08., pp.1-11.

15) 『新民叢報』 제5호, 新民說七 第九節 論自由, 1902.04.08., pp.1-8.

16) 조경란, 「량치차오의 ‘국민 만들기’」, 『현대 중국 사상과 동아시아』, 태학사, 2008, pp.90-91.

17) 金春男, 「自由主義 思潮의 中國의 收容」, 『동국사학』 30, 2002, p.541.

## 2) 도덕적 상상 - 경세관

『도덕적 상상력』의 저자 마크 존슨은 상상력이 어떤 규칙에도 지배받지 않고, 어떤 합리적으로 정의된 개념들의 제약도 받지 않는 주관적이고 자의적이며 창조적인 과정으로 간주하도록 교육받아 왔다. 그래서 상상력을 소위 합리적인 도덕적 숙고에 다양한 종류의 특이하고 불확정적이며 정서적인 환상의 비행을 유입시키는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그것을 도덕성의 적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도덕적 추론에서 상상력의 존재는 모든 도덕 법칙과 규칙들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들어서 도덕성의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특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sup>18)</sup>

인간에게 부합하는 도덕철학은 인간을 도덕적 문제 해결의 상상적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신체화되고 문화적으로 내재화된 고도로 복잡한 유기체로 간주한다. 량치차오가 공부한 칸트철학에서 도덕적 법칙을 읽어낼 수 있다. 칸트의 도덕 원리의 원천은 순수실천이성에서 주어지는 절대적 도덕 법칙의 체계로 본다.<sup>19)</sup> 이러한 도덕 법칙에 근거하여 량치차오는 인간의 세계를 극복하고 도덕의 세계를 상상함으로써 중국의 미래를 그리고자 하였다.

량치차오는 유가에 기초를 두고 변화를 시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순자(荀子)를 비판하고 맹자를 추앙하였다. 그것은 전제군주를 반대하고 민권을 강조하려는 경세치용(經世致用)의 의식에서였다. 그는 학문을 추구함에 있어서 경세치용을 최우선으로 하였다.

이러한 경세치용의 의식은 역사학에 관심을 갖게 하였고, 그러한 역사학 연구는 당면한 현실 문제, 구국(救國)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용성을 갖게 하였다.

역사(歷史)란 오래 전에 죽은 몇몇 사람의 과거를 위해서 기념비를 만드는 것인가? 몇 가지 과거사로 고무극을 만드는 것인가? 대개 그렇지 않다.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이를 거울삼아서 잘잘못을 판단하여 경세(經世)에 쓰이게 함이다.<sup>20)</sup>

18) 마크 존슨 저, 노양진 역, 『도덕적 상상력 -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서광사, 2008, pp.29-30.

19) 마크존슨 지음, 노양진 옮김, 앞의 책, p.23, 2014, pp.50-51.

이는 역사학을 통하여 현실적인 당면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인간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반사적이고 직관적이며 무의식적으로 발생하는 감성적 변화를 갖게 된다. 따라서 그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사학과 같은 학문을 통해 인간적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과거의 역사를 토대로 새로운 의미 부여함으로써 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역사의 보편적 경험법칙을 통하여 국가나 민족의 장래에 대한 방향 제시를 하고 또 그렇게 될 때 실용성을 갖게 된다는 경세관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경험을 상상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하는 경세관을 실천에 옮기고자 하였다.

그는 종래의 중국 역사가들은 역사서술에 있어서 조정과 개인과 사적(事迹)과 사실이 있음을 알고 있었으나, 국가와 대중과 시사(今務)와 이상의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즉 종래의 중국 역사는 결합이 많은 역사로 규정하고 새로운 역사학의 방향을 제창하였다.<sup>21)</sup>

그는 자기가 처한 시대의 과거제도·국가의 대외정책·국가의 재정문제 등에서 자신이 보았고 느꼈던 부분을 역사학의 토대 아래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였다. 량치차오는 1903년에 미국을 방문하였는데,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깨지는 시기이었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번영한 미국의 상황은 그가 상상한 이상의 모습이었다. 중국 내륙에서 온 사람들은 홍콩이나 상해를 오면 변화에 놀라 중국 내륙이 초라하다고 생각하고, 일본을 오면 일본의 변화에 다시 한번 놀라 홍콩과 상해가 초라하다고 생각한 것은 당연하였다. 바다를 건너 태평양 연안에 도착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놀라 일본이 오히려 초라해 보일 정도였다.<sup>22)</sup>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량치차오는 중국인 특유의 가족중심주의, 집단적 난폭성, 이기주의 등 문란함을 목격했다.<sup>23)</sup> 그렇다면 샌프

20) 梁啓超, 「新史學」, 『飲氷室文集』九, 中華書局, 1996, p.3.

21) 梁啓超, 위의 책, 1996, pp.2-4.

林毅校點, 『梁啓超史學論著三種』, 三聯書店, 1988, pp.3-40.

一曰知有朝廷而不知有國家, 二曰知個人有而不知有群體, 三曰知有陳述而不知有今務, 四曰知有事實而不知有理想.

22) 梁啓超, 「新大陸遊記節錄」 『飲氷室專集』22, 中華書局, 1996, p.36.

란시스스코에 사는 중국인은 왜 문란한가라는 의문의 답은 서양인과 동등한 자유를 누리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참으로 전제는 안전하고 자유는 위험하며, 전제는 유익하고 자유는 해롭다.”라는 명백한 증거였다.<sup>24)</sup>

량치차오의 개혁에는 도덕의 공감이가 중점을 이룬다. 량치차오는 중국의 진화를 위한 가장 근원적인 힘, 길러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 합리주의라고 판단했다. 글을 통한 계몽을 강조하였고, 그 계몽의 내용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도덕적 합리주의였다.<sup>25)</sup>

중국은 개혁으로 치유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 이제 변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새로운 정치 개혁을 품게 되면서, 인간의 세계를 넘어선 도덕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도덕 법칙을 인간이 따라가게 하였다.

### 3. 량치차오의 근대 개혁 담론

#### 1) 량치차오의 도덕적 상상력 토대

어떤 사람이든 어린 시절 배우고 느꼈던 일들이 자신의 성장 과정에서 신체화, 행화되기 마련이다. 량치차오의 도덕 정치의 토대를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변법운동의 전후 즉 1890년 이전의 량치차오의 삶을 알아봐야 한다. 그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무의적으로 개인적 성향을 형성하고 변화의 중심에 있게 되기 때문이다.

량치차오(1873~1929)는 1873년에 광둥성(廣東省) 신회현(新會縣)에서 태어났다. 량치차오는 어린 시절부터 신동이라 불리는 명민한 소년이었다고 한다. 량치차오는 아버지에 관하여 “자애롭고 학업을 독려하였을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에 항상 삼가함을 강조하였다.”라고 말하였다. 그의 부친 량바오잉(梁寶瑛)은 항상 아들인 량치차오에게 “너는 너 자신을 보통 아이와 같다고 보아라.”고 말해

23) 스펜스 저, 정영무 역, 『천안문』, 이산, 2010, pp.75-76.

24) 梁啓超, 「新大陸遊記節錄」 『飲氷室專集』 22, 中華書局, 1996, p.104.

25) 이혜경, 「양계초와 "혁명" 개념의 전변 - 「청의보」, 「신민총보」 시기를 전후하여」, 『人文論叢』 Vol.72 No.2, 2015, p.138.

량치차오가 죽을 때까지 그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 아마도 그의 아버지 말에는 명민한 량치차오의 앞으로 삶이 평탄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당부한 말일 것이다. 그래서 그는 당시의 다른 남자아이처럼 과거시험에 힘쓰는 평범한 소년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과거시험 준비를 하였다.

4세에 할아버지 지도 아래 『시경(詩經)』을 읽었고, 공부하다 할아버지와 함께 잠이 들기도 하였다. 6세 이후로는 아버지가 연 사숙에서 공부하면서 『중국약사(中國略史)』와 『오경(五經)』 등을 읽었고, 시와 팔고문을 쓰기 시작하여 신회현에서 유명하였다.<sup>26)</sup>

그는 어린 나이인 9세 때 과거를 보았으나 실패하였다. 1884년 12세에 수재(秀才)에 합격하였고, 1885년 완원(阮元)이 세운 학해당(學海堂)에서 한학의 전통을 공부하여, 1889년 16세에 거인(舉人) 즉 향시에 응시하였다.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전형적인 신사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있었던 당시 량치차오가 소년 시절을 보낸 중국의 1870 ~ 80년대는 아편전쟁을 겪은 뒤 중국의 정치나 사상은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기술을 배우자는 양무운동(洋務運動)을 전개하였던 시기이다.

량치차오는 거인 합격 2년 만에 자신보다 4살 많은 리후이셴(李蕙仙)과 결혼하였다. 광둥에서 치러졌던 향시에 시험관으로 왔던 리두안편(李端棻)이 량치차오 답안지의 비범함을 보고 그의 재주를 훌륭하게 여기고 자기의 여동생을 그에게 시집보냈다고 전해진다.<sup>27)</sup> 베이징의 명문가 출신 여성과의 결혼은 량치차오에게는 일거다득이었다. 광둥 출신인 량치차오는 아내의 도움으로 베이징에서의 의사소통이 자유로웠을 뿐만 아니라 유명인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10대의 삶은 시대에 순응하며 제도적 장치를 따르고자 하는 전형적

26) 徐剛著, 이주노·김은희역, 『중화유신의 빛 梁啓超』, 이괄리오, 2008, pp.41-42.

27) 徐剛著, 이주노·김은희역, 위의 책, 2008, pp. 59-60. 첫째, ‘공자가 늘 하신 말씀은 『시경』, 『서경』, 예의의 집행에 관한 것이다.’에서 ‘공자는 괴상한 일, 무력에 관한 일, 덕을 어지럽히는 일, 귀신 등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까지, 둘째, ‘온갖 장인을 불러 모시면, 재화가 충족된다.’, 셋째, ‘리루처럼 밝은 눈, 공수자처럼 뛰어난 기술.’, 넷째, 시 “荔實周天兩歲星(여지열매는 스물네 해가 되어야 맺어지네)”의 ‘성(星)’자를 운으로 시를 지으라 가 향시 시험문제였다. 이에 대한 비범한 답안을 량치차오가 제시하였다.



인 신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2세에 수재가 되고 16세에 거인이 되는 성공의 탄탄대로를 걸었던 량치차오는 당시 청말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도덕적 상상을 하며 열려 있는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 2) 삼세설(三世說)과 사회진화론의 결합

1890년 베이징(北京) 회시(會試)에서 낙방하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중 『영환지략(瀛環志略)』<sup>28)</sup>을 접하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세계 각국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그때 나이 18세였다.

량치차오는 천첸추(陳千秋)를 통해 kang유웨이(康有爲)를 만나보게 되었는데, 1891년 kang유웨이가 설립한 만목초당(萬木草堂)에 입학하여 그의 수제자가 되어 그 후 3년간 따르며 공부했다. 육왕심학(陸王心學), 사학(史學), 서학(西學)에 대한 강론을 들었다. 경학(經學)은 특히 경세치용(經世致用)이 중심이 되는 공양학(公羊學)에 치중한 강론이었다. 량치차오는 만목초당에서 기존의 학문 패권이 아닌 배워서 실제에 응용할 수 있는 학문에 주안점을 두어 공부하였고, 이때가 중국의 전통문화에 뿌리는 두면서도 서양의 것을 수용하는 그야말로 량치차오의 도덕적 상상이 근대개혁 담론으로 싹트는 시작점이었다.

1894년(光緒 20) 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일본에게 패배하였고,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馬關條約)이 체결된 후 kang유웨이와 함께 량치차오는 베이징에서

28) 이민숙, 정민경, 「[原典譯註] 『영환지략(瀛寰志略)』 권1부」, 한국중국소설학회, 『중국소설연구회보』 제114호, 2021, p.15, 『영환지략』은 청나라 말기의 역사학자이자 지리학자인 서계여(徐繼畬, 1795~1873)가 편찬한 책이다. 이 책은 세계 각국의 지리, 역사, 정치, 경제, 종교, 교육, 과학, 지도, 민족 특성 및 19세기 당시 중국의 서양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서양의 중국, 중국인에 대한 인식까지 두루 다루고 있는 19세기 당시의 세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인문지리서이다. 서계여는 중국 문헌 기록 26종, 외국인 선교사의 간행물 10종을 바탕으로 『여도고략(輿圖考略)』을 쓰고 같은 해 7월에 증보해 『영환고략(瀛寰考略)』을, 1848년에 최종적으로 『영환지략』을 완성했다. 『영환지략』은 중국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아시아, 아시아 남양 군도, 오인도, 유럽, 아프리카, 남북아메리카의 나라를 소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각 대륙과 국가의 정밀한 지도, 각국의 지리적 위치, 면적, 인구, 문화, 역사, 문물, 교육, 군사, 정치 제도, 풍속, 언어, 생김새, 서구의 자본주의 경제와 기독교 문화, 민주주의 등을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당시 유명한 인사들과 함께 변법자강(變法自疆)을 제창하였다.

공거상서(公車上書·1895년 베이징에서 진사 시험을 치르기 위해 모인 학자들이 의기투합하여 외국과의 불평등한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고 부국강병을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상주한 상소문)를 올리고 무술변법 운동에 함께 하였다.

량치차오는 거인(舉人)들과 연합하여 공거상서 초안을 작성하였다. 공거상서 초안은 1만 2천여자에 달하는 상소문으로 일명 만언서(萬言書)라 불리는 상소문이다. ‘은 나라를 굴욕으로 몰고 간 화약을 거부하고, 도읍을 옮겨 항전하여 변법을 통해 나라를 부강시키자.’라는 내용의 상소문을 작성하여 황제에게 나라의 위기를 알리고자 하였다.

과거시험을 준비하는 신사가 아닌 중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젊은 청년으로 량치차오는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계몽 활동으로 중국의 근대를 위한 고민하기 시작하였고, 서양의 다양한 사상을 접하면서 전반적인 사회 개혁의 필요성을 견지하여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한 계몽 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러한 사상의 기반에는 바로 옌푸(嚴復;1854-1921)와 강유웨이에게 전수받은 사회진화론의 이론이 뒷받침하고 있었다. 당시 유신변법론자들은 사회진화론을 이론적 토대로 하여 대중 계몽 운동을 하였다. 옌푸는 『천연론』을 통해 서양의 다양한 사회진화론 학자와 이론을 소개하였는데, 그는 개인보다 사회나 국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량치차오는 강유웨이로부터 공양학(公羊學)의 삼세설을 통해 인류의 역사가 대동세로 나아간다는 학설에 영향을 받았다. 결국 량치차오의 역사 인식은 공양학과의 춘추삼세설(春秋三世說)에 기반한 것으로 춘추삼세설은 변법운동의 사상적 토대가 되었다. 역사가 거란(據亂)-승평(升平)-대동(大同)의 순서로 진화하며, 각 시대마다 적합한 정치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공자의 뜻으로 현재 중국은 승평의 정치인 입헌군주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강유웨이의 삼세설이었다. 특히 강유웨이의 삼세설 가운데 ‘소강지의(小康之義)’를 통한 즉 군권존중주의(君權尊重主義)인 전제정치(專制政治)를 주장하였고, 량치차오는 ‘대동지의(大同之義)’를 강조하였는데, 그는 이미 민권존중주의(民權尊重主義)인 평등정치(平等政治)를 그리고 있었다. 량치차오는

『춘추(春秋)』의 미언대의(微言大義)는 삼세(三世)로 나누어 진화궤적(進化軌跡)을 밝힌 것이다. 제일(第一), 거란세(據亂世)는 기국(其國)을 경내(境內)로 하고 제하(諸夏)를 외방(外邦)으로하며, 제이(第二), 승평세(升平世)는 제하(諸夏)를 경내(境內)로 하고 이적(夷狄)을 외방(外邦)으로 한다. 제삼(第三), 태평세(太平世)는 천하(天下)의 원근(遠近)과 대소(大小)가 하나 같이 봉작(封爵)하는데까지 이른다.<sup>29)</sup>

라고 하였는데, 난(亂)에서 승(升)에 이르고, 다시 승(升)에서 태평(太平)으로 점차 진보된다는 이론이다. 그는 ‘정치적 목적은 천하를 평등하게 하는데 있다.’라고 보았다.

량치차오는 30년에 걸쳐 추진한 청정부의 자강운동은 진정한 사회 개혁이 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그는 세계가 발전하고 특히 서구사회가 세계사의 주류가 된 이면에는 합리적인 사회 개혁을 추진한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의 자강운동도 먼저 정제되고 침체된 사회를 개혁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였다. 그러한 자신의 개혁 방안을 1896년에 변법통의(變法通議)라는 글을 통해 변법 유신의 당위성을 제시하였다.<sup>30)</sup> 량치차오는 변법론을 펼치며 자신이 표방하는 사회의 모습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는 삼세설의 진보적 논리에 서양의 사회진화설을 접목하여 중국의 미래 역시 진보적 모습으로 그려나갔다.

1897년에 호남에 가서 시무학당 교사가 되어 교육하였다. 무술년에 시랑 쉬

29) 梁啓超, 『先秦政治思想研究』, 臺灣: 中華書局, 1966, p.1.

春秋之微言大義, 分「三世」以明進化軌跡. 第一, 「據亂世」『內其國而外諸夏』, 第二, 「升平世」『內諸夏而外夷狄』, 第三, 「太平世」『天下遠近大小若一, 夷狄進至於爵』

30) 김택중, 「清末 梁啓超의 사상변천」, 『인문논총』 Vol.28 No.-, 2014, p.237. 梁啓超, 「變法通議」, 『飲冰室文集』 1, p.1. 량치차오는 강유웨이(康有爲)가 설립한 강학회(強學會)에 참여하여, 강학회의 서기를 맡았다. 황준센(黃遵憲) 등과 함께 1896년 시무보(時務報)를 발간하였다. 이 보간에서 발표한 글이 변법통의(變法通議)이다. 변법론(變法論)에서 그는 “변한다는 것은 고금의 절대 진리이다. 변하고자 하여 변하는 자는 변화의 권리가 자신에게 귀여져 있으니, 나라를 보존하고 종족을 보존하여 가르침을 보존할 수 있다. 그러나 변하고 싶지 않음에도 변하는 자는 변화의 권리가 남에게 넘어가버리니, 그를 속박하고 멋대로 끌고 다닌다.”고 하였다. 량치차오는 국가를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식을 높여야 하고, 국민의 의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비 즉 변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즈징(徐致靖)은 량치차오의 재질이 매우 쓸만하다고 추천 상소를 올렸다. 그래서 광서(光緒)는 그를 불러 대학당역서국(大學堂譯書局) 사무를 맡아보도록 명령했다. 역서국에서 문화 사업을 진행하였던 량치차오는 물질문명 등은 비진화론적 성질(非進化的性質)을 지닌 것이며, 다만 문화계통(文化系統)의 활동만이 즉 인류평등(人類平等) 및 인류일체관념(人類一體觀念) 그리고 인류심(人類心)으로 개척한 문화적 사업만이 진보적이어서 축적되고 확대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sup>31)</sup>

19세기 이후 서양 열강들로부터 침탈로 창조 무능함과 이민족인 만주족의 통치, 백성의 무지함이라 보고 느꼈던 량치차오는 청조 사회의 개혁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 제안에는 량치차오가 배웠던 공양학 삼세설에 근거하여 서양의 사회 진화론을 결합하여 진보적인 중국을 그리고자 하였다. 그러한 중국 근대의 모습을 가지고 정치, 사회, 문화를 변화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길임을 강조하였다.

### 3) 물질과 정신의 조화

강유웨이와 변법을 함께 일으킨 량치차오가 일본으로 망명한 1898년 이후는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일어나는 시기이다. 일본에 망명한 량치차오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1898년 「청의보(清議報)」를 창간하여 왕성한 계몽 활동을 전개했다.

량치차오는 『독서학서법(讀西學書法)』에서

“티모시 리처드(李提摩太)는 여러 차례 나에게 말했다. 십년 전에 나온 전학 서적은 읽지 않아도 된다. 서양 사람들도 더 이상 중시하지 않는다. 최근 중국에서 번역되어 나온 전학 서적들은 모두 십년 전의 것들이다. 그러나 구설(舊說)이 얼마나 어설봉가를 알아야 신설(新說)의 심오함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읽지 않을 수가 없다.”<sup>32)</sup>

31) 都相範(1984), 「梁啓超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革命黨과의 論爭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12, p.91.

32) 梁啓超(2005), 『飲冰室合集』 集外文 下冊,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p.1161.

라고 말했다. 그가 상상하는 근대라는 시뮬레이션은 바로 낡고 오래된 중국 전통을 비판하고 서구의 근대를 예리하게 관찰하면서 서구와 같은 새로운 길을 도모하는 데 있었다.

하지만 무조건 수용은 아니었다. 그는 “유럽인들은 과학 만능의 큰 꿈을 꾸다가 지금은 오히려 과학의 파산을 부르짖고 있다.”<sup>33)</sup>라고 하였다. 1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을 보고 서구 문명의 위기를 지적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문화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문제를 찾아내고 그에 대한 해결로 서양과 중국의 조화 즉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주장하였다. 또 1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의 경제적 불황과 궁핍한 생활의 모습을 본 량치차오는 서양 문화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했다.<sup>34)</sup>

1902년 3월부터 8월까지 유럽 유람 기간 동안 각국의 상황을 살펴본 량치차오는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에서

“과학 만능을 노래했던 사람들은 과학의 성공으로 황금 세계가 머지않아 출현할 것이라고 열망하였다. 오늘날 과학은 성공했다고 할 만하다. 백 년 동안 물질의 진보가 과거 삼천 년 동안 생산한 것보다 몇 배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인류는 행복을 얻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재난이 일어났다. 이는 마치 사막에 길을 잃은 여행객이 멀리서 커다란 검은 그림자를 보이자 사력을 다해 달려가, 길 안내를 받으려고 바짝 다가가니 그림자가 보이지 않아 한없이 처량하고 실망한 것과 같다. 그림자는 누구인가? 바로 ‘과학 선생’이다.”<sup>35)</sup>

33) 梁啓超, 「歐遊心影錄節錄」, 『飲水室專集』 23, 中華書局, 1996, p.12. 량치차오 저, 이종민 역, 『구유심영록』, 산지니, 2016, p.33. 량치차오의 사유 패턴은 크게 세 가지 시기로 구분된다. 그 첫째는 변법운동 시기 즉 1899년 이전까지이다. 두 번째 시기는 1899년부터 1919년까지로, 서구와 중국이라는 대립 구도를 ‘산’과 ‘구’라는 구도로 전환하는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는 1919년 이후 즉,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을 유람하고 난 뒤의 시기이다. 세 번째 시기에 그는 파리 강화회의의 전권대사로 임명되어 유럽을 유람하면서 1차 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을 보고 중국문화만이 인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바꾸게 된다. 백지운의 연구보고서 「양계초의 『구유심영록』에 나타난 동서문화론연구」(2003)의 연구목표에 제시되어 있다.

34) 스펜스 저, 정영무 역, 『천안문』, 이산, 2010, p.162.

35) 梁啓超, 위의 책, 1996, p.12, 량치차오 저, 이종민 역, 위의 책, 2016, p.33.

라고 설명하였다. 초기에 서양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열심히 주장했던 변혁운동의 기수였던 량치차오는 그런 그가 서양 물질문명이 파산하고 과학 만능의 꿈이 좌절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또 그는

“그들은 심리와 정신을 동일한 사물로 보고 실험심리학을 근거로 하여 인류 정신도 일종의 물질에 불과하며 ‘필연법칙’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류의 자유의지가 부정될 수 밖에 없었다. 의지가 자유로울 수 없다면 선악의 책임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은 ‘필연법칙’의 바퀴가 나를 떠민 것이고, 내가 악을 행하는 것도 ‘필연법칙’의 바퀴가 나를 떠민 것에 불과하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것은 도덕의 기준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로 도덕이란 것이 존재할 수 있는나의 문제가 된다. 오늘날 사상계의 최대 위기가 바로 여기에 있다”<sup>36)</sup>

라고 한탄하였다. 량치차오는 이러한 기계론적 인생관은 인간 자유 의지를 부정하는 하나의 운명론이라고 보았다. 그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도덕적 책임을 부정하여 약육강식의 사회를 조성했다고 보았다.<sup>37)</sup> 사회진화론적 약육강식의 사회 형태에 대하여 그는

“물질만능주의와 강권주의가 갈수록 득세하였다. 사후 천국이 존재하지 않으니 몇십 년의 짧은 인생을 마음껏 즐기 않을 수 없고, 선악에 책임이 없으니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개인적 욕망을 채워도 무방하다. 그러나 소비할 수 있는 물질의 증가 속도가 욕망 팽창 속도를 따라갈 수 없었고, 양자의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방도도 없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의 힘에 의지하여 자유경쟁을 할 수밖에 없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약육강식이다.”<sup>38)</sup>

라고 하였다. 량치차오는 유럽의 과학 성과와 가치를 알고 느꼈기에, 중국이 서구의 과학 정신과 과학 기술을 배워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는 유럽 문명

36) 梁啓超, 위의 책, 1996, pp.10-11.

37) 조봉래, 「1920년대 '科學과 人生觀 論爭'에 관한 小考」, 『한국철학논집』 18, 2006, p.304.

38) 梁啓超, 위의 책, 1996, p.12, 량치차오 저, 이종민 역, 위의 책, 2016, p.32.

은 기초가 탄탄하기 때문에 유럽 과학 수용을 긍정적으로 보았다. 하지만 그는 유럽의 과학 만능을 위주로 하는 사회에서 또 다른 혼란과 도덕적 책임에 관하여 부정적인 부분을 보고, 서양 문물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지는 근대 담론을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의 전통과 서구의 조화를 수용하되 중국인의 손으로 근대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마음만은 완고하였다.

#### 4. 결론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바뀌는 것은 이상할 것이 없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말했듯이 량치차오는 자신의 도덕적 합리주의에 의거한 상상에 충실하면서 시대에 맞는 개혁 담론을 제시하였다.

도덕적 상상이란 도덕적 문제 상황에서 상대방의 처지를 살펴 이해하며 도움이 되는 여러 상황을 상상하고 그 결과를 예측해 볼 수 있는 능력이다. 즉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여 도덕적 행동을 하도록 돕는 것이다. 그리고 공감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 함께 그 아픔을 공유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대안을 찾아보고 결과를 예측하는 것이다. 타인의 마음을 헤아려 함께 행복해지는 것을 상상하는 것이다.

량치차오는 청말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의 느낌을 글로 표현하면서 그때그때 변화를 담론화했다. 그의 「삼십자술(三十自述)」에서 신사로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말해주면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 자신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변법통의(變法通議)」를 통해 제시하였다. 공양학의 춘추삼세설을 기반으로 한 중국의 정치 제도의 변화를 주장하였다. 량치차오는 ‘대동지의(大同之義)’를 강조하여 민권존중주의(民權尊重主義)인 평등정치(平等政治)를 그리는 도덕적 상상을 실천화하려고 하였다.

또한 1차 세계대전 후 유럽 여행을 통해 관찰하면서 느낀 기록인 『구유심영록(歐游心影錄)』에서 량치차오는 낡고 오래된 중국 전통을 비판하고 서양의 근대를 관찰하면서 서구에 깊은 관심을 갖고 새로운 길을 도모하였다. 하지만 그는 무조건 수용인 아닌 유럽의 과학 만능을 위주로 하는 사회 안에서 도덕적 책임

과 혼란에 따른 문제를 보고, 서양의 선택적 수입을 강조하였다.

또 그는 학문을 추구함에 있어서 경세치용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를 역사학에 확대하여 당면한 현실 문제, 구국(救國)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편으로 삼아야 함을 보여주었다. 그러한 자신의 도덕적 상상력으로 자기가 처한 시대의 과거제도·국가의 대외정책·국가의 재정 문제 등에서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였다.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가하는 문제에 직면하여, 그가 착안해 낸 방법이 바로 역사적 사실에서 찾았고 적용하였다. 역사학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기울인 것은 실제로 경세치용(經世致用)하려는 의도에서였다.

량치차오의 도덕적 상상력에 따라 창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주요 내용은 신민에 바탕하고 있는 공덕을 확보하는 것이다. 개인과 단체와의 관계에서 자유와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공덕에서 그 방안을 구상하고자 하였다.

량치차오는 중국 근대 국가라는 그림에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는 도덕의 세계가 펼쳐질 수 있는 도덕 법칙에 따라 중국 감성적 근대성을 그렸다.

## ◆ 참고문헌

### 1. 자료

- 梁啓超, 『飲冰室合集』, 中華書局, 1996.  
 ———, 『清代學術概論』, 上海古籍出版社, 1998.  
 ———, 「新史學」, 『飲冰室文集』九, 中華書局, 1989年 3月.  
 ———, 「論民族競爭之大勢」, 『飲冰室文集』十. 中華書局, 1989年 3月.  
 ———, 「三十自述」, 『飲冰室文集』十一. 中華書局, 1989年 3月.  
 ———, 「研究文化史的幾個重要問題」, 『飲冰室文集』四十, 中華書局, 1989年 3月.

### 2. 단행본

- 猛祥才, 『梁啓超傳』, 北京出版社, 1980.  
 林毅校點, 『梁啓超史學論著三種』, 三聯書店, 1988.  
 마크 존슨 저, 노양진 역, 『도덕적 상상력 - 체험주의 윤리학의 새로운 도전』, 서광사, 2008.  
 마크존슨 지음, 노양진 옮김, 『인간의 도덕- 윤리학과 인지과학』, 서광사, 2014.



- 徐剛 著, 이주노·김은희 역, 『중화유신의 빛 梁啓超』, 이끌리오, 2008.
- 스펜스 저, 정영무 역, 『천안문』, 이산, 2010.
- 요시자와 세이치로 저, 정지호 역, 『내셔널리즘으로 본 중국 애국주의의 형성』, 논형, 2005.
- 이택후 저, 임춘성 역, 『중국근대사상사론』, 한길사, 2010.
- 이혜경, 『천하관과 근대화론: 량치차오를 중심으로』, 문학과지성사, 2002.
- 조경란, 「량치차오의 ‘국민 만들기」, 『현대 중국 사상과 동아시아』, 태학사, 2008.
- 竹內好, 著, 윤여일 역, 『내재하는 아시아』, 휴머니스트, 2011.
- 허도학, 『중국근대화기수 梁啓超』, 임방서원, 2000.
- 양계초 저, 이혜경 역, 『신민설(新民說)』,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 3. 논문

- 汪榮祖, 「梁啓超新史學試論」, 『中國史學史論文選集』, 華世出版社(臺北), 民國 65年 9月初版.
- 神谷正男, 「梁啓超の歴史學」, 『歴史學研究1-5』, 東京, 1942.
- 丘凡眞, 「1920年代初 梁啓超의 科學認識과 東西文化觀 -『歐遊心影錄』을 中心으로-」, 『서울大東洋史學科 論集』 Vol.18 No.-, 1994, pp.49-76.
- 金春男, 「自由主義 思潮의 中國의 收容」, 『동국사학』 30, 1996, pp.513-566.
- 김창규, 「량치차오의 ‘중국적’ 근대기획」, 『中國史研究』 Vol.97No.-, 2015, pp.313-349.
- 都相範, 「梁啓超의 歷史思想에 관한 研究-傳統意識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15, 1987, pp.79-101.
- 都相範, 「梁啓超의 政治思想에 관한 研究-革命黨과의 論爭을 中心으로-」, 『湖西史學』 12, 1984, pp.55-74.
- 백광준, 「20세기 초 중국의 근대지리학 수용 —『新民叢報』를 중심으로」, 『中國現代文學』 Vol.0 No.56, 2011, pp.241-272.
- 백지운, 「반면교사로서의 유럽 - 량치차오(梁啓超)의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에 대한 일고찰」, 『中國現代文學』 Vol.0 No.39, 2006, pp.165-192.
- 이구형, 「감성과 감정의 이해를 통한 감성의 체계적 측정 평가」, 한국감성과학회, 『감성과학』 Vol.1 No.1, 1998, pp.113-122.
- 이연도, 「근대중국의 사회진화론과 양계초」, 한국중국문화학회, 『中國學論叢』 Vol.0 No.65, 2020, pp.287-302.
- 이종민, 「량치차오의 『구유심영록(歐遊心影錄)』과 신문명의 탐색」, 『中國現代文學』 Vol.0 No.76, 2016, pp.79-110.
- 이혜경, 「양계초와 "혁명" 개념의 전변 -「청의보」, 「신민총보」 시기를 전후하여」, 『人文論叢』 Vol.72 No.2, 2015, pp.123-160.

- 曹秉漢, 「梁啓超의 국민국가론과 民權·民族 관념(1896-1902)」, 『서강인문논총』 Vol.22 No.-, 2007, pp.307-373.
- 조봉래, 「1920년대 '科學과 人生觀 論爭'에 관한 小考」, 『한국철학논집』 18, 2006, pp.295-318.
- 차태근, 「20세기 중국문명과 <신민총보(新民叢報)>의 지위」, 『中國學論叢』 Vol.39 No.-, 2013, pp.165-196.
- 천진, 「新聞, 風聞을 넘나드는 동아시아 근대지 — 『新民叢報』(1902-1907) 서적 소개를 통해 본 지식 담론의 재편」, 『中國現代文學』 Vol.0 No.56, 2011, pp.201-240.

논문 접수 일	2022년 08월 11일
심사 완료 일	2022년 08월 18일
게재 확정 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Liang Qichao(梁啓超) Moral Imagination and Modern Discourse

Lee, YoungRan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 Chinese tradition and the West, that is, the cognitive science that reveals the modernity of East Asia and the identity of East Asians, I would like to examine Liang Qichao's discourse on modern reform as a theory of moral imagination. Furtherm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Liang Qichao's discourse on modern reform changed while embracing tradition and the West, further from Liang Qichao's various previous studies. Liang Qichao's change in the imaginary characteristics of reason is analyzed based on human moral reflection, that is, Mark Johnson's moral imagination.

Liang Qichao grew up as a typical gentleman preparing for past exams, and when he studied at Manmokchodang(萬木草堂) in Kang Yuwei, it was the starting point of the burgeoning modernity that combined the Chinese theory of three generations and the Western theory of social evolution. After exile in Japan, he insisted on the harmony of material and spirit based on reflection on Chinese culture to practically realize real problems. Even after a tour of Europe, he showed an attitude of Jingshizhiyong(經世致用) based on his historical experience. In this way, Liang Qichao's reform discourse started from moral rationalism that was based on Chinese tradition and combined with the West.

The modern state that Liang Qichao wants to build is based on the people, and the method of securing the state-centered merit and virtue and the method of obtaining freedom and rights according to the law in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s and groups also stem from moral imagination. In fact, Liang Qichao created a discourse on China's modern reform in accordance with the moral law, which allows a world of morality beyond the human world to unfold while drawing a new image of modern China.

**Keyword** Liang Qichao(梁啓超), Cognitive Science, Modern Reform Discourse, Public Deeds(公德), Moral Imagination, The Three Ages Theory(三世說), Jingshizhiyong(經世致用)



# 『논어』와 『맹자』에 나타난 경영윤리 사상 고찰

남성우\*

## 국문요약

현대사회에서 윤리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영역은 경영윤리 분야일 것이다. 기업은 존립을 위하여 이윤 창출에 목적을 두다 보니 사회적 폐해 등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조직의 사회적 책무와 공헌을 강조하는 경영윤리가 출현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목적과 기업의 이익 활동의 윤리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아직도 확고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양의 사상에 기초한 기업윤리는 동양사상과 관점의 차이로 인해 부지불식간에 중요한 요소들을 간과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인륜의 도를 많이 다룬 유가 사상에서 현대 경영윤리에 대한 시사점과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논어』와 『맹자』 사상에서 경영윤리에 대한 지혜를 찾아보기 위하여 두 문헌에 나타난 경영윤리 사상을 고찰해 보았다. 도출한 내용을 요약하면 이익보다 인의 중시, 국민과 즐거움 공유, 신뢰 기반, 리더의 자기 수양, 교육으로 감화, 정당한 도의 실천이다. 이러한 『논어』와 『맹자』의 경영윤리 사상은 서양의 경영윤리와 차별화되는 교훈과 지혜를 제공해 준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러한 6가지 윤리적 덕목이 동양의 경영윤리 사상에서 갖는 새로운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였다.

**주제어** 경영윤리, 동양철학, 유가 사상, 논어, 맹자

## <목차>

1. 머리말
2. 경영윤리 사상
3. 공자와 맹자의 경영윤리 사상
4. 맺음말

\*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동양철학전공 박사과정

## 1. 머리말

현대에 와서 전반적으로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실천은 줄어들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에서 경영윤리가 매우 중요해졌다. 기업은 국민들의 일자리 제공은 물론 개인의 정체성 확립 및 국가재정에 기여함으로써 국가 경제의 근간을 확립하고, 또한 개인의 삶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기업은 본질적으로 이윤 추구에 목적을 두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사람과 사회에 해악을 끼칠 수 있다. 다시 말해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인간과 사회의 이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사회환경에 해가 되는 부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근래 ‘기업윤리’나 ‘경영윤리’의 이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경영윤리에서는 기업의 궁극적인 목적인 이익 창출을 추구할 때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기업을 합법적으로 경영하여 모든 이해 당사자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경제적·법적 책임은 물론 윤리적·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양과 달리 근대 이전의 동양에서는 기업윤리나 경영윤리에 관해 명시적인 관심을 기울이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사·농·공·상을 천시하는 신분제 때문에 상업이나 기업을 천시하는 문화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경영윤리에 관한 철학적 담론은 활발하게 전개되지 못했다. 물론 명대 중기에 이르러서 서양 문물이 중국에 도입됨에 따라 사·농·공·상의 전통적인 신분적·직업적 위계는 많이 달라졌다. 이후 높은 문화적 소양과 윤리적 품성을 갖춘 상업적 거부들이 등장하여 사회에 큰 공헌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덕본재말(德本財末), 중의경리(重義輕利) 등의 담론들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명대 후기에는 신분제도가 낮은 상인의 자제들도 과거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사조를 고려할 때 동양철학에 담겨 있는 암묵적인 경영윤리 사상은 실제로 기업이나 상업의 경영철학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조선의 거상(巨商)인 임상옥은 ‘상즉인(商卽人)’, 곧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라는 ‘상도(商道)’를 제창하였다. 이것은 기업의 일차적 목적이 이익에 있다기보다 오히려 사람을 위한 경영을 한다

는 인본주의적 경영윤리를 설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동양인의 사고에서 경영윤리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글에서는 동양 윤리의 고전인 『논어』와 『맹자』에 나타난 동양의 경영윤리 사상의 가치와 의의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서양의 문화나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경우 우리 몸에 맞지 않아 뒤늦게 반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양에서 나온 경영윤리도 우리의 사회문화에는 맞지 않을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점은 현행 경영윤리가 법과 제도에 의한 타율적 규제라는 점이다. 이로 인해 기업들은 법적으로 허술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려는 유혹을 느끼기 쉽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동양 윤리의 대표적 사상가인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조명해 보는 것은 실천적인 경영윤리의 정립을 위하여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동양의 경영윤리 사상은 서양의 기업윤리와 비슷한 점도 있지만, 또한 고유한 특색도 있다. 그러므로 동양철학에 담긴 그 내용들을 선별하여 고찰함으로써 현대사회의 기업윤리가 내포한 문제점을 반추하고 그 보완점을 살펴보는 것은 새로운 기업윤리를 탐색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2. 경영윤리 사상

### 1) 경영윤리의 개요

인간의 동기와 행동을 해명하려는 윤리학과 규범론이 있듯이, 영리를 추구하는 조직인 기업에도 기업윤리가 있다. 기업윤리 또는 경영윤리는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면서 준수해야 할 규범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기업윤리란 기업 경영자와 구성원들이 조직 내부에서 지켜야 할 올바른 행동에 대한 기준이다.”<sup>1)</sup>

1) 로버트 하틀리(Robert, Hartley F.), 『윤리경영』, e매니지먼트 역, 21세기북스, 2006, p.17.

기업윤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기업경영이라는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이나 태도의 옳고 그름이나 선악을 구분해 주는 규범적 판단기준, 도덕적 가치와 관련된 기업행동과 의사결정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러한 경영윤리가 등장한 배경에는 기업들도 사회적 해악을 끼치지 않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한다는 인식의 등장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경영윤리 움직임이 확산되며 내부자거래, 주주대표소송, 소액주주운동, 외국 공무원 뇌물방지법, 기업윤리 강령, 기업지배구조, 사외이사제도, 공익 신고(내부자신고), 환경윤리 등 기업윤리 관련 말들이 자주 거론되고 기업과 정부에서 다 같이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sup>3)</sup>

종래의 기업경영이 이윤 추구에 초점을 두어 윤리적 문제를 등한시했다면, 이제는 기업경영의 목적이 이윤 창출과 함께 사회적 책임까지 포함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기업의 책임에는 2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sup>4)</sup> 활동과 다른 하나는 공유 가치 창출<sup>5)</sup>에 대한 것이다.

여기서 차이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면, 공유 가치 창출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면서 기업이 사업의 기회를 재창출하는 공동체 성장을 위한 것이다. 이처럼 기업이 사업의 기회와 지역 사회의 요구가 만나는 곳에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여 경제적·사회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기업은 단순한 이윤 추구를 넘어 인류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야 할 긍정적인 환경과 사회, 사람을 중시하는 가치 창출을 동시에 하면서 경제적 수익을 추구함으로써 기업은 사업적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이와 같이 현대의 기업윤리가 형성되고 발전됨에 따라 현대에는 경영윤리의

2) 조경동 외, 『경영학원론』, 형설출판사, 2011, p.120.

3) 이종영, 『기업윤리』, 탐 북스, 2015, p.20.

4) 박종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조직 내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p.23.

5) 박제인, 「기업 세미나 활동을 통한 CSV(공유가치창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1, p.12.



본질을 사람으로 보고 기업의 이기적인 이윤 추구를 부정하고 사회와 상생하는 경영윤리를 강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달리 사회에서 기업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고, 그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경영윤리는 과도한 이익 추구 절제, 국민과 지역 사회에 대한 사회적 책무, 고객 등 이해관계자를 기만하지 않는 정직한 경영 등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윤 창출을 최대의 목표로 삼는 영리 조직인 기업에서 이익 추구를 절제하는 것은 조직의 목적과 배치되는 면이 있지만, 사회 구성원과의 조화 및 공생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 2) 경영윤리의 문제점

현대사회에서 기업의 사회적 비중이 커지면서 기업의 횡포와 부정한 행위 등이 규제할 필요성이 생겼고, 이러한 배경에서 경영윤리가 등장하였다.

이종영은 “윤리에 관계되는 기업 문제를 사회적 가치관과 법규의 기본취지를 지키면서 기업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되도록 하는 기업의 의사결정의 기준이다.”<sup>6)</sup>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은 대리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 도덕적 가치관과 구성원의 도덕적 우선순위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 경영윤리는 아직 기업인들의 마음속에서 체화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장사는 속이지 않고는 이익을 못 낸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의식에 깔려 있고, 그래서 범망이 허술하다면 언제든지 윤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윤리는 이론적 탐색을 넘어 실천이 중요하다. 특히 법적·규범적 규제를 피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구성원의 자발적 실천이 중요하다.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사회봉사와 경영윤리의 실천은 직원들 간 커뮤니케이션의

6) 이종영, 『기업윤리』, 탐북스, 2015, p.29.

활성화로 이어진다. 대개 팀 단위로 며칠씩 같은 곳에서 봉사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사내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경영윤리를 잘 실천하는 기업들은 구성원들이 직접 사회봉사에 나서게 함으로써 경영윤리가 자신과는 상관없는 하나의 구호가 아니며 구성원 스스로가 실천의 주체임을 인식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경영윤리에 대한 개인의 참여를 통해 조직 내부의 통합을 이루는 효과를 얻기도 한다.<sup>7)</sup>

그런데 서양의 사고방식에 기원을 둔 기업윤리의 사고방식은 근본적인 문제점을 배태하고 있다. 그것은 구성원의 자발적인 실천이 아니라,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업윤리를 따른다는 것이다. 경영윤리에서 이윤 추구하고 관련된 문제의 근원은 이기심(利己心)이다.

18세기 서양의 계몽주의는 인간의 본능인 이윤 추구를 위해 인간에게 경제활동에 대한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여 눈부신 경제적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러나 윤리와 분리된 이기심은 기업경영의 타락을 초래하였다. 인간의 이윤 추구는 법과 제도의 비호 아래 거대한 부를 축적하였지만, 인간의 자율적인 도덕 및 윤리 기준의 체계가 없이 단순히 객관적이고 외재적인 법만으로 기업윤리를 견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사회적 규율에 대한 윤리적 성찰과 실천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경영윤리는 서양에서 들어와 아직 우리 문화 속에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서양에 뿌리는 둔 경영윤리를 맹목적으로 준수할 것이 아니라,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이것을 새롭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특히 인간의 윤리적 문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는 『논어』와 『맹자』 등 유가 철학은 경영윤리에 관한 지혜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경영윤리의 보고(寶庫)라고 할 수 있다. 한 예로, 현행 경영윤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유가 철학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인도하기를 법으로 하고 다스리기를 형벌로써 하면 백성들이 형벌만 면하려 하고 부끄러워함이 없을 것이다. 인도하기를 덕으로써 하고 다스리기를 예(禮)로 하면

7) 윤언철, 『윤리 기업의 5가지 특징』, LG주간경제, 2004, p.19.

백성들이 부끄러워함이 있고 또 선에 이를 것이다.”<sup>8)</sup>

이 말은 사회규범이 법과 형법에만 의존할 경우 범망에서 빠져나갈 생각만 하며, 인륜의 차원에서 위법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현대 경영윤리가 갖는 문제점을 잘 설명하고 있다. 동양사상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덕과 예로 인도하여 궁극적으로 선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다. 군자와 군주의 윤리를 다룬 『논어』와 『맹자』에는 경영윤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암시하는 내용이 적지 않을 것이다.

### 3. 공자와 맹자의 경영윤리 사상

#### 1) 동양의 경영 개념

인간의 기업활동이 시작된 지는 오래 되었지만, 기업경영이 서양에서 실제로 체계화된 것은 불과 100여 년 전이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이 세밀한 무역협정과 다양한 정치 경제적 규약을 만들었고, 이집트에서는 현대의 경영기법과 유사한 이익분배제도 같은 것이 있었으며, 바빌로니아인들은 상업에 관한 각종 법률을 제정하고 생산통제를 위한 기법을 실천하는 등 경영에 관한 역사가 오래 되었다.”<sup>9)</sup> 하지만 본격적인 경영학 역사는 1911년에 출간된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를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경영’의 개념은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독일 경영학의 경우 경영은 경제단위의 개념으로 전체 경제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기술적 통일체, 사회구성체, 경제조직체 등의 정태적·조직적 관점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이에 비하여 미국 경영학에서는 매니지먼트(management)의 개념으로 일반적 의미의 ‘관리과정’과 가까운 의미로 이해되며, 활동내지 행위를 중시하는 관점에서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을 이룩하게끔 하는 과정’으로 본다.”<sup>10)</sup>

8) 『論語』, 「爲政 3」: 子曰, 道之以政, 齊之以刑, 民免而無恥, 道之以德, 齊之以禮, 有恥且格.

9) 이신모, 최항석, 한민호, 『경영학원론』, 두양사, 2012, p.18.

동양에서는 기업경영에 관한 관심이나 연구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경영’ 개념의 역사는 오래되었다. 동양의 경영 개념은 ‘상인(商人)’으로부터 그 원류를 찾을 수 있다. “고대사회에서도 오늘날처럼 재화를 유통하는 사람을 ‘상인’이라고 지칭했다. 상인은 ‘상(商)나라 사람’에서 유래했는데, 기원전 1600년에 탄생한 상나라는 450여 년의 역사를 지닌 왕조였다.”<sup>11)</sup> 그 당시 사람들은 남아도는 “생산물을 소비하기 위해 왕해(王亥)는 물건을 나르는 도구로 우차와 마차를 발명하여 황허 유역까지 가서 남아도는 생산물을 교환하였다. 이 때문에 상나라 사람들은 장사에 능하게 되었다고 한다.”<sup>12)</sup>

이렇게 보면, 동양에서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활동과 그것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상행위를 포함하여 암묵적으로 경영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에서도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상업활동을 더 중시했던 것 같다.

동양에서 ‘경영(經營)’이란 말은 『시경』 ‘대어편’에 나오는 ‘경지 영지(經之營之)’라는 말에서 유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은 기원전 8세기에 주나라 문왕이 제단을 쌓아 건국의 상징으로 삼은 것을 회상한 시에 나온다.

“제단을 쌓는 공사는 ‘경’과 ‘영’의 작업부터 하게 되는데, ‘경’은 공사를 하기 전에 구획을 정하는 것이며, ‘영’은 건물의 크기를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sup>13)</sup> ‘경영’이라는 말은 원나라 때 나온 바둑 고전 『현현기경(玄玄棋經)』의 ‘경영초치지방(經營措置之方)’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sup>14)</sup> 이 문헌에서는 ‘거안사위(居安思危)’, 즉 평안할 때 위기를 생각하라는 위기관리에 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중기 때 송순(宋純)이 ‘면양정잡가’에서 “십년을 경영하여 초려 삼간 지어내니”<sup>15)</sup>라고 읊었다.

고대 중국에서 경제·경영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룬 사람은 사마천이

10) 위의 책, 『경영학원론』, 두양사, 2012, p.13.

11) 권경자, 서진영, 『공자,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자의누리, 2019, p.40.

12) 위의 책, 『공자,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자의누리, 2019, pp.40-41.

13) 이경업, 『어느 셸러리맨의 날말산책』, 화니콜, 2012, p.21.

14) 엄덕보, 안천장, 『현현기경 상』, 흥경영 역, 전원문화사, 2000, p.13.

15) 宋純, 「俛仰亭雜歌」, 經營兮十年 作草堂三間.

다. 기원전 140년경의 인물인 『사마천』은 「사기·화식열전(貨殖列傳)」 서두에서 “창고가 가득해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넉넉해야 명예를 안다.”<sup>16)</sup>라고 하여 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는 “농업으로 부를 얻는 것이 최상책이고, 상업으로 하는 것이 그다음이며, 간악한 수단으로 치부하려는 것이 최하책”<sup>17)</sup>이라는 관자 목민(牧民)의 주장을 소개한다. 사마천은 전반적인 경제구조에 대한 의견도 피력하고 있다.

“그래서 기다린다. 농부가 농사를 지어야 그것을 먹고 산택을 맡은 관리가 그것을 산출하고 공인이 그것을 만들어 내고 상인은 이를 유통한다. ... 농부가 생산하지 않으면 식량이 부족하고, 공인이 물건을 만들지 않으면 물자가 모자라게 되며, 상인이 교역하지 않으면 삼보(三寶: 식량, 자재, 상품)의 공급이 끊어지고 ...”<sup>18)</sup>

이것으로 보면 사마천은 농공상의 각 영역에서 농부, 공인, 상인이 생산과 유통 활동을 하고 관리가 협력하는 산업구조를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가 본 경영의 개념은 이러한 활동을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동양에서는 상품을 만들어 내는 활동과 그것을 판매하거나 교환하는 상행위 등을 암묵적으로 경영으로 간주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중에서도 상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올리는 상업활동을 더 중시했던 것 같다. 사마천은 백규, 범려처럼 뛰어난 상업적 수완을 발휘하여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일화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조선시대 때 제주의 김만덕, 의주의 임상옥 같은 거상의 활동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다. 농민과 공인에 비하여 사회적으로 천대를 받은 상인의 일화가 부각된 것은 이들이 입지전적으로 부를 쌓는 특별한 이력을 가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대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들은 마케팅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여 기업을 성공적으로 이끈 셈이다.

16) 『管子』, 「牧民篇」, 제1편 1장 : 倉庫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

17) 『司馬遷』, 「사기·화식열전」, 권129 : 是故本富爲上, 末富次之, 姦富最下.

18) 『司馬遷』, 「화식열전 서문」 <http://egloos.zum.com/hosunson/v/2065156>

故待農而食之, 虞而出之, 工而成之, 商而通之, 農不出 則乏其食, 工不出 則乏其事, 商不出 則三寶絕.

종합하면, 일반적인 경영의 개념은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집단이나 조직의 여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구성원들의 협력을 확보하여 목적 달성을 지향해 가는 활동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양에서의 전통적인 경영 개념은 뚜렷하지 않지만, 농업이나 공업 및 상업활동을 관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로 상업적인 활동을 통하여 이익을 증대시키는 경제활동을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 2) 동양의 경영윤리

오늘날의 기업 경영자는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유로운 선택의 과정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활동을 수행한다.

“기업의 자유에는 최소한의 강제와 자발적 행동에 당연히 따르는 의무, 즉 책임이 뒤따르게 된다. 하지만 본래 기업윤리는 사회적 책임과는 달리 기독교적 윤리, 또는 청교도적 윤리를 기업의 경영자들이 자발적으로 준수하기를 기대하는 종교적 입장에서 출발했다.”<sup>19)</sup>

그렇다면 동양에서 경영윤리를 구축한다면 어디에서 그 이론적 토대를 찾아야 할까? 오랜 세월 동양인의 사유에 영향을 미쳐온 동양철학에서 윤리적 토대를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유불선(儒佛仙) 중에서 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초점을 둔 유학에서 경영윤리에 관한 교훈과 지혜를 도출하기가 쉬울 것이다. 예컨대, 유교의 핵심 사상인 ‘수기치인(修己治人)’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으로, 국가를 다스리는 위정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인데, 기업의 리더인 경영자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도가(道家)에서도 경영윤리의 토대를 찾을 수 있겠으나, 아무래도 도가는 인간의 차원을 넘어 우주의 형이상학적 이치 등 온 세상을 운행하는 천도(天道)에서 제 역할을 찾는 특징이 있어 윤리적 문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유학의 비조인 공자는 ‘정명(正名)’ 사상에 따라 ‘사람도 사람다워야 한다.’는

19) 조경동 외, 『경영학원론』, 형설출판사, 2011, p.121.

기치를 내걸었고 이 ‘사람답다’는 말을 ‘인(仁)’이라고 하였다. 즉 공자가 정립한 유교의 기본 교리는 주나라의 천하 질서를 회복하고, 자신의 직분에 따라(正名) 사람다운(仁)을 실현함으로써 예(禮)를 회복하여,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조화로운 사회(和而不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사람에게 내재된 ‘도(道)’를 실천하기 위하여 공자는 사회와 국정 경영을 위해 필요한 덕목과 능력을 교육하였다. 이러한 공자의 사상과 실천을 경영윤리에 대입해 본다면, 동양의 경영윤리는 ‘사람다운 경영’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덕목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수기치인’이라는 말에서도 볼 수 있듯이, 동양의 경영윤리는 법적인 규제를 통해서가 아니라, 수양을 통한 자각을 통해서 얻어진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심즉리설(心卽理說)을 세계관으로 삼은 양명학에서도 엿볼 수 있다. 왕수인에 따르면, 누구나 마음 안에 세상의 이치가 있음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려 노력하면 성인과 군자의 도를 이룰 수 있다고 한다. 여기서 ‘깨달음’과 ‘실천’은 방법론적인 개념이지만, 동양적 경영윤리의 확립을 위해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본성에 관한 맹자의 성선설은 경영윤리의 실천 가능성에 대한 근본적 토대를 제공해 준다. 맹자는 인간의 공통적인 경향성은 선을 지향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러한 성선설은 경영윤리에 대한 자발적 실천 가능성을 높여 준다. 물론 인간은 육체를 지닌 존재이기에 욕망에 의한 불선(不善)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선악의 기로에선 악행을 택할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기업의 경영자들이 영리를 극대화하려는 욕망에 의해 사회적으로 비난 받을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하지만 인간은 ‘식색(食色)의 성(性)’만이 있는 동물과는 다른 선한 본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본성은 인의예지(仁義禮智)의 사단지성(四端之性)으로 구체화 된다. 맹자는 차마 못하는 마음으로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惻隱之心), 부끄럽고 미워할 줄 아는 마음(羞惡之心), 양보하는 마음(辭讓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을 주장하였다. 사단지성은 일반인은 물론 기업의 경영자나 정치 지도자 등이 갖추어야 할 덕목으로서, 동양의 경영윤리를 위한 중요한 토대가 된다.

“경영윤리에 반하는 비도덕적 경영으로 이기적·자기중심적이며 자신과 회사의 이익만을 고려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이익과 조직성공을 추구하고, 법은 경영이 원하는 바를 성취하기 위해 극복해야 하는 장애물로 간주하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비정상적인 지름길을 택하는 등의 특징을 열거한다. 리더가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을 가지고 있다면 이와 같은 비도덕적 경영을 지양하는 절제심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sup>20)</sup>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으로 나중에 추가된 ‘신(信)’의 덕목도 경영윤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신뢰할 수 없는 개인이나 조직은 윤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 권경자와 서진영은 『공자, 기업가정신을 말하다』에서 다음과 같이 ‘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공자는 4덕(德)과 7인(仁)을 이야기할 것이다. 덕은 4가지 갖추어야 할 정신이고 인은 7가지 씨앗을 의미한다. 커다란 살구나무가 조그만 씨앗인 행인(杏仁)에 들어 있고, 풍요로운 복숭아가 작은 씨앗인 도인(桃仁)에서 비롯되며, 이를 땅과 물, 햇볕과 바람 네 가지가 키워냄과 마찬가지로, 4덕의 첫째는 무신불립(無信不立), 신뢰가 없으면 설 수 없다는 것으로 직원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마음과 신뢰를 얻는 능력을 말한다.”<sup>21)</sup>

### 3) 공자와 맹자의 경영윤리

경영윤리에 대하여 유가의 거두인 공자와 맹자는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두 성인이 기업윤리를 논하지는 않았지만, 『논어』와 『맹자』에는 경영윤리와 관련이 있는 어록들이 많다. 특히 맹자는 한 국가의 리더인 군주가 갖추고 행해야 할 윤리적 덕목과 행동강령을 많이 다루고 있어 기업의 리더인 경영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내용이 적지 않다. 『맹자』에 나오는 군주를 오늘날의 기업의 리더로 간주한다면 맹자의 어록들은 경영자에게도 통용되는 점이 많을 것이다. 그런 내용들을 추출하여 공자와 맹자가 생각한 경영윤리 사상을 고찰해 본다.

20) 신유근, 『현대의 기업과 사회』, 경문사, 1997, p.64.

21) 위의 책, 『공자,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자의누리, 2019, p.4.



### (1) 이익보다 인의(仁義) 우선

기업의 경영윤리에서 가장 큰 쟁점은 ‘이익’을 어떻게 얻을 것이냐 하는 문제이다. 경영윤리는 기업이 이윤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 것을 금하려는 목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사회적 책무를 다하며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근본 목적이다. 공자와 맹자는 이익 추구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맹자는 양혜왕이 부국강병책을 묻자 다음과 같이 말했다.

“왕이 나라에 이익이 될 일만 찾는다면 대부는 제집만 이롭게 할 방도를 궁리할 것이고, 그 밑의 사람들 역시 그럴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아래 할 것 없이 서로의 이익만을 다투게 됩니다. 그리하게 되면 이익의 추구는 이토록 위험합니다.”<sup>22)</sup>

이 말은 기업의 리더가 자사에 이익이 될 일만 찾는다면 아랫사람들도 그렇게 할 것이고, 그러면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혈안이 되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경영윤리가 왜 필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공자도 이익 추구에 관해 부정적인 관념을 가졌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익만 좇지 말고 욕심을 버리라는 말을 여러 차례 하고 있다. 이익을 좇는 것은 욕심이 발동한 것이며, 욕심이 지나치면 화근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공자와 맹자는 이익보다 인의(仁義)를 중시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인의는 공자의 인(仁)과 맹자의 의(義)가 합해진 개념이다.

“공자의 인사상은 맹자에 이르러 의 개념이 더해진다. 맹자가 살았던 전국시대는 극도의 혼란기였다. 세력 확장을 위한 이익 추구에 몰두하여 쟁탈을 일삼았고, 공벌 위현(攻伐爲賢)으로 시대적 가치가 전도되었으며, 이단이 득세하여 사상적 혼잡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문란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는 조리 있고 절도 있게 혼란을 개혁할 수 있는 강한 사회성을 지닌 의가 강조되었다.”<sup>23)</sup>

---

22) 『孟子』, 「梁惠王章句上 1」: 王曰, 何以利吾國, 大夫曰, 何以利吾家, 士庶人曰, 何以利吾身, 上下交征利, 而國危矣.

23) 김길락, 「孟子思想에 있어 義形成에 관한 研究」, 대한철학회, 『哲學研究』, Vol.16 No. 1973, p.69.

하지만 공자는 이익의 추구를 무조건 부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자는 군자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아홉 가지의 하나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이익을 보게 되면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 보라.”<sup>24)</sup>

이 말에는 정당한 것이라면 적당한 이익 추구는 용인될 수 있음이 내포되어 있다. 맹자도 백성들을 위한 공적인 이익 추구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정전제에 관하여 “백성들이란 안정적인 생업(恒産)이 있으면 안정된 마음(恒心)을 가지게 되고 안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안정된 마음이 없게 된다. 만약 안정된 마음이 없으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사특한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sup>25)</sup>라고 하였다.

이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람다운 행동을 하기가 어렵다는 것으로, 이익 추구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훗날 동양철학에서 의·리(義·利)의 사고방식은 의로움을 우선시하면서도 이익 추구도 긍정하는 조화로우음을 보인다. 고대 중국 사회는 분별과 차별이 존재했고 예의(禮義)에 의해 사회질서가 지속되었다. 여기서 사유 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도덕 기준이 필요하여 그에 따른 의리 관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그 핵심은 이익과 의리의 관계에 대해 의리가 이익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춘추좌전(春秋左傳)』에서는 “의리는 이익의 근본이다.”<sup>26)</sup>라고 하였고, 『국어(國

24) 『論語』, 「季氏 10」: 孔子曰, 見得思義.

25) 『孟子』, 「滕文公上 3」: 民之爲道也, 有恒産者 有恒心, 無恒産者 無恒心, 苟無恒心, 放辟邪侈, 無不爲已.

26) 『春秋在氏傳』, 昭公10年: 義利之本也.

語)』에서는 “의로워야 이익이 생기고 이익이 생겨야 백성이 풍요로워진다”<sup>27)</sup>고 하여 이익의 근본이 의로움에서 나오며 의로운 이익이 백성을 이롭게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처럼 의리와 이익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렇긴 하지만 공자와 맹자는 이익보다 인의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당시 국가의 경영에 관한 담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오늘날 기업조직의 경영에서도 이익에만 매몰되지 말고 인의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국민과 즐거움 공유

공자와 맹자의 사상 중에서 경영윤리의 기초가 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백성과 즐거움을 공유한다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의 사상이다. 이것은 군주가 백성들과 즐거움을 나누며 백성들의 삶을 위한 통치를 한다는 뜻이다. 기업경영에 적용하면 이 사상은 회사 사람들과만 과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과도 나누며 함께 즐기는 것을 의미한다. 여민동락에 관하여 맹자는 제나라 선왕이 현자도 아름다운 별채에서 지내는 즐거움을 누리느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현자도 이러한 즐거움을 누립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윗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러한 즐거움을 얻지 못했다고 윗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잘못이고, 백성들의 윗사람으로서 즐거움을 백성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백성들의 즐거움을 자신의 즐거움으로 여기면 백성들도 임금의 즐거움을 자신들의 즐거움으로 여길 것입니다.”<sup>28)</sup>

이러한 사고는 정치의 목적이 백성을 위해 있음을 의미한다. 리더가 자신만의 영달을 추구하고, 자기 집단의 즐거움만을 위해 활동해서는 안 될 것이다.

27) 『國語』, 「晉語」: 民之有君, 以治義也, 義以生利, 利以豐民.

28) 『孟子』, 「梁惠王下 4」: 王曰, 賢者亦有此樂乎, 孔子對曰, 有. 人不得, 則非其上矣. 不得而非其上者, 非也, 爲民上而不與民同樂者, 亦非也. 樂民之樂者, 民亦樂其樂, 憂民之憂者, 民亦憂其憂.

공자도 맹자처럼 여민동락 사상을 가졌다.

그는“백성이 풍족하면 군주 혼자 궁핍에 빠질 리 없고, 백성이 궁핍하면 군주 혼자 풍족하게 될 리가 없다.”<sup>29)</sup>고 하고, 비슷한 의미로 “천하의 백성이 곤궁해지면 하늘이 내리신 복도 영원히 끊어질 것이다.”<sup>30)</sup>라는 순임금의 말을 소개한다.

이와 같은 사상은 정치의 목적이 백성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있음을 뜻한다. 기업의 목적 역시 국민과 고객의 행복과 복리를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등은 모두 고객의 삶과 활동에 활용되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에 나타난 경영윤리의 이 덕목은 ‘타인의 행복을 배려’하는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복리증진을 꾀하듯이, 타인의 복리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나타낸 것으로, 기업이 사회 구성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해야 함을 뜻한다. 공자는 이에 관한 생각을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중궁(仲弓)이 인을 물으니, 공자 가로되 문(門)을 나서서는 큰 손님을 뵈은 듯이 하고, 백성에게 일을 시킬 때는 큰 제사를 받들 듯이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sup>31)</sup>

이 말에서 ‘자기가 하고 싶지 않는 것을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는 것은 타인의 행복을 배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업으로 말하면 고객이나 사회가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뜻이다. 성교진은 공자의 이 어록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세상살이가 어찌 나 혼자만을 위해서 전개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내가 편

29) 『論語』, 「顔淵 9」: 百姓足, 君孰與不足, 百姓不足, 君孰與足.

30) 『論語』, 「堯曰 1」: 堯曰, 咨爾舜. 天地曆數在爾躬, 允執其中. 四海困窮, 天祿永終.

31) 『論語』, 「顔淵 2」: 仲弓問仁, 子曰, 出門如見大賓, 使民如承大賓, 己所不欲, 勿施於人.

하고 유리한 대로 산다면 인륜 도덕도 없는 무법천지요, 금수의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찌든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헤아려 봐야 한다는 말이다.”<sup>32)</sup>

공자의 어록에 관한 이 설명은 인간의 도리, 나아가 기업의 윤리를 단순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언설이라고 할 수 있다. 세상을 자신의 이익과 편의만을 위해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으며, 인륜 도덕이 무너져 무법천지가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내전이나 시위 등으로 군중이 백화점 등을 습격해 물건을 탈취하고 파괴하는 행태를 보면, 이 표현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닐 것이다. 공자는 개인의 이기심으로 인한 이와 같은 불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입장에서 헤아려보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신의 이익과 함께 타인의 이익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3) 신뢰 기반

동양철학에 나타난 경영윤리 사상에서 가장 기본적인 덕목은 ‘신뢰’이다. 리더나 조직에 대한 신뢰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개인도 신뢰를 받지 못하면 활동하기가 어렵듯이, 기업과 같은 조직도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존립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된 윤리경영 사상은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어록에 잘 나타나 있다.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국가는 존립할 수 없다.”<sup>33)</sup>

이것은 국가나 기업 같은 조직에서 백성들의 신뢰가 없다면 존립이 어려움을 말한 것으로 신뢰가 경영윤리의 토대라는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맹자도 신뢰가 백성들의 마음을 얻고 국가를 유지하는 기본적인 덕목임을 강조하고 있다.

“결왕과 주왕이 천하를 잃은 것은 그 백성을 잃었기 때문이며, 그 백성을 잃은

---

32) 성교진, 『동양철학개론』, 이문출판사, 1997, p.82.

33) 『論語』, 「顏淵 7」: 民無信不立.

것은 그들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이다. 천하를 얻는 데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백성을 얻으면 이에 천하를 얻게 된다. ...”<sup>34)</sup>

신뢰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사실 오늘날 기업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퍼져 있는 사고방식이다.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 배척당하는 기업은 생존 자체를 위협당하기 때문이다. 신뢰는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우 중요한 미덕으로서, 신뢰를 받는 기업은 고객의 사랑의 받으며 번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신뢰는 어떤 의미에서 기업의 생존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신뢰를 얻으려면 무엇보다도 남을 속여서 이익을 본다는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매스컴에는 고객을 기만하는 기업에 관한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이런 행태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고객을 속이는 것이 이익이라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는 타인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고객으로부터의 신뢰를 잃어 기업이 패망하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점에서 ‘무신불립’은 가장 기본적인 경영윤리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서양의 경영윤리에서도 신뢰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리더에 대한 신뢰가 크게 무너져 있는 가운데 깨어있는 리더를 육성하는 것은 자본주의와 리더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사회의 리더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sup>35)</sup>

이 말은 리더가 구성원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며, 이를 위하여 깨어있는 리더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깨어있는 리더는 올바른 방향으로 목적을 실천하고 출선하며, 기업의 목적을 이해관계자와 조직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신뢰받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사람이다.

34) 『孟子』, 「離婁上 9」: 孟子曰, 桀紂之失天下也, 失其民也, 失其民者, 失其心也. 得天下有道, 得其民, 斯得天下也.

35) 존 매키(John Mackey), 라젠드라 시소디어(Rajendra Sisodia), 『돈 착하게 벌 수는 없는가 (Conscious Capitalism)』, 유지연 역, 흐름출판, 2014, p.18.

#### (4) 리더의 자기 수양

일반적으로 경영윤리는 사회적 규제와 법적 제재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타율적으로 윤리적 덕목을 지키려는 성격을 띤다. 그러나 『논어』와 『맹자』에서는 이와는 상당히 다른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국가 지도자나 기업 경영자와 같은 리더가 자기 수양을 하여 덕성을 함양함으로써 자율적으로 윤리를 실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자공이 군자에 관해 묻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인자란 자신이 나서고 싶을 때 남을 내세우며,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싶으면 남을 먼저 달성하게 한 후 자기가 한다.”<sup>36)</sup>

이 말은 자신을 갈고닦아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는 것이 군자의 사명이라는 것이다. 공자는 잘못이 있으면 고치며 자기 수양을 하라고 하였다. 그렇게 해서 군자는 군자다운 모습을 갖추라고 하였다. 공자가 이처럼 군자의 자기 수양을 강조한 이유는 〈논어〉 용야편에 잘 나타나 있다.

“위정자가 예절을 좋아하면 백성은 자연히 그를 존경하게 된다. 위정자가 정의를 좋아하면 백성을 자연히 그를 믿고 따르게 된다. 위정자가 신의를 존중하면 백성도 자연히 진정으로 부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사방의 백성이 자기 자식을 등에 업고 달려올 텐데, 직접 농사를 배울 필요가 있겠느냐.”<sup>37)</sup>

결국 공자가 생각한 이상적인 모델은 수양이 된 리더가 모범을 보임으로써 대중이 부응하며 따라오게 하는 것이다. 맹자 역시 이런 모델을 구상하였다.

맹자는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인의예지로 마음에 뿌리박고 있다.”<sup>38)</sup>고 하며, “자신의 사사로움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따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36) 『論語』, 「雍也 28」: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37) 『論語』, 「子路 4」: 上好禮, 則民莫敢不敬, 上好義, 則民莫敢不服, 上好信, 則民莫敢不用情, 夫如是, 則四方之民, 襁負其子而至矣, 焉用稼.

38) 『孟子』, 「盡心上 21」: 君子所性, 仁義禮智根於心.

게서 좋은 점을 받아들여 선행을 실천하라.<sup>39)</sup>”고 했다.

조직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리더가 원칙이나 규범을 솔선수범하여 지키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이것을 법가(法家)의 사상가인 상앙은 역설적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하기도 하였다.

“법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위에서부터 어기기 때문이다.”<sup>40)</sup>

이처럼 윗사람이 먼저 규범이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체제가 유지되기 어렵고, 백성들의 신뢰를 받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는 구성원의 모범이 되도록 자기 수양을 해야 한다. 사실 유가 철학의 입장에서는 이 논리가 명쾌하다.

“경영의 기본은 경영자의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에서 시작되므로 자기 경영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공자 학문의 궁극적 목적 또한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이란 군자, 즉 인(仁)을 온전히 실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sup>41)</sup>

이러한 자기 수양에서 한 걸음 나아가 맹자는 왕이 어질지 못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내쫓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무도한 왕은 제거해도 되며, 군주의 잘못을 눈감아주는 신하는 도적이라고까지 하였다. 충효를 근간으로 하는 유교 윤리의 입장에서 보면, 맹자의 이러한 관점은 다소 의외로 보일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군주 즉 리더의 중요성을 절실히 통감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맹자에게 겸손과 인으로 다스리지 않는 국가 지도자는 어울리지 않는다. 맹자와

---

39) 『孟子』, 「公孫丑上 8」: 善與人同 舍己從人, 樂取於人以爲善.

40) 『司馬遷』, 「사기」, 상군열전, 권68 : 法之不行, 自上犯也.

41) 박원경, 「공자의 경영철학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p.13.



공자는 모두 인의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맹자는 개념을 더 발전시켜 초기 중국 통치자들을 비판했다. 그들의 이기적인 행동 때문에 그는 훌륭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행동할 것이라고 믿었다.”<sup>42)</sup>

사실 어떤 조직이든 리더가 부덕하고 무도하면 그 조직을 올바르게 이끌어 나가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의 경영윤리 역시 리더인 경영자가 그 윤리적 덕목이 중요함을 깨닫고 몸소 실천해 나갈 때 조직 내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다.

#### (5) 교육으로 감화

공자와 맹자는 리더의 자기 수양을 강조했는데, 윤리적 덕목이 보편화되려면 부하들이나 대중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맹자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선한 본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으나, 그것이 제대로 발현되려면 교육을 통한 도야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 같다. 도야를 하지 않으면 욕심 때문에 인성을 잃게 된다고 본 것이다.

“인간의 본질은 성(性)이고 그 내용은 마음 깊숙한 곳에 존재하는 인의예지(仁義禮智)이나,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잘 생각해보지 않고 욕심에 가려짐으로써 인간의 본질을 상실하게 되고 참다운 삶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sup>43)</sup>

그는 교육을 군자의 삼락 중 하나라고 하며, 군자가 가르치는 다섯 가지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군자가 사람을 가르치는 방식은 다섯 가지이다. 때맞춰 내리는 단비와 같이 사람을 교화시키는 방식, 덕을 이루어 주는 방식, 재능을 완전히 실현하도록 해주는 방식, 묻는 말에 대답해 주는 방식, 직접 가르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감화를 받게

---

42) Charles A. Rarick, Mencius on Management: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 Writings of China's Second Sage, *Journal of Comparative International Management* 2008, Vol. 11, No.2, pp.55-61.

43) 장미경, 「맹자의 人性論·修養論을 적용한 기업경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p.10.

하는 방식이 있다.”<sup>44)</sup>

이 언설에서 맹자는 교화와 감화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덕성과 품격을 갖춘 지도자가 그것을 통하여 부하나 국민을 감화시키는 이상적인 모습을 그렸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는 “후천적인 사욕(私欲)이나 물욕(物欲)으로 인해 상실했던 본심(本心)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학문의 존재 이유라고 보았다. 또한 그는 이러한 학문을 통해 최종적으로 성취해야 할 이상 인격으로 대인(大人)을 제시한다.”<sup>45)</sup>

사원들에 대한 교육은 경영윤리가 아니더라도 필요한 일이다.

“평생 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복지적 차원에서 교육적 서비스를 사원들에게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함께 배움의 즐거움을 제공해야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시설을 제공하고 전문성을 가진 교원과 평생 교육에 대한 사원들의 관심을 기초로 체계적이며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경제적 풍요를 창출하는 터전으로서의 역할 뿐 아니라, 사원들의 평생교육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아실현의 장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sup>46)</sup>

현대사회에서 사원들은 기존의 교육뿐만 아니라 신지식과 새로운 기능을 끊임없이 연마하여야 하는 평생 교육을 받는 환경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공자 역시 가르침과 배움을 게을리 하지 말고 부지런히 지식을 탐구하라고 한다. 공자가 가르침과 배움을 강조한 어록은 상당히 많다. 공자는 지식 탐구에

---

44) 『孟子』, 「盡心上 40」: 孟子曰, “君子之所以教者伍, 有如時雨化之者, 有成德者, 有達財者, 有答問者, 有私淑艾者, 此伍者, 君子之所以教也.”

45) 박길수, 「도덕 심리학과 도덕 철학의 이중적 변주」, 『철학연구』 제48집, 고려대학교 철학연구소, 2013, p.38.

46) 홍완표, 「孟子 思想을 통한 企業經營哲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pp.125-126.

대한 자신의 경험도 언급하였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지식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옛 문화를 좋아하여 부지런히 지식을 탐구한 결과이다.”<sup>47)</sup>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윤리적 덕목을 지칭한 것은 아니겠지만, 공자는 인의 예지를 비롯한 윤리적인 덕목도 역시 부지런히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서원 교육의 목표는 인성교육과 지식교육을 겸함으로써 수기치인(修己治人)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한마디로 덕을 갖춘 관리를 양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관리는 기본적으로 과거시험을 통과해야 하므로, 인격보다는 지식 추구에 치중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식교육을 인성교육보다 중시하고 있다. 오히려 도덕 인격 수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존덕성(尊德性)과 도문학(道問學)을 균형 있게 닦으려 했고, 심지어 육십나는 대로 하더라도 예법에 어긋나지 않을 만큼 수양하려 하였다.”<sup>48)</sup>

리더가 자기 수련을 하여 덕성을 쌓고 이를 몸소 보여주며 대중을 교육한다면 경영윤리의 달성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이다.

#### (6) 정당한 도(道)의 실천

오늘날의 기업은 무엇보다도 경영윤리를 기업문화의 가치로 정착시키려고 한다. 기업이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조직인 만큼 인간관계와 그 문화를 조직화한 사회체이다. 이러한 사회조직체를 이끌어 나갈에 있어 경영자는 어떤 철학을 가져야 할까? 여러 덕목이 있겠지만, 경영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禮)’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자신(私慾)을 극복하고 예법(天理)을 회복하는 것(克

47) 『論語』, 「述而 19」: 子曰, 我非生而知之者, 好古敏以求之者也.

48) 남상호, 「서원의 인성교육」, 『인문과학연구』 49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p.380.

己復禮爲仁)’으로 본 것이다. 공자는 아들 백어(伯魚)에게 “예법을 배우지 않으면 설 수가 없다.”고 하면서, 인격적인 실천의 자율적 독립성을 예에서 확인하고 있다. 공자는 예의 실천에서 ‘정당한 방법’을 써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부귀(富貴)는 사람의 얻고자 하는 것들이다. 하지만 그 정당한 방법으로 얻지 못하거나 취하지 말라. ... 군자가 인을 버린다면 어찌 이름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고 마시는 사이에도 인을 어기지 않는다.”<sup>49)</sup>

공자는 부귀가 인간이 얻고자 하는 본능이지만, 정당한 도(道), 즉 정당한 방법으로 그것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정당한 도란 도리에 어긋나지 않은 방법을 말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도(正道)에서 벗어난 불법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자는 『논어』에서 ‘정도를 지키라’는 말을 수차례 하고 있다.

한편 맹자는 ‘정도’라는 말 대신 ‘법도(法道)’라는 말을 사용하였다.

“맹자는 말몰이꾼이 말 모는 것을 법도대로 했더니 종일토록 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고, 법도에 어긋나게 했더니 하루아침 사이에 새를 열 마리나 잡은 일화를 소개하며, 지조를 굽혀 법도에 어긋난 일을 할 수 없다고 했다.”<sup>50)</sup> 또한 “군자는 법도에 따라서 행하여 천명을 기다릴 뿐이다.”<sup>51)</sup>는 등 법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함을 설교하였다.

맹자는 법도에 따른다는 것의 의미를 알기 쉽게 표현하였다.

“해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고 욕망해서는 안 될 것을 욕망하지 않는 것. 오직 이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sup>52)</sup>

49) 성고진, 『동양철학개론』, 이문출판사, 1997, p.81.

50) 『孟子』, 「滕文公下 1」: 趙簡子使王良, 與嬖奚乘, 終日而不獲一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賤工也. 或以告王良, 良曰, 請復之, 彊而後可, 一朝而獲十禽, 嬖奚反命曰, 天下之良工也.

51) 『孟子』, 「盡心下 33」: 君子行法, 以俟命而已矣.

52) 『孟子』, 「盡心上 17」: 無爲其所不爲, 無欲其所不欲, 如此而已矣.

해서는 안 될 일, 바라서는 안 될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도를 지키는 단 순하면서도 명확한 언명이다. 이것은 공자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을 수 없거든 취하지 말라고 한 것과 같은 말이다. 기업경영에서 정당한 도를 실천하는 것은 경영윤리를 실천하는 중요한 징표가 된다. 앞에서 인의, 즐거움 공유, 신뢰, 자기 수양, 교육에 관한 공자와 맹자의 사상을 밝혔지만, 마지막 요인인 ‘정당한 도의 실천’을 소홀히 한다면 그런 요소들은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기업경영에서 정도 또는 법도의 실천을 행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 4. 맺음말

기업은 오늘날 사회를 이끌어가는 가장 중요한 인간 조직이자 동력이다. 그러나 기업이 지나치게 이윤 창출에 골몰하다 보니 그 결과로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고, 그 대안으로서 현대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무와 공헌을 강조하는 경영윤리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윤리의 형성 역사는 매우 짧고 사회적 인식도 확산되지 않아서 아직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글에서는 『논어』와 『맹자』의 사상에 나타난 경영 및 경영윤리 사상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서 현대의 경영윤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이익보다 인의 중시, 국민과 즐거움 공유, 신뢰 기반, 리더의 자기 수양, 교육을 통한 감화, 정당한 도의 실천 등의 사상이 현대의 기업윤리에서 가질 수 있는 새로운 가치와 의의에 대해 서술하였다.

이러한 동양의 경영윤리 사상들은 서양의 사상과는 차별화된 색다른 교훈과 지혜를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해 기업이 이윤을 추구할 때 타인의 공익과 행복을 동시에 배려하고, 그 방법은 신뢰에 근거하여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며, 그 이윤 추구의 성격은 규범성의 준수 아래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윤 추구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법적인 요소와 행위는 사후적인 법적 처벌을 통해 제재하기보다는 오히려 수오지심에 근거한 사전 예방 교육과 훈도로써 정상적인 경영 및 경영윤리로 복귀시킬 것을 강조한다. 경

영윤리를 타율적인 규제가 아닌, 리더의 자기 수양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자율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는 것도 공맹 사상의 특징이다.

이러한 동양사상에 내재한 경영 및 경영윤리의 다양한 요소와 그에 따른 사상들은 특히 오늘날 서구식의 기업들이 초기의 한국적인 토착 과정을 거쳐서 점차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규모나 성격에 있어서 새로운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동시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점차 성장하는 시대적 조건을 감안 할 때 새로운 경영윤리와 기업문화의 정립에 매우 긴요한 것으로 보인다.

### ◆ 참고문헌

#### 1. 자료

『管子』, 『國語』, 『論語』, 『孟子』, 『司馬遷』, 『春秋在氏傳』  
 윤언철, 『윤리 기업의 5가지 특징』, LG주간경제, 2004.

#### 2. 단행본

권경자·서진영, 『공자, 기업가정신을 말하다』, 자의누리, 2019.  
 로버트 하틀리(Robert, Hartley F.), 『윤리경영』, e매니지먼트 역, 21세기북스, 2006.  
 성교진, 『동양철학개론』, 이문출판사, 1997.  
 신유근, 『현대의 기업과 사회』, 경문사, 1997.  
 엄덕보·안천장, 『현현기경 상』, 홍경영 역, 전원문화사, 2000.  
 이경업, 『어느 샐러리맨의 날말산책』, 화니콤, 2012.  
 이신모·최항석·한민호, 『경영학원론』, 두양사, 2012.  
 이종영, 『기업윤리』, 탑 북스, 2015.  
 조경동 외, 『경영학원론』, 형설출판사, 2011.  
 존 매키(John Mackey)·라젠드라 시소디아(Rajendra Sisodia), 『돈 착하게 벌 수는 없  
 는가 (Conscious Capitalism)』, 유지연 역, 흐름출판, 2014.

#### 3. 논문

김길락, 「孟子思想에 있어 義形成에 관한 研究」, 『哲學研究』 Vol.16, 대한철학회, 1973, pp.55-69.  
 남상호, 「서원의 인성교육」, 『인문과학연구』 49집,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6, pp.377-406.

- 박길수, 「도덕 심리학과 도덕 철학의 이중적 변주」, 『철학연구』 제48집, 고려대학교 철학 연구소, 2013, pp.35-90.
- 박원경, 「공자의 경영철학에 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박제인, 「기업 세미나 활동을 통한 CSV(공유가치창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21.
- 박종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이 조직 내부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홍익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장미경, 「맹자의 人性論·修養論을 적용한 기업경영」,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홍완표, 「孟子 思想을 통한 企業經營哲學 研究」,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Charles A. Rarick, Mencius on Management: Managerial Implications of the Writings of China's Second Sage, *Journal of Comparative International Management*, 2008, Vol. 11, No.2, pp.55-61.

#### 4. 인터넷 자료

『司馬遷』 「화식열전 서문」 <http://egloos.zum.com/hosunson/v/2065156>

논문접수일	2022년 08월 11일
심사완료일	2022년 08월 28일
게재확정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

A Study on Management Ethical Thoughts in  
『The Analects』 and 『Menci』

Nam, Seungwoo

In modern society, the area where ethical issues are being raised most seriously is probably the area of management ethics. As companies aim to create profits for their existence, they have caused many side effects, such as social harm. As an alternative to solving these problems, management ethics that emphasizes social responsibility and contribution of the organization has emerged. Nevertheless, the social consensus on the purpose of the company and the ethics of the company's profit activities is still not firmly established. In addition, business ethics based on Western ideology may unwittingly overlook important elements due to differences in perspective from Eastern ideology.

In this thesis, in order to find the wisdom on management ethics in the thoughts of 『The Analects』 and 『Menci』, the ideas of management ethics appearing in the two literatures were examined. This is because it is thought that implications and insights on modern management ethics can be obtained from the Confucian ideology, which deals with the Way of Humanity. To summarize the main contents, it is the importance of humanity rather than profit, the sharing of joy with the people, the foundation of trust, the self-discipline of the leader, the influence through education, and the just practice of the Tao. These management ethics ideology in 『The Analects』 and 『Menci』 provide lessons and wisdom that differentiate them from Western management ethics.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new values and significance of these six ethical virtues are considered in Eastern management ethics.

**Keyword** Management ethics, Eastern philosophy, Confucianism, Analects, Mencius



## 牧隱李穡의君子意識小考

李學堂\*

### 국문요약

목은의 군자의식은 천 오백년 이래 신라와 고려의 ‘군자지국(君子之國)’, ‘예의지방(禮儀之邦)’의 미풍양속과 가정(稼亭) 이곡과 익재(益齋) 이재현의 가르침을 계승한 것이다. 그리고 아래로는 조선조 양촌 권근, 퇴계 이황, 연암 박지원 등 각 시대 학자들의 사군자 풍상(風尚)을 열어 주었다. 그의 주요 공헌은 학문적으로 인격 형성에 있어서 군자 사상의 특수 가치를 천명하고, 교육과 사회 실천으로 군자 정신을 고양하며, 천오백 년 이래의 군자 풍상을 인식 깊이 새기도록 하여 오래도록 전승하게 하는 데서 찾아볼 수 있다.

목은은 개인 취향, 학문 성향, 도덕 함양 등을 통해 군자유(君子儒)로서 심리적 열락과 덕성적 행복감을 드러내 주었다. 그는 ‘성의를 다함(存其誠)’과 ‘주일수경(主一守敬)’의 공부로써 자신의 군자 품덕을 함양하였다. 그리고 ‘예악시서에서 군자가 탄생한다(禮樂詩書出君子)’는 신념으로 제자들을 교육하였으며, ‘경세안민에 온 힘을 다함(濟世經邦當盡己)’을 통해 겸재천하(兼濟天下)정신을 보여주었다. 그는 학이치용(學以致用), 지행상제(知行相濟)의 관점을 받들고, 유학 교육과 사회 관심 면에 있는 힘을 다하여 여말 선조 유림의 지도자로서 일대 문형의 독특한 역할을 발휘하였다.

목은의 군자의식은 취향의 뚜렷함, 솔선수범, 지행상제, 승상접하, 개방포용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그는 교화를 통해 ‘사람이면 모두 군자가 될 수 있다(人人皆可爲君子)’는 것을 굳게 믿었다. 목은의 이러한 군자 형상과 군자의식, 군자정신을 탐구하는 것은 학술적 가치를 클 뿐만 아니라, 현대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도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목은 이색, 군자 의식, 덕성 행복, 군자 교육, 사회 실천

\* 山东大学东北亚学院 韩国语系 教授

## 〈目録〉

1. 绪论
2. 牧隐君子意识的渊源
3. 牧隐君子意识的内容
3. 牧隐君子意识的特征 (代结论)

## 1. 绪论

牧隐李穡(1328~1396)是高丽后期巨儒稼亭李谷之子、大学者益斋李齐贤弟子,丽末鲜初著名儒家、教育家、诗人。早年留学元朝,深厚程朱理学影响,1354年在元国子监进士及第,1356年归国,受王命重建成均馆,传播性理之学,培养新兴士大夫,成为一代儒宗。

近年来,中韩学界从哲学、文学角度对牧隐儒学和文学思想成就展开了深入研究,取得了一定成果。陈来从“天则理”说、“明德明命说”、“浩然之气说”、“气之理乱说”、“性情功夫论”、“理寓于象说”等六个侧面阐述牧隐李穡的理学思想,指出其哲学思想的基本倾向是:“重气而不轻理,重心而不忽性,重物而不忘道”。<sup>1)</sup>他认为牧隐思想“作为韩国早期朱子学的一个形态,确有其值得重视的意义。”李苏平认为牧隐作为思想家,“他使高丽社会由以佛学为中心转向了以儒学为中心,使高丽学风由以辞章之学为主,转向以性理之学为主。”关于牧隐儒学思想的来源,她认为主要有三个方面:“一是中国元代理学家许衡关于‘气’的思想;二是其师高丽大学者李齐贤的重修养、重实践思想;三是其父高丽巨儒李谷的儒释道三教融合思想。”<sup>2)</sup>除以上两例代表性论文之外,中国学界在牧隐哲学<sup>3)</sup>和牧隐文学<sup>4)</sup>方面的研究也取得了一些成果。

1) 陈来,「李牧隐理学思想简论」,『云南大学学报』(社会科学版)第4期,2006, pp.11-16.

2) 李苏平,「论牧隐李穡的儒学思想」,『韩国研究论丛』第1期,2012, pp.400-430.

3) 徐付,「高丽末年儒家李穡及其〈牧隐稿〉研究」,内蒙古大学硕士论文,2010;许丽娜,「牧隐李穡哲学思想研究」,延边大学硕士论文,2015.

4) 宋政宪,「陶渊明与李穡诗之比较研究」,台湾师范大学国文研究所博士论文,1985;张

韩国学界对牧隐李穡的研究较为深入，单行本有『李穡的诗文学研究』<sup>5)</sup>、『牧隐李穡的生平与思想』<sup>6)</sup>、『牧隐李穡的学问和学脉』<sup>7)</sup>和『丽末鲜初汉文学的再照明』<sup>8)</sup>等；此外，与牧隐政治思想、文学相关的一般论文<sup>9)</sup>以及硕博士论文<sup>10)</sup>也不断出现。

从以上先行研究来看，主要集中于牧隐生平、儒学思想和学问倾向、诗艺术等总体论方面，具体而微的细部研究尚显欠缺，需要进一步深入探讨。

作为精通汉诗艺术的诗人，『牧隐诗稿』收录了其平生创作的多达4386篇、6031首汉诗，包括绝句、律诗、排律、古诗、乐府诗等各种体裁，显示了高丽诗人深厚的儒学思想底蕴和高超的汉诗艺术水准。<sup>11)</sup>在牧隐创作的题材

- 
- 捷, 『牧隐李穡的散文文学研究』, 南京师范大学硕士论文, 2011; 王方, 「高丽诗人李穡汉诗中的儒家风范研究」, 中央民族大学硕士论文, 2012; 汤洪, 「李穡〈辞辨〉研究」, 『内江师范学院学报』 第1期, 2012, pp.81-84; 安玉琳, 「牧隐李穡与中国文学之关联研究——『诗经』、“屈骚”和陶渊明接受为主」, 延边大学硕士论文, 2018; 仓伟, 「高丽文人——牧隐李穡汉诗中的中国元素」, 『青年文学家』 第20期, 2019, pp.120-121.
- 5) 여운필, 『이색의 시문학 연구』, 태학사, 1995.
  - 6) 이우성 외, 『목은 이색의 생애와 사상』 (공저), 일조각, 1996. 收条的主要论文有: 금장태, 「목은 이색의 유학사상」; 임영택, 「고려말 문인지식층의 동인의식과 문명의식—목은문학의 논리와 성격에 대한 서설」; 윤사순, 「목은 이색의 사상사적 위상」; 송재소, 「우왕대의 목은시」; 김시업, 「목은의 군자의식과 민생·풍속시」等.
  - 7) 신천식, 『목은 이색의 학문과 학맥』, 일조각, 1998.
  - 8) 이병혁 외, 『여말선초 한문학의 재조명』 (공저), 태학사, 2003. 相关论文有: 이동환, 「목은에게서의 도학사상의 문학적 천발」; 박성규, 「목은 이색의 풍속시 연구」 등.
  - 9) 손낙범, 「목은연구」, 서경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1975, pp.5-41; 김주순, 「목은 이색의 한시에 나타난 도연명의 은일관」, 『한국시가문화연구』 제25권, 한국고시가문화회, 2010, pp.109-135; 도현철, 「목은 이색의 정치사상 연구」, 『한국사상사학』 제3권, 한국사상사학회, 1990, pp.33-67 等.
  - 10) 원주용, 「목은 이색 산문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논문, 2005; 조해과, 「목은 이색 시문학의 도연명 수용 연구」, 선문대학교 석사논문, 2008; 유지봉, 「이색과 두보의 시문학 비교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논문, 2014等.
  - 11) 김시업, 「목은의 군자의식과 민생풍속시」, 『목은 이색의 생애와 사상』 (공저), 일조각, 1996, pp.359-384. 该论文的逻辑结构是通过解释李穡的君子意识和诗意识, 进而加深对李穡忧国爱民的汉诗思想及现实主义诗观的理解. 该论文对阐明和赋予牧隐在高丽后期士大夫文学史上的地位具有重要意义.

多样的汉诗之中，以君子为主题，吟咏君子心志、德行和品格的汉诗比比可见。但中韩学界至今为止，探讨牧隐君子思想意识的专门研究凤毛麟角<sup>12)</sup>，不能不说是一大缺憾。목은 연구

本论文拟选取牧隐君子题材的系列汉诗为基本文本，探讨牧隐君子思想的历史和学理渊源、主要内容及其特征，并初步讨论其君子意识对培养君子人格和解决现代社会的现实问题方面的价值和意义。

## 2. 牧隐君子意识的渊源

“君子”一词最早泛见于诸多先秦典籍之中，其义原指“君王、家君之子”，即地位崇高之人，后被赋予道德义，被引申到统称所有道德、学问修养极高之人。如〈周易·乾〉：“九三，君子终日乾乾，夕惕若厉，无咎”；〈诗经·周南·关雎〉：“窈窕淑女，君子好逑”；〈尚书·虞书·大禹谟〉：“君子在野，小人在位”等等。今义泛指有学问、有修养之人。

在韩国典籍之中，“君子”一词最早见于新罗崔致远（857~?）的『桂苑笔耕集』“唯托大王之风，早归君子之国，俾传帝命”<sup>13)</sup>和『孤云集』“以东方君子之

12) 除上注金时邨论文之外，关于牧隐君子诗和君子论方面可以参考的论文还有：곽신환, 「목은 이색의 시중 군자론」,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0집, 한국유교학회, 2007, pp.5-34. 该论文认为李穡接受了周敦颐、程颐、许衡的影响较大，而对朱熹的思想接受得比较消极，而其君子之道展现了『中庸』和『周易』所教导的处世之道即“时中君子论”。该论文指出李穡创造性地定义“时中”为根据实际情况的变化采取实事求是的“不偏不倚”之道，这也可以解释李穡身处乱世之际时坚守君子志操的应对策略，即传统用语所说的“中和”、“权道”逻辑。这种观点对理解李穡的君子意识的形成过程和出处观极有助益。但需要注意的是，牧隐以“从道”和“趋时”的不同选择区分君子、小人，可见，牧隐的“时中”论固守“从道”，警戒“趋时”，强调坚守君子的“中庸”之道。对此，笔者在后文中还会论及；임종욱, 「목은 이색의 군자시 연구」, 『불교어문논집』 제3집, 한국 불교어문학회, 1998, pp.145-166. 该论文主要探讨了作为仁者牧隐李穡以君子诗应对社会问题所展现的文学观、价值观及其所具有的文学史价值，旨在揭示牧隐君子诗的文学成就及其历史性质，尤其在高丽后期性理学尚未本土化的时代背景下，为了塑造和展示典型的儒家人物像，李穡君子诗创作的必然性及其价值和意义。

13) 崔致远, 〈祭嶠山神文〉, 『桂苑笔耕集』卷之二十, 『韩国文集丛刊』第一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이하는 김수만 표기하고, 출판사와 연도를 생략함)p.124.

国，而尽入于西天之城耶”<sup>14)</sup>之句，都是与“之国”连用。对于“君子之国”的称谓，朝鲜中期大儒退溪李滉曾有过以下表述：

新罗统三为一，高丽五百余年，世道向隆，文风渐开。士多游学中原，经籍兴行，易乱为治，慕华变夷，诗书之泽，礼义之风，箕畴遗俗，犹可渐复，故吾东见称为文献之邦、君子之国，有由然矣。然二代之儒，其归重终在于言语文章之间。逮于丽末，程朱之书，稍稍东来，故如禹倬、郑梦周之徒，得以参究性理之说。至于国朝，获蒙皇朝颁赐『四书五经大全』、『性理大全』等书。国朝设科取士，又以通四书三经者，得与其选。由是，士之诵习，无非孔孟程朱之言。<sup>15)</sup>

从退溪对新罗、高丽时期韩国被称为“文献之邦、君子之国”的历史渊源及其人文特征的记述可知，直到高丽后期，“君子之国”更多是指文风和礼俗，也只是停留于“言语文章之间”，而崔致远文中的“君子之国”用语内涵也基本符合退溪的定义。正如退溪所述，真正从学理和儒学实践意义上深入把握“君子”概念并作为儒家人格修养目标的时期是丽末鲜初，也就是易东先生禹倬（1262~1342）和圃隐郑梦周（1337~1392）等人活跃的时期，其中的代表人物当首推牧隐李穰。

可见，牧隐的君子意识，首先来自对于新罗、高丽“文献之邦、君子之国”国风民俗、礼义制度潜移默化的影响，对形成牧隐对君子意识的自觉起到了极大作用。

其次，父师的影响对形成牧隐“君子”意识也起到了重要作用。

高丽后期大儒益斋李齐贤（1288~1367）作为牧隐父子共同之师，有着显著的君子意识，如曰“上有好者下即效，君子尽孝民兴孝”<sup>16)</sup>，“士君子葬其亲，所不可后者也”<sup>17)</sup>，认为君子是百姓实践孝道效仿的模范；“君子求福不

14) 崔致远, 〈智和尚碑铭并序〉, 『孤云先生文集』卷之三, 『韩国文集丛刊』第一辑, p.186.

15) 李滉, 〈回示诏使书〉, 『退溪先生续集』卷之八, 『韩国文集丛刊』第31辑, p.207.

16) 李齐贤, 〈十一月十五日〉, 『益斋乱稿』卷第二, 『韩国文集丛刊』第2辑, p.515.

17) 李齐贤, 〈赠谥文烈公李公墓志铭〉, 『益斋乱稿』卷第七, 『韩国文集丛刊』第2辑, p.569.

回，敬以直内者，亦尝闻其说耶”<sup>18)</sup>，以〈诗经·大雅·旱麓〉的“岂弟君子，求福不回”和〈易传·文言·坤文言〉的“君子敬以直内，义以方外，敬义立而德不孤”儒家思想确立君子修养学说的内涵。而“不伐其劳，归功于众，是则大人君子之用心也”<sup>19)</sup>，赞美君子不憚劳而归功于众的高尚品德。可见益斋的君子思想源于『诗经』、『易传』等经书，认为君子作为百姓典范对社会风尚的引领作用巨大，必须在品德修养上格外用心。

稼亭李穀 (1298~1351) 是牧隐之父，也是著名儒学家，曰“有其德而不自居，惟君子为然”<sup>20)</sup>，“观过知仁，居室接物，一团和气，可谓大雅君子矣”<sup>21)</sup>，对于君子高尚德行的理念显然是继承了益斋的思想。但稼亭的君子观更加注重君主的垂范导向作用，如曰“易曰：君子多识前言往行以畜其德。盖事必师古，帝王之所尚也”<sup>22)</sup>，“君子小人迭为消长，审之在人主，此治乱之机也”<sup>23)</sup>，认为帝王君主的君子观关乎社会的治乱，不可轻忽。稼亭对君子的社会作用也有深刻的认识，如曰“致君泽民兮，君子所期”<sup>24)</sup>，“一家仁，一国兴仁，君子尽己而已”<sup>25)</sup>，认为君子忠君爱民是关乎国家兴亡的关键，应该尽己所能发挥社会作用。

益斋和稼亭的君子理念与家国天下意识、政治和社会责任紧密联系，显然对牧隐的君子观产生了直接影响，使牧隐更加清晰地意识到君子修养和君子教育的重要性，从而成为其终生不渝的追求和实践目标。<sup>26)</sup>

18) 李齐贤，〈定王〉，『益斋乱稿』卷第九下，『韩国文集丛刊』第2辑，p.591.

19) 李齐贤，〈赠谥文烈公李公墓志铭〉，『益斋乱稿』卷第七，『韩国文集丛刊』第2辑，p.569.

20) 李谷，〈春轩记〉，『稼亭先生文集』卷之二，『韩国文集丛刊』第3辑，p.113.

21) 李谷，〈顺天君蔡公墓志铭〉，『稼亭先生文集』卷之十一，『韩国文集丛刊』第3辑，p.162.

22) 李谷，〈[皇帝霸王之道] 廷试策〉，『稼亭先生文集』卷之十三，『韩国文集丛刊』第3辑，p.179.

23) 李谷，〈拟汉杨震二子为郎诏〉，『稼亭先生文集』卷之十三，『韩国文集丛刊』第3辑，p.174.

24) 李谷，〈吊党锢文并序〉，『稼亭先生文集』卷之一，『韩国文集丛刊』第3辑，p.103.

25) 李谷，〈送郑参军序〉，『稼亭先生文集』卷之八，『韩国文集丛刊』第3辑，p.152.

26) 关于牧隐与稼亭和益斋之间君子意识的继承关系，以下文字记叙可以佐证。

再次，追求“圣人之道”的治学目的和儒家的修养智慧是牧隐最终形成“君子”意识和人生价值观的内在原因。正如绪论中所引陈来所阐明的那样，牧隐哲学思想的倾向之一是“重物而不忘道。”

夫理无形也，寓于物；物之象也，理之著也。是故龙图龟书，圣人之所则；而蕃草之生，所以尽阴阳奇耦之变，而为万世开物成务之宗。则虽细物，何可少哉。(27)

道在天地间，贯幽明，包大小，无物不有，无时不然，其体用固粲然也。而人之行之，有传与否焉，非独吾儒者之事也。(28)

牧隐继承程颐易传序“至著者象也，至微者理也”思想，认为理寓于物象，故重物。而道则流行于天地之间，无物不有，故首先作为儒者之事，当体行道传道。

『诗』之所谓君子阳阳，盖隐于小官者也。……阳，君子也；阴，小人也。『易』六十四卦，无非扶阳而抑阴者也，所以长君子之道也。圣人垂世大训如此，则其所以

其一：“稼亭遗体独吾存，天赐三男又毕婚。岂有文章传再世，只将清白遗诸孙。（李穉，〈有感〉，《牧隐诗稿》卷之三十三，《韩国文集丛刊》第4辑，p.476）这里牧隐所谓“只将清白遗诸孙”即将稼亭以来的君子家风代代相传意识的体现。

其二：“吾东方古称诗书之国，以文章鸣世者，代不乏人。……诗道之中兴也，益斋李文忠公复起而振之，稼亭李文孝公继之。先生，稼亭之子，益老之门弟，其文章有家法渊源之正。”（李穉，〈牧隐诗精选序达城君徐居正〉，《牧隐集》附录，《韩国文集丛刊》第5辑，p.178）“诗书”、“文章”均为君子人格修养的必修德目，四佳徐居正此处所谓牧隐继承了益斋、稼亭的门风、家法，不惟指其诗赋文章，亦指其君子之风和君子意识。

其三：“益斋作书曰此物，悦轩得之忠烈经筵前。曰汝是我天场元，我今赐汝惟汝贤。松亭子孙亲抱送，带之所出权醴泉。两家玉笋照东国，文章政事相磨肩。独荷荣华非我能，稼亭流庆方绵绵。（李穉，〈犀带行乌犀红鞞二腰，益斋、松亭所传〉，《牧隐诗稿》卷之十四，《韩国文集丛刊》第4辑，p.144）诗中记述的益斋所传“犀带”是高丽朝居一代文衡之位的象征之物。益斋、松亭、稼亭之后，牧隐继承了高丽后期文衡之位，君子教育成为其终身致力追求的事业。

27) 李穉，〈葵轩记〉，《牧隐文稿》卷之三，《韩国文集丛刊》第5辑，p.20.

28) 李穉，〈送绝传上人序〉，《牧隐文稿》卷之八，《韩国文集丛刊》第5辑，p.66.

抑阴而消小人也深矣。29)

对于『诗经·王风』“君子阳阳”篇的“君子”，与朱熹『诗集传』解释为“征夫”不同，牧隐认为是指“隐于小官者”，显然是继承了『毛诗序』“君子遭乱，相招为禄仕”的解释。在当时的高丽末期，君子大多“隐于小官”，身世不显。对于“阳阳”，牧隐认为阳即君子，是君子的道体本身，而周易六十四卦的核心即“扶阳而抑阴”，“长君子之道”，并且认为扶持助长君子是圣人制经作传的“垂世大训”。所谓“垂世大训”，亦作“垂世立教”或“垂世立训”，指圣人的典籍和文献等流传到后世，立为教育的规范与行为准则。语出唐吴筠的『览古十四首』之句“圣人垂大训，奥义不苟设”。牧隐认为君子应该遵从圣人教诲，体会『诗经』和『周易』的大旨，实行君子之道。

道体周流白露呈，身心器数尽包并。辞严义正春秋法，气顺颜和日月行。致格齐平终有序，操存省察要须精。箠瓢陋巷生芳草，一贯传来圣道明。30)

据〈牧隐先生年谱〉记载，牧隐在洪武七年（1374年，高丽禔王1年）甲寅十二月，进封韩山君、艺文馆大提学、知春秋馆事兼成均大司成、知书筵事，因此可以推断这是牧隐在给禔王书筵讲解论语〈泰伯篇〉的曾子语“君子所贵乎道者三：动容貌，斯远暴慢矣；正颜色，斯近信矣；出辞气，斯远鄙倍矣。笱豆之事，则有司存”内容之后所作之诗。

在上引论学诗中，牧隐以韵文的形式把君子所当追求的“圣人之道”作了具体而微的阐述。

起句写道与器的关系。〈周易·系辞上〉曰“形而上者谓之道，形而下者谓之器。”道体贯通天人，自然存在，无形的道流行于有形的器（包括人的身心及所有的具体事物或名物制度）之中。

29) 李穡，〈阳轩记〉，『牧隐文稿』卷之二，『韩国文集丛刊』第5辑，p.18.

30) 李穡，〈书筵，进讲君子所贵乎道者三，至有司存。退而志之。〉，『牧隐诗稿』卷之十六，『韩国文集丛刊』第4辑，p.190.



承句写孔子修订『春秋』，文笔婉转而隐含褒贬，字里行间彰显“微言大义”，故称之为“春秋笔法”。牧隐认为圣人的“春秋笔法”乍看好似“辞严义正”，实则是在“气顺颜和”地告诉人们人类历史的发展暗合日月运行的规律。

转句写先秦儒家道德修养智慧。牧隐理解的三纲领八条目不仅是治学次序，也是先秦儒家道德修养的基本原则和个人修养理论，因此，牧隐诗中的八条目是按照『礼记·大学』而非四书『大学』的顺序<sup>31)</sup>。显然，牧隐更加重视经书对做人、处事、治国方面的启迪性。

合句点题，阐明先秦儒家一以贯之传承而来的“圣人之道”。『论语·雍也』中孔子赞颜渊安贫乐道，『论语·里仁』中曾子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而宋代大儒周敦颐不除庭前芳草，也是借以表达“万物皆备于我”，“仁者，以天地万物为一体”的思想。这些事例都是儒家思想修养的致力方向和人生价值观的体现。

可见，牧隐在高丽国王书筵上讲解『论语』之后，以论学汉诗的形式概括阐明了圣贤之道的精髓。

自古以来的君子之国意识和父师君子观潜移默化的影响，对牧隐的君子意识的产生和发展起到了重要作用。成贤成圣是牧隐平生的志向和终极目标，圣贤的思想修养和人生观中所体现的价值追求和精神发展方向，正是牧隐所向往的充满仁恕中和与礼义精神的儒家君子型文明形态。对君子的内在思想修养和行为标准的阐释，形成了牧隐以“君子”理念为标志的独特的儒家话语体系和终其一生历尽磨难所践履的无悔的生命历程。

### 3. 牧隐君子意识的内容

牧隐认为『周易』的核心观念在于“长君子之道”。“惟阳之明，君子之生”，

31) 参见李纪祥，「『四书』本『大学』与『礼记·大学』：两种文本的比较」，《文史哲》第4期，2016，p.24。“在中国，从元代开始，对于『大学』的版本与解说，便已经是朱子学的一尊化，从『四书』中的『大学』，进入到『礼记』中的『大学』，都已是辨用了朱子对『大学』改动后的新编章句之改本与解释。”

即君子是秉承天地之阳气而生，是天道阳阳之德的外在表现。

众阳之长，惟天之明。赫赫至今，无欠无赢。朔望眺胸，乃阴之精。照之所及，以缺以盈。天地之大，靡不包并。人物之繁，靡不生成。惟阳之明，君子之生。惟阳之舒，君子之行。有轩翼翼，有觉其薨。君子居之，考义惟名。有山斯秀，有流斯冷。君子乐之，吟哦性灵。邪之既闲，妙理自呈。在天曰阳，在人曰诚。<sup>32)</sup>

『易传』曰“一阴一阳谓之道”。阴阳相冲化万物，世间万物，皆有阴阳之道。阴阳是中国古代文明中对蕴藏在自然规律背后的、推动自然规律发展变化的根本因素的描述，是各种事物孕育、发展、成熟、衰退直至消亡的原动力，是奠定东方文明逻辑思维基础的核心要素。牧隐以『周易』阴阳之道阐述了阳道与君子的关系。“君子之生”、“君子之行”、“君子之居”和“君子之乐”均与天之阳道有关，而全阳卦象为天的『乾卦』特征是刚健，“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中庸』曰“诚者，天之道也；诚之者，人之道也。诚者，不勉而中，不思而得，从容中道，圣人也；诚之者，择善而固执之者也。”（『中庸』第二十章）因此牧隐认为君子之德为“诚”，这是天之阳道决定的人之“中道”，是需要君子“择善而固执之者也”。这就是牧隐一生固守和实践君子思想的原动力之所在。

君子重受命，趋时非真情。大义有所在，隐隐如长城。<sup>33)</sup>

既然君子之德秉受天之阳道所命，就要尊重顺从天命，固守“诚”之“中道”，不能违心地屈从时势之所迫而有所动摇。尤其在义利面前，君子要象长城一样坚守本心，探索并实践“大义”。

32) 李穡, 〈阳轩诗, 为龟城君金公作〉, 『牧隐诗稿』卷之一, 『韩国文集丛刊』第3辑, p.522.

33) 李穡, 〈有感〉, 『牧隐诗稿』卷之十, 『韩国文集丛刊』第4辑, p.87.

古人贵从道，今人重趋时。庖义画大易，文王初系辞。周孔迭有术，君子当念兹。变动如流水，天理分毫厘。差之信千里，守经无自危。古人学有法，今人学无师。自得信天挺，为善当孜孜。自我志吾道，外患何曾移。朝夕惕以守，庶不磷而缁。霜露日侧侧，甚矣吾之衰。古人重知命，顺受天地心。天地我所出，父母恩爱深。礼以定制度，智以酌古今。随时蹈大道，敬豁仍沈潜。今人反自小，鄙哉牛马襟。<sup>34)</sup>

牧隐这里以“从道”和“趋时”的不同选择区分君子、小人。

《夏卦》之六四爻辞曰“中行独夏，以从道也”；《荀子·臣道》曰“从道不从君，此之谓也。”《荀子·子道》亦曰“从道不从君，从义不从父，人文大行也”，可见“从道”指君子奉行的正道。<sup>35)</sup>而“趋时”即“趋时奉势”，指迎合时尚、依附权势，是小人的作为。牧隐认为对待象流水一样的“变”的方法是“随时蹈大道”，这里的“大道”即“自我志吾道，外患何曾移”的“吾道”，即儒家“吾道一以贯之”的君子“忠恕之道”。而《夏卦》象辞曰“夏，其见天地之心乎”，《夏卦》反映在人事上，则是“阳长阴消，君子之道日渐伸展，小人之道日趋消退”，正是君子有所作为之时；《礼记·礼运》则曰：“人者，天地之心也，五行之端也”，可见，牧隐所谓“古人重知命，顺受天地心”，是说作为“天地之心”和“五行之端”的人应该顺应天之阳道所命，遵从文王周孔以来对《周易》的阐释，坚定不移地实践君子之道。

在上述几首言志诗中可以品读出，牧隐认为《周易》、《礼记》以来，儒家的四书五经的著述目的就是教人做君子。君子作为社会存在，是社会发展的推动力和正能量；君子作为优秀人格典范，是以仁礼为核心的伦理道德榜

34) 李穰，《拟古》，『牧隐诗稿』卷之十一，『韩国文集丛刊』第4辑，p.110.

35) 《夏卦》共有五个阴爻，六四位于其中，故曰“中”。卦变时，六四出乎众阴之中而下行，故曰“中行”。众阴成群，出乎群则独而不合群，故曰“独”。“中行独夏”就是特立独行，与众不同。《夏卦》六四独而不群之处就在于发生天子易位时，有自己独特的行事之道，既不能事从于旧主，则亦不拥立新君，而是退避以求自安，既尽臣道，又顺从天命，守其旧义而又适于时宜，故《象传》释曰“中行独夏，以从道也”。在牧隐有关《周易》的论述中尤重《夏卦》，不能不与丽鲜易姓革命的时局大有关联。在动荡不安的局势中，牧隐必须思考如何如何处身才能既履行君子的“忠恕之道”，又能合于时宜以求安身立命。

样；君子作为弘毅人间的担当者，必须具有家国天下情怀，引领理想社会的建构。而牧隐君子思想的这些不同侧面，可以分述为其君子修养论、君子实践论。

### 1) 君子修养论

牧隐认为君子修养是贯穿平生的要务，必须从心志思行各方面研修打磨，才能毕收其功。从相关论述来看，与传统思想中的理想人格侧重道德侧面不同，牧隐认为理想人格应由三部分组成：智（认识系统）、情（幸福系统）、德（道德系统）组成。因此，牧隐提出士君子的修养应从智的培养即学开始。

#### (1) 学以致用（君子之智）

士君子幼也学，壮也行，始于家而终于天下，致君泽民，移风易俗。<sup>36)</sup>

士君子少也读书而格物，则天下之事理致其明；壮也事君而理物，则天下之事理归于平，荡荡也何累于吾气，愉愉也何伤于吾心，怡然理顺，涣然冰释，夫岂有一毫之齟齬于其间哉。<sup>37)</sup>

牧隐在上记二则言说中强调了学对君子的重要性。孔子曰“好仁不好学，其蔽也愚；好知不好学，其蔽也荡；好信不好学，其蔽也贼；好直不好学，其蔽也绞；好勇不好学，其蔽也乱；好刚不好学，其蔽也狂。”（『论语·阳货』）又曰“文质彬彬，然后君子。”（『论语·雍也』）强调好学和学以致知对君子修养的重要性。“三人行，必有我师焉！择其善者而从之，其不善者而改之。”（『论语·述而』）牧隐因此认为学的目的在于明事理，只有通过圣贤之道的学习才能理天下之事，致君泽民，治国平天下。

36) 李穡, <孟周说>, 『牧隐文稿』卷之十, 『韩国文集丛刊』第5辑, p.81.

37) 李穡, <萱庭记>, 『牧隐文稿』卷之二, 『韩国文集丛刊』第5辑, p.15.

临机取舍失其真，谩负心希古君子。呜呼君子莫恃眼，眼力高低由学耳。<sup>38)</sup>

牧隐这里所说的“眼里高低”就是士君子明辨事理的能力，是决定“临机取舍”做出正确判断的重要因素，所以牧隐认为学习是成为君子的台阶，为此提出了切实可行的步骤。

寥寥接无极，天地初分形。正气偶妙合，人为万物灵。秀出于其中，圣贤为法程。文章被天下，粲然如日星。奈何今之人，噩驾趋冥冥。反观居室内，是亦天之经。庖牺画奇耦，象以明理源。文王与周公，触事宣诸言。仲尼演十翼，大哉道义门。韦篇既三绝，千载如乾坤。使我知养蒙，德性何其尊。独居慎勿寝，焚香思本元。孔门大如天，从游有三千。速肖七十子，独称回也贤。曾子得其宗，大学明后先。圣孙幸枢衣，中庸乃成篇。嗟嗟我缝掖，用力求心传。读书身心判，非醉应为颠。<sup>39)</sup>

牧隐这首诗论述了儒学作为君子思想的根本，读解和体会四书五经是学做君子的必经之路。天地之间人为万物之灵，圣贤是人学习的典范。易经作为阐述天地世间万象变化的古老经典，是东方民族五千年智慧的结晶。文王周孔衍化易经，开化人的智慧，培养人的德性。孔圣门下七十二贤各得儒门真传。曾子著『大学』，提出“三纲领”（明明德、亲民、止于至善）和“八条目”（格物、致知、诚意、正心、修身、齐家、治国、平天下）的治学顺序，强调修己是治人的前提，修己的目的是为了治国平天下，说明个人道德修养与治国平天下的一致性；子思著『中庸』阐发道德行为“中庸”标准和人生“至诚”最高境界，提出“博学之，审问之，慎思之，明辨之，笃行之”的学习过程和认识规律。因此，牧隐认为，用功读书要按照『大学』『中庸』指出的治学方法和顺序，求得儒学心法的真传。

38) 李穰，〈彰义站有感一篇〉，《牧隐诗稿》卷之二，《韩国文集丛刊》第3辑，p.534.

39) 李穰，〈古风 三首〉，《牧隐诗稿》卷之十六，《韩国文集丛刊》第4辑，p.194.

## (2) 乐以养心(君子之情)

从孔颜之乐到孟子的“君子三乐”，探讨的是作为君子的德性幸福问题。〈尚书·洪范〉曰“五福：一曰寿，二曰富，三曰康宁，四曰攸好德，五曰考终命”，最早提出了“五福”思想，尤其是五福之四“攸好德”的基本内容为心性仁善、德行高尚，为儒家德性幸福观的形成奠定了基础。

牧隐认为孔颜之乐追求的是内心境界的德性幸福。

终夜肌骨酸，操心良甚艰。月色入牖户，东风吹尚寒。兀坐发浩叹，流光如跳丸。君子有乐处，岂伊在瓢箪。为善如有余，一家天地宽。青春已强半，勉哉铭汤盘。<sup>40)</sup>

如诗中所言，君子乐处在于心性人善，安贫乐道，心中自有天地之宽。这是超脱了物质束缚的道德境界，如子曰“一箪食，一瓢饮，在陋巷，人不堪其忧，回也不改其乐。贤哉回也！”(『论语·雍也』)“乐”处在于道德的圆满和境界的升华。

君子有真乐，妙处诚难言。鸢飞与鱼跃，万像同一元。眇然稊米身，道化所渊源。礼乐被天下，周孔至今存。君子有肥遁，无闷亦无愠。城市何所营，山林何所隐。久矣混常流，川上观气运。悠然抚四达，无心望华问。<sup>41)</sup>

君子有何乐，终身自油油。巍然气像大，足以厌凡流。非如无源水，天晴忽焉收。盈科放四海，发自昆仑头。嗟哉彼何心，断港将行舟。<sup>42)</sup>

牧隐诗中吟诵的“君子真乐”依然是德性之乐。也可以说是从对天地自然的心理愉悦(乐趣系统)升华到人格德性之乐(幸福系统)的过程。天地自然之理流行，礼乐人文之被仍在，而君子沉潜显达无挂于心，因此能保持内心无

40) 李穡, 〈晨兴〉, 『牧隐诗稿』卷之十五, 『韩国文集丛刊』第4辑, p.160.

41) 李穡, 〈君子 二首〉, 『牧隐诗稿』卷之三, 『韩国文集丛刊』第3辑, p.554.

42) 李穡, 〈君子〉, 『牧隐诗稿』卷之十七, 『韩国文集丛刊』第4辑, p.210.

闷无愠，悠然自得。“终身自由”的君子内心充满德性幸福之感，外现的气像自然如浩瀚大海、昆仑山巅一般宏大无际。

牧隐的君子德性之乐思想被其门生高丽前期思想家阳村权近（1352～1409）所继承，对形成阳村的君子幸福观起到了重要作用。

君子之道，费而隐，鬼神之神，鸢鱼之诗，可见矣。是以，显之道，观乎吾心，达乎天德而已矣。士君子素其位而行，无入而不自得，胸中洒落，如光风霁月。<sup>43)</sup>（牧隐）

若颜子箪瓢陋巷，不改其乐，即与孔子疏食饮水，曲肱而枕，乐亦在其中者殆庶几矣，是真自得于胸中而独乐者也。千载之下，濂溪先生盖尝知此，每令学者寻孔颜所乐者何事，而二程夫子有得于此。夫濂溪，胸中洒落如光风霁月，唯其如此，然后可以造孔颜乐处矣。此非本欤？<sup>44)</sup>（阳村）

两人都探讨了君子之乐与德性幸福的问题。阳村认为孔颜乐处在于“胸中洒落如光风霁月”，这是一种开阔的心胸境界，就象雨过天晴时万物明净的景象，是君子之道在内心的德化，所呈显的君子形象自然是牧隐所说的悠然自得、无闷无愠的巍然气像。

牧隐同时也继承了孟子的“君子三乐”思想。

君子有三乐，自家及天下。俯仰既无歉，保此神明舍。愧怍无从生。声名遍夷夏。悦亲兄弟和。英才尽陶冶。致用竟成功。优游在朝野。讴歌终吾生。谁欤列风雅。<sup>45)</sup>

牧隐从家庭的孝悌和睦、内心的无愧无怍、教书育人的社会贡献三个角度吟咏诠释了现实生活中君子之乐的内涵，把孔颜的德性之乐与生活实践结

43) 李穰，〈之显说〉，《牧隐文稿》卷之十，《韩国文集丛刊》第5辑，p.82.

44) 权近，〈独乐堂记 丹阳伯禹公玄宝自扁〉，《阳村先生文集》卷之十三，《韩国文集丛刊》第7辑，p.146.

45) 李穰，〈君子有三乐〉，《牧隐诗稿》卷之十五，《韩国文集丛刊》第4辑，p.164.

合起来，尤其是三乐之三的“得天下英才而教育之”把君子教育与社会发展联系在一起，成为牧隐毕生的事业追求和实践内容。

孔颜之乐和“君子三乐”既是牧隐内心愉悦的根源之所在，也是其平生君子修养和君子教育的心理支撑和精神享受。在门人弟子眼中，牧隐“平居待人接物，浑是一段和气”<sup>46)</sup>，“挺天资之粹美，穷圣学之精微，胸襟洒落，莹彻光辉”。<sup>47)</sup>牧隐身上彰显着德性之乐外显的光辉，呈现出典型的德性幸福君子形象。

### (3) 修以养性（君子之德）

汉班固〈白虎通·号〉曰“或称君子何？道德之称也。君之为言群也；子者丈夫之通称也。”宋王安石〈君子斋记〉亦曰“故天下之有德，通谓之君子。”可见古人谓君子为道德或德性高尚之人。牧隐亦然，在其〈君子〉诗中具体陈述了其君子认识。

古道委蔓草，桃李亦无言。浮生安所期，金石与兰荪。恩讎竟相杂，云雨覆且翻。吾道如一发，危哉谁复存。携幼入吾室，抚松涉吾园。自足乐天命，德性何其尊。我道大如天，高舜日月悬。周监于二代，大成集文宣。群渐泯以消，六经粲在前。中为记诵学，剽窃纷争先。濂洛出真儒，始知希圣贤。圣贤在吾心，景仰当拳拳。我初学为诗，祇以求性情。善恶所劝戒，足求吾道精。比兴意自深，铺陈心自明。淫佚入皇极，沐浴歌太平。流而弄风月，适取浮夸名。核实必有在，慎勿轻讥评。<sup>48)</sup>

在这首〈古风〉诗中，牧隐反复吟咏“道”和“德性”。牧隐志向的“道”或“吾道”，是尧舜禹汤文武周孔之道。蕴藏在六经之中的道由孔子集其大成成为儒学，后由宋代周程五先生阐释，成为士君子希贤希圣以之求道的心性之学。圣

46) 李穡，〈溢文靖公李公神道碑并序〉，《牧隐稿》神道碑，《韩国文集丛刊》第3辑，p.511.

47) 李穡，〈牧隐先生画像赞 门人权近撰〉，《牧隐稿》画像赞，《韩国文集丛刊》第3辑，p.516.

48) 李穡，〈古风〉，《牧隐诗稿》卷之二十三，《韩国文集丛刊》第3辑，p.319.



贤之道的修养目标在于养成君子的德性生命，通过分辨善恶、陶冶性情，实践实行完成君子使命。牧隐又从三个侧面指出了君子的思想行为特征。

君子立于独，群居常湛然。谁投胶与漆，嫌隙还滔天。周诗歌鸟声，求友何其贤。敢告我同辈，勉旃仍勉旃。

君子志其大，达可天下行。口腹岂曰小，于道斯为轻。所以不去信，彝伦如日明。敢告我同辈，闲邪且存诚。

君子和为贵，其心非殉人。金石众音异，克谐无夺伦。皦如绎如也，至顺通明神。敢告我同辈，背伪斯归真。<sup>49)</sup>

牧隐在这首〈君子〉诗中，认为“君子立于独”是君子出处行为的基本标准。其思想源于〈周易·大过卦〉象传“君子以独立不惧，遁世无闷”，苏轼在〈墨君堂记〉中亦曰“群居不倚，独立不惧”，都是说君子在面对不同寻常的境遇时能够选择的二种行为方式，其根据是对“有道”或“无道”的判断。

牧隐又曰“君子志其大”，这里的“大”即“天道”。〈周易·乾〉文言曰“庸言之信，庸行之谨，闲邪：存其诚”，『礼记·中庸』亦曰“诚者天之道也，诚之者人之道也”。因此牧隐认为诚为天道，君子须以诚为本，以诚为志。

而“君子和为贵”思想源于『论语·学而』“礼之用，和为贵”，这是儒家倡导的道德实践的标准。“皦如绎如也”语自『论语·八佾』篇“子语鲁大师乐，曰：乐其可知也。始作，翕如也；从之，纯如也，皦如也，绎如也，以成”。牧隐以音乐合奏众音和谐才能成就乐章的原理，说明中和对于君子的重要性。

可见牧隐从『周易』、『礼记』和『中庸』、『论语』等经书关于君子的论述中探究君子的思想行为特征，尤其“独立不惧，遁世无闷”、“慎独中立”、“存其诚”、“诚于中，信于外”、“和为贵”等核心理念，既是君子德性修养的重要德目，也是君子做人做事的行为标准。

牧隐认为修心养性首先是“志于道”<sup>50)</sup>，即重视道心的培养。

49) 李穰，〈君子〉，『牧隐诗稿』卷之二十，『韩国文集丛刊』第4辑，p.269.

50) 李穰，〈狂吟〉，『牧隐诗稿』卷之十四，『韩国文集丛刊』第4辑，p.514. “七十速肖佚佚中，谁谓鲁者传其宗。沈吟必也狂者乎，夫子之志与天同。为山九仞一篑始，君子功

人心与道心，只从动处求。性发乃本源，欲生即派流。分明只一水，吾今夏何忧。养成浩然气，天地莫能周。脉络却细密，慎旃无谬悠。文章出肺腑，矫诈徒自欺。孔门诸子中，赐也称多辞。终日如愚者，胡为竟省私。春风和气中，发荣得其时。虽然曾氏鲁，千载我所师。安心且无躁，忠恕一贯之。<sup>51)</sup>

人心之动是“性发”，是本源之动，随之产生各种念头，即“欲生”。牧隐认为既然人欲与性同源，就有了以“道心”遏制“人欲”的可能性，而孔门语录『论语』所载孔子一以贯之的道就是养成道心的路径。如『论语·里仁』曰“君子无终食之间违仁”，君子时刻不违仁，才能以“仁心”养成“浩然之气”；又如『论语·里仁』曰“夫子之道，忠恕而已矣”，朱熹『论语集注』释“忠恕”曰“尽己之谓忠，推己之谓恕”，即“尽心为人，推己及人。”牧隐认为“忠恕”是君子最重要的道德规范，而“浩然之气”和“忠恕之道”的涵养是培养道心的主要途径。

牧隐把君子“道心”的培养过程比喻为“人心良田”的“礼耕义种”。

人心如良田，土脉如截肪。礼耕义以种，勃然苗叶长。圣人岂芒芒，天时自有常。上下同一心，君子须自强。<sup>52)</sup>

〈礼记·礼运〉曰“君子以厚，小人以薄。故圣王修义之柄、礼之序以治人情。故人情者，圣王之田也。修礼以耕之，陈义以种之，讲学以耨之，本仁以聚之，播乐以安之。”〈礼运〉把“人情”比作“圣人之田”，提出了礼耕、义种、学耨、仁聚、乐安的以礼义治理人情的方法。牧隐以“人心”替换“人情”，把“人心”比作“良田”，以“礼耕义种”方法治理人心，从而把向外的礼义作用转为向内的心性修养功夫。

一咏螽斯羽，百年君子心。正家先正己，惕若惜分阴。有象应千变，无乡只一

---

夫先立志。呜呼立志无自小，尧舜涂人无少异。”

51) 李穡, 〈自伤学之未至也, 求诸日用中吟成二首, 以致其力焉〉, 『牧隐诗稿』卷之六, 『韩国文集丛刊』第4辑, p.24.

52) 李穡, 〈古风 五首〉, 『牧隐诗稿』卷之七, 『韩国文集丛刊』第4辑, p.47.

心。养成从寡欲，白日破重阴。我学无他术，平生检此心。一毫何敢肆，袞袞是光阴。

君子之道，在于正家；欲正家，先正心；欲正心，先收放心；收放心，一毫不敢肆是已。三章备矣，观者幸无忽焉。<sup>53)</sup>

《毛诗序》云“《螽斯》，后妃子孙众多也，言若螽斯。不妒忌，则子孙众多也。”牧隐吟诵《螽斯》，却体会从“收放心”开始，到“正心”、“正家”的君子之道。“百年君子心”关键在于“收放心”，即“一毫不敢肆。”『孟子·告子章句上』曰“学问之道无他，求其放心而已矣”，牧隐将孟子“仁，人心也；义，人路也”的收放心思想与“正心”“正家”的君子之道联系起来，突出了通过自我心性修养，找回、保存和扩充固有的“善端”对形成君子的道德人格的重要性。

## 2) 君子实践论

在牧隐思想中，君子德性修养与社会实践一体两面，互为表里。牧隐的君子实践论主要包括二个层面，一是塑造和培养具有高尚的道德品格、具有引领理想社会建设志向和能力的君子型人才，即君子教育实践层面。牧隐继承了孔子塑造君子人格的基本路径，即立志、好学、内省、依礼而行，加以自己的理解和实践，形成了符合丽末鲜初社会要求的君子教育思想。另外，在君子教育论中，牧隐对士君子应具有的出处意识和为政姿态等也略有论及，以笃显作为君子的率先垂范作用。二是以君子视角对社会问题的关注，对国计民生和民生疾苦的忧虑，展现了作为具有高尚道德品格和高度社会责任感的君子典范。

### (1) 君子教育论

牧隐承父师之命，远赴元朝国子监留学三年，接受了系统的程朱理学教育。归国以后，在高丽科举考试中中考中状元。其后又在元朝考中进士。1356年（时年29岁）再次回到高丽，从此开始了波澜起伏的宦宦生涯。其初，牧隐受

53) 李穰，〈偶題〉，『牧隱詩稿』卷之十四，『韓國文集叢刊』第4輯，p.149.

到恭愍王器重，官拜政堂文学，进入中枢，历任机要之职，同时负责重建成均馆，传播程朱理学，培养新兴士大夫，成为高丽末期的一代儒宗。但恭愍王去世之后，多年不出仕，其后虽然被封为韩山府院君，又出任门下侍中，但很快就由于与李成桂集团的矛盾遭到弹劾，先后流放长湍、咸昌、清州、矜州、长兴等地。

牧隐的生平之中最重要的社会贡献在于改创成均馆，制定儒学教育制度和课程，培养具有儒学素养士君子人才，为促进丽末鲜初社会发展和引领君子风尚起到了巨大作用。

丁未，元朝授征东行中书省左右司郎中。戊申，以判开城兼成均大司成。王欲兴夏学校，改创成均馆，择一时之有经术者，分授生徒，皆以他官兼学官。公每日与诸学官分授毕，相与讨论辨析，竟日忘倦。学者得以变其旧习，儒风一新。

公禀资清粹，学问精敏，蚤承家训，入齿辟雍，博文笃行，务尽性理之学，及还本国，勉进后生，以兴起斯文为己任，学者仰之如山斗... ... 蚤入辟雍，大播其馨，联中乙科，继踵玉堂，厥鸣益大，国家之光，敛而东归，师范一方，义理精微... ...<sup>54)</sup>

继益斋之后，牧隐成为高丽儒林领袖和成均馆大司成（馆长），改创成均馆，与其他学官辨析四书五经，并亲自授业。

学校邦家脉，君师天地心。生成功自妙，教养泽何深。日对羹墙面，时闻金石音。自怜方抱病，几坐独沈吟。

今代维新命，先王未了心。文风方欲振，圣泽亦云深。白日无私照，黄鹂送好音。吾生尚强健，弦诵共讴吟。

愧我无才学，逢君叨泮宫。功成将舞兽，梦断忽攀龙。阶藓工随雨，庭松喜得风。白头扶病去，沙石更磨砢。<sup>55)</sup>

在这首〈学校 三首〉诗中，牧隐概述了国家设立学校的目的和教育宗旨，

54) 李穡，〈文靖公李公神道碑并序〉，『牧隐稿』神道碑，『韩国文集丛刊』第3辑，p.511.

55) 李穡，〈学校 三首〉，『牧隐诗稿』卷之二十九，『韩国文集丛刊』第4辑，p.423.

即阐明儒学、振兴文风、培养人才。牧隐受国王器重，委以成均馆长之职，深感责任重大，希望象春风化雨滋润万物一样完成自己肩负的使命。“功成将舞兽，梦断忽攀龙”句中，“舞兽”典自《尚书·舜典》夔“击石拊石，百兽率舞”；“攀龙”典自《史记·封禅书》黄帝骑龙升天，众小臣攀龙而坠的故事。牧隐以之表达自己热切期待在成均馆长任上有所作为，为国家培养儒学人才，以完成先王维新遗愿。

“以兴起斯文为己任”的牧隐，十分重视引领和培养士君子的志向。

君子秉素志，耿耿徒自知。水霜方淅沥，闭户哦清诗。火冷笔尖冻，袖手时沈思。追深虑却浅，聚远势逾卑。乃知亦丧志，学者当去之。悚然自痛责，况彼声色移。

君子秉素志，岂曰荣其身。经纶赞王化，德泽沾生民。轩裳耀耳目，金玉迷精神。朝昏厌一味，方丈罗八珍。奈为居所移，气盈骄贱贫。妻子共温饱，谁知此情真。

君子秉素志，祇与天为徒。文章与政事，岂止宁吾躯。出处谅非虑，永矢歌唐虞。翻然起吠亩，束帛驰天衢。道行固所愿，乐战方都俞。不合即径去，紫芝亦足娱。<sup>56)</sup>

在上记题为《君子秉素志》的三首诗中，牧隐从几个侧面阐述了作为君子应该具有的志向品格，即志向坚定、志向泽民、志向于道。在闲时吟诗作赋也是为了坚定自己的志向，作为君子，应以好学、内省和正家，赞成王化、德泽生民，实践仁政和忠恕道义为志向。

诗的末句“不合即径去”表达了君子矢志不移、绝不苟合的坚定意志，而这也是当时士君子身份和社会参与方面的局限性，如《论语·泰伯》子曰“笃信好学，守死善道，危邦不入，乱邦不居。天下有道则见，无道则隐。邦有道，贫且贱焉，耻也；邦无道，富且贵焉，耻也”，要求士君子按照邦有道、无道选择出处。而“径去”并非意味着远离现实，君子也可以用著书立说和教育其他方式发挥一定的社会作用。

56) 李穰，《君子秉素志 三首》，『牧隐诗稿』卷之七，『韩国文集丛刊』第4辑，p.47.

立朝非贪荣，去国非洁己。三宿乃出昼，浩然有归志。回首终南山，苍茫杜陵意。悠悠千载下，气合无少异。

一饭不忘君，谁怜吾老矣。幼学非文身，壮行非图己。枉尺直乃寻，君子岂降志。发达虽人情，低回或天意。

酣歌矢我音，岁今云暮矣。理也无物我，生而有人己。明命方赫然，畴能越厥志。由来得造道，端的在诚意。努力过此关，天下可平矣。

自咏三首，溯流而源，自悲其志也。千载之下，必有知音者矣。君子遵道而行，不能半途而废。呜呼，高山可不仰乎？景行可不行乎？聊以志诸座右。<sup>57)</sup>

“三宿乃出昼”典出苏轼《贾谊论》“孟子去齐，三宿而后出昼，犹曰：王其庶几召我。君子之不忍弃其君，如此其厚也。”牧隐用“孟子去齐”典故说明自己受到排挤，不得已只好辞职归隐的无奈。而《终南山》诗是唐王维隐居终南期间的作品，意境高远，气势阔大，是其田园诗的代表作。

首诗中，诗人牧隐抒发了自己与孟子去齐和王维隐居时相同的心境。

次诗中“一饭不忘君”典出苏轼《王定国诗集叙》“今诗人众矣，而子美独为首者，岂非以其流落饥寒，终身不用，而一饭未尝忘君也欤！”牧隐借以表现自己虽然归隐，但仍然不忘忧国忧民的情怀。

三诗中表达自己虽然身处逆境，但不忘君子使命，以诚意实现君子之志的初心未改。

牧隐有志于治国安邦，时刻以立德、立功、立言君子“三不朽”事业要求自己，但有时也会为了“拯厄除难，功济于时”陷入义利两难。

堂堂丈夫立朝著，立政立言须有序。正义不谋利，闻诸古君子。奈何财赋便为策，不究关雎有美意。请看我邹国，一个战国土。得君行政是真心，不敢开口谈此事。利源一开势如水，奔流万里终难止。卒老于行亦天命，岂可废道违我志。以谏为名列大夫，呜呼立志迫唐虞。一吁一嘂仍都俞，奈何攘臂吐异议。祇恐他年穆青史，欲盖弥彰吾益耻。滌愆须挽银河水，不是本心初偶尔。<sup>58)</sup>

57) 李穡, 〈自咏 三首〉, 『牧隐诗稿』卷之六, 『韩国文集丛刊』第4辑, p.19.

58) 李穡, 〈有感〉, 『牧隐诗稿』卷之四, 『韩国文集丛刊』第3辑, p.564.

朱熹《诗集传》曰“孔子曰‘〈关雎〉乐而不淫，哀而不伤’，愚谓此言为此诗者，得其性情之正，声气之和也。”牧隐虽然有志于圣人诗教“性情之正”的追求而不屑财赋，但在实际处理朝政的时候，不能不在“正义”和“谋利”之间有所平衡，因此产生了“立政（立功）”和“立言”的矛盾。有时为了国计民生而选择利策，这时候牧隐只能自我安慰“不是本心初偶尔”，并希望引取银河之水洗涤罪愆，以免有秽于青史。

可见，作为谦谦君子，牧隐在实践自己的“三不朽”事业时，也会遇到违志而行之事，但他“立志追唐虞”的初心始终不渝。

立志教育实际上是对士君子的理想教育，义利取舍是对士君子的为政教育，而出处隐显观则是对士君子的处身教育。牧隐的君子教育思想体现了对圣人教诲的遵信，也从现实层面对君子在社会实践中遇到两难问题时如何应对做出了可行性的指引，在士君子教育上呈现出注重明德明志、学以致用、知行相济的特点。

## （2）君子社会论

所谓社会论即社会意识，是指人类在社会上的各种社会生活、社会交往、社会工作、社会结构、社会发展等方方面面的社会现象和社会问题，使人们更清楚地了解自己所处的社会环境，以及在这种环境中各种现象之间的相互关联，形成对社会整体的认知。牧隐早年即有经国安邦之志，曰“君子方有志，欲登天子堂”<sup>59)</sup>，表明学成出仕、报效国家的志向。牧隐的君子意识的一个重要侧面，就是君子对于社会的责任意识，其社会论思想是基于这种社会责任意识而形成的。

若有遇于介然之顷兮，谅天地其可三。胡唐虞之遗墟蔓草寒烟兮，吾道被于南炎。胡泓淳之而不霈兮，朔雪越岭之交粘。信余绪可以理天下兮，鲁齐独骋其征骏。<sup>60)</sup>

59) 李穰，〈在水原八吞村，候东堂日期，杂兴，三首〉，《牧隐诗稿》卷之二，《韩国文集丛刊》第3辑，p.531.

“介然之顷”语自朱熹『大学或问』“介然之顷一有觉焉，则即此空隙之中，而其本体已洞然矣。是以圣人施教，既已养之于小学之中，而复开之以大学之道。”牧隐认为一旦人的本然之体有所觉醒呈现，则可与天地并列三才。所以应该发挥人的主观能动性，实现政治清明、人民康乐的上古唐虞之治。牧隐坚信，以圣人圣学之余绪即可治理天下，致君泽民。

我生立志无彼此，泽物功夫先择里。事贤友仁霈吾惠，不润生民乌可已。<sup>61)</sup>  
古来避地有君子，燕雀安知鸿鹄志。一朝出任泽天下，功与造化无少异。<sup>62)</sup>

牧隐做君子儒“事贤友仁”，立下致君泽民的鸿鹄之志，其心心念之的事业在于润泽生民。

我不向田野，终亩徒责人。玉粒忽在案，清香吹满巾。终年沾体者，食新不食陈。忽然心不乐，念之责我身。野人养君子，所望其政仁。立朝不降泽，今日忘今民。素餐与徒铺，我独犹逡巡。<sup>63)</sup>

牧隐吃着百姓种植的大米，心里想着“野人养君子，所望其政仁”，百姓希望朝廷施行仁政。他反思自己作为朝廷大员是否降泽于民，是否忘记了百姓，是否尸位素餐吃了白饭，想着想着内心不乐，逡巡不已。这种对百姓的愧疚之感源于作为君子对社会责任感的自觉。

大雨既伤稼，民生诚可哀。滂沱又不止，咎征安在哉。尧汤遇时数，苦心御大灾。滔天烁玉际，人自登春台。世运日益降，流水何当回。君子庶努力，高山仰崔嵬。<sup>64)</sup>

60) 李穡, 〈山中辞〉, 『牧隐诗稿』卷之一, 『韩国文集丛刊』第3辑, p.518.

61) 李穡, 〈风雨行〉, 『牧隐诗稿』卷之十五, 『韩国文集丛刊』第4辑, p.165.

62) 李穡, 〈山水图歌〉, 『牧隐诗稿』卷之三, 『韩国文集丛刊』第3辑, p.551.

63) 李穡, 〈有感〉, 『牧隐诗稿』卷之二十五, 『韩国文集丛刊』第4辑, p.345.

64) 李穡, 〈八月初一日雨〉, 『牧隐诗稿』卷之八, 『韩国文集丛刊』第4辑, p.59.



大雨使百姓庄稼受灾，民生艰难，牧隐为此忧心忡忡，追问“咎征安在哉”。《书·洪范》曰“曰咎征：曰狂，恒雨若；曰僭，恒阳若。”蔡沉《集传》释“咎征”曰“某事失，则某咎徵应”，即天象与人事相关。牧隐感叹世运日下，再无尧汤出世救民于水火之中，只能依靠士君子们齐心协力，以高尚的德行挽回天意。

除了主张仁政泽民，关心民生疾苦外，牧隐对理想社会的建构也有自觉意识。如曰“夫歌诗，所以形容政事之美，正人心扶世道，吾党所宜勉焉”<sup>65)</sup>，“以李舒氏而不志于尧舜之世，吾不信也”<sup>66)</sup>等等，都是希望通过仁政教育，扶正世道人心，其心中的理想社会典型就是“尧舜之世”。

舒者，阳之事也。春气发扬，物生遂畅，大和洋溢，浹洽无间。比之世，唐虞之际是已。当是时，君臣俱圣，礼乐大行。四凶之类，如微云之在乎青天也，及其去也，白日正中，光彩灿烂。其化之被也，其德之运也，于斯为盛矣。今学者粗有知，必曰：舜何人也，予何人也。以李舒氏而不志于尧舜之世，吾不信也。<sup>67)</sup>

“阳舒”语本汉张衡《西京赋》：“夫人在阳时则舒在阴时则惨。”牧隐把生生不息、春意盎然、一片和气的“阳舒”之时比之为唐虞之际。可见，他心中向往的理想社会是君圣臣贤、政通人和、礼乐大行、化被天下的尧舜盛世。牧隐指出君子必须志于斯、行于斯，从我做起。

天地帝洪炉，鼓铸一何劳。理以为之主，气以分其曹。少或似麟角，多奚啻皮毛。仁义是膏粱，礼法为笏袍。粲然被天下，吾生安所逃。一家亦天地，位育由吾诚。父母与妻子，等级何分明。恩爱贯以一，礼节随以生。犯之曰悖逆，世道失太

65) 李穰，〈予年二十八拜内书舍人，三十拜谏大夫，四十四拜政堂舍人，上官月余而赴天朝翰苑，供职政堂，上官未三月而丁母忧。其得半年之久者，谏议日也，然以言事与执政争是非，未得从容吟啸，以践前辈风流之迹。夫歌诗，所以形容政事之美，正人心扶世道，吾党所宜勉焉。而予之不幸也如此，聊赋短篇，以告后来君子云〉，《牧隐诗稿》卷之十一，『韩国文集丛刊』第4辑，p.96。

66) 李穰，〈孟阳说〉，《牧隐文稿》卷之十，『韩国文集丛刊』第5辑，p.82。

67) 李穰，〈孟阳说〉，《牧隐文稿》卷之十，『韩国文集丛刊』第5辑，p.82。

平。所以自家始，君子勿自轻。<sup>68)</sup>

天地烘炉，理一分殊，气秉性异。人物之别在于人是以仁义礼法为立足根本，而家作为社会的细胞是社会和谐、天下太平的基石。所以君子重视治家、齐家。

清风何习习，君子何平平。平平竟安用，道在贵自然。以人理人耳，唐虞之所传。此意久萧索，崛强时所贤。<sup>69)</sup>

子曰“君子泰而不骄，小人骄而不泰。”（『论语·子路』）君子象一缕清风一样心平气和、平平淡淡，但却顺应了道法自然的真谛。“黄帝、尧、舜垂衣裳而天下治，盖取诸乾坤。”（『周易·系辞下』）所谓唐尧虞舜所传“以人理人”是指以德服人、以理服人，圣王德行天下，制定历法，确立节气，治理水患，发展农业，为东方五千年文明的历史发展奠定了良好的基础，是德化天下的典范。唐虞之世正是牧隐心目中的理想社会，与之相对比的就是统治者一意孤行、以势欺人的政治，所以上位者必须摒弃骄纵和蛮横，才能继承唐虞以德治世的思想，真正以君子之道德化天下。可见，牧隐对理想社会的建设并未放弃希望，而是寄希望于君子之道大行的前提实现。

孔圣文章容得见，周公礼乐竟难行。肯从七日方来夏，天地有心元自明。<sup>70)</sup>

孔子以仁、礼为准删定六经，开启了“人者，仁也”的人本思想。但却曰“甚矣，吾衰也！久矣，吾不夏梦见周公”，实际上是慨叹世风日下，周公制定的礼乐不行于世。但牧隐却从『周易』夬卦的卦辞“七日来夏”和象辞“反复其道，七日来夏，天行也”中认识到物极必反、阴消阳长的自然规律，比之于人事，作为天地之心的君子之阳道必然风行于世，从而坚信尧舜垂裳而治、周

68) 李穡, 〈有感〉, 『牧隐诗稿』卷之二十二, 『韩国文集丛刊』第4辑, p.299.

69) 李穡, 〈杂咏〉, 『牧隐诗稿』卷之六, 『韩国文集丛刊』第4辑, p.27.

70) 李穡, 〈又吟〉, 『牧隐诗稿』卷之十, 『韩国文集丛刊』第4辑, p.91.

公礼乐大行的理想社会终究还会到来。

需要指出的是，牧隐强烈的君子意识和道德实践不仅对形成丽末鲜初士大夫阶层的君子之风起到了重要作用，而且也为朝鲜后期的实学派所继承，如“燕岩提出：上自天子，下及庶民，只要有家国天下的责任感，实践孝悌忠信之道，通过刻苦读书和学问于世有惠，都可看作‘士’”<sup>71)</sup>，这种士意识可以视为对牧隐的士君子意识的继承和发展。

#### 4. 牧隐君子意识的特征（代结论）

牧隐的君子意识指向的是尧舜之域、君子之国的再现和古君子之风的振兴。从牧隐君子意识的特征来看，主要可以归结为以下四个方面：

##### 1) 趣向显著

牧隐从个人志趣、学问性向、道德涵养等诸多方面对作为君子儒表现出显著的心理愉悦和德性幸福感，从孔颜之乐的探求到“君子三乐”的生活化，从忠恕仁善的君子人格到“三不朽”事业的社会实践，无不展现出对儒家德性幸福价值的主动追寻和积极实现，所追求的是儒家清新脱俗的圣贤境界。

##### 2) 率先垂范

牧隐不仅以“存其诚”和“主一守敬”涵养自己的君子品德，以“礼乐诗书出君子”的信念教育弟子，更是以“谁识君子终身忧，济世经邦当尽己”展现君子的兼济天下精神，在德性修养和行为礼仪、社会实践诸多方面率先垂范，成为师范当世、垂范未来的谦谦君子、有为君子的典范。

---

71) 김용태, 「연암 박지원의 사의식」, 『동양한문학연구』 제34집, 동양한문화회, 2012, p.155.

### 3) 知行相济

牧隐以人为“天地心”，“天行健，君子以自强不息”，“地势坤，君子以厚德载物”，不仅表现出按天地之道仁爱礼义、自强不息、刚健坚毅、与时俱进的品格做人做事，而且学以致用、知行相济，在儒学教育和社会关注方面尽己所能，使丽末鲜初儒学大兴、君子之风盛行，展现了作为儒林领袖、一代文衡的独特作用。

### 4) 承上启下

牧隐的君子意识上承新罗、高丽千年“君子之国”、“礼义之邦”的优良传统，继承益斋、稼亭的父师之教，振兴儒学，见贤思齐，功在当世；下启阳村权近、四佳徐居正等朝鲜朝前期，退溪李滉、南冥曹植等朝鲜中期，燕岩朴趾源、茶山丁若鏞等朝鲜朝后期大儒的士君子之风。其主要贡献在于从学理上阐明了君子思想对人格形成的特殊价值，从教育和社会实践上弘扬君子精神，使千年以来的君子之风深入人心，传承久远。

### 5) 开放包容

牧隐坚信“人人都可成为君子”的理念，故其君子意识具有鲜明的开放包容性质，上至国王，下至庶民，不论儒者或道佛信者，只要是具有忠恕仁善、正直好学品德的人均可视为君子之列；对于尚不具备君子之姿的人，笃信『周易』变易之道的牧隐认为可以通过德性教育转变和提升其品行，教化君子。

牧隐君子思想的形成，从文化传统来看，与新罗、高丽自古以来长期的“礼义之国”、“文献之邦”、“君子之国”意识潜移默化的影响有关；从个人修养角度来看，与牧隐长期受到父师之教和四书五经熏陶，赅续父师士君子思想传承并积极接受了经书所蕴涵的君子思想有关。从社会需求来看，与高丽末期社会士大夫阶层接受宋元性理学的影响，需要通过人格修养和德育教化，塑造具有德性素养和社会实践能力的儒家治世人才，并移风易俗，形成尊崇

礼义、诚信有序的社会风尚有关。而牧隐作为从元朝文化之都完美接受先秦四书五经和宋元理学传承的先进知识分子，归国之后深受高丽国王信赖，委以儒林领袖和成均馆长重任，各种因素促使牧隐能够一定程度上实现自己的平生志向，以特有的德性修养和社会实践能力，奠定了其“苟非稟天地之精英，穷圣贤之蕴奥，骋欧、苏之轨辙，升韩、柳之室堂，曷能臻于此哉。自吾东方文学以来，未有盛于先生者也”的思想史和文学史地位。

牧隐作为谦谦君子、有为君子的一生事业践行了他的初心志向，是理想人格的典范，其君子思想和社会实践的内涵特征内容丰富、意义重大。现代社会实用主义和名利思潮冲击着人们的价值观和生活方式，物欲膨胀、信仰缺失、行为失范现象日益严重，在当今社会加强德性和礼仪行为规范教育的必要性越加紧迫。研究大儒牧隐的君子形象和君子意识、君子精神不仅具有学术价值，对解决现代社会的各种弊端更是一剂良药，具有强烈的现实意义。

## ◆ 参考文献

### 1. 文献资料

- 崔致远, 『孤云先生文集』, 영인표집 『韩国文集丛刊』第1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崔致远, 『桂苑笔耕集』, 『韩国文集丛刊』第1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李谷, 『稼亭先生文集』, 『韩国文集丛刊』第3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李滉, 『退溪先生续集』, 『韩国文集丛刊』第31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李齐贤, 『益斋乱稿』, 『韩国文集丛刊』第2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李穡, 『牧隐稿』, 『韩国文集丛刊』第3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李穡, 『牧隐诗稿』, 『韩国文集丛刊』第4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李穡, 『牧隐文稿』, 『韩国文集丛刊』第5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权近, 『阳村先生文集』, 『韩国文集丛刊』第7辑, 민족문화추진회, 1995.

### 2. 单行本

- 목은연구회, 『목은 이색의 생애와 사상』(공저), 일조각, 1996.  
 신천식, 『목은 이색의 학문과 학맥』, 일조각, 1998.  
 여운필, 『이색의 시문학 연구』, 태학사, 1995.  
 이병학, 『여말선초 한문학의 재조명』(공저), 태학사, 2003.

### 3. 论文

- 곽신환, 「목은 이색의 시증 군자론」, 『유교사상문화연구』 제30집, 한국유교학회, 2007, pp.5-34.
- 김시업, 「목은의 군자의식과 민생풍속시」, 『목은 이색의 생애와 사상』 (이우성 외), 서울: 일조각, 1996, pp.359-384.
- 김용태, 「연암 박지원의 사의식」, 『동양한문학연구』 제34집, 동양한문학회, 2012, pp.121-159.
- 임종욱, 「목은 이색의 군자시 연구」, 『불교어문논집』 제3집, 한국불교어문학회, 1998, pp.145-166.
- 陈来, 「李牧隐理学思想简论」, 『云南大学学报』 (社会科学版) 第4期, 2006, pp.11-16.
- 李纪祥, 「『四书』本『大学』与『礼记·大学』:两种文本的比较」, 『文史哲』第4期, 2016, pp.23-44.
- 李苏平, 「论牧隐李穡的儒学思想」, 『韩国研究论丛』 第1期, 2012, pp.400-430.

논문접수일	2022년 08월 02일
심사완료일	2022년 08월 27일
게재확정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 A Brief Examination of Mok-eun Lee Saek's Thought of Junzi

Li, Xuetao

On the one hand, Mok-eun's thought of junzi inherited the customs of 'the land of the virtuous' and 'the nation of etiquette' in Silla and Goryeo and the teachings of his teacher Lee Jae-hyun and his father, Yi Gok. On the other hand, it initiated the style of scholars of various eras, including Gwon Geun, Yi Hwang, and Park Ji-won of the Joseon Dynasty. His major contributions lay in the scholarly elucidation of the special value of junzi ideology academically in characterization, enhancement of the junzi spirit through education and social practice, and in-depth portrayal of the landscape of the junzi over 1500 years.

Mok-eun revealed psychological perception and virtuous happiness as military freedom through personal taste, academic tendencies, and moral cultivation. He cultivated noble virtues by learning "keeping its sincerity" and "concentrating and obeying the rules of etiquette". He preserved the perspective of "learning in order to practice" and "combining knowledge with practice", and played a unique role as a leading figure in the literary world of his generation in the form of one page and one sentence in education and social interest. Mok-eun's concept of courtesy has the ide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being interesting, exhibiting exemplary, combining knowledge with practice, connecting the preceding and the following, and being open and inclusive. Exploring Mok-eun's image, consciousness, and spirit of the junzi not only has important academic value but also can provide clues to solve various problems in modern society.

**Keyword** Mok-eun Lee Saek, thought of junzi, virtue happiness, gentleman education, social practice





## 佛家视域下的“一场春梦”

- 以《枕中记》《南柯太守传》与《九云梦》为研究中心\* -

张鑫\*\* · 孙惠欣\*\*\*

### 국문요약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는 독특한 지리적 특징을 지닌 한반도와 중국은 예로부터 양국은 문학적 방면에서 폭넓은 상호 작용 및 교류를 했다. 중국 고전소설의 도입은 한국 고대소설의 창작에 영향을 미쳤다. <침중기(枕中記)>,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과 <구운몽(九云夢)>은 몽유류(夢游類) 소설이다. 이 세 작품은 모두 당대(唐代)를 시대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사상적 특징 및 작품 구성 등 여러 방면에서도 유사한 면이 있다. 이는 양국 간 폭넓은 문학 교류의 실증이며 또한 소설 발전의 역사 법칙에 부합한다. 하지만 양국의 문화 및 국가체제의 상이함으로 인해 소설의 취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은 세 편의 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인생무상(人生无常)”·“수의극락(守意极乐)”·“색즉시공(色即是空)”등 불교사상이 “꿈”을 꾸기 전 즉 현재의 곤경, “꿈”속에서의 달콤함, “꿈”에서 깬 후의 깨달음, 이 세 단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한다. 또한 양국 작가의 경험과 창작적 역사 배경을 결합하여 소설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논술하면서 작품 속에 숨겨진 문화 의식을 탐구해 양국의 몽유류(夢游類) 전기(傳奇)소설의 연관성을 알아본다.

**주제어** <침중기(枕中記)>, <남가태수전(南柯太守傳)>, <구운몽(九云夢)>, “인생무상(人生无常)”, “수의극락(守意极乐)”, “색즉시공(色即是空)”

\* 【基金项目】 中国国家社会科学基金项目“『太平广记』在朝鲜半岛的传播与影响研究” (19BZW041) 阶段性成果

\*\* 中国) 张鑫, 延边大学 朝汉文学院 亚非语言文学专业 在读博士

\*\*\* 中国) 孙惠欣, 大连大学 文学院 教授, 延边大学 博士生导师

## 〈目象〉

1. 序论
2. “人生无常”——“梦”前之困
3. “守意极乐”——“梦”中之美
4. “色即是空”——“梦”醒之悟
5. 结论

## 1. 序论

“人生如梦”是“三教一体”的古代文化的重要元素，也是文人人生观和生命观的一种表现形式。在佛家思想传入之前，中国便已形成以儒、道为主的哲学思想体系，在许多经典中便已出现与梦有关的内容，并一直延续于各朝各代的文学作品中。『左传』〈成公十年〉就曾记载有关与占梦相关的内容<sup>1)</sup>。在战国时期，『庄子』〈齐物论〉除了有“庄生梦蝶”的奇妙故事，更是有“有大觉而后知此其大梦也”<sup>2)</sup>的梦的体悟。『列子』〈周穆王〉则有关于“古莽国”的寓言传说，该国之人睡眠良多，以梦境为实，觉醒为虚，二者相互颠倒<sup>3)</sup>，此为“人生如梦”思想的萌芽。到了汉代，文人在文学作品中融入了谶纬之学和方士之说，不仅丰富了“梦”的内容，而且使故事更具梦幻色彩。『史记』〈外戚世家〉中则描写了因“梦苍龙据吾腹”<sup>4)</sup>而产子的梦验故事。『搜神记』〈孙坚妇人〉<sup>5)</sup>一文中，以梦日月入怀为“子孙其兴”之吉兆，亦体现的是梦的预示功能。而在『幽明录』〈谢安石〉中通过“桑”与“丧”的谐音，通过占梦的方式得出丧子的灾难<sup>6)</sup>，在『异苑』〈梦得大象〉中亦是“兽”同“守”的谐音，占梦出即将出任

1) 杨伯峻，『春秋左传注』，北京：中华书局，1981，p.849.

2) 郭庆藩·王孝鱼点校，『庄子集释』，北京：中华书局，1961，pp.104-105.

3) 杨伯峻，『列子集释』，北京：中华书局，1979，p.104.

4) 司马迁，『史记』，上海：上海书店，1988，p.1287.

5) 『汉魏六朝笔记小说大观』，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9，p.353.

6) 刘义庆，『幽明录』，北京：文化艺术出版社，1988，p.661.

大郡守的结论<sup>7)</sup>。从中可看出，中国文学作品中涉及梦元素的历史之久及范围之广是显而易见的。

“人生如梦”并非完全授之于佛家，但我、法两空的佛家“如梦”思想，比中国老、庄的相关思想表现得更为深刻<sup>8)</sup>。具体而言，佛家认为，“空无”是梦的根本属性，人生亦然。『金刚经』亦有“一切有为法，如梦幻泡影，如露亦如电，应作如是观”<sup>9)</sup>之语，这虽与道家有很大的相似之处，但也有一定的区别。如果说追求超越的道家学派，其人生如梦的本质是“弃欲求道”。那么重视轮回与解脱的佛家思想，则更多是对人生痛苦的一种缓释与消解。两者同中见异的论述，共同构建了梦的思想内涵，文学创作亦是如此，受到两者的同时影响。正如鲁迅先生所说：“秦汉以来，神仙之说盛行，汉末又大畅巫风，而鬼道愈炽，会小乘佛家思想亦入中土，渐见流传，凡此皆张皇鬼神，称道灵异，故自晋迄隋，特多鬼神志怪之书。”<sup>10)</sup>中韩诸多文学作品中，也有很多以佛家“人生如梦”思想为主要特征。本文选取以唐代为故事背景，且在故事结构、思想特征等方面有着诸多相似之处的最为典范的三部作品——中国的〈枕中记〉、〈南柯太守传〉和韩国的〈九云梦〉为中心进行阐释。

〈枕中记〉与〈南柯太守传〉是中国唐代文言小说的代表作品，分别以〈吕翁〉、〈淳于棼〉为名收录于『太平广记』。但当前学界习惯用〈枕中记〉和〈南柯太守传〉来指称两部小说，因此本文也采用此名称。至于〈九云梦〉是否与〈枕中记〉、〈南柯太守传〉有关联或承继关系，我们要从〈枕中记〉、〈南柯太守传〉在朝鲜半岛的传播谈起。学界对这两部作品以单行本的方式传入产朝鲜半岛的时间并未有明确的定论，但收录这两部作品的集子『太平广记』传入古代朝鲜的时间及对朝鲜文学产生深刻影响的事实，已经得到韩中学者的广泛认同。韩国闵宽东根据『高丽史』中的内容认为关于『太平广记』具体传入朝鲜半岛的时间，推论众多。张国凤在其论文〈太平广记版本考述〉中依据现有韩

7) 『汉魏六朝笔记小说大观』，上海：上海古籍出版社，1999，p.659.

8) 孙昌武，『佛教与中国文学』，上海：上海人民出版社，1988，p.159.

9) 鸠摩罗什译 陈秋平·尚荣译注：『金刚经』，北京：中华书局，2007，p.74.

10) 鲁迅，『中国小说史略』，北京：中华书局，2016，p.22.

国文献，如〈翰林别曲〉中提到『太平广记』，大致确认“至迟在公元1216年（时当南宋宁宗嘉定九年），『太平广记』已传入韩国，并流传开来。”<sup>11)</sup>韩国学者闵宽东参考了其他韩国学者，如金长焕<sup>12)</sup>等人的研究成果，认为『太平广记』大概在1100-1200年之间传入朝鲜半岛<sup>13)</sup>。此后，在其『中国古代小说在韩国研究之综述』中，闵宽东推断：“此书最晚当于高丽文宗三十四年（1080）前已传入韩国。”<sup>14)</sup>赵维国进一步考证，认为“『太平广记』一书传入高丽的时间当在熙宁五年（1072）至元丰三年（1080）之间”<sup>15)</sup>，这是目前学界比较认同的观点。

根据文献资料的记载，韩国文人对『太平广记』的接受程度比较广泛。徐居正为『太平广记详节』所作序中则写道：“及读『太平广记』，……为书总五百卷，大抵哀集稗官小说……”<sup>16)</sup>。正是缘于『太平广记』在韩半岛地广泛传播，朝鲜朝文人在文学的创作中，一定程度上接受了其中的作品。可以看出对『太平广记』十分了解。闵宽东更是将其评为“最受欢迎的十部作品”<sup>17)</sup>，金万重的“〈九云梦〉以『太平广记』为蓝本，却成就了毫不逊色的文学经典。”<sup>18)</sup>

〈枕中记〉、〈南柯太守传〉及〈九云梦〉三部小说都含有梦的元素，在许多方面存在相关之处。一方面三者有共同的故事原型。金宽雄先生认为：“〈九云梦〉是汉字文化圈诸国传统文学中具有最典型梦幻型结构的启悟小说。这种小

11) 张国风，『太平广记版本考述』，北京：中华书局，2004，p.55.

12) 김장환·박재원·이래중 역주：『태평광기상절』，서울：학고방，2005，pp.4-7.

13) [韩] 闵宽东 (민관동)：『中国古典小说在韩国之传播』，上海：学林出版社，1998，pp.243-245.

14) [韩] 闵宽东 (민관동) 著，李英月 译：『中国古代小说在韩国研究之综考』，武汉：武汉大学出版社，2016，p.285.

15) 赵维国：「〈太平广记〉传入韩国时间考」，《中国典籍与文化》第2期，2002，pp.34-41.

16) 서거정，『사가문집』 제4권，『한국문집총간』 제11권，서울：민족문화추진회，1988，p.237.

17) [韩] 闵宽东 (민관동)，『中国古典小说在韩国之传播』，上海：学林出版社，1998，p.367.

18) 邱华栋，「构建东亚文学地理学的新景观」，<http://www.chinawriter.com.cn/n1/2018/1019/c404018-30351531.html>，2018.

说的梦幻结构原型，源出于佛典《杂宝藏经》中的《娑罗那比丘为恶生王苦恼缘》，它后来启发了魏晋南北朝时期的《杨林》，而到了唐代则发展为《枕中记》、《南柯太守传》、《樱桃青衣》等传奇。在唐传奇的启发下出现了朝鲜的《调信》，最终发展为《九云梦》。<sup>19)</sup>另一方面三部小说又均选择唐代作为故事背景，因此有理由相信，他们之间存在一定的关联。包括《九云梦》在内的内韩国古典汉文小说，直接或间接地受益于《枕中记》等中国小说，这是符合小说文体传播的发展规律的。

学界对《九云梦》研究的学术成果较为丰富，从研究内容来看多集中在小说主题思想、小说本体、作品比较等方面。本文相较于其他学术成果，主要有两点不同之处。其一丰富了比较范围。中韩学者通常将《枕中记》、《玉楼梦》、《玉麟梦》等作品，与《九云梦》与进行单本比较分析，多文本比较研究少之又少，而本文则将多部作品进行比较分析，旨在更为准确的发现不通过别的作品，在同一题材中所体现的关联性和规律性。其二扩大了研究角度。当前学界对《九云梦》在主题思想上的研究，主要集中在儒、道两家，佛家思想所有涉及，但研究成果相对简略。本文以佛家“人生如梦”思想为主线，对以唐代为背景小说的影响角度出发，分别从“梦”前、“梦”中及“梦”醒三个部分，探究《枕中记》、《南柯太守传》等带有梦元素的故事，与韩国古典汉文小说《九云梦》之间的关联，并在此基础上，探寻故事背后的社会背景与创作。

## 2. “人生无常”——“梦”前之困

“无常”思想的意蕴丰富，一切皆空，消灭苦果苦因，使其处于寂静、安稳、常在之状态是其思想的主要观点，生命终将走向毁灭是“无常”最为主要的表现形式之一<sup>20)</sup>。受佛家的“无常”思想的影响，在中韩文人的文学作品中，“无常”通常是灾难的“同义语”<sup>21)</sup>，被认为“是令人厌恶和排斥的现象”<sup>22)</sup>。在含

19) 金宽雄，《朝鲜学——韩国学与中国学》，北京：中国社会科学出版社，1993，pp.296-310.

20) 张哲俊，《东亚比较文学导论》，北京：北京大学出版社，2004，p.138.

有梦元素的中韩古典汉文小说中，这种灾难集中表现为男主人公在“精神”、“物质”等方面困顿上，〈枕中记〉、〈九云梦〉等小说就有很好地体现。以“梦”为分界，男主人公在入“梦”之前，普遍因不满于当下的现实世界，困顿于精神或物质生活。

乃叹曰：“大丈夫生世不谐，而因如是乎。”翁曰：“观子肤极腴，体胖无恙，谈谐方适；而叹其困者，何也？”生曰：“吾此苟生耳，何适之为。”翁曰：“此而不适，而何为适？”生曰：“当建功树名，出将入相，列鼎而食，选声而听，使族益茂而家用肥，然后可以言其适。吾志于学而游于艺，自惟当年，朱紫可拾，今已过壮室，犹勤田亩。非困而何？”<sup>23)</sup>

——〈枕中记〉

东平淳于棼，吴楚游侠之士，嗜酒使气，不守细行，累巨产，养豪客。曾以武艺补淮南军裨将，因使酒忤帅，斥逐落魄，纵诞饮酒为事。<sup>24)</sup>

——〈南柯太守传〉

性真来到禅房，日已醺黑矣。自见八仙女之后，嫩语娇声，尚留于耳边，艳态妍姿，犹在于眼前。欲忘而难忘，不思而自思。神魂恍惚，悠悠荡荡，兀然端坐，默念于心曰：“男儿在世，幼而学孔孟之书，壮而逢尧舜之君，出则作三军之帅，入则为百揆之长，着锦袍于身，结紫绶于腰，揖让人主，泽利百姓。目见娇艳之色，耳听幻妙之音，荣辉极于当代，功名垂于后世，此固大丈夫之事也。笑我佛家之道，不过一孟饭，一瓶水，数三卷之经文，百八颗之念珠而已。其德虽高，其道虽玄，寂寞太甚矣，枯淡而止矣。假令悟上乘之法，传祖师之统，直坐于莲花台上，三魂九魄，一散于烟焰之中，则夫孰知一个性真生于此天地间乎？”思之如此，念之如彼，欲眠不眠，夜已深矣。<sup>25)</sup>

——〈九云梦〉

21) 张哲俊，同上，p.139.

22) 张哲俊，同上，p.141.

23) 李昉等撰，『太平广记』，北京：中华书局，1961，p.527.

24) 李昉等撰，同上，p.3910.

25) 金万重，〈九云梦〉，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4，p.6.

在《枕中记》中，卢生在入睡前，本有志于研学六艺，考取功名，但却始终过着“已过壮室，犹勤田亩”的生活。《南柯太守传》中的淳于棼，因早先酒后失言触犯主帅被免职，而后每天以酒为伴，过着漂泊的生活。在《九云梦》中，性真在与八仙女邂逅之后，便对清贫的僧侣生活产生怀疑，认为男儿应“入则为百揆之长”、“出则作三军之帅”，而从“荣辉极于当代”“功名垂于后世”等志向中，则可看出他对世俗生活的极度渴望。在这几部梦幻类小说中的男主人公，有“生世不谐”的卢生，有“淮南军裨将”且“累巨资”的淳于棼，还有应该“悟上乘之法，传祖师之统”六观大师的得意弟子性真。从身份地位上来说有着巨大的差别，但他们皆处在精神或物质的困顿之中，内心所愿无法实现。

从创作环境来看，三部作品均关注文人困境及社会现实。唐传奇常常被作为“行卷”或“温卷”，文人以此来展现自身的才华，并将其作为另一条求仕的途径。这也就意味着，《枕中记》、《南柯太守传》等唐传奇作品，主要面对的读者是士族阶层，而非黎民百姓。这类作品通过描写当时文人所处的困境，来引起广大儒学士子的共鸣。受儒家思想的影响，中韩文人视保卫家国和光耀宗族为己之责，将立言、立德、立功作为评定人生价值的重要标准，成为一名出色的政治家更是毕生之追求，因此普遍会作品中探讨与“入世”有关的话题。作品所表现出来的“困顿”，也是源于男主人公在儒家思想下建功立业、立身扬名不得的遗憾与无奈。“九品中正制”一直是唐之前最为主要的选官制度，久之便形成了数个世家大族，国家要职绝大部分由士族之人担当。到了唐代，根植于世家大族的“裙带关系”依然盛行，士族之中的高贵者被称为“五姓七家”，分别是“博陵崔、清河崔、范阳卢、赵郡李、陇西李、荥阳郑、太原王”<sup>26)</sup>。在当时，婚姻需考虑门第的因素，时人以娶“五姓七家”女为荣耀，这种联姻的方式会取得政治利益最大化的效果。

……

生俯首枕之，寐中，见其穹大而明朗可处，举身而入，遂至其家。娶清河崔氏女，女容甚丽而产甚殷。由是衣裘服御，日已华侈，明年，举进士，登甲科，解褐

26) 王汝涛，《唐代小说与唐代政治》，长沙：岳麓书社，2005，p.244.

授校书郎，应制举，授渭南县尉，迁监察御史起居舍人，为制诰。三年即真。出典同州，寻转陕州。生好土功，自陕西开河八十里以济不通。邦人赖之，立碑颂德。迁汴洲岭南道采记使，入京为京兆尹。<sup>27)</sup>

.....

——〈枕中记〉

右相曰：“寡君不以弊国远僻，奉迎君子，托以姻亲。”……生战栗，不敢仰视。左右侍者令生拜，王曰：“前奉贤尊命，不弃小国，许令次女瑶芳奉事君子。”

.....

妻谓生曰：“子岂不思为政乎？”生曰：“我放荡，不习政事。”妻曰：“卿但为之，余当奉赞。”妻遂白于王。累日，谓生曰：“吾南柯政事不理，太守黜废，欲藉卿才，可曲屈之，便与小女同行。”<sup>28)</sup>

——〈南柯太守传〉

〈枕中记〉中，卢生所娶之人，乃“清河崔氏女”。而卢生正是在娶妻之后，从地方小吏直至与萧令嵩、裴光庭共同执掌国家大政，仕途可谓风光无限。〈南柯太守传〉中的淳于棼虽“放荡不习政事”，但因为是驸马之缘故仍能出任南柯太守。而在征伐檀萝国中，率兵溃败，全军覆没，理应处死，又因裙带关系，免除其罪。金万重生活的年代，朝鲜王朝党争不断，文人仕途进退与其背后的势力有一定关系，这也体现在了小说当中。〈九云梦〉中的杨少游一生所娶“二妻六妾”，与卢生相似，一妻所娶名门望族郑琼贝，乃当朝宰相之女。二妻所娶当朝公主李箫和。杨少游出众的才华是其宦途恒达的关键因素，但深厚的家族背景是其平步青云的重要原因。中韩文人极力刻画“梦”前后男主人公身世命运的巨大反差，意在突出“裙带”之重要，并以此来提出对“裙带关系”的强烈不满。这种“文以载道”的文学观念是儒学思想支配下的产物，通过文学与政治“联姻”的方式，使文学成为一种维护封建统治的重要手段。因而中韩文人通常以儒学的视角解读人生“无常”的原因，最终将其归之于对社会问题的讽刺和批判。

27) 李昉等撰，『太平广记』，北京：中华书局，1961，p.527.

28) 李昉等撰，同上，pp.3910-3911.



从思想意识来看，三部作品还有劝慰和告知的作用。沈既济在《枕中记》开篇便让卢生与吕翁探讨“适”的问题，并在梦醒之后领悟到“宠辱之道，穷达之运，得丧之理，死生之情”<sup>29)</sup>的“窒欲”之道。这是作者数十年沉浮宦海及接受佛道思想之后的真实感悟，告诫后人不要过渡沉湎于对功名富贵的追求，“这是劝人不要躁进，把功名富贵，看淡些的意思”<sup>30)</sup>。与沈既济温和的劝诫不同，李公佐在梦前塑造的非文非武、混沌于市的无志之人，与“南柯”梦中夤缘而上成为一国驸马形成强烈的对比，影射如淳于棼般无德无才之人却能占据高位，以此讽刺天下士子文人政治的腐朽及统治者的无能。并最终劝告“后之君子，幸以南柯为偶然，无以名位骄于天壤间云。”<sup>31)</sup>身为朝鲜名儒的金万重，其作品亦会表达读书取仕政治理想。与此同时，朝鲜朝时期程朱理学在思想领域占据着主导地位，所提倡的“兴观群怨”的观点，是一种文学为社会服务的具体要求。在金万重看来，小说的文学地位及社会教化作用丝毫不低于其他文学形式，并引经据典对《三国演义》在民间比《三国志》的影响大这一观点进行论述。因此，金万重的作品除了体现儒士的政治取向及理想，还有着较强的教化百姓的意识。除此之外，作者自幼成长于党派斗争之中，其仕途与生命的结束亦是如此。他深知政治的残酷，而在文本中却描绘了封建君主制度下最为理想的政治秩序，这也许是一代儒士在黑暗的现实面前最后的倔强，亦或是受佛家思想感化后对现世的无奈与自我解脱。最后借性真之口告诫后人，杨少游虽“……早捷状元，为翰苑之宦，出将三军，入总百揆”<sup>32)</sup>，过着“杯酒团圆，晨昏行乐”令人羡慕的生活，但一切“富贵繁华、男女情欲，皆妄幻也”<sup>33)</sup>，所发生的一切只不过是“一场春梦事耳”<sup>34)</sup>。

中韩两国的文人，普遍自幼研学儒家经典，视济世救民为己任，因而热

29) 汪辟疆，《唐代小说》，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p.47.

30) 鲁迅，《中国小说史略》，北京：中华书局，2016，p.202.

31) 汪辟疆，《唐代小说》，上海：上海古籍出版社，1978，p.107.

32) 金万重，《九云梦》，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4，p.149.

33) 金万重，同上，p.149.

34) 金万重，同上，p.149.

衷于探寻文学作品中“困顿”背后社会原因。此种处理方式，是儒释思想结合的产物，同时又是“经世致用”与“人生无常”交融的具体表现，从而以儒家思想的社会观点来展现佛家思想关于“无常”的哲学认识观，既有利于作者在文学作品中流露真实的情感，又便于读者对文学作品的接受。

### 3. “守意极乐”——“梦”中之美

在佛家思想梦幻意识影响下创作的“涉梦”类文学作品，其框架结构基本相似，主要包括“悄然入梦”“实现理想”及“梦醒觉悟”等三个部分，故事的发展主要集中在“梦”中进行。作者通过大胆想象，利用“梦”境中的“无”来呈现现实世界中的“有”。这种奇妙的时空变幻，不仅能够拓宽人物活动的依托空间，还有利于表达作者创作文学作品的内在思想。

在“守意”中“悄然入梦”。“守意”是佛家思想修行之人，通过坐禅等方式，以求摄定“心”、“意”，在安稳心神之中求得精神解放。一定意义上讲，“心”与“意”是独立于躯体而存在的，而佛家通过特有的修行方式，有意识地对“心”与“意”进行摄定。在三部作品中，作者不约而同的选择了以“梦”的形式使其保持在一个安稳的状态。

言讫，目昏思寐，是时主人蒸黄粱为饌，翁乃探囊中枕以授之曰：“子枕此，当令子荣适如志。”其枕瓷而窍其两端，生俯首枕之，寐中，见其窍大而明朗可处，举身而入，遂至其家。<sup>35)</sup>

——〈枕中记〉

唐贞元七年九月，因沈醉致疾，时二友人于坐扶生归家，卧于堂东庑之下。二友谓生曰：“子其寝矣，余将秣马濯足，俟子小愈而去。”生解巾就枕，昏然忽忽，仿佛若梦。<sup>36)</sup>

——〈南柯太守传〉

35) 李昉等撰，《太平广记》，北京：中华书局，1961，p.527.

36) 李昉等撰，同上，p.3910.

《枕中记》中的卢生在吕翁交谈甚欢之后，突然慨叹自己“不适”的生活。亦或是极喜极悲的原因，突然萌生睡意，便在吕翁递过的枕上酣然睡去。而《南柯太守传》的淳于棼则是因酒后失言触怒权威，整日以酒为乐，过着放荡不羁的生活，最终嗜酒致疾，被好友搀扶回家，在酒精的麻醉下酣然入梦。两部小说的男主人公虽入睡的原因不同，但最终“心”“意”设定的结果确是相同的。《九云梦》中性真虽非以睡觉的方式进入“梦”中，但从梦醒后“独坐小庵中蒲团上”，可推测其是以“坐禅”的方式入梦的。因其妄念“被师傅戒责，随力士往鄂都”<sup>37)</sup>，在梦中化身杨少游过着“幻圣人世”<sup>38)</sup>的生活。一位是穷困潦倒的卢生，另一位是资产雄厚的淮南军副将领，还有一位则是佛门弟子性真，尽管从身份地位上来说有着巨大的差别，但是他们皆是在或无声或有声的“抱怨”下进入到无意识的睡梦之中，进而将其作为实现人生理想的重要途径。这种“心”“意”与躯体分离下产生的“梦”，一定意义上说是佛家“守意”的延续，同时也为“涉梦”小说的叙事结构奠定了基础。

在“极乐”中“畅享梦境”。佛家思想的归旨是不断探寻生命与事物本质，它的存在是帮助人们认识世界的一种重要途径。从古自今，“世界”一词往往被看作是一个与区域有关的概念，但佛家的“世界”则是由“世”的时间观与“界”的空间观组成。除此之外，佛家思想所探讨的“世界”主要包括两种，一是由劫浊、见浊、烦恼浊、众生浊和命浊组成的“五浊恶世”，另一种则是万物严丽、无量珍宝的“极乐世界”。二者有着天壤之别，“五浊恶世”更多强调世间之苦难，而“极乐世界”则是符合一切美好愿望的理想世界，这也是佛家信徒追求和向往的圣地。《枕中记》、《九云梦》等“涉梦”类小说便是受其影响下出现的文学产物。以“梦”为分界，男主人公在入“梦”之前，普遍因不满于当下的现实世界，困顿于精神或物质生活，“苦”从中来，这也是“五浊恶世”思想影响下的具体表现。与之相反，当男主人公进入梦境，一切困顿和烦恼都烟消云散，取而代之的是令人羡慕的财富、地位，在愿望满足的同时使其人生价值达到最大化。

……迁汴洲岭南道采记使，入京为京兆尹。……遂除生御史中丞河西陇右节度

37) 金万重,《九云梦》,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4,p.149.

38) 金万重,同上,p.149.

使, ……以石征功焉, 归朝策勋, 恩礼极崇, 转御史大夫吏部侍郎。物望清重, 群情翕习, 大为当时宰相所忌, 以飞语中之, 贬端州刺史, 三年征还, 除户部尚书。未几, 拜中书侍郎同中书门下平章事, 与萧令嵩、裴侍中光庭同掌大政, 十年, 嘉谋密命, 一日三接, 献替启沃, 号为贤相。<sup>39)</sup>

——〈枕中记〉

……

生自尔情义日洽, 荣曜日盛, 出入车服, 游宴宾御, 次于王者。

……

王甚重之, 赐食邑锡爵, 位居台辅。周田皆以政治著闻, 递迁大位。生有五男二女, 男以门荫授官, 女亦婚于王族, 荣耀显赫, 一时之盛, 代莫比之。<sup>40)</sup>

——〈南柯太守传〉

杨丞相以一介书生, 遇知己之主, 值有为之时, 武定祸乱, 文致太平, 功名富贵, 与郭汾阳齐名。而汾阳六十方为上将, 少游二十出为上将, 人为丞相, 久居鼎位, 协赞国政, 过于汾阳二十四。上得君心, 下协人望, 坐享丰亨豫大之乐, 诚历万古绝百代而所未闻也。<sup>41)</sup>

——〈九云梦〉

在〈枕中记〉中, 卢生入梦之后, 先是娶“五姓七家”清河崔氏之女, 虽几经贬谪, 但其宦途可谓飞黄腾达, 自中进士起, 直至与“与萧令嵩、裴侍中光庭同掌大政”, 其私下里更是过着“良田甲第, 佳人名马, 不可胜数”<sup>42)</sup>的生活。〈南柯太守传〉中的淳于棼原本是一放荡不羁的武士, 在梦中却位及驸马, 一切宴饮娱乐的礼节仅“次于王者”。其膝下子女也受其荫蔽, 荣耀显赫, 在当时“代莫比之”。〈九云梦〉中的杨少游, 先后三妻五妾, 官途十分通达, 其功名与财富为人间所少有, 后代子孙亦富贵荣华, 可谓人生之大赢家。从三部作品中可以感受到, “梦”前之苦是由人的世俗欲望无法满足造成的, 包括对物质、女色、政治等欲望方面的欲望往往是实现不了的, 所以便有了无解的痛苦。而

39) 李昉等撰, 『太平广记』, 北京: 中华书局, 1961, p.527.

40) 李昉等撰, 同上, pp.3912-3913.

41) 金万重, 〈九云梦〉,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4, p.142.

42) 李昉等撰, 『太平广记』, 北京: 中华书局, 1961, p.527.

“梦”中之美所体现的是佛家对诸事具足圆满，惟有乐而无有苦也的“极乐”思想，简言之就是人对幸福生活最纯粹的渴望。

作者不约而同地在梦境中创造出令人向往的美好社会，这不仅是佛家思想“极乐世界”影响下的直接表现，同时体现出在儒家思想影响下中韩文人的政治理想追求。包括《枕中记》、《南柯太守传》、《九云梦》等在内的梦幻小说，将故事的发生背景多安排在唐朝时期，这必然与作者的创作意图有关。在唐朝，儒家思想可谓盛极一时，所强调“学而优则仕”、“士志于道”等思想深入士子之心，科举考试便被当时人们视为冲破阶级束缚的重要手段。“父教其子，兄教其弟，无所易业……五尺童子，耻不言文墨”<sup>43)</sup>，在唐代形成了士人热爱读书的良好风气。“郡国所送，群众千万。孟冬之月，集于京师。麻衣如雪，满于九衢”<sup>44)</sup>，在当时，举子多出寒门，赴京科考多穿麻衣，而后麻衣也被视为举子的标志。从“麻衣如雪”中可见当时科考之壮观景象，“士无贤不肖，耻不以文章达，其应诏而举者，多则二千人，少犹不减千人”，应举之人甚多亦能说明当时人们参与科考的热情。从上述文献的记载中不难发现，广大读书之人渴望通过参加科考的途径跻身仕途，在光宗耀祖的同时，实现辅君报国的政治理想，在梦幻类的小说作品中亦能发现其中的影子。《枕中记》中，卢生以“建功树名，出将入相，列鼎而食，选声而听，使族益茂而家用肥”<sup>45)</sup>为适，便是渴望功名与物质生活的具体表现。一代名儒金万重并没有像其他儒士一般将程朱理学奉为圭臬，而是广泛地学习佛、道等百家思想，《九云梦》中性真便是在儒释思想交融下塑造的人物角色。当性真迷恋俗世之生活时曾感叹：“男儿在世，幼而学孔孟之书，壮而逢尧舜之君，出则作三军之帅，入则为百揆之长，着锦袍于身，结紫绶于腰，揖让人主，泽利百姓。”从表象上看，这是性真在世俗生活诱惑下对佛家清贫生活产生的怀疑，但实则是作者利用僧人这一特殊身份，以佛家信徒之口高歌儒家士子之追求，前后强烈的反差将金万重等朝鲜文人渴望功名、积极入世的政治思想表达的淋漓尽致。

43) 董诰等撰，《全唐文》，北京：中华书局，1990，p.4867.

44) 董诰等撰，同上，p.4867.

45) 李昉等撰，《太平广记》，北京：中华书局，1961，p.527.

#### 4. “色即是空”——“梦”醒之悟

“色空”观是佛家重要的思想，从哲学的角度来看，佛家认为世间万物是虚而不实的。所谓“色”，是一种以表象的形式外化精神或物质上的现象，而“空”则是指一切精神和物质内在的本质属性，《般若波罗蜜多心经》中所提出的“色不异空，空不异色，色即是空，空即是色”便是其思想的具体体现。在佛家的因缘观念中，亦有“四大皆空”的思想，认为世间万物皆是因缘而起，无缘则灭。一切痛苦与困顿皆是源于无法正确认识世间万物，被眼前暂存之“色”迷惑本心。进而可知，痛苦和困顿的最好方式便是拨“色”寻“空”。《金刚经》中指出：“凡有所想，皆是虚妄”，认为现实世界之万物，“一切皆有法，如梦、幻、泡、影，如露亦如电”<sup>46)</sup>，短暂且虚无，因而它提倡人们不要对执着追求和沉迷于现实世界。《枕中记》、《南柯太守传》及《九云梦》等几部小说中，无论从布局谋篇。还是主题情感都带有强烈的“色空”印记，但几部小说又不是在简单地诠释“色空”思想，而是作者在结合自身的人生经历的基础上，将其消融在小说的细节之中。

《南柯太守传》中，淳于棼“梦”醒之后，梦境之内容皆一一印证，因而在文末感慨：“生感南柯之浮虚，悟人世之倏忽，遂栖心道门，绝弃酒色”<sup>47)</sup>。这里的“道”门，并非道家或道教，除了宋代的全真教对酒色有忌讳以外，道教并不排斥酒、色。而文中所强调对酒、色进行“弃绝”，此乃佛家之戒条。因而，淳于棼所归之“道”门，应是佛家之门。在《九云梦》中，当杨少游功成名就、子孙兴旺之时，说道：“世有三教，曰儒，曰佛，曰老庄。三教之中唯佛教最高”<sup>48)</sup>。杨少游在经历了世间之荣华与富贵，最终无论是梦中还是梦醒都回归于“寂灭之门”。而《枕中记》中，虽未明确卢生醒后是否归隐佛门，但在吕翁的帮助下，悉知“宠辱之数，得丧之理，生死之情”<sup>49)</sup>，不在为功名之事所困顿，这

46) 李淼 编，《中国佛禅文化名著》，吉林：延边大学出版社，1995，p.272.

47) 李昉等 撰：《太平广记》，北京：中华书局，1961，p.3915.

48) 金万重，《九云梦》，上海：上海古籍出版社，2014，p.147.

49) 李昉等 撰：《太平广记》，北京：中华书局，1961，p.528.

也是拨“色”寻“空”的具体表现。

文学作品的产生是基于社会发展的现实条件，同样与作者主观情感有着必然的联系。三部小说看似这般相同的结局，除了与在文学艺术层面的继承和发展方面有关之外，还跟作者的人生经历有关。《枕中记》的作者沈既济，在德宗时期被时任宰相杨炎所举荐，任职从八品下的左拾遗。尽管官品低下，但身为谏官他依旧积极参与政事，多次上奏抨击科考与铨选制度，对政治问题有着自己独到的见解，渴求被皇帝委以重任。但他的建议和主张并不符合刚刚登基急于树立权威的德宗执政观念，加之受到杨炎的牵连，在建中二年被贬为处州司户。据李剑国先生考证，《枕中记》应作于建中二年被贬之后<sup>50)</sup>。在经历了宦海浮沉之后，他已深知官场之黑暗和国家之衰败。因而在《枕中记》中，卢生所经历的荣华与富贵正是他执着于官场的真实写照，而一句“人世之事，亦犹是矣”，则是看透繁华背后虚妄的结果。“中唐时期是唐代传奇的繁盛时期，作者纷起，产生了一些有名的作品”<sup>51)</sup>，作为中唐第一篇唐传奇的《枕中记》对后世唐传奇的创作可谓影响深远。鲁迅曾指出：“其立意与《枕中记》同”<sup>52)</sup>，从中可以作证此观点。李公佐是《南柯太守传》的作者，他的政治生涯并不顺利，常年任职从事、判官等地方小官。因其屈居下僚，人微言轻，面对社会上存在的种种问题，无法直言于圣上，只能通过文学创作来抒发自己的怀才不遇，同时对现实存在的问题进行抨击和讽刺。与《枕中记》不同的是，《南柯太守传》中所塑造的淳于棼是一位放荡不羁、飞扬跋扈的武士形象，而当时“士有不由文学而进”，就是这样一位“谈者所耻”的人物，却能成为大槐安国驸马。这种形象上的反差和情节上的设计，则是源于作者对现实的不满和批判。安史之乱后，国家动荡不安，处于安抚藩镇的野心以及对其武力以来的需要，自代宗起便开始了与边镇守将之后结亲，因而作者塑造淳于棼这一角色，以表对此的批判和讽刺。而后又将官场比作“蚁穴”，揭露其黑暗的本质，最终“栖心道门”。

50) 李剑国，《唐五代志怪传奇序论》，天津：南开大学出版社，1993，p.296。

51) 周绍良，《唐传奇笺证》，北京：人民文学出版社，2000，p.14。

52) 鲁迅，《中国小说史略》，北京：中华书局，2016，p.47。

除了小说内容和价值取向方面相似之外，金万重与沈既济、李公佐的人生经历也有着极为相似之处。金万重跻身两班，自幼接受儒家经典，是朝鲜的一代名儒，曾任先后担任功曹判书等关键职位。然而当朝统治黑暗腐朽，贪婪地向广大百姓进行索取，阶级矛盾愈演愈烈，加之党争问题甚嚣尘上，作者也未免于卷入此次政治漩涡之中。金万重亦曾有着扬名天下、济世救国之远大理想。但在宦海沉浮中反复遭受的排斥与诬陷，使他对官场的产生了强烈的失望与痛恨的情绪。于是他用佛家“真空妙有”的思想来慰藉精神的创伤，通过浪漫主义笔法寻求“鬼精神而遗形骸”的佛家世界。因而性真在经历了世间轮回之后，顿悟一切皆为虚妄的佛理。金万重是在“用幻觉的美弥补理想破灭的虚空，用无念的寂静平复精神创伤的痛苦”<sup>53)</sup>，杨少游只有在皈依佛门之后，才能减少人生的颠沛和不安，这未尝不是作者本人看破当时黑暗现实后的一种表达。或者说，是对世俗欲望得不到满足的一种自我安慰，也可以说是对其他入欲望得到满足的一种嫉妒心理。

## 5. 结论

虚构是文学的本质，中韩文人在这一点的认知上大体相同。班固曾评价小说乃“道听途说者之所造也”，而“正史之馀”、“稗官野史”等评价亦能说明古人对小说的虚构性有了较为清晰的认识。朝鲜文人亦是如此，李頤淳在〈乐亭记序〉中说道，小说是“架空构虚之说”，其他文人亦有相类似的评价，这也就说明朝鲜文人接受了小说虚构的这一特性。但是虚构的文学作品，往往反映了特定时代的社会现实，以及这种环境下人们的真实心理和主观情感。

梦本身就带有强烈虚幻的色彩，因此中韩文人常常将“梦”作为小说“虚构”的最佳表现形式。然而“梦”与“虚”并非完全等同，其往往被作者视为一种隐喻的手段，来表达内心之真与现实之真。作者通常将自己内心最为真实的情感表达于“梦”中，可以肆意地宣泄，又可将社会的真实面貌渗透于小说之中，无

53) 李岩，『中韩文学关系史论』，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3，p.373.



需顾虑因“虚构”的“梦”，而遭致无尽的祸患。此时的“梦”是其最为安全的栖息场所。作者可通过男主人公表达自己报国无门的哀怨，又可在梦中实现济世救国的政治理想。故事虽为虚构，但情感真挚纯粹。积极入世的思想是儒士毕生之追求，一切“苦难”之源泉也皆因入世之坎坷，即便佛家空无思想给予中韩文人精神上的慰藉，但提倡“有为”的儒家思想，深深影响着中韩文人的价值取向和审美追求。儒与佛仿佛是两座不可逾越的丰碑，在其核心思想上有着极大的区别，并以或隐或现的方式，在看似冲突中相互融合，将作者所念之情表达的酣畅淋漓。

《枕中记》、《南柯太守传》、《九云梦》等“涉梦”小说，在题旨、情节等方面有着诸多相似之处，分别由中韩知名儒士创作而成，虽身处两国，且创作时间相差近千年，但从作品本身来看，无论是行文结构、主题思想都有着极度的相似之处。三部小说皆是以唐代作为故事发生的历史背景，在遵从史实的基础上，将人物角色合理的安排其中。与此同时，三部作品都是由包含“梦”前之困、“梦”中之美及“梦”醒之悟三个部分组成，与之分别对应的是佛家“色空”观中的“由空入色”“由色住心”及“由色悟空”三个心理阶段<sup>54</sup>，且皆以“一觉醒来感人生虚无，皈依道门(佛门)”<sup>55</sup>结尾，从中可以看出中韩“涉梦”小说之间的双向互通痕迹。

《枕中记》是唐代小说的代表作品，不仅为后世演绎出“黄粱一梦”、“邯郸一梦”等成语典故，其故事情节更是为后世戏曲、小说等文学创作提供重要的参考文本。宋人话本《黄粱梦》、马致远等人创作的《开坛阐教黄粱梦》等作品便是其中的代表，可见《枕中记》在对中国文学史的发展影响之甚远。

《南柯太守传》亦是受其影响下创作的作品，“其立意与《枕中记》同”<sup>56</sup>，但在人物塑造、叙述结构方式等方面做了更为大胆的尝试和创新，为后世相关作品的创作提供了重要的参考依据。人物塑造方面，《枕中记》的卢生是士人形象的缩影，其作为一种特定的意象符号，人物的性格与形象具有普遍

54) 李岩，「《九云梦》的佛教倾向」，《中国民族学院学报》第2期，1993，p.74.

55) 李岩，《中韩文学关系史论》，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3，p.377.

56) 鲁迅，《中国小说史略》，北京：中华书局，2016，p.47.

性，但缺乏特殊性。而李公佐在《南柯太守傳》中則做了大膽的嘗試，他並沒有設計“千篇一律”的書生形象，反之在不諳政事的淳于棼身上所體現出的性格更具代表性和典型性。敘述結構方面，兩部小說雖然都是經歷了“夢前”、“夢中”及“夢後”三個階段，但是在具體結構的處理方式上存在着明顯的差異。

《枕中記》中：“翁乃探囊中枕以授之，曰：‘子枕此，當令子榮適如志。’”<sup>57)</sup> 盧生的“入夢”是在外界法術的作用下實現的，一定意義來說帶有強烈的目的性，這與上文二人探討“適”之問題相照應。而盧生“夢醒”的標志是“其夕卒”<sup>58)</sup>，然後對人生有了深切的感悟。我們中發現，《枕中記》中，夢前后的內容是相對的，二者之間沒有平滑的過渡與鋪墊，外力是故事行進的主要推動力量。“夢醒之實與‘夢’中之虛相對獨立，這樣的處理方式，一定意義上會降低小說的藝術表現力。而《南柯太守傳》在借鑒《枕中記》的基礎上，李公佐在結構的細節上處理的更為細膩。淳于棼是因醉酒而困倦，“生解巾就枕，昏然忽忽，仿佛若夢”<sup>59)</sup>，入夢的理由簡單且真實。“生忽若昏睡，瞢然久之，方乃發悟前事，遂流涕請還……生遂發寤如初。”<sup>60)</sup> 作者將夢前與夢後的虛與實處理的十分得當，不但未使讀者体会到緣於創作目的所體現出的“棱角”，反而為“創造了一種歷夢知夢、夢中覺夢的飄忽而神秘的氛圍”<sup>61)</sup>。

金萬重在作品的創作中或直接或間接的受到上述兩部作品的影響，並融入本民族優秀的傳統文化，創作出朝鮮朝中期最為著名的長篇漢文小說《九雲夢》。它的出現標志着韓半島小說藝術臻於成熟，推動了後世漢文小說的發展，在此之後“出現了一些帶有‘夢’字的小說如《玉樓夢》、《玉麟夢》等。這類以傳奇式的愛情和功名利祿為內容的小說豐富了朝鮮王朝中后期的文壇”<sup>62)</sup>。此外，《九雲夢》中涵蓋儒釋道三家思想，其獨特的藝術表現力更具文學和史學

57) 李昉等撰，《太平廣記》，北京：中華書局，1961，p.527.

58) 李昉等撰，同上，p.528.

59) 李昉等撰，同上，p.3914.

60) 李昉等撰，同上，p.528.

61) 周紹良，《唐傳奇箋證》，北京：人民文學出版社，2000，p.45.

62) 韋旭升，《韓國文學史》，北京：北京大學出版社，2008，p.299.

的研究价值，不仅为后世“涉梦”文学的创作提供了优秀的借鉴范本，同时有利于推动东亚“涉梦”文学的长久发展。

## ◆ 参考文献

### 1. 资料

- 김장환·박재원·이래중 역주: 『태평광기상절』, 서울: 학고방, 2005.  
 서거정, 『사가문집』 제4권, 『한국문집총간』 제11권, 서울: 민족문화추진회, 1988.  
 李昉等撰, 『太平广记』, 北京: 中华书局, 1961.  
 金万重, 〈九云梦〉,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14.  
 杨伯峻, 『列子集释』, 北京: 中华书局, 1979.  
 孙惠欣, 『冥梦世界中的奇幻叙事』,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9.  
 郭庆藩·王孝鱼点校, 『庄子集释』, 北京: 中华书局, 1961.  
 鸠摩罗什译 陈秋平·尚荣译注: 『金刚经』, 北京: 中华书局, 2007.  
 法救撰 (吴) 维祇难等译, 『法句经』卷上, 『大正藏』卷四, 台湾: 佛陀教育基金会出版部, 1990.  
 李昉等撰, 『太平广记』, 北京: 中华书局, 1961.  
 董浩等撰, 『全唐文』, 北京: 中华书局, 1990.  
 周绍良, 『唐传奇笺证』, 北京: 人民文学出版社, 2000.

### 2. 单行本

- [韩] 闵宽东(민관동), 『中国古典小说在韩国之传播』, 上海: 学林出版社, 1998.  
 [韩] 闵宽东(민관동)著, 李英月译: 『中国古代小说在韩国研究之综考』, 武汉: 武汉大学出版社, 2016.  
 鲁迅, 『中国小说史略』, 北京: 中华书局, 2016.  
 张哲俊, 『东亚比较文学导论』, 北京: 北京大学出版社, 2004.  
 王汝涛, 『唐代小说与唐代政治』, 长沙: 岳麓书社, 2005.  
 李淼主, 『中国佛禅文化名著』, 吉林: 延边大学出版社, 1995.  
 李剑国, 『唐五代志怪传奇序录』, 天津: 南开大学出版社, 1993.  
 李岩, 『中韩文学关系史论』,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03.  
 汪辟疆, 『唐人小说』, 北京: 北京联合出版公司, 2016.  
 王汝涛, 『唐代小说与唐代政治』, 长沙: 岳麓书社, 2005.

### 3. 论文

- 李岩, 「〈九云梦〉의 佛敎傾向」, 『中国民族学院学报』 第2期, 1993, pp.74-79.
- 林保淳, 「“人生如梦”의 不同詮解——評說〈枕中記〉與〈南柯太守傳〉」, 『太原学院学报』 第3期, 2021, pp.103-108.
- 柳旭·王永丹, 「论〈南柯太守传〉의 佛敎母題」, 『长春师范大学学报』 第3期, 2015, pp.99-102.
- 孙振杰, 「〈南柯太守传〉对〈枕中记〉叙事艺术的发展」, 『文艺评论』 第2期, 2013, pp.45-48.
- 胡平, 「〈枕中记〉主角原型新探——兼论作者沈既济的政治背景」, 『中国典籍与文化』 第4期, 2012, pp.10-16.
- 孙国江, 「〈枕中记〉与中唐士人心态的转变」, 『江苏工业学院学报』 第1期, 2010, pp.66-69.
- 廖大国, 「沈既济和他的传奇小说」, 『苏州大学学报』 第4期, 2002, pp.70-73.

### 4. 网络资料

- 邱华栋, 「构建东亚文学地理学的新景观」, <http://www.chinawriter.com.cn/n1/2018/1019/c404018-30351531.html>, 2018.

논문 접수 일	2022년 08월 10일
심사 완료 일	2022년 08월 27일
게재 확정 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A Spring Dream” from the Buddhist Perspective  
 - Research based on “Pillow Story”, “Nanke Prefecture Biography”  
 and “Nine Clouds Dream” -

Zhang, Xin · Sun, Huixin

The sea separates China and the Korean Peninsula. Since ancient times, the unique geographical advantage makes the two countries have extensive interaction and exchange in literature. The introduction of classical Chinese novels has a direct and profound impact on the creation of Chinese novel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three novels, “Pillow story”, “Nanke Prefecture Biography” and “Nine Clouds Dream” are “dream related” novels. Their story backgrounds are all set in the Tang Dynasty. Also, they have many similarities in ideological characteristics and story structure, which is the direct confirmation of the extensive exchange of literature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conforms to the historical law of novel development. However, due to the different national cultures and national situations of the two countries, the theme and intention expressed in the novel are slightly different. This article takes “sleepwalking” novels such as “Pillow story”, “Nanke Prefecture Biography” and “Nine Clouds Dream” as the research object, and explores the influence of Buddhist thoughts such as “impermanence of life”, “blissful” and “all reality is a phantom” on “pre-dream, during dream, and post dream”. When combining historical background of two countries’ authors’ experience and creation, the homocousia and difference of two works are summarized. The cultural awareness hidden in the text is explored and further explore the correlation of “sleepwalking” legend classical Chinese novel of two countries.

**Keyword**

“Pillow story”, “Nanke Prefecture Biography”, “Nine Clouds Dream”, “Impermanence of life”, “Blissful”, “All reality is a phantom”



## 朝鮮朝文人盧以漸與清蒙古族學者博明交流初探

楊昕\*

### 국문요약

1780년 조선조의 문인 노이점(盧以漸)은 청나라 몽고족 학자인 박명(博明)을 만나 벗으로 삼고 교류하게 되었다. 노이점의 『수사록(隨槎錄)』에는 박명의 이력과 세계(世系) 및 그의 외모에 대해 두루 언급하였는데 학계에서 진행된 박명에 대한 연구를 온전히 매울 수 있게 되었다. 두 사람은 이학사상(理學思想)에 관해 광범위한 교류를 진행하였는데 이로써 박명 또한 정주이학을 매우 존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의 사상적 경향에는 청나라 초기의 이학인 심학(心學)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이 투영되어 있음을 가늠할 수 있다. 박명의 문학창작에 관한 이념은 당, 송 8대가의 문학이론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동시에 동성파(桐城派)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그는 노이점과 마찬가지로 『춘추(春秋)』를 경학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를 통해 건륭(乾隆)시기에 흥기된 금문경학(今文經學)의 학술적 경향을 엿볼 수가 있었다. 노이점은 또 한유(韓愈)와 유종원(柳宗元)에 대해서도 절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는 창작방법에 관해서 진행된 조선조 문단의 논쟁이 간접적으로 반영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학창작에서 당나라를 종주(宗主)로 삼는 노이점의 이념도 잘 표출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예기(禮記)』에 대한 인식은 “예(禮)”에 대한 조선 이학의 확고한 수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주제어** 조선조 문인, 노이점, 몽고족 문인, 박명, 문화교류

\* 延邊大學朝漢文學院漢語言文學專業副教授、博士生導師，研究方向為中韓比較文學、域外漢籍整理與研究。

## 〈目録〉

1. 序论
2. 博明生平概要及补阙
3. 卢以渐与博明笔谈内容探析
  - 1) 哲学思想和文学认识的宏观探讨
  - 2) 儒家经典和文学观念的深度交流
4. 结论

## 1. 序论

卢以渐，朝鲜朝时期的文臣，生于1720年（肃宗四十六年），卒于1788年（正祖十二年），字士鸿，号楸山，著有『随槎录』传世。1780年（正祖四年），他跟随以朴明源为正使的使节团来到中国，在滞留北京期间，与当时文坛负有盛名的蒙古族文人博明进行了颇有深度的对话与交流。

目前，在中国学界，关于博明的研究成果主要有对其生平事迹的考察，如白·特木尔巴根的「清代蒙古族作家博明生平事迹考略」<sup>1)</sup>、方华玲的「博明生卒年份考辩」<sup>2)</sup>；有对其著述内容的探讨，如赵相璧的「清代蒙古诗人博明」<sup>3)</sup>、白凤岐的「略谈博明的『凤城琐录』」<sup>4)</sup>、米彦清的「清代蒙古诗人博明与其『义山诗话』」<sup>5)</sup>；有对其哲学思想的挖掘，如程作新的「浅析博明的哲学思想」<sup>6)</sup>、「蒙古族学者博明的唯物主义思想」<sup>7)</sup>等；有对『随槎录』史料价值

- 
- 1) 白·特木尔巴根，「清代蒙古族作家博明生平事迹考略」，《民族文学研究》第1期，2000，pp.64-67.
  - 2) 方华玲，「博明生卒年份考辩」，《石家庄学院学报》第1期，2014，pp.9-11.
  - 3) 赵相璧，「清代蒙古诗人博明」，《内蒙古社会科学》第3期，1985，pp.67-71.
  - 4) 白凤岐，「略谈博明的『凤城琐录』」，《满族研究》第3期，1988，pp.31-34.
  - 5) 米彦清，「清代蒙古诗人博明与其『义山诗话』」，《内蒙古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5期，2009，pp.88-91.
  - 6) 程作新，「浅析博明的哲学思想」，《内蒙古社会科学》第2期，1989，pp.20-24.
  - 7) 程作新，「蒙古族学者博明的唯物主义思想」，《内蒙古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2期，1992，pp.23-28.



的探析，如王鑫磊的『韩国汉文燕行文献『随槎录』的史料价值——兼谈朝鲜王朝的小中华意识』<sup>8)</sup>，作者认为卢以渐对清持有一边倒的消极观感，是因其极强的“尊明排清”的心态所致；在韩国学界，针对卢以渐的研究成果主要有对『随槎录』的版本及文献价值的研究，如上个世纪八十年代最早发现『随槎录』原稿的南权熙教授所作「새로 발견된 卢以渐의〈随槎录〉에 대한 书志의 研究：1780년 同一 使行时 燕岩 朴趾源의〈热河日记〉와 比较」<sup>9)</sup>；权延雄所作「卢以渐의〈随槎录〉: 解题 및 原文 标点」<sup>10)</sup>。还有将『随槎录』与朴趾源『热河日记』进行比较研究，如金东锡所作「卢以渐의〈随槎录〉에 관한 연구—〈열하일기〉와 비교의 관점에서」<sup>11)</sup>和「朝鮮後期연행록의 미학적 특질—〈随槎录〉의 내용을〈热河日记〉와 비교하여」<sup>12)</sup>等。纵观两国学术界，目前尚无针对卢以渐和博明笔谈内容进行专题研究的成果。因此，通过对两人交流内容的研究，挖掘他们各自所持的哲学思想和文学观，分析彼时清和朝鲜朝的社会思想动态，探寻朝鲜朝对清整体认知的改变，就有了特别的研究意义。

## 2. 博明生平概要及补阙

博明，清代蒙古族文人，字希哲，一字晰斋，又号西斋，博尔济吉特氏，满洲镶蓝旗人。博明出身显贵，文史兼通，多才多艺，以博学多识蜚声于清士林：“西斋少承家世旧闻，加以博学多识，精思疆记。其于经、史、诗、文、书、画、艺术、马步射、翻译、国书源流，以及蒙古、唐古忒诸字母，无

8) 王鑫磊，『韩国汉文燕行文献随槎录的史料价值——兼谈朝鲜王朝的小中华意识』，《复旦学报（社会科学版）》第5期，2013，pp.19-29.

9) 南权熙，「『새로 발견된 卢以渐의〈随槎录〉에 대한 书志의 研究：1780년 同一 使行时 燕岩 朴趾源의〈热河日记〉와 比较』《图书馆学论集》第23辑，1995，pp.405-437.

10) 权延雄，「卢以渐의〈随槎录〉: 解题 및 原文 标点」《庆北史学》第22辑，1999，pp.141-239.

11) 金东锡，「卢以渐의〈随槎录〉에 관한 연구—〈열하일기〉와 비교의 관점에서」，《韩国汉文学研究》第27辑，2000，pp.259-302.

12) 金东锡，『朝鮮後期연행록의 미학적 특질—〈随槎录〉의 내용을〈热河日记〉와 비교하여』《东方汉文学》第49辑，2011，pp.191-221.

不貫串嫻習。”<sup>13)</sup>1765年(正祖四十一年), 朝鮮實學派的代表人物洪大容來到北京時, 留下了這樣的記載: “博明, 蒙古人, 善書, 能文章。每使行訪問秀才, 譯輩必以博明應之, 其後登科為翰林編修。是行亦問之, 方為南方知府云。”<sup>14)</sup>這說明, 博明的文聲在朝鮮士林中早已廣為傳播。“余曾見俞判書彥述為書狀時日記, 則盛稱博明學術文章, 心甚嘉之。來此後欲為邂逅, 而其道未由矣。”<sup>15)</sup>可見, 盧以漸欲結識博明, 也是因為本國前行使者的盛贊引起了他的注意。

博明生卒年不詳, 學界尚未有定論, 有『西齋偶得』、『鳳城瑣錄』、『西齋詩草』、『西齋詩輯遺』等著作傳世, 為時人所嘉。其於1747(乾隆十二年)年舉鄉試, 1752年(乾隆十七年)中進士, 後入翰林院充做庶吉士。1755年(乾隆二十年)散館授以編修, 歷任廣東學差、日講起居注官等職。1763年(乾隆二十八年), 以洗馬出守廣西慶遠府, 後典郡柳州, 1768年(乾隆三十三年)轉赴雲南, 1777年(乾隆四十二年)因故被貶, 任兵部員外郎、鳳城樞使等職。1785年(乾隆五十年)正月, 參千叟宴, 并作恭和御制詩一首。目前, 中國學界已對其生平履歷進行了詳細的探知。但是, 博明被降職為兵部員外郎、外任鳳城樞使, 至參千叟宴, 這一期間的履歷十分模糊。博明何時回京? 任何官職? 這在其作品和其他清人著作中無從推測。所幸的是, 根據盧以漸『隨槎錄』的記載, 可以對博明的履歷進行一些補充。首先是博明回京的時間。盧以漸是在1780年來到北京並與博明進行了交流, 因此, 我們可以認定, 在1777年外任鳳城樞使後, 博明最晚已於此年回到北京, 否則如果繼續擔任鳳城樞使的職務, 博明將以何資格參加千叟宴? 其次, 關於彼時其官職的認定。“初十日, 朝, 雨洒即止。朝後, 出衙門外閭舍, 與兵部員外郎博明酬答以筆談。”<sup>16)</sup>可見, 盧以漸在博明見面之前, 已經得知他的身份, 但是, 這

13) 震鈞, 『天咫偶聞』, 北京: 北京古籍出版社, 1982, pp.37-38.

14) [韓]林基中 編, 洪大容 著, 『燕行錄全集/湛軒燕記(一至四)』(卷42), 首爾: 東國大學出版部, 2001, p.116.

15) [韓]林基中 編, 盧以漸 著, 『燕行錄全集/隨槎錄』(卷41), 首爾: 東國大學出版部, 2001, p.93.

16) [韓]林基中 編, 盧以漸 著, 同上, p.93.

个身份是否为博明蒙召回京后所任真正职务呢？卢以渐在与博明见面后，还专门对此进行了询问：“余又书曰：曾闻大人居内翰，今居何官耶？明书曰：兵部员外郎。余书曰：员外郎唐时称台阁，今则何如耶？明书曰：所谓武库郎官也。”<sup>17)</sup>如此看来，似乎博明兵部员外郎的身份已确定无疑。但是，与卢以渐同行的朴趾源的记载却与之完全不同：“岁价之入燕也，士大夫使象译求书堂额，则必博明之笔也。明方起居注日讲官。”<sup>18)</sup>在这里，朴趾源明确地将博明的官职记载为“起居注日讲官”。1729年（雍正七年），清廷将日讲与起居注合而为一，由翰林院、詹事府官以原衔允任，凡皇帝参加的大型活动，皆以日讲起居注官侍班。联系朴趾源『热河日记』事无巨细的行文风格，因此，笔者认为，朴趾源关于“起居注日讲官”的记载是准确的，这一职务伴侍皇帝左右，因此参与千叟宴并和诗是完全可能的。但是，为什么卢以渐在记载中称之为“兵部员外郎”呢？笔者推测，原因可能有二：一是卢以渐与博明的见面是由会同馆的主簿赵明会所促成，在提前向外国人介绍博明之时，利用对方对本国官职序列的陌生，赵明会抬出博明曾任过的兵部员外郎这个身份，似乎可以让朝鲜使臣心生敬畏。而在与卢以渐的交流中，博明对此身份解释为“武库郎官”，清代的兵部武库司是一个要害部门，这一解释可能是附会赵明会的说法，也有自抬身份之意；二是很有可能二人会面之时，正值博明刚刚回京，尚未任职，因此就出现了卢以渐和朴趾源关于“兵部员外郎”“起居注日讲官”等职务的矛盾记载。

关于博明的世系，学界已探知甚明，如其始祖为琐诺木，祖父为两江总督邵穆布等。但在朝鲜使臣的记录当中还有关于其世系的其他线索：“黄商豪富，本不及郑商，然子孙犹世守其业，有婿曰博明，蒙古人。”<sup>19)</sup>有清一代，朝鲜朝延续了对明使行的名目和频率，使节团的规模不断扩大，到北京后，使

17)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94.

18) 韩国古典综合DB网站，〈翠眉楼记〉，『燕岩集卷之七/别集/钟北小选/记』，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grpId=&itemId=MO&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MO\\_0568A\\_0070\\_020\\_0060](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grpId=&itemId=MO&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MO_0568A_0070_020_0060)

19) [韩]林基中 编，洪大容 著，同上，p.116.

节团的官贸和私贸活动十分活跃。针对朝鲜使节团贸易的特殊性，北京形成了以专在会同馆操纵中朝贸易的家族式商业集团，郑世泰就是其中的代表人物。“数十岁以前，使行入燕，凡公私买卖，惟有郑、黄两姓当之，皆致巨万。”<sup>20)</sup>卢以渐在记载中所提到的郑商即是专营与朝鲜贸易的郑世泰，根据这段记载，我们得知，黄商的身份与郑世泰类似，也是专营与朝鲜贸易的商人，而博明则是他的女婿。“驰送清译李彦奎，通于税官博明，而凤城将不至，故不许入云……博明曾经翰林学士，而贬迁税官，方在栅门，素以文雅负望，可托斡旋使事。张译濂曾与亲熟，使之往议，以观低仰。入栅时，凤城将、税官、门御史，开坐于衙门，照检卜物，行中掌务官修送报单。”<sup>21)</sup>1777年（正祖二年）十月，朝鲜吏曹判书李岬出使中国的这段记载，除从侧面印证博明外放凤城榷使的履历时间之外，也让我们了解到，博明凤城榷使的职责之一是“照检卜物”，这一职责可以最先得知朝鲜使节团贸易物品、数量的情报。根据这一时期朝鲜使臣的各种记载可知，在卢以渐之前，前来中国的朝鲜使臣都是从使节团内部与中国商人交往密切的人员特别是译官那里得知了博明的文声，其重要原因之一就是博明为黄商女婿。因此，探知黄商的具体情况，对拓展学界关于博明的世系研究有重要的意义。但限于史料匮乏，此工作十分艰难。

关于博明的外貌，中国文献无载，倒是卢以渐在『随槎录』中有过寥寥几笔的叙述：“其容貌不扬，而眼彩射外，此其所以异于常人者耶？”<sup>22)</sup>从记载可知，博明外貌普通，但卢以渐印象最深的却是博明的眼睛炯炯有神，异于常人，颇有一种“腹有诗书气自华”的感觉。从他的精神状态来看，丝毫没有降职凤城给他带来的消沉和萎靡的情绪，给人一种英气勃勃的良好印象。可惜无论是卢以渐也好，还是参与交流的朴趾源也好，都没有对博明的年纪、衣着、相貌做出详细叙写，这对于博明的研究实在是莫大的遗憾。

20) [韩]林基中 编，洪大容 著，同上，p.114.

21) [韩]林基中 编，李岬 著，『燕行记事/燕行录全集』（卷42），首尔：东国大学出版社，2001，p.335.

22)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99.

### 3. 卢以渐与博明笔谈内容探析

#### 1) 哲学思想和文学认识的宏观探讨

考察『随槎录』，我们可以得知，卢以渐和博明进行了两次笔谈。

八月初十，他们在会同馆外的一间间舍里进行了初次会面。这次交流的内容十分斑驳，涉及中国思想界和文学界的情况、两国科举制度、中国的宗教和教育情况、中国现存古迹情况等，但主要集中在哲学思想和文学认识的宏观探讨上。

卢以渐十分关注中国理学的发展：“余曰：曾闻中华道学，分而为二，朱陆并行，今则抑或归一耶？”<sup>23)</sup>这里所说的道学，即理学，也就是以研究儒家经典的义理为宗旨的学说。儒学发展到宋代，朱熹以“理气论”“动静观”“格物致知论”“人性二元论”等学说建立了庞大的理学体系，树立了中国儒学发展的一座高峰；而陆九渊则是以“吾心即是宇宙”“明心见性”“心即是理”等理论，成为宋明两代“心学”的开山鼻祖。朱陆之争，使宋之后的理学思想朝着两个不同的分支继续发展。程朱理学在高丽末传入朝鲜半岛并被接受，朝鲜朝建立后，其精神内核有利于统治者加强统治，因此，在统治阶级的扶持下，程朱理学成为终朝鲜一朝的统治思想。卢以渐“今则抑或归一耶”疑问其实是在表明自己的思想立场：尽管朱陆理念分歧，但殊途同归，最后的发展趋势应该是抛弃争论，二流合一。

“明曰：道学至北宋而大明，朱子承周程张四子之后，集其大成，自为嫡派。同时象山翁崛起于江右，其学以尊德行为主，遂与朱子异，然所异无甚大也。明阳明王氏，一以陆为法，主致良知。致良知本出孟子，非异说也，但其冥心求道，不觉流入禅家矣。其初愿与朱异，后复为晚年定论之学，将欲援朱而入陆，则不可也。阳明其忠孝大节文学武功震于一时，学人为其所誉，遂入王矣。然道学究以程朱为正。”<sup>24)</sup>针对卢以渐的疑问，博明详细地介绍了中国

23)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94.

24)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95.

儒学的发展过程。他认为，儒学的发展到了宋代，出现了以周敦颐、程颐、程颢、张载为代表的理学大家，而朱熹则集理学之大成，使宋成为儒家思想发展的巅峰时期，所以“道学至北宋而大明”。应该说，博明对于宋代理学的发展认识是准确的，“程朱理学”是宋朝时期儒家思想的结晶，它的出现、成熟标志着中华文明发展到了顶峰阶段，对世代代中国人的思想、灵魂产生了巨大影响，这是宋朝思想界对中国的最大贡献。值得注意的是，博明对儒学发展史上的“朱陆之争”有着自己独特的看法，他认为，朱熹的理学和陆九渊的心学虽然从属于不同的哲学思想体系，但是，但在哲学本体论上，两人立论的出发点都是以天理为本，他们的差异只是方法论不同，朱熹以道问学为主，而陆九渊则是以尊德性为宗，所以“所异无甚大也”。关于朱陆之争，清代学者黄宗羲有言：“先生之学，以尊德性为宗，谓先生立乎其大，而后天之所以与我者，不为小者所夺。夫苟本体不明，而徒致功于外索，是无源之水也。同时紫阳之学则以道问学为主，谓格物穷理，乃吾人入圣之阶梯。夫苟信心自是，而惟从事于覃思，是师心之用也。”<sup>25)</sup>博明对朱熹和陆九渊思想的认识，隐约可见黄宗羲的影响。而他的看法，又与卢以渐“今则抑或归一耶”的认识不谋而合，

博明向这位异国学者阐述了自己对心学的认识，他认为，明代的王阳明继承陆九渊的心学学说，创阳明学，在认识论上，坚持孟子不虑而知、不学而能的良知良能学说，提倡“致良知”，正因为他的思想源自前贤，所以不能简单地将其视为异端邪说。但是，王阳明晚年倡“良知说”，是为了解决其理论系统中什么是心体的本性的问题，为此引进了禅宗的“知为心体”之说，使他的学说有了浓厚的佛教思想的痕迹。尽管王阳明编纂『朱子晚年定论』以试图弥合朱陆之间的矛盾，但“良知说”和“知行合一”的理论性质与理学的矛盾是无法调和的。博明还认为，心学能在中国盛行的原因，是与王阳明的人品、文学才能特别是其讨灭朱宸濠叛乱的功绩分不开的，这也反映了他对阳明心学的客观认识。最后，他明确地表明了对儒学的态度：“以程朱为正”。那么，为什么博明会秉持这一态度呢？清初，文化的发展承明旧绪，将宋明理学内部的争论也沿

25) 黄宗羲, <象山学案>, 『宋元学案』(第三册)北京:中华书局, 1986, p.1885.

袭下来，康熙帝一贯尊崇朱熹理学，1679年（康熙十八年）与尊崇王学的大臣崔蔚林就理学的真伪展开论争；同年，针对《明史》立《道学传》一事，尊崇程朱理学的张烈和尊崇王学的毛奇龄展开激烈交锋，在交锋中，心学的拥趸备受打击。此后，清廷定朱学为一尊，程朱理学被钦定为官方之学。由此可见，博明的这一认识也是清初这段理学心学交锋历史的折射。

“余曰：朱陆之学所异者，只在于尊德性、道问学之间，而朱子云：子静好处难掩，而终有葱岭事带来气味。至阳明翁则扶抑悬殊，考其文可知也。当今之学者，以陆王为正耶，以程朱为正耶？明加圈于程朱为正之傍矣。”卢以渐与博明的交流是很有技巧的，他总是把自己的见解巧妙地融在疑问之中，他对朱陆方法论差异的认识，绝不是礼貌性的附和，而是隐含了对博明与其见解相似的喜悦。这里，他表明了自己对待阳明心学的认识，他认为，王明心学能够崛起，就在于他突破了朱熹理学，又继承了部分陆九渊心学，其目的就是要在朱熹理学和陆九渊心学之间达到一个平衡。他对心学的认识与明代出使中国的朝鲜文人相比，无疑是积极和进步的，这也反映出阳明心学思想在朝鲜朝从被否定到被接受的过程。

卢以渐还与博明进行了文学上的交流：“余曰：文章之士，则唐之韩柳，宋之欧苏王曾，明之方王李汪，俱为大家，今则推谁为大家耶？曰：文章自汉人以后，昌黎韩氏直接古人，七家续兴，此真大家也。元明以来及本朝以文章著者多矣，若以之配八家则不能，非人不能，文运不能也。亦如唐人之不可为汉人耳。又曰：本朝之侯朝宗、韩菼、汪琬、朱彝尊、查慎行、方苞皆古文名家，各有全集，观之可见。”<sup>26)</sup>卢以渐认为，唐代的文学以韩愈和柳宗元为代表，宋代的文学以欧阳修、苏轼、王安石、曾巩为代表，明代的文学以方孝孺、王若明、李梦阳、汪中为代表，这反映了卢以渐对中国古代文学的认识。博明同意卢以渐关于唐宋时期代表文人的看法，并对韩愈所倡的古文运动，以及唐宋八大家中其他名家的古文复兴活动大加赞赏。值得注意的是，他列举了本朝的重要文学人物，无论是继承了明代唐宋派散文传统的侯方域、汪

26)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95.

琬，还是浙派词人朱彝尊，特别是吸收了唐宋派古文成功经验的桐城派代表作家方苞，他们的创作理念都有着宗唐尊宋的影子。由此可见，博明文学观念是与唐宋八大家的文学理论密切相关的。同时，他认识到，由于每个朝代的政治、经济、文化条件都不同，所以都会形成不同风格的文学样式，即所谓的“文运”，时代不同，“文运”就不同。可以说，他对这一文学规律的认知是正确的。

与博明的首次交流，给卢以渐留下了非常良好的印象：“昨见博明，闻其论下，真可谓博学多闻者。”<sup>27)</sup>，由于是初次见面，两人交流的话题既有个人的旨趣，也有对异国文化的好奇，但这次交流中所涉及的关于哲学思想的认识和文学观念的宏观交流，也为第二次的深度交流奠定了良好的基础。

## 2) 儒家经典和文学理念的深度交流

在与博明相识之后，“十四日，晴，书与博员外，兼赠四律，概无聊之中，实为遣兴而发也。”<sup>28)</sup>卢以渐深为博明的学识所折服，除书信之外，还赠送了四首律诗，虽然作者解释为无聊之作，遣兴而发，但其渴望与博明以文会友，增进感情，以便进行进一步交流的愿望显露无疑。在接到卢以渐书信及赠诗之后，“二十二日，晴，博员外又来访，余即出见，燕岩次至。”很显然，卢以渐的书信及赠诗激发了博明再次交流的愿望，而与卢以渐同行的朴趾源被博明的文声所吸引也参加了这次交流，使得这次会面意义非凡。然遍查朴趾源『燕岩集』，并无关于这次笔谈的完整记载，实在令人生疑，朴趾源在『热河日记』中记载了大量与清文人交流的笔谈内容，如尹嘉铨、王民皋、鹄汀、奇丰额等，何以吝书与博明的笔谈内容呢？也许这段记载能说明问题：“（博明）固善书堂额，其后多见明他书，则笔力大逊于堂额，吾心窃怪之。闻一译请书四勿斋，明掷纸而骂曰：东方何其多同号者，吾绿沈笔，尽秃于四勿斋。盖明乃朝鲜主顾黄氏之婿，故象译知博起居善书，而博之善书堂额，盖熟于四

27)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99.

28)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01.



勿之号尔。噫!墮井之毛遂,惊座之陈遵,犹笑于当世,况号者,所以别之也。”<sup>29)</sup>从这段记载来看,朴趾源似乎对博明印象不佳,一是可能他根据传闻,认为博明名不符实,且性情狂傲;二是可能博明是专营朝鲜贸易黄商的女婿,在北京会同馆贸易中,壅断两国贸易的中国商团与朝鲜使节团相关人员勾结,经常操纵价格及商品种类,以最大谋取利益,令朝鲜印象恶劣,故这一身份令朴趾源不喜;三是此次会面是以卢以渐和博明为中心,博明笔谈时的注意力都集中在卢以渐身上,“燕岩亦多有问者,(博明)左右酬应之际,误对者多矣。”<sup>30)</sup>在笔谈中,朴趾源有可能认为自己的问题没有得到满意的回答,从而产生了被对方忽视的感觉。

博明首先对卢以渐的赠诗表示感谢并加以评价:“博曰:愧荷使咏,气格苍老,韵调流利,足徵素养。但承过誉,实愧于中,愿步佳韵,另日上读。”<sup>31)</sup>这里,博明用“气格”一词来评价卢以渐的诗歌,在中国古代诗学理论中,“气”主要指诗歌情感的力量和气势,“格”指诗歌的规范和法式,而“气格”的内涵既指诗人人格与诗歌风格的统一,也指诗歌思想内容与语言形式的统一,偏重诗章气脉流动之美。宋代诗文品评十分崇尚气格,也就是诗人道德品格与诗歌艺术风格两者融合与统一后所体现的诗歌品格。博明对卢以渐诗歌的评价,展现了他对宋人诗文品评的继承,表达了他对诗歌审美的独特追求。在博明看来,卢以渐的诗歌品格沉郁,格律精严,代表了习汉字,做汉诗的朝鲜文人的汉学素养,他表示愿次韵诗作,以表达对卢以渐书信中盛誉的感谢。

在这次交流中,两人的话题比较集中和深入,即围绕朱熹理学的理论和观点,对性理学视野下的儒家经典以及文学理念等方面进行了深度的交流。中国的儒学源远流长,历朝历代的学者都对儒家典籍进行了阐释,特别是朱熹对“四书”的注释,让后人的研究产生了困惑:“余曰:〈大学〉首章〈明德〉,指性而言耶?指心而言耶?”<sup>32)</sup>〈大学〉原是『礼记』中的一篇,朱熹著『四书

29) 韩国古典综合DB网站,〈翠眉楼记〉,『燕岩集卷之七/别集/钟北小选/记』,同上。

30) [韩]林基中编,卢以渐著,同上,p.115.

31) [韩]林基中编,卢以渐著,同上,p.106.

章句集注』，将〈大学〉列为“四书”之一，卢以渐首问〈明德〉，即是讨教关于“德”的定义。其实，这也反映出他对朱熹关于“性”“理”“心”三者论断的困惑，这三个概念是朱熹哲学中的核心所在，但在表述的过程中出现了一些矛盾和混乱。朱熹认为“性者，人物所以生之理也”<sup>32)</sup>，即“性即理”，但此说只是证明了人性何以必然为善的问题，却不能解答人性何以为恶的问题；而关于心的论述：“有是形，则有是心；而心之所得乎天之理，则谓之性；性之所感于物而动，则谓之情。是三者，人皆有之，一不以圣凡为有无也。”<sup>34)</sup>朱熹认为心是对有形而言，这个心决不是最高的主体性概念，而只是理的安顿处。对于卢以渐的困惑，博明明确表明了自己的态度：“宋儒所说，性即理也，盖性善之性，非知觉运动之性。若离理言性，则是佛书之明心见性，道书之性命双修，而吾儒之性也，心之当然，即理之本然。”<sup>35)</sup>他赞同宋儒对“性”的定义，性就是本然之性，属于“心”之未发状态，而知觉运动之性，则是属于气质之性，是属于“心”之已发状态。儒家的“性”与“理”是一体的，二者如果背离，则与佛教和道教所涉的“性”无法分辨，“心之当然，即理之本然”，这个结论表明了博明对朱熹“心与理一”观点的赞同。

“谓之性，则只言理；谓之心，则兼理气而言耶？”<sup>36)</sup>卢以渐的这一困惑，实际上也是困扰许多中朝文人的问题。朱熹在阐述“性即理”“心统性情”之间的关系时提到：“性是理也，性是体，情是用。性情皆出于心，故能统之。”<sup>37)</sup>“性是体”固然可以说“性是理”，但却不能因此而得出“心统性情”的结论，“性情皆出于心”，固然可以得出“心统性情”的结论，但不能说“性是体”，而应该得出“心是体”的结论。这是朱熹哲学一个非常深刻的内在矛盾，也就是朱熹

32)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p.107.

33) 朱熹，〈吕氏大学解〉，《晦庵先生朱文公文集（四部丛刊本）/杂学辨》第72卷，景上海涵芬楼藏明刊本。

34) 朱熹，〈答徐景书〉，《晦庵先生朱文公文集（四部丛刊本）》第64卷，景上海涵芬楼藏明刊本。

35)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07.

36)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07.

37) 朱熹，《朱子语类（四库全书本）》第98卷。

的理气观和心理观之间的矛盾。纵观古代朝鲜理学的发展历程，从16世纪开始，李滉持“理一元论”的观点，主张“四端理之发”“七情气之发”的观点，开启持续数百年“四端七情理气之争”的先河，李珣则持“理气二元论”，主张“四端理发而气随之，七情气发而理乘之”的观点<sup>38)</sup>。尽管二人的论争开拓了朝鲜朱子学的新领域，使他们的客观唯心主义体系发展到了比较完善的程度，但是，朝鲜也同样无法解决朱熹理论的这一矛盾，因此逐渐将理气之争沦为繁琐的经院哲学。卢以渐试图用理和气结合的方法来解释“心”的概念，对此，博明解释道：“有觉谓之心，心之本曰性，性之本则理。”<sup>39)</sup>，在博明看来，所谓的“心”，就是人的意识活动，人有了意识活动才会有了主体性，也就是已发的“性”，有了主体性也就有了“心”，心之本为性，性之本为理。实际上，博明还是在重复朱熹“性与理一”的观点，“余曰：格物之格字，象山翁谓之捍也，未知何如耶？博曰：以朱注为正。”<sup>40)</sup>这再一次证明了博明是朱熹思想坚定的支持者。

朱熹殚精竭虑，作『四书集注』，为后世留下了宝贵的精神财富，同时也为后学带来了许多学理上的困惑：“余曰：中庸即载道之书也，首章天命之性，朱子释之以各正性命，人物之性各自不同，然虽有偏全之殊，而一原则同，禽兽草木皆有仁义礼智之性耶？博曰：中庸之书，辟异端之书也。（此谓未谓古人言过），盖子思子之时，正异端大兴之时，子思作中庸以明道，故谓各正者，人之皆正也；至能尽物之性，则兼物而言，盖人具五性之全，禽兽则间有具一二性者，草木之性，则顺天地以为性，而不可与人比也。”<sup>41)</sup>〈中庸〉开篇即提出了“天命之谓性”的哲学问题，也就是天命也属于人性，性即理。朱熹认为，“盖所谓性，即天地所以生物之理。”<sup>42)</sup>“性”就是“生之理”，就从“生之

38) 朱红星·李洪醇·朱七星，『朝鲜哲学思想史』，延吉：延边人民出版社，1989，第五章第三节。

39)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07.

40)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07.

41)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07.

42) 朱熹，〈答李伯谏〉，『晦庵先生朱文公文集（四部丛刊本）』第43卷，景上海涵芬楼藏明刊本。

理”而言，人性和物性是没有差别的。卢以渐对朱熹的这一结论产生了疑问，他认为，人性虽然不同，但“一原”则同，即人性为善，所以产生了仁义礼智四端，但禽兽和草木的物性怎么会与人相同呢？如果不分人性物性之异而笼统论“性”，人和禽兽还有什么区别了呢？很显然，问题的症结还是在于朱熹关于“性即理”的论断上。尽管朱熹用理气范畴来解释人性和物性的差异，认为人性赋于理，物性赋于气，但是他在论述性出于理的时候，却忽视了义理之性和气质之性的区别。博明也认识到了朱熹这个论述的弊端，所以他指出，“性即理”中的“性”，不仅是指万物有着共同的本性，更重要的还是指“至善无妄”之性，所以《中庸》的创作动机就是为了摒除异端之说，朱熹认为的“各正性命”，实际上所指的就是“至善无妄”的义理之性，而禽兽与草木具有的气质之性是不能与义理之性相混淆的。卢以渐对博明的解释并不能完全接受：“余曰：论语云，性相近也，性岂有相近耶？博曰：性有刚柔健顺之不同，大段不同，然其为善之理则一如，柔者，吝于改过，而仁慈则为善，刚者，逞强暴，而敏于改过则善。揆其本原，则不相远，故曰近，入习气则南辕北辙矣。余曰：愚之所问者，以为天赋之性，则舜跖无异，而孔子谓相近，故疑之也，指气质之性而言之耶？博曰：相近二字，极为员融，圣人之言也；孟子断为善，即相近处而言耳。若舜跖则下文之上智下愚耳。”卢以渐认为，每个人的性格举止都不同，圣人怎么会有“性相近”的论述呢？在此，博明指出了对“性”这一概念理解的关键出发点，是在于人可以通过仁慈、改过等手段使本性归于善，而圣人对于天赋之性和气质之性的概括是极为恰当的，人的本性都是善的，先天都有真诚、善良、宽容谅解的纯真本性，所以孟子提倡“人性本善”之说。

在这次交流中，二人还针对《春秋》和《礼记》进行了讨论：“余曰：春秋，夫子为治之书也，传之者有四家，未知何说最长耶？博曰：春秋四传，皆不能得圣人之义，自宋人已有去传言经之学，今有《御制春秋直解》一书，盍求观之。余曰：礼记经秦火后，多汉儒所传会，其真本无由观矣。既是汉儒传会，则不可谓之经耶？博曰：礼记之中，醇者无多，亦皆仪礼之义疏，余皆醇疵相半，岂得谓经耶？”<sup>43)</sup>很显然，卢以渐认为《春秋》为圣人为治之书，这是继承了汉儒以其为王法，追求以学术指导政治的观点，也就是说，他赞同

『春秋』属于经学研究的范畴。博明认为，春秋四传，都没有能诠释圣人的微言大义。『春秋』问世以来，关于其性质是属于经学著作还是史学著作的纷争一直没有停止，杜预“以史说经”，唐儒视『春秋』为鲁史，宋儒“尊经贬传”，特别是朱熹的“『春秋』之大旨不可不知也”的观点，给后世带来了深远的影响。所以博明对『春秋』的态度是“去传言经”，很显然，他也是与卢以渐一样，持『春秋』为经学的观点。他的这一观点，折射出乾隆时期学术思潮的变化。康乾时期为清代的鼎盛时期，但乾隆中期以后出现了种种衰象，为了挽救政治和社会危机，今文经学开始复兴，今文经学的复兴是崇古学风的必然产物，因为它能通经致用，达到社会改革的目的。因此，今文经学在学术上极为推崇『春秋』，将其视为经世之书，『春秋』所书，都有微言大义，有其书法，君臣都必须知晓。特别是常州学派的庄存与、孔广森等人的异军突起，更是将『春秋』推到了无以复加的地位。在交流中，卢以渐特别提到了『礼记』一书，他认为，经过秦的焚书坑儒，『礼记』的原本早已无存，但汉儒却将其精神大要保存了下来，既然此书有了汉儒的参与和再创作，其“经”的地位自然无异。但博明对此观点却不赞成，他认为，礼记的内容不过是先秦的礼制，精深内容太少，不能称之为经。实际上，卢以渐此问恰恰反映朝鲜性理学对儒家“礼”的执着，特别是对朱熹“礼”思想的坚守。中国古代社会，“礼”通常指各种典章制度、礼节仪式和行为规范。儒家思想体系中，“礼”是最为重要的概念之一。孔子言“不知礼，无以立”，孟子倡仁、义、礼、智，荀子强调“礼”维持社会差异结构的功能和价值。而程朱理学传入朝鲜之后，朝鲜更执着于对“礼”的坚守，朱熹的『仪礼经传通解』和『家礼』在朝鲜产生了深远的影响，以至于达到了形而上的程度。出使明朝的朝鲜使臣，在游历中国的时候，处处以“礼”来观察社会，塑造中国，特别是在观察中国的丧制时，对服丧期间吃肉喝酒、哭声不够真诚、曝棺于野、鼓乐以娱、僧道颂经等严重不符“礼”精神的行为十分不满，往往加以严厉批评，并形成中国“丧制松弛”的社会集体想象，这一想象一直持续明清两代。显而易见，卢以渐对博明这种轻视『礼记』的态度

---

43)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09.

是不满的。

在针对性理学和儒家经典进行了深入的交流之后，卢以渐和博明将话题转向了“唐宋八大家”的古文成就之上，卢以渐率先对韩愈进行了点评：“而韩子之文，可谓起八代之衰矣，愚尝以为〈原道〉一篇，即孟子后始有文字也，策论治平，而阙却格致一段工夫，朱子之斥以无头，宜矣，未知为何如耶？博曰：唐时儒学，不能如宋时之明，朱子之论昌黎，亦责备贤者之意。”<sup>44)</sup>卢以渐毫不掩饰对韩愈及〈原道〉一文的赞赏。关于韩愈的〈原道〉，后世多有评论，宋儒对其多有否定性的评价，特别是朱熹，他认为韩愈在〈原道〉中引用了〈大学〉的章句，却忽略了最为重要的“致物在格知”这句话，从而大加批评：“〈原道〉中举〈大学〉，却不说“致知在格物”一句。……看得这样底，都是个无头学问。”<sup>45)</sup>实际上，韩愈在〈原道〉中引〈大学〉，意在强调“明明德”，强调修身、齐家、治国、平天下，以此反驳佛教的出世思想。而宋儒之于〈大学〉，是要学习“格物致知”“正心诚意”的道德修习功夫，其旨意在于内心的涵养和自身的修习。二者出发点不同，其意当然不同。博明的回答显示了他对这一问题的判断，他认为，唐代和宋代都是儒学发展的不同阶段，所以对同一经典就会有不同的解释。正是如此，尽管韩愈和宋儒都对〈大学〉作了实用主义阐释，但是朱熹重视道德涵养功夫，认为这是最主要、最根本的理学义理，其它则是次要的，故认为讲〈大学〉而不及“格物致知”，就是无头学问。韩愈与朱熹的分歧，这正是儒学发展不同阶段的不同反映。“余曰：愚则以为，昌黎非不知格致工夫，而〈原道〉之书，为辟异端而作，故就释教之有体无用而言之，不可论于治国，故单提治国，而不及格致，未知如何耶？博曰：此唐人未入贤域之说也。”<sup>46)</sup>卢以渐认为，韩愈并未像朱熹批评的那样不知格致功夫，而是〈原道〉的创作目的是为了反对佛教的异端思想，并不是讨论如何治国，所以省略了“致物在格知”。实际上，卢以渐的看法是非常有道理的，目的不同，即使所引文本一致也要为了目的而有所取舍。但是博明依然坚持唐儒学不如宋的说

44)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11.

45) 朱熹，《朱子语类（四库全书本）》第137卷.

46)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12.

法，就是对朱熹批评的肯定。虽然在这一问题上二人并没有产生激烈交锋，但是分歧也略见一斑。卢以渐对韩愈的尊崇是非常明显的，以唐为正，而博明始终以朱熹为尊，以宋为宗。

卢以渐不仅对韩愈敬佩有加，对柳宗元也是赞誉不已，“余曰：河东之文，简而精，博而雅，其浑然天成，虽逊于昌黎，而人巧极处可夺天工，可以并称，而第策问之奇，韩文亦未见。〈封建论〉，亦天地间不可无之文字，未知何如耶？博曰：河东远不逮韩子，永州以后，文始佳耳。”<sup>47)</sup>卢以渐认为，韩愈和柳宗元在文学造诣上各有千秋，韩愈的文章浑然天成，柳宗元的文章巧夺天工，两人的文学成就可以并驾齐驱。而柳宗元的政论性文章要比韩愈好，尤其是〈封建论〉一文，恣意汪洋，雄才大略，所以卢以渐盛赞“天地间不可无之文字”。卢以渐对韩愈和柳宗元的盛赞，实际上反映了朝鲜朝汉文学（主要是汉文诗歌）的发展轨迹。

朝鲜朝前期，汉文诗歌的创作由辞章派和道学派引导，从学习苏轼扩大到学习江西诗派，士人高举宗宋的大旗，学宋诗，仿宋诗，借鉴“点铁成金”“脱胎换骨”等创作手法，取得了不俗的成绩。但统治阶级内部激烈复杂的党争以及理气之争，阻碍了诗歌创作健康发展的方向。随着与明交流的不断加深，明代的复古文学思想传入朝鲜，“文必汉魏，诗必盛唐”的口号给朝鲜的士人以巨大冲击，富有意趣的唐诗再次成为朝鲜诗人争相学习的对象。此后，不论是士人还是庶民阶级，学唐之风日盛，诗歌创作及理论不断向着宗唐方向发展。但朝鲜在学习唐诗的过程中，渐渐偏离了“诗主性情”的诗歌本质，使诗歌创作陷入僵化而失于自然。明清更替之后，王士禛的神韵说、沈德潜的格调说、袁枚的性灵说以及翁方纲的肌理说传入了朝鲜，丰富了朝鲜诗坛的理论思想，朝鲜诗家们纷纷开始探索正确的诗歌创作方法，诗坛也出现了宗唐宗宋的论争。卢以渐对韩愈和柳宗元的赞许，既曲折反映了朝鲜文坛关于创作方法的争论，也反映了他在文学创作上以唐为宗的理念。关于韩柳文学成就可并肩的说法，博明是不同意的，他认为，柳宗元在被贬为永州司马后所作的

47)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12.

文章才是佳品，这也反映了他对唐宋古文复兴运动的独特理解。关于唐宋八大家的成就，博明有着自己的评价标准：“南丰学刘子政者，行余为妍，其气格优近汉，特杂学耳。八家之文，首辟者为韩子，才大者大苏，南丰则法汉人峭刻，刚为半山”<sup>48)</sup>博明认为，在唐宋八大家之中，韩愈之文是当之无愧的翘楚，而苏轼之文才气为最大，曾巩学习汉人，文章气格接近汉，风格峭刻，属于杂学之家，王安石之文蕴含远大的政治抱负，气魄宏大。

值得注意的是，两人还针对明清时期的古文创作提出了各自的观点：“余曰：明时之文，如方逊志、王若明似无愧于欧苏矣。其余荆川、崆峒、晋江、凤州诸人，虽体格各异，而不害为一家言，当以何家为最耶？愚意则无出于逊志，未知如何？博曰：相传：明文三变，而入明初，务为台阁，王李不为汉以下言，贗矣。所谓优孟衣冠也，震川学欧者也，艾千子以八家之文，学于西江，诸子以东汉之文，鸣于松江，若以八家之真比之，亦未必非贗者也。余曰：大朝之文，当推谁人为大家耶？博曰：不品题本朝，有『望溪集』甚妙，当觅读之。”<sup>49)</sup>卢以渐认为，明代的文章，方逊志和王若明之文可与欧阳修和苏轼比肩，而唐顺之、李梦阳、王慎中、王世贞皆为大家，在这些文学大家中，以方逊志的成就最高。由此可见，卢以渐对明前后七子复古运动的诸大家是十分欣赏的。博明对明代文学提出了自己的看法，他认为明初的台阁体、前后七子的文学复古运动与唐宋八大家相比不值一提，整个明代，只有唐宋派的代表作家归有光继承了欧阳修的风骨，归有光抵制对嘉靖年间已流为盲目尊古的前后七子的复古运动，提倡唐宋古文，符合博明对台阁体和复古运动的看法，因此被纳入博明的点评视野理所当然。万历年后，明代文风衰弊，文章内容陈腐，科场制艺，形式僵化。艾南英对此深恶痛绝，认为只有取径唐宋才是溯源秦、汉的正确道路。他创豫章社，遵从北宋古文精神，也是比较符合博明的文学理念。博明的这番点评实际上是对卢以渐所尊崇的创作理念的隐晦批评，对于明代文学的认知，两人的分歧是比较大的。关于本朝文字，博

48)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11.

49)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11.



明十分推崇方苞，方苞是清桐城派的始祖，他在散文创作上主张“义法”，即“言有物”“言有序”，他提倡古雅严谨、言简意赅的文风，方苞的文学思想对于后来桐城派的理论学说形成提供了范例和准绳，也开启了桐城派理论创设的大门，为桐城派奠定了理论基础。后来桐城派文章的理论，即以方苞所提倡的“义法”为纲领，继续发展完善，于是形成主盟清代文坛的桐城派，影响深远。从博明对方苞的推崇来看，在古文创作上，他应该是受到了桐城派的影响。其著作《凤城琐象》，选取素材，运用语言，只求简明达意、条例清晰，不重罗列材料，力求“清真雅正”。其写景之文，生动传神，细节盎然，寄世感叹；其传状之文，刻画生动，纪叙扼要，流畅时晰。

卢以渐与博明的这两次交流，堪称是一次思想碰撞的盛宴，给他以极大的感动，在回国的路上，他作书表达了对这位异国知己的感激之情：“伏惟阁下学问宏邃，文章精丽，雅望着于大朝，华闻彰乎海外，虽牛走圉媪，皆知阁下之为天下士也，何其盛也。某之今来也，所见者亦不少矣，宦野之广敞，海关之控隘，巫闾之岳势，薊门之烟景，不可谓不大，而犹未足以壮吾心目，慙吾素愿。只欲一见阁下之高明，得闻博雅之论，观感于咳唾笑傲之末，而其道无由，乃者倾盖之日，滥叨下榻之礼，德音温和，酬酢如响，首尾数十言，皆可以开发蓬藜，挥廓云雾。俾此朦瞶得见白日之余辉，顾此眇眇，何以得此于阁下耶！譬如羸疾将死之人，忽逢良医之过门，投之以神丹妙剂，而遄臻于回苏，私心感佩奚百朋客也，西来之愿于是乎谐矣！”<sup>50)</sup>通过这段记载可见，卢以渐在与博明的交流中，应该是得到了极大的启发，而其提及的“西来之愿”，则表明他来到中国的初衷，即渴望与中国文人交流，切磋学术的强烈愿望。因此，将其简单归结为尊明排清、思想保守落后的典型显然是不公平的。

在对卢以渐和博明交流的考察中，还要特别指出一点，即朝鲜朝对中国蒙古族乃至清政权认知发生的变化。1231年（高丽高宗十八年）至1259年（高丽高宗四十六年），蒙古大军先后六次对高丽发动大规模战争，给高丽人民造成了深重的灾难，元还采用姻亲的政策以图控制高丽政权，引发了统治阶级

50) [韩]林基中 编，卢以渐 著，同上，p.172.

的不满。因此，在有明一代的“朝天录”及清代初期和中期的“燕行录”中，朝鲜使臣经常把蒙古族称为“胡虏”“腥尘”，表达了浓厚的敌意态度。但卢以渐能够与蒙古族学者博明进行如此平等深入的交流，并对博明进行盛赞，这本身就说明在这一时期，朝鲜朝对中国蒙古族和清政权的认知发生了变化，也表明了朝鲜朝开始以更加开放的胸襟和更加广阔的视野来观察中国，认知中国。

#### 4. 结论

明清两季，中朝两国在政治、经济、文化、科技、军事等方面进行了频繁而密切的交流。朝鲜知识分子借使行之机，饱览中国山河，体察中国民生社会百态，经常与中国文人进行接触和交流。有明一代，朝鲜文人倾慕于中国文化，渴望到中国与中国文人进行文学切磋和思想交流，许多文人将自己的使行记录直接命名为“朝天录”，这一名字包涵了这一时期深刻的时代精神。明清易代，敏感的朝鲜知识分子不约而同地将使行记录命名为“燕行录”，名称的改变折射出时代精神的变化，也折射出朝鲜在明清时期对中国认知的变化。

在清代前期朝鲜使臣的记录中，对中国的敌意处处可见，而洪大容、朴趾源等实学学者的出现，极大地改变了朝鲜对清代中国的认知。卢以渐与博明关于理学思想和文学观念的深度交流，从侧面折射出这一时期两国的思想界所发生的变化，也是朝鲜对清的认知发生变化的局部反映。最重要的是，卢以渐能够摆脱本国长期以来对中国的蒙古族所固有的“腥膻”“胡尘”等套话的束缚，采用平等的态度，与蒙古族学者博明进行深入的学术交流，标志着此时的朝鲜对清所采取的轻蔑、敌视态度发生了转变。也说明在这一时期，清统治者实施的多样化的民族政策取得了成功，中国已形成了多民族融合共存，各民族文化相互促进的统一国家。

◆ 参考文献

1. 资料

- [韩]林基中 编, 『燕行录全集』, 首尔: 东国大学出版部, 2001.
- 한국고전종합DB网站, 〈翠眉楼记〉, 『燕岩集卷之七/别集/钟北小选/记』  
[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grpId=&itemId=MO&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MO\\_0568A\\_0070\\_020\\_0060](https://db.itkc.or.kr/dir/item?itemId=MO#dir/node?grpId=&itemId=MO&gubun=book&depth=5&cate1=Z&cate2=&dataGubun=최종정보&dataId=ITKC_MO_0568A_0070_020_0060)
- [清]博明 著, 『西斋杂著二种』, 嘉庆本刊, 1934.
- [清]博明 著, 『西斋诗辑遗』, 嘉庆本刊, 1934.
- 『清代诗文集汇编』编纂委员会, 『清代诗文集汇编』, 上海: 古籍出版社, 2010.

2. 单行本

- 朱红星、李洪醇、朱七星, 『朝鲜哲学思想史』,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1989.
- 『中朝关系通史』编写组, 『中朝关系通史』, 长春: 吉林人民出版社, 1996.
- 赵云田, 『中国文化通史(清前期卷)』, 北京: 中共中央党校出版社, 2000.
- 李岩等, 『朝鲜文学通史』, 北京: 社科文献出版社, 2010.
- 林永匡, 『清代社会生活史』, 北京: 中国社会科学出版社, 2016.

3. 论文

- [韩]南权熙, 「새로 발견된 卢以渐의〈随槎泉〉에 대한 书志의 研究: 1780년 同一 使行时 燕岩 朴趾源의〈热河日记〉와 比较」, 『图书馆学论集』第23辑, 1995, pp.405-437.
- [韩]权延雄, 「卢以渐의〈随槎泉〉: 解题 및 原文 标点」, 『庆北史学』第22辑, 1999, pp.141-239.
- [韩]金东锡, 「卢以渐의〈随槎泉〉에 관한 연구—〈열하일기〉와 비교의 관점에서」, 『韩国汉文学研究』第27辑, 2000, pp.259-302.
- [韩]金东锡, 「朝鲜後期연행록의 미학적 특질—〈随槎泉〉의 내용을〈热河日记〉와 비교하여」, 『东方汉文学』第49辑, 2011, pp.191-221.
- 白·特木尔巴根, 「清代蒙古族作家博明生平事迹考略」, 『民族文学研究』第1期, 2000, pp.64-67.
- 方华玲, 「博明生卒年份考辨」, 『石家庄学院学报』第1期, 2014, pp.9-11.
- 赵相璧, 「清代蒙古诗人博明」, 『内蒙古社会科学』第3期, 1985, pp.67-71.
- 白凤岐, 「略谈博明的〈凤城琐泉〉」, 『满族研究』第3期, 1988, pp.31-34.
- 米彦清, 「清代蒙古诗人博明与其〈义山诗话〉」, 『内蒙古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5期, 2009, pp.88-91.

- 程作新, 「浅析博明的哲学思想」, 『内蒙古社会科学』第2期, 1989, pp.20-24.
- 程作新, 「蒙古族学者博明的唯物主义思想」, 『内蒙古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第2期, 1992, pp.23-28.
- 王鑫磊, 「韩国汉文燕行文献随槎录的史料价值——兼谈朝鲜王朝的小中华意识」, 『复旦学报(社会科学版)』第5期, 2013, pp.19-29.

논문접수일	2022년 07월 26일
심사완료일	2022년 08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

The first exploration of the exchange between No YiJeom,  
the literati of the Korean Dynasty, and Bo Ming,  
the Mongolian literati of the Qing Dynasty

Yang, Xin

In 1780, No YiJeom, a literati of the Korean dynasty, met and communicated with Bo Ming, a Mongolian literati of Qing dynasty literati. In No YiJeom's "Su Sa Rok", Bo Ming's resume, lineage and appearance were all involved, which could complement the shortage of academic circles. Through the exchange of Neo-Confucianist ideas between the two people, One can gather that Bo Ming respected Cheng Zhu's Neo-Confucianism. His ideological tendency reflected the history of the confrontation between Neo-Confucianism and the heart-mind theory in the early Qing dynasty. And his Neo-Confucianist view coincided with No YiJeom; The concept of Bo Ming's literature theory is closely related to the literature theory of the eight masters of the Tang and Song dynasties, at the same time, Bo Ming accepted the influence of the Tongcheng faction. He and No YiJeom held the Spring and Autumn Annals as the view of the classics, which reflected the rising academic trend of literature and classics during the Qianlong period. No YiJeom praised Han Yu and Liu Zongyuan, which not only circuitously reflected the debate about the creation methods in the Korean literary world, but also reflected his idea of focusing on Tang in the field of literary creation. His view on the Book of Rites reflected the adherence of Korean Neo-Confucianism to "etiquette".

**Keyword**

Korean literati, No YiJeom, Mongolian literati, Bo Ming, cultural exchange



# 汉语自由转述体在韩国语译本的对应类型研究

- 以余华小说《许三观卖血记》1)韩译本为例 -

单清丛\*

## 국문요약

자유간접화법 (free indirect style) 은 하나의 특수한 인용형태로서 언어학, 문학, 번역학에서 공통적으로 관심을 갖는 인터페이스(interface) 문제로 문학작품 중 특수한 전달방식으로서 동작주체의 심리활동을 보다 생동감 있고 유연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서술자의 감정 태도도 또한 삽입되어 전체 텍스트에 뚜렷한 복조성 (夏調性) 2)을 띠게 된다. 본 연구는 주로 위화(余華) 소설 '허삼관매혈기(許三觀賣血記)'의 자유간접화법의 한국어 번역본에 대한 대응 상황을 분석하도록 한다. 다음과 같은 주요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전형 자유간접화법→전형 자유간접화법', '비교적 전형 자유간접화법 (지시 유형) →비교적 전형 자유간접화법', '비전형 자유간접화법(연설言說 유형)→직접 인용', '비전형 자유간접화법→비인용(객관)' 이런 네 가지 주요 유형으로 분석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유사점에서 중한 자유간접화법은 비교적 강한 언어 표현 기능을 가지고 있다. 차이점에서 중국어 자유간접화법의 사용빈도는 한국어보다 높고 비교적 강한 주관성과 상호작용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한

\* 上海外国语大学韩语系博士生 (shanqingcong@163.com)

- 1) 小说简介：《许三观卖血记》是余华1995年创作的一部长篇小说，小说讲述了许三观卖血渡过了人生的一个个难关，战胜了命运强加给他的惊涛骇浪，而当许三观老了想为自己卖一次血吃一次炒猪肝的时候，年轻血头却不再收他的血了，许三观感到崩溃在街头大哭。小说曾被翻译成英语、德语、意大利语、日语、韩语等20多种语言。小说作者简介：余华，中国先锋派代表作家，代表作《活着》《许三观卖血记》《在细雨中呼喊》《兄弟》等。小说译者简介：최용만，韩国翻译家，曾翻译余华多部作品《형제(1,2) (兄弟1, 2)》《허삼관매혈기 (许三观卖血记)》《가랑비 속의 외침 (在细雨中呼喊)》，译者2000年于北京大学中文系攻读中国当代文学专业并取得硕士学位，故我们在此使用최용만 (2007) 的译本展开对照研究。
- 2)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在此需要对“복조성 (夏调性)”进行解释说明，“夏调性”原本是音乐学的相关术语，之后前苏联文学理论家巴赫金在研究俄国作家陀思妥耶夫斯基小说的基础上提出。巴赫金指出的是主人公意识的独立性，主人公之间，主人公与作者之间平等的对话关系，其借用音乐学中的术语“夏调”，来说明小说创作中的“多声部”现象。

국어 관련 표현의 객관성, 중립성이 비교적 강하며 주관성이 비교적 약하다. 이러한 유사점 및 차이점이 나타나는 언어학적 요인이 주로 중국어와 한국어의 언어유형, 인용 범주의 복잡 정도 및 언어 경제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주제어** 자유간접화법, 인용범주, 언어 경제성, 중한대조, '허삼관매혈기'

## 〈目録〉

1. 前言
2. 汉语自由转述体在韩国语中的对应类型
3. 汉语自由转述体同韩国语表达的异同
4. 结语

## 1. 前言<sup>3)</sup>

自由转述体<sup>4)</sup>是一种较特殊的转述语<sup>5)</sup>, 其不同于其他转述语, 在转述内

- 3) 根据审稿专家的建议, 我们将文章结构进行了重新调整, 将原有的引言、自由转述体的定义、前人研究三个章节归并为第一章前言部分, 以便使文章结构尽可能简洁, 在此向审稿专家提出的宝贵建议表示感谢。
- 4) 在此需要对“自由转述体”的术语进行解释, 文中所说的自由转述体为自由间接引语(*free indirect style*), 我们借用了孙会军(2021)在“人文社会科学前沿问题与研究方法”课程中的相关术语以便体现该问题是语言学、文学、翻译学的交叉接口问题。当然, 本文的分析主要侧重语言学层面, 但有关文学、翻译学的研究与语言学的研究路径、研究成果是一脉相通的, 且对语言学方面的研究颇有启发, 故本文在前人研究的梳理方面会涉及文学、翻译学的内容, 在此说明。
- 5) 转述语的类型多样, 不同学者根据不同标准对转述语做出过不同分类, 如: 诺曼·佩琪对转述语的八种分类, 包括: 直接引语、被遮覆的引语、间接引语、带特色的间接引语、平行的间接引语、自由间接引语、自由直接引语、从间接引语“潜入”直接引语。麦克海尔根据转述者对原话这一言语事件转述的不同等级, 掩盖、遮覆被转述者性格程度的不同程度, 将转述语分为: 描述性概括、较不“纯粹”的描述性概括、间接内容转述、一定程度上模仿的间接话语、自由间接话语、直接话语、自由直接话语; 利奇和肖特的五种分类, 包括: 直接引语、间接引语、自由直接引语、言语行为叙述体、自由间接引语; 巴尔的四种分类, 包括: 直接引语、间接引语、自由间接引语、叙述者文



容中不提及转述者，而直接将转述者的内心独白进行转述，以达到拉近读者距离、增强语言密度的效果。但汉语的自由转述体在跨语言文本中如何处理或者说如何表现？相关研究还有待进一步展开。基于此，本文主要从汉韩语言对比的角度，对余华小说《许三观卖血记》汉韩译本中的汉语自由转述体及其韩国语的表达类型及特点进行浅析，故本文主要关注以下三个问题：

- (1) 汉语自由转述体在《许三观卖血记》韩译本中的对应类型有哪些？<sup>6)</sup>
- (2) 汉语自由转述体在《许三观卖血记》韩译本中的表达有何异同？
- (3) 汉语自由转述体同韩国语相关表达产生异同的动因有哪些？

### 1) 自由转述体的定义<sup>7)</sup>

---

本；热奈特的三种分类，包括：叙述化话语或讲述话语、间接叙述体的转换话语、戏剧式转述话语。整体来看，自由转述体是一种兼具直接引语和间接引语的特殊引语形式。【根据审稿专家的建议，自由转述体与直接引语、间接引语、自由直接引语之间的区分并不分明，有待进一步区分，在此，我们尝试进行相关引语的区分，相关表达在形式上即有所区分，直接引语是直接引用别人的话，如：小明说：“我是一个学生。”相关表达中有冒号、引号、直接引用的主语为第一人称，而间接引语则是在直接引语的基础上进行转换的结果，如“小明说他是一个学生。”句中去掉了冒号、引号、原来句子的主语变为第三人称。若我们将直接引语和间接引语视为连续统（连续统的具体概念请见脚注37）的两端，那自由直接引语、自由间接引语等概念可以看作位于不同连续统中的点，如：自由直接引语指不加语法提示的人物对话和内心独白，其语法特征是去掉引导词和引号，以第一人称讲述，倾向直接引语的一端；自由间接引语表达中虽然形式上属于间接引语形式，但相关表达带有主体进行第一人称言说的功能。】

- 6) 这里涉及的对应类型为汉语文本中自由转述体在韩国语中的主要对应表达类型。
- 7)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在需要对“自由间接引语”和“自由转述体”之间的关系进行说明。本文基本认为，从广义上看，“自由转述体”和“自由间接引语”基本属于对等一致的关系（两者的英文术语皆为free indirect style），我们在脚注4中做了简单说明，即我们借用了在“人文社会科学前沿问题与研究方法”课程中的“自由转述体”的术语，（使用“自由间接引语”这一术语可能更侧重语言学特点）。但是，若从狭义上看，“自由转述体”和“自由间接引语”在范围的大小上可能存在区别，相对而言“自由转述体”的范围相对更广一些，或者说，其外延更宽，而“自由间接引语”作为语言学中引语范畴的变体形式之一，其更强调作为引语的特征属性，其外延相对较窄。或者从狭义上说，“自由转述体”是“自由间接引语”的一个相对上位概念。

自由转述体 (free indirect style) 为1912年夏尔·巴里 (R. Bally) 在《现代法语中的自由间接文体》中提出的自由间接话语 (Free Indirect Discourse)。自由间接引语的运用关涉到语言的集体配置性<sup>8)</sup>和权力本质。或者说, 集体配置性和权力本质反映了自由间接引语中言者主体的动态转换以及话语权力重心的焦点所在。<sup>9)</sup>德勒兹在巴赫金和帕索里尼研究的基础上, 对自由间接引语展开了深入研究, 其认为自由间接引语中预设的陈述主体与陈述中的主体的关系是主体化进程的依据, 主体化是双重的主体化。<sup>10)</sup>现将举例对自由转述体进行说明: <sup>11)</sup>

8) 根据审稿专家的建议, 我们需要对该句“自由间接引语的运用关涉到语言的集体配置性和权力本质”这句话加以解释, 尤其是对“语言的集体配置性”进行说明。有关自由间接引语的早期研究中, 帕索里尼即对自由间接引语的“集体性”做了突出强调, 因为作家所引用的说话人是一个“典型”, 他是一整类说话人的代表, 因此作家所引用的说话人总是一个“典型”, 他是一整类说话人的代表, 因此, “一整个阶层, 甚至一整个人民……”(un ambiente, addirittura di un popolo…), 即自由间接体使语言的使用本身就具有了政治性、集体性, 并召唤、导向某一可能群体的建立。而根据德勒兹的相关研究, 其认为陈述总是具有一种集体性、社会性, 而权力则体现其中。或者说, 自由间接引语在句中或段落中涉及到集体/主体的动态转换和分布, 即语言的集体配置性, 而这种集体性的配置实则反映了话语中主导权或话语权力的焦点。此外, 审稿专家指出, 需要说明“语言的集体性配置”、“权力本质”这样的概念与自由转述体有何关系, 我们通过以上对相关概念的阐述来开, “集体性配置”、“权力本质”等概念在自由转述体研究早期即得到研究者的关注, 或者说, 我们也可以将自由转述体理解为“集体性配置”、“权力本质”的一种实现手段。

- 9) 根据审稿专家的建议, 我们补充了该句以便对上一句进行进一步的补充说明。
- 10) 胡新宇, 「自由间接引语与主体性的双重生成——从巴赫金到德勒兹」, 『文学研究』, 第1期, 2022, p.198.
- 11) 根据审稿专家的建议, 我们需要对自由转述体定义中涉及的更具有说服力的例子进行补充。老舍小说《骆驼祥子》中是典型使用自由转述体的文本, 在此通过举例对典型自由转述体的视角转换过程进行说明, 以期能对自由转述体进行一个更为清晰直观的解释。[1]阮明为钱, 出卖思想; 祥子为钱, 接受思想。[2]阮明知道, 遇必要的时候, 可以牺牲了祥子。[3]祥子并没作过这样的打算, 可是到时就这么作了——出卖了阮明。[4]为金钱而工作的, 怕遇到更多的金钱; 忠诚不立在金钱上。[5]阮明相信自己的思想, 以思想的激烈原谅自己一切的恶劣行为。[6]祥子听着阮明所说的, 十分有理, 可是看阮明的享受也十分可羡慕——“我要有更多的钱, 我也会快乐几天! 跟姓阮的一样!”[7]金钱减低了阮明的人格, 金钱闪花了祥子的眼睛。[8]他把阮明卖了六十块钱。[9]阮明要的是群众的力量, 祥子要的是更多的——象阮明那样的——享受。[10]

A. He looked over at his wife. "She looks so unhappy," he thought, "almost sick." He wondered what to say.

(他望着妻子。"她看上去很不开心, "他想, "简直是病了。"他不知该说些什么。)

B. He looked over at his wife. She looked so unhappy, he thought, almost sick. He wondered what to say.

(他望着妻子。她看上去很不开心, 他想, 简直是病了。他不知该说些什么。)

C. He looked at his wife. Yes, she was tiresomely unhappy again, almost sick. What the hell should he say?

(他看着妻子。是, 她看上去又是一副无精打采、闷闷不乐的样子。简直是病了。他又他妈的该说些啥呢?)

(例句转引自James Wood : 2009)

上述例句中, A将人物想法加引号, 带有动作主体"他"在自言自语的; B中是常见的间接引语; C是自由间接引语, 动作主体"他"的想法从作者的标识中解放出来, 没有"他对自己说"、"他不知"、"他想"等相关表达, C的叙述方式, 明显使整个句子带上人物特征, 但作者的视角也在语境中隐现表达, 或者说我们不易判断句子中的每个小句究竟是谁说的。这种语言的复杂性有机地将人物主观言语或思想与叙述者的客观叙述交织在一起, 在同一句子结构中, 产生微妙的叙事和文体效果。<sup>12)</sup> 此外, 由于自由转述体自身的不确定属性或模糊性一定程度上也决定了自由转述体在文本中会带有典型性和非典型性, 构成相关连续统表达, 即有的类型是典型的自由转述体, 而非典型类型的

---

阮明的血洒在津贴上, 祥子把钞票塞在了腰间。该段落中的第[2][5]句中看似描写的是“阮明”的心理活动, 但其实是作者老舍化身的叙述者取代“阮明”进行思考, 第[1][2][5][7][9]句在表面上是第三人称的客观叙事, 但其实是叙述者做出的判断。尤其是第[2]句中, 涉及的视角颇为复杂, 其中至少涉及了三种视角: 第一, 是从句子表面上看是“阮明”的心理活动, 因为有典型的表心理活动的认知动词“相信”; 第二, 是叙述者与读者之间的互动交流, 即将叙述者对“阮明”的负面评价告知读者; 第三, 是叙述者的客观陈述, 第三人称叙述者在此发挥了权威作用。根据刘旭 (2016) 的分析, 其认为第三种观点是自由转述体最期待的, 叙述者的上帝视角意味着“负面判断/评价”的真实性, 接受者也多从此视角来接受文本的道德指向。

12) 陈晨, 『俄语叙事话语中的自由间接引语研究』, 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2022, p.30.

自由转述体可能会同其他引语类型有所交叉,<sup>13)</sup>而本文主要以自由转述体为主要研究对象,故以此为连续统的中心或者说是聚焦的主要对象,来观察相关汉韩语的相关表达。换言之,我们主要采用相对较广义的定义来考察汉语自由转述体在韩国语中的表达情况。

## 2) 前人研究

自由转述体作为一个语言学、文学、翻译学等诸多领域关注的话题,不同领域的学者对该问题从不同角度进行了深入且具有批判性的研究。但通过对前人研究的整理可知,尽管文学界和语言学界对此皆有深入研究,但自由转述体的概念并非单一,其自身作为表现在文本中的语言表达形式,有其客观的一面,但其在文本中又发挥了双重声音,推动文本叙事发展。

1894年,德国语言学家托勃雷(Tobler)认为存在一种介于直接引语和间接引语的混合体形式,其认为自由转述体在词序上与直接引语相似,而在动词形式上与间接引语相似。<sup>14)</sup>1912年夏尔·巴里(R. Bally)将此种引语形式命名为“自由间接风格”(le style indirect libre),认为其作为一种特殊的间接引语,缺少相关连接词,句法本身存在需在句中分析的不足之处,且需要考虑上下文分析。<sup>15)</sup>德国批评家洛克(Lorck)将自由转述体称为“体验者的话语”(erlebte Rede),认为该引语形式与间接引语在人称和时态上具有一定相似性,而其他语言成分与直接引语类似。1922年,德国评论家勒奇(G. Lerch)将“自由间接引语”这一术语在学界固定下来。<sup>16)</sup>

13) 诺曼·佩奇(Norman Page)在1973年出版的《英语小说中的人物话语》中尝试以系统的方式对引语形式进行分类:直接引语→被遮覆的引语→“平行的”间接引语→“带特色的”间接引语→**自由间接引语**→自由直接引语→从间接引语“潜入”直接引语。利奇(Leech)和肖特(Short)在《小说中的文体》中根据叙述者的介入程度对引语形式进行排列,其认为在言语层面的表达为:言语行为的叙述体→间接引语→**自由间接引语**→直接引语→自由直接引语。

14) 陈晨,『俄语叙事话语中的自由间接引语研究』,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2022, p.20.

15) 陈晨,同上, p.20.

16) 陈晨,同上, p.20.

中国学界,无论是文学界还是语言学界,都较早对自由间接引语进行了讨论。胡亚敏(1989),王黎云、张文浩(1989),申丹(1991),王加兴(2009),申丹、王丽亚(2010),申丹(2019)等从文学叙事的角度对自由间接引语进行了介绍。例如,王黎云、张文浩(1989)较早对自由转述体在小说中的运用展开了研究,其主要指出了其有“使作者缄默”、“使空间时间和心理时间交叉”、借助包括内心独白、自由联想、旁白等手段表现意识流,运用感叹句、疑问句、不完全句等多种手段揭示人物心理活动。<sup>17)</sup>申丹(1991)澄清对王、张(1989)概念的基础上,提供了一个较为全面的认识,同时介绍了一些被忽视的新功能。<sup>18)</sup>申丹(1991)对王、张文中“使作者缄默”的功能进行了逻辑上的厘清,其认为王、张混淆了表达形式与表达内容,有时作者并非完全缄默不语,而是隐藏在小说人物身上。《运用》一文所提及的“作者和人物双重声音的分析”仅能应用于自由间接引语的转述语,不适用于引导句;对“使空间时间和心理时间交叉”的功能,申指出王、张混淆了作者与人物两个完全不同的实体;对“表现意识流”的功能,申认为王、张的举例并非是无逻辑的意识流,而是较有逻辑的,且自由转述体并非是表达意识流的最好形式之一,自由直接引语也是最佳形式之一。<sup>19)</sup>申丹(1991)还在文中补充了“能有效地表达或加强讥讽的效果”、“增强同情感”、“增加语意密度”等功能。<sup>20)</sup>谢晓河(2005)指出自由转述体似为直接引语和间接引语的混合体:自由直接引语的时态和人称代词的形式类似于间接引语,一般以叙事者的时态为基准时态,保留间接引语后移(back shifted)的时态,使用第三人称代词,但一般去除间接引语的转述结构(如:he thought, she said);同时,自由间接引语的其他一些成分(如here, now, this)却表现得如同直接引语,而非间接引语中常用的形式(then, there, that)这又表明了间接引语和直接引语的密切

17) 王黎云、张文浩,「自由间接引语在小说中的运用」,『外语教学与研究』,第3期,1989, pp.60-62.

18) 申丹,「对自由间接引语功能的重新评价」,『外语教学与研究』,第2期,1991, p.11.

19) 申丹,同上, pp.12-14.

20) 申丹,同上, pp.15-16.

关系。<sup>21)</sup>此外,方英(2004)、康响英(2008)、张闻琦(2009)、尹岩松(2014)等学者也对该引语形式的功能作用从文体、叙事角度进行了研究。整体看来,中国学界对自由间接引语的研究起步较早,文学界、语言学界对此皆有深入细致的研究,但由于“自由间接引语”自身具有文学性和语言形式的多重属性,并不易将其完全厘清。

韩国语学界对自由转述体的研究在延续西方有关自由转述体的相关理论外,也具有韩国自身的特色。김혜란(1981)、김완진(1983)、항하진(1989)、박선희(2007, 2012, 2016a, 2016b)、박소영(2015)、박은경(2017)等都对自由转述体进行了具体研究,相关研究多为分析某一具体文学作品中自由转述体的表达,或者是西方作品在译介为韩国语时的具体表达方式。김완진(1983)认为自由转述体作为一种文体技巧被引进,在法语文学作品向韩国语译介过程中存在较多难以处理的情况。但其实韩国艺术作品中这种在文学作品中借助语言表达形式来表达“多声”现象可较早追溯到17世纪末18世纪初的盘索里公演艺术。박선희(2007, 2012, 2016a, 2016b)在一系列研究中考察了外国文学作品在韩国语中的翻译情况,总结了韩国语自由转述体的一些典型语法表达形式,如:在句法层面的叙述者视角人称代词的使用或省略,动词时制使用过去时与现在时两者皆可,典型的终结词尾等;文体层面上,如:口语、方言、隐语、敬语、反复等;标点符号,如:引用号、问号、感叹号等。<sup>22)</sup> 박선희的相关研究较清晰、明确地指出了韩国语自由转述体的

21) 谢晓河,「英语小说中的混合自由间接引语研究」,『上海电机学院学报』,第1期,2005, p.32.

22) 박선희(2012: 33)总结了韩国语自由转述体表达形式的表格,具体如下:

范畴 <sup>2)</sup>	指标 <sup>2)</sup>
语法(句法) <sup>2)</sup>	叙述者视角的人称代词使用或省略, <sup>2)</sup> 叙述者视角的动词时制(如:过去时)以及人物视角(如:现在时)两者皆可能, <sup>2)</sup> 叙述者视角(没有引用标记)的书面式终结词尾 <sup>2)</sup> 人物视角指示成分 <sup>2)</sup>
文体 <sup>2)</sup>	口语,方言,隐喻,敬语,反复,犹豫,疑问,感叹,单句等 <sup>2)</sup>
标点 <sup>2)</sup>	引号,问号,感叹号,省略号,顿号,斜体,大写,加粗等 <sup>2)</sup>

具体表达形式,这一点是汉语相关研究中较少被提及的。

本文根据前人研究,对汉语文学作品中的自由转述体表达在韩国语中的表达情况进行初步的归类分析,以期初步了解相关表达的异同点。

## 2. 汉语自由转述体在韩国语中的对应类型

本文对余华小说《许三观卖血记》的汉韩译本中与自由转述体相关的内容逐一进行查找。因此,需要对相关判断标准进行说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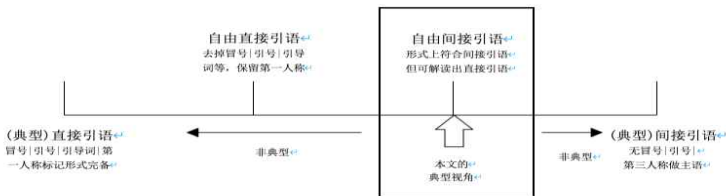
首先,在自由转述体的定义部分中,我们提及了自由转述体涉及的引语形式是一个连续统表达,我们主要聚焦连续统中的自由转述体表达,但在具体文本中,我们也观察到自由转述体与间接引语、自由直接引语或直接引语之间的界线并不分明。<sup>23)</sup>因此,本文主要采取一种相对广义的自由转述体定义。

其次,在具体的标记形式上,自由转述体处于直接引语和间接引语间<sup>24)</sup>,且其本身同时含有作者/叙述者声音或意识,这种“多重”声音的属性决定了自由转述体可以同时拥有两套话语表述标记系统<sup>25)</sup>,共享一些表述性标

23)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需要对相关概念尽可能做一个区分,具体的区分内容,我们在脚注5进行了补充说明和区分,在此我们以下图进一步以更直观的形式进行区分,并进行简单解释,我们将(典型)直接引语、(典型)间接引语视为该连续统的两端,而自由直接引语、自由间接引语等其他非典型引语形式位于连续统的过渡环节。但是,本文的视角是以自由间接引语展开的,故典型视角落在自由间接引语上,如大箭头所示,如此一来,其他引语形式,如自由直接引语、(典型)直接引语、(典型)间接引语等就成为相对而言的非典型形式(在此需要说明的是引语形式不局限于图中所列的几类,连续统上坐标所在的每个位置都可能存在不同典型性的引语)。此外,审稿专家指出,既然自由转述体的相关标记不分明,那如何进行区分或告诉读者如何进行区分呢?我们在此进行说明,我们主要采取了排除法,即相关表达在一个段落或篇章中,既不是典型的直接引语形式,也不是典型的间接引语形式,或自由直接引语形式,我们将其初步判断为自由转述体(自由间接引语),当然这样会出现自由转述体的外延较大的问题,故尝试对涉及自由转述体的相关表达进行内部的典型性划分,即区分为典型自由转述体、较典型自由转述体、非典型自由转述体三个大类,当然相关分类仅局限于《许三观卖血记》这一本小说,今后将展开进一步的分析与研究。在此向审稿专家的建议表示感谢。

记,如动词、人称、耦合词的转换等,且可省略引导句,并其拥有与直接引语相同的句法结构、语态和词汇,但省去了冒号、引号等基本的定义分界标记。<sup>26)</sup>

此外,还需要注意的是汉语本身的语法特点,相较于英语、韩国语等,汉语缺乏形态变化,汉语自由转述体的语言表层结构上很可能只有人物主体意识的语言成分,而不见作者/叙述者的声音/意识成分,汉语中大部分自由转述体多靠上下文判别。<sup>27)</sup>换言之,相较于其他形态较发达的语言,汉语在自由转述体的判断上也较依赖于具体语境。在此,我们对《许三观卖血记》的汉语版本进行了统计,并对其具体的韩国语表达类型进行了对应分析。在此,需要对四种类型的分类标准进行说明。本文主要关注的是自由转述体,因此在相关引语连续统中(如脚注23的图示所示),我们的视角以自由转述体为中心向外扩散,即自由转述体是典型结构,能够解读出文本中不同主体的思想或声音,而其他非典型自由转述体类型虽然也能解读出多种声音,但在形式上可能带有其他引语类型的特征或带有较鲜明的聚类特点(如在具体例句中我们发现“指称类”、“言说类”等),而像非典型自由转述体(类型4)我们虽然也将其命名为自由转述体的一种类型,但实际上已经可以算是直接引语的一种类型了,即我们是以引语连续统的自由转述体为典型,向周边的非典



24)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对相关概念的区分以脚注5和脚注23进行了补充说明以及区分,向审稿专家的建议表示感谢。

25) 杨斌,「英语小说自由间接引语的翻译」,『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2期,2005, p.73.

26) 杨斌,同上,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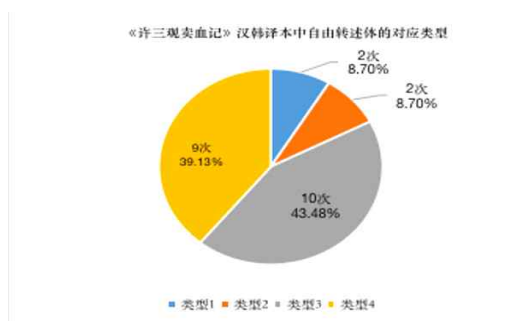
27) 杨斌,同上, p.73.



型类型扩展。28)经过整理初步可得到〈表1〉的相关类型及分布：

〈表1〉余华小说《许三观卖血记》韩译本中汉语自由转述体的韩国语表达类型

序号	类型	频次	比重
类型1	典型自由转述→典型自由转述	2	8.70%
类型2	较典型自由转述(指称类)→较典型自由转述	2	8.70%
类型3	非典型自由转述(言说类)→直接转述	10	43.48%
类型4	非典型自由转述→非转述(客观)	9	39.13%
总计		23	100%



〈图1〉《许三观卖血记》汉韩译本中自由转述体对应类型

通过〈表1〉及〈图1〉可知，汉语自由转述体，在韩国语中大致可对应四种主要类型，其分别为：“典型自由转述→典型自由转述【类型1】”、“较典型自由转述(指称)<sup>29)</sup>→较典型自由转述【类型2】”、“非典型自由转述(言说类)<sup>30)</sup>→直接转述【类型3】”、“非典型自由转述→非转述(客观)【类型4】”

28)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需要对分类标准进行说明，因此在此补充了该部分内容，在此向审稿专家提出的建议表示感谢。

29) 在此对“指称类”这一命名方式进行说明，在相关语料中，我们发现这一类型往往带有较强的自我指称或他者指称倾向，表现得较为集中，且从表面来看尽管指称的是交际中的某一主体，但发出指称的人或者说“声音”的来源很有可能是不同的，或者是复合的，带有较典型的自由转述特征。此外，需要说明的是本文的相关表达类型以及数据仅是基于《许三观卖血记》这一本小说而言的，并不是说所有小说都有这四种类型或只有这四种类型，不同文本可能会呈现不同差别，我们今后也会对相关文本展开研究。

”，四种类型分别出现了2次、占比8.70%，2次、占比8.70%，10次、占比43.48%，9次、占比39.13%。其中，类型3“非典型自由转述（言说类）→直接转述”的占比较为突出。现对四种类型逐一进行分析：

### 1) 典型自由转述→典型自由转述<sup>31)</sup>

该类型主要指汉语的典型自由转述表达对应韩国语中典型的自由转述表达，这种典型对典型的表达类型在汉韩语中出现的频次并不高，仅出现2次，占比8.7%。具体例句如下：

(1) -汉 “都到月底了，……，我怎么办啊？巧妇难为无米之炊，没有钱我怎么请人家吃饭？这可不是别的什么人，这可是二乐的队长啊，要是这顿饭不丰盛，二乐的队长就会吃得不高兴……这次请的可是二乐的队长啊，请他吃了，请他喝了，还得送他一份礼物，这两元钱叫我怎么办啊？”（《许三观卖血记》第26章第93页）

(1) -韩 “월말이라 집에 이 원밖에 없는데, …… 어떻게지? 아무리 재간 좋은 여자라도 쌀 없인 밥을 못 짓는데, 이 원으로 어떻게 식사 대접을 하느냐구.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락이네 생산대장인데. 식사 대접이 시원찮아서 기분이 언짢아지기도 하던 이락이가 당장 힘들어질 거 아냐. ……이락이네 생산대장이니 선물도 줘서 보내야 할 텐데, 달랑 이 원으로 어찌해야 하나.……”（《허삼관매혈기》제25장 제247페이지）

(2) -汉 “方铁匠的儿子住在医院里，又是吃药，又是打针，还天天挂个吊瓶，每天都要花不少钱，这钱谁来出？是许三观出？还是何小勇出？反正许玉兰是怎么都跑不掉了，不管爹是谁，妈总还是许玉兰……这钱许三观肯出吗？许三观走来

30) 在此对“言说”这一用法进行说明，根据对语料的观察，我们发现此类表达在文本中多带有言说类的动词表达形式，故此命名，进行区分。

31)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需要对本文的语料进行补充，但我们也考虑到篇幅的相关要求，因此在汉韩原文中，我们对没有特别显现自由转述体及相关表达的原文句子用省略号“……”进行处理。此外，由于每种类型的第一组例句是我们修改前原有的例句，我们进行了较长篇幅的分析，补充后的例句由于篇幅限制无法展开如各自第一组例句的详细分析，对第二组例句只能进行整体性的分析，在此说明，并向审稿专家提出的建议表示感谢。

走去的，到处说要何小勇把一乐领回去……这钱应该何小勇出，许三观把他的儿子白白养了九年……许三观也把一乐的妈白白睡了九年，养兵千日，用兵一时，要是有个女人白白陪我睡上九年，她的儿子有难了，我是不会袖手旁观的……说得也对……”（《许三观卖血记》第8章 第28页）

(2) -韩 “방씨 아들이 입원해서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매일 약병을 걸어 놓고 맞아야 하는데, 돈이 꽤 많이 든다는군. 그런데 그 돈을 누가 내야 하느냐 말이야. 허삼관이 내야 할까? 아니면 하소용이 내야 할까? 어쨌든 허옥란은 움 짝옻씩 못하게 생겼군. 아버가 누구든 어미는 허옥란이니까……그 돈을 허삼관이 낼까? 허삼관은 어딜 가나 하소용더러 일락이를 데려가라고 말한대더군……그 돈도 하소용이 내야 한다면서 말이야. 자기는 하소용의 아들을 구 년 동안이나 헛 키우지 않았느냐고……일락이 엄마하고도 구 년 동안 헛잠을 잔 셈이고 병사는 하루를 쓰러 해도 천 날을 키워야 하는 법이니, 만약 어느 여자가 나하고 구 년 동안 공짜로 자준다면 그 여자의 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나 같으면 수수방관하지는 않을 텐네……”（《허삼관매혈기》 제8장 제83페이지）

上述两组例句是较典型的自由转述体表达，例（1）中上下文并未说明这段话是谁说的，但明显可以推测出说话人是“许玉兰”，她在为没钱请二乐队长吃饭而焦灼，但这段话也并非只是“许玉兰”内心的独白，其还包含作者的情感态度。原文中使用的“我怎么办啊？”、“没有钱我怎么请人家吃饭？”、“这两元钱叫我怎么办啊？”三个疑问句直接表达了“许玉兰”没钱请“二乐队长”吃饭的无奈和焦灼，是带有内心独白的直接引语，在这些表达之外在表现“许玉兰”内心活动的三个疑问句之间也穿插了“许玉兰”对没钱请“二乐队长”吃饭可能导致的结果及彼此间的因果推理关系进行了阐述，带有间接引语的性质，但这些带有间接引语性质的表达并非只是“许玉兰”的想法，也带有作者/叙述者的想法和认识，带有较明显的“双重”声音。对应的韩国语表达类型中，从整体结构来看，韩国语继承了汉语自由转述体的表达形式，即在相关表达中不出现动作/心理活动的主体，但可以推知动作/心理活动的主体，其在整体框架上同汉语基本一致，是较典型的对应类型。从微观结构来看，韩国语相关表达与汉语并非完全一致，如汉语的三个疑问表达对应的韩国语分别为“-어떻하지”、“-느냐구”、“-어찌해야 하나”三个表达，但相较汉语而言其各自在表疑问之余，

具有一定自身指向的语言表达效果，即在表疑问语义中潜在了一种对自我言说的语力。而汉语相关疑问表达中除了“我”带有较明显的自我指向外，若将“我”删去句子自我言说的语力明显下降，不及韩国语的词尾表达形式。或者说，汉语相关例句的表达具有一定他者指向的语言表达效果，即希望将自身意愿传递给他人的语义较强烈。同时，韩国语的相关表达也带有除动作主体表达自身情感之外，具有作者/叙述者同时“发声”的意味。例(2)中汉韩语横线部分的例句，虽然是村子里其他人看似客观的叙述，但其实句中渗透着除了村子其他人的声音，如“这钱谁来出？是许三观出？还是何小勇出？”这样连用的反问句不仅是其他人的疑问其实也是许三观、许玉兰、作者甚至是读者的疑问，该汉语段落中渗透着多重声音的杂糅，而韩语译文中较好地保留了这种多重声音，延续了典型自由转述体的表达。<sup>32)</sup>

初步来看，该类型是汉韩语较典型的自由转述体表达，汉韩语中皆不出现叙述者，而直接将动作主体的内心独白进行转述，能够引发读者较强烈的共情，具有较强感染力。但从转述话语的内部来看，尤其是较有特色的语言表达（如该例句中的疑问表达）并非完全一致，其内部存在诸如信息传递的主客观性的微观差异，汉语可能需要借助指示词表达，而韩国语在句中虽然没有具体指示词，但通过终结词尾可表达较强自我言说的语力。

## 2) 较典型自由转述(指称类) → 较典型自由转述

该类型主要指汉语较典型的自由转述体形式(常伴有较强的指称特征)在韩国语中以较典型自由转述的形式呈现。具体例句如下：

(3) -汉 “**四叔**，我想找个女人去结婚了，**四叔**，这两天我一直在想这卖血来的三十五块钱怎么花？……我还想给你几块钱，我爹的几个兄弟里，你对我最好，**四叔**，可我又舍不得给你，这是我卖血来的钱，不是我卖力气来的钱，我舍不得

32)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对相关类型的例句进行了补充并进行了说明，但受篇幅限制，无法具体展开如第一组例句的详细分析，仅进行整体上的分析，在此说明，向审稿专家的建议表示感谢。

给。**四叔**，我刚才起来的时候突然想到娶女人了。**四叔**，我卖血来的钱总算是花对地方了……**四叔**，我吃了一肚子的瓜、怎么像是喝了一斤酒似的，**四叔**，我的脸，我的脖子我的脚底，我的手掌，都在一阵阵地发烧。”（《许三观卖血记》第2章 第12页）

(3) -韩 "**삼촌**, 여자를 찾아 결혼하고 싶어요. 요 며칠간 줄곧 피 팔아 번 돈 삼십오 원을 어떻게 쓸까 생각했는데요, ..... 삼촌한테도 어느 정도는 드리고 싶었어요. 친척들 중에 삼촌이 저한테 가장 잘 해주셨으니까요. 하지만 좀 아쉽**더라구요**. 이 돈은 그냥 제 힘을 들여 돈이 아니라 제 피를 팔아서 번 돈이잖아요. 드리가 좀 그렇**더라구요**. 그런데 **삼촌**, 조금 전에 갑자기 마누라나 들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피 팔아 번 돈을 쓸 곳을 찾은 셈이죠. **삼촌**, 과일도 배를 채웠는데 어찌 꼭 술 한 잔 마신 것 같**네요**. 얼굴이며 목, 발바닥, 손바닥까지 죄다 확 달아오르는 게 말예요.”（《허삼관매혈기》 제2장 제35-36페이지）

(4) -汉 他们去告诉许三观：“**许三观**，你家的一乐呜呜哭着往西走了：**许三观**，你家的一乐不认你这个爹了：**许三观**，你家的一乐见人就张嘴要面条吃：**许三观**，你家的一乐说谁给他吃一碗面条，谁就是他的亲爹，**许三观**，你家的一乐到处在要亲爹，就跟要饭似的，你还不知道，你还躺藤榻里，你还架着腿，你快去把他找回来吧。”（《许三观卖血记》第22章 第65页）

(4) -韩 "**삼관이**, 일락이가 영영 울면서 서쪽으로 가**더군**. 자네가 자기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면서, 보는 사람마다 국수를 시달라고 조르**더라구**. 국수를 사주면 자기 아버지라는 거야. 구걸하듯이 아버지를 구하니, 이렇게 누워 있지만 말고 어서 가서 일락이를 데려**오라구**.”（《허삼관매혈기》 제22장 제187페이지）

上述两组例句中，例（3）中没有明确说明说话人是谁，但很容易可以推知说话人是“许三观”，这段话是“许三观”对“四叔”说的一段话，这段话中用了七个“四叔”及相关并列形式的表达虽然是说话人想要传递的具体信息，但在现实对话语境中人们一般很少密集地连用这样的称谓，汉语中的这种表达形式给读者以由直接转述向自由转述的感觉，即这段话不像是“许三观”对“四叔”说的，而更像是“许三观”自己的心理活动，或者说是对自己说的，属说话者自身指向。此外，汉语原文中除了多次出现“四叔”称谓之外，也多次出现了“我”，带有直接引语的意味，但前文提及这种高频出现的反复称谓更像是“许三观”告知自己的情况，这种自我告知又在叙述者的控制之下，即在相关语境中有“许三观”（言者1）、“叙述者/作者（言者2）”、“许三观内心的自己（听者1）”、

“四叔(听者2)”至少四个人物,在带有直接引语性质的同时,有一定较典型的自由转述特征。对应的韩国语表达类型中,整体结构上,韩国语标记基本继承了汉语相关表达的结构形式,最为明显的是韩国语对应表达中的“삼촌”仅保留了三处,且句中的人称代词基本被省去,去掉称谓和人称代词的韩国语表达更倾向从叙述者/作者的角度来向读者传递较为客观的信息。微观结构上,韩国语表达的词尾形式较有特点,除了韩语例句“-아/어/여요”的终结形式外,“-더라구요”、“-죠”、“-네요”等相关表达带有较典型自由转述特征,传递的信息更具客观性。例(4)中,汉语原文中出现了五次“许三观”,在指称“许三观”的同时,这几个句子并不是一个人,而是多个人说的,在体现指称属性的同时带有较典型的自由转述特征,其对应的韩语译文中仅保留了一处“许三观”,指称性明显不及汉语,但其后使用的词尾“-더군”、“-더라구”、“-오라구”却隐含着汉语原文中的多人多重声音依旧存在。<sup>33)</sup>

初步来看,汉语较典型的自由转述体类型可以与韩国语较典型的自由转述体类型相对应,且汉语文本中在带有较强指称(自指/他指)色彩的同时,韩语对应的指称特征相对减弱,词尾多借助相对固定的形式表达,韩语表达的听话人(他者)指向和客观陈述的特点较突出。

### 3) 非典型自由转述(言说类)→直接转述

该类型主要指汉语的自由转述体本身并非是符合典型定义的形式,但也并没有完全脱离该形式,该类型在文本中出现的频次较高,出现了10次,汉语中通常为“动作主体+言说告知类动词”形式,其后介引出的信息,虽然像是言说表达,但实则是动作主体的内心活动,这一点在韩国语对应表达中是以显性形式表达。具体例句如下:

33)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对相关类型的例句进行了补充并进行了说明,但受篇幅限制,无法具体展开如第一组例句的详细分析,仅进行整体上的分析,在此说明,向审稿专家的建议表示感谢。

(5) -汉 "他告诉自己:就是这个正打着呼噜的人,不让他去饭店吃面条;也是这个人,让他现在饿着肚子躺在床上;还是这个人,经常说他不是他的亲生儿女。最后,他对许三观的鼾声说:我不是你的亲生儿子,你也不是我亲爹。" (《许三观卖血记》第21章 第61页)

(5) -韩 "일락이는 생각했다. '바로 이 사람이야. 지금 코를 골고 있는 이 사람. 국수 먹으러 갈 때 나를 데려가지 않은 것도 이 사람이고, 배를 주린 채 잠자게 한 것도 바로 이 사람이야. 늘 내가 가지 친아들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일락이는 허삼관의 코 고는 소리에 대고 나직이 말했다. "그래, 난 당신 친아들이 아니야. 당신 역시 내 친 아버지가 아니라구." (《허삼관매혈기》 제21장 제181페이지)

(6) -汉 许三观心想她还要打扮好了去见何小勇?她对着镜子把头发梳得整整齐齐,抹上头油擦上雪花膏,穿上精纺的线衣,把鞋上的灰拍干净,还有那条丝巾,她也会找出来系在脖子上;然后,她高高兴兴地去见那个让他做了九年乌龟的何小勇。(《许三观卖血记》第9章 第29页)

(6) -韩 '그 녀석을 만나는데 왜 화장을 해야 하나? 머리도 곱게 빗고, 머릿기름이랑 선풍크림도 바르고, 그토록 아끼는 정방 먼실 옷을 입고, 신발의 먼지도 깨끗하게 닦아냈었다? 거기다 명주 손수건까지 목에 두르고 즐거운 마음으로 나를 구 년이나 자라 대가리 노릇을 하게 한 하소용을 만나러 간다구?' (《허삼관매혈기》 제9장 제86페이지)

上述两组例句中,例(5)的"他告诉自己"的动作主体并未明示,但根据上下文可知"他"指的是"一乐",这句话看似是"一乐"对自己说的话,但其实是"一乐"的心理活动,"一乐"的这段心理活动中以排比并列,即"就是这个人...也是这个人...还是这个人"的排比形式表达了内心的不满。而最后一句中"一乐"对"许三观"的鼾声说"我不是你的亲生儿子,你也不是我亲爹"虽然是以具体的话语形式表达出来的,但其实也可以看作"一乐"内心的心理活动,换言之,在该例句中动作主体的"心理活动(非典型自由转述体)"和"具体话语(直接引用)"之间的界线并不清晰,在一定语境中存在交叉重叠的现象,尤其是句中"不让他……"、"让他……"的人称代词表达带有较明显叙述者/作者的声音,具有"复调"<sup>34)</sup>性质。在对应的韩国语表达中,整体结构上,韩国语对汉语原文在

34)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需要对"复调"进行解释说明,相关定义我们在脚注2中进行了说明,在此不再赘述。

结构上的处理变动不大,最显著的的是,汉语原文中的“他告诉自己”这样一个较有特点的自由转述体表达,或者说这样一个衔接前后文的表达,在韩国语中被处理为“일락이는 생각했다.”这样一个相对客观的表达形式,但“他告诉自己”的“他”在汉语文本中除了指“一乐”外,不排除是叙述者/作者的可能。微观结构上,汉语例句中的带有较典型自由转述体意味的语法表达形式,如指示代词“他”等在韩国语中转化成了第一人称指示的“나”或“내”,韩文译本被处理为较典型直接引语的表达方式,或者说,汉语非典型自由转述体表达在韩国语中发生了偏离,即以更加显性、聚焦言者主体的形式进行表达。例(6)与例(5)相似,汉语中有“说”、“想”等表示显性或隐性言说类的表达,但在后续句中出现以“她”为主语的表达,既带有“许三观”的视角,更有叙述者对客观情况进行陈述的意味,而在对应的韩国语表达中,汉语带有非典型自由转述特征的表达在韩国语中被处理为带引号的直接引语表达,且汉语中多次出现的“她”在韩国语中被隐去,各分句被处理为带有较典型直接引语性质的词尾“-나?”、“-다?”、“-다구?”等。<sup>35)</sup>

初步来看,虽然汉语此类型的自由转述体并非典型,但其仍带有典型表达的相关特征,即其动作主体尽管用代词“他”代替,有明示特点,但在具体文本中,有蕴涵其他声音的可能,需结合具体文本和语境进行分析。而在韩国语的相关表达中,相关表达则被处理为直接转述形式。

#### 4) 非典型自由转述→非转述(客观)

该类型主要指汉语较典型的自由转述体在韩国语中被处理为非转述形式或者说在韩国语中直接对客观事态进行描述。具体例句如下:

(7) -汉 “他已经有十一年没有卖血了,今天他只要去卖血,今天是为他自己卖血,为自己卖血他还是第一次, **他在心里想**:以前吃炒猪肝喝黄酒是因为卖了

35)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对相关类型的例句进行了补充并进行了说明,但受篇幅限制,无法具体展开如第一组例句的详细分析,仅进行整体上的分析,在此说明,向审稿专家的建议表示感谢。



血,今天反过来了,今天是为了吃炒猪肝喝黄酒才去卖血。”(《许三观卖血记》第29章 第120页)

(7) -韩 "자그마치 십일 년 만이었다. 게다가 오늘은 그야말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피를 파는 거였다. 이전에 돼지간볶음에 황주를 곁들여 먹은 건 순전히 피를 팔았기 때문이지만, 오늘은 거꾸로 돼지간볶음에 황주를 곁들여 먹기 위해 피를 파는 거야." (《허삼관매혈기》 제29장 제322-323페이지)

(8) -汉 **许三观觉得外面确实是冷,想到自己到了黄店还要卖血,不能冻病了**,他就钻进了船舱,在他们两人中间躺了下来,来喜将被子的一个角拉过去给他,来顺也将被子往他那里扯了扯,许三观就盖着他们两个人的被子,睡在了船舱里。(《许三观卖血记》第28章 第112页)

(8) -韩 바깥은 확실히 추웠다. 황덴에 가서 피를 한 번 더 팔아야 하는데 병이라도 얻었다가는 그야말로 큰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선실로 비집고 들어가 두 사람 사이에 일단 누웠다. 래희가 이불의 한 자락을 밀어줬고, 래순이도 자기 이불을 끌어다줬다. (《허삼관매혈기》 제28장 제299페이지)

上述两组例句中,例(7)的“他在心里想”之后的表述是“他”心里想的具体内容,但“他心里想”之前的内容虽然没有被明确指出是“他”的心理活动内容,但经观察可知,“他已经十一年没有卖血了……为自己卖血他还是第一次”其实也可以看作是“许三观”的具体内心活动,该部分虽不能说是完全典型的自由转述形式,但“他”也并非完全明晰确定转述的主体是谁,转述的主体有较大可能被解读为作者,可被视作一种非典型的自由转述形式。而其对应韩国语表达则被编码处理为非转述类型,直接对客观事态进行描述,即描述时间的客观性“자그마치 십일 년 만이었다.(有十年之久)”以及事件的客观性“오늘은 그야말로 생애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피를 파는 거였다.(第一次为自己卖血)”,尽管韩语译文是一种相对隐性的心理活动表达(依然保留引号),整个韩语文本的客观表述属性其实已将人物心理活动的主观属性基本覆盖,基本处理为了一种非转述的客观表达。例(8)与例(7)相似,汉语中“许三观觉得外边冷”与其后的“到了黄店还要卖血,不能冻病了”可以解读出叙述者在内的多种“声音”,带有自由转述体的属性,但在韩语译本中明显处理为客观环境和事件的描写,即直接以“바깥은 확실히 추웠다.”和“황덴에 가서 피를 한

번 더 팔아야 하다.”的客观形式进行表达，基本不涉及相关引语表达。<sup>36)</sup>

初步可见，汉语自由转述体表达中动作主体的内心活动同叙述者/作者间想要传达的信息界线并不明晰，而在《许三观卖血记》的韩国语表达中，转述表达的界线不在转述体内部不同类型的区分，而在转述表达和非转述表达之间区分，其彼此间的界线相对较为分明。

经过对汉韩对译本小说《许三观卖血记》的相关语料进行浅析，我们主要总结了汉语自由转述体在韩国语中主要对应的四种类型，主要包括：

- 1) 典型自由转述 【汉语】→典型自由转述 【韩国语】
- 2) 较典型自由转述（指称类） 【汉语】→较典型自由转述 【韩国语】
- 3) 非典型自由转述（言说类） 【汉语】→直接转述 【韩国语】
- 4) 非典型自由转述 【汉语】→非转述（客观） 【韩国语】

通过相关类型可知，自由转述体在汉语文本中可以以较为灵活的形式呈现，既可以是叙述者不点明转述者的身份，直接用被转述者内心独白或加以修正的不标准的内心独白用词进行表达，也可以隐性地提示文本中潜在的转述者（多为作者自身）进行表达，从而实现文本“多重声音”、“多重讲述”的自由转述效果。反之，汉语自由转述体的连续统<sup>37)</sup>在韩国语中的表征则显得离散性较强。汉语的自由转述体在韩国语中对应的转述类型，既可以是直接对应的典型自由转述类型（该类型相对较少），也可以处理为直接转述类型（该

36)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对相关类型的例句进行了补充并进行了说明，但受篇幅限制，无法具体展开如第一组例句的详细分析，仅进行整体上的分析，在此说明，向审稿专家的建议表示感谢。

37)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在此对“连续统表达”进行解释说明，“连续统”(continuum或continuity)是数学及哲学领域中一个重要且复杂的概念，认知语言学家借用这一数学用语，将其用在语言学研究的各个方面。上世纪90年代末，屈承熹在《汉语认知功能语法中》将“continuum”译为“连绵性”，指出“类似的个体，有相同之处，也有相异之处，其间的异同又各有别，无法将这些个体再进而分成明显的类别。这些个体之间，存在着一种渐次重叠、连绵渐进的关系，这种关系，我们称之为‘连绵性’，这些个体形成的一个群体，可以称之为‘连绵体’，即所谓的‘连续统’表达。文中有关‘连续统’的概念与此一致，文中他处不再赘述。

类型相对较多)，也可以处理为单纯描写客观事态的非转述类型。相较汉语自由转述体典型和非典型的连续体而言，对应的韩国语转述体形式的离散性较强、聚合性较弱。

### 3. 汉语自由转述体同韩国语相关表达的异同

上文中，我们对汉语自由转述体的四种主要类型进行了分析，该部分我们将相关内容进行观察总结，尝试探寻汉韩语相关表达的相同点和不同点，具体可如下表格所示：

〈表2〉汉韩自由转述体的相同点和不同点<sup>38)</sup>

异同及动因	对比参项	汉语	韩国语
相同点		加强讥讽、增强同情感、增加语义密度的效果	
不同点	使用频次	较高	较低
	使用特点	相对灵活，可构成连续统。	对应类型并未体现太多整体性特征。
	主观性强弱	主观性强	客观性强 <sup>39)</sup>
	交互性强弱	交互性强	交互性弱

#### 1) 相同点

汉韩语转述表达中皆有自由转述体类型，且两种语言自由转述体具有较强烈的语言表达功能，根据申丹（1991），其指出自由转述体具有有效表达或

38) 根据审稿专家的建议，我们将原来结尾部分的表格进行了拆分（拆分为表2并将原表格的部分内容进行了删除）放置到了正文内，在此向审稿专家表示感谢。

39) 审稿专家指出翻译后的韩语体现出的客观性强，交互性弱的特点与译者的翻译因素有一定关联，在此我们十分同意审稿专家的意见，译者的翻译因素可能会对客观性、交互性的强弱产生一定影响，之所以说韩语呈现客观性强，交互性弱的特点是相对汉语自由转述体表达而言的，具有一定的倾向性而非绝对行。此外，如我们在脚注42的解释相似的是，韩语自身复杂丰富、形态明显的引用范畴影响了韩语相关表达整体上带有客观性的恒定属性。我们预期这一点即便是不同译者的版本也可能是带有一定稳定性的，相关研究也有待进一步展开研究，审稿专家的建议为我们提供了很好的思路，在此表示感谢。

加强讥讽的效果、增强同情感、增加语义密度 (semantic density) 的效果。同样, 汉韩语的自由转述表达也具有相似的表达效果, 如类型1的例句是“许玉兰”的一段心理活动, 但文中并未明确提出这段话是“许玉兰”说的, 但很容易推测出说话人, 而未提及说话人其实将这段心理活动很好的融合进文本中, 使得行文更为灵活、流畅, 虽在此并未有讥讽效果, 但有效表达的功能是显而易见的。其次, 汉韩自由转述体在该例中皆有增强同情感的作用, 即“许玉兰”的这段内心活动再加之其连用的四个疑问会有效地向读者传递出其当下处境窘迫却又无奈、焦急的情绪, 较易使读者产生共鸣、增强同情感。再次, 将隐性说话人的心理活动借助自由转述的形式融入语境中, 使表述更为紧凑、语义密度更强, 使行文更为流畅, 更易使读者对人物的当下处境产生同情感, 增强文本的渲染力。

## 2) 不同点

汉韩自由转述体在使用方面存在差异并显现出不同特点。<sup>40)</sup>

首先, 从使用频次来看, 汉语自由转述体使用的频次相对较高, 在使用的文本中汉语大致使用了23次自由转述体, 通过自由转述体的使用可以使说话者的内心独白以更加灵活的形式表现出来, 而对应的韩国语文本中使用自由转述体的类型不及汉语, 其多以直接转述或非转述的客观形式表达。

其次, 从使用特点来看, 汉语自由转述体的使用不仅数量相对较多且其本身较为灵活, 其本身既可以是较典型的自由转述体也可以是较为非典型的形式, 引介这些非典型形式的表达可以是以“动作主体+言说告知类动词”这样显性的形式, 也可以蕴涵在相关表达中, 其不同类型之间形成了一个从典型到非典型的连续体, 既然是这样的连续体在一定程度上就反映了主体在选择转述形式时会受主观意识的影响, 或者说, 主体对汉语自由转述体的选择和使用具有较强主观性。反之, 韩国语自由转述体的使用因其本身频次较少

40) 在此主要通过使用频次、使用特点、交互性三个方面进行对比, 前两者主要是根据小说文本表层语言表达设置的对比参项, 而交互性主要是依据自由转述体自身的表达特点, 即带有较明显的“复调”属性而设置的对比参项, 在此说明。

没有显示出太多整体特征,但若观察汉语自由转述体对应韩国语表达类型,整体显示出较强的客观倾向,即汉语中带有较强主观性的自由转述表达在韩国语中不一定必须要用自由转述体表达,直接转述或非转述等带有较强客观性质的表达可能是韩国语转述表达中更倾向使用的类型。

从交互性来看,汉语的自由转述体除自身具有较强主观性的同时也具有较强的交互属性,如在较典型的自由转述表达和非典型自由转述表达中,其都带有较强的指称属性,但突显这种自我指向的属性所借助的手段是不同的,有的类型会使用“NP自己(说)”的形式,也可能使用完全从客观表述中(第三方视角)转移至主体视角的形式,亦或使用一般陈述表达来表现这种互动属性,即表现的形式可以是显性的也可以是隐性的。反之,韩国语转述体的这种交互属性相对较弱,这一特点与前文提及的主观性相对较弱、客观性相对较强的属性不无关系,即韩国语这种相对更客观、中立的转述形式也一定程度上决定了其交互属性相对较弱。

#### 4. 结语<sup>41)</sup>

本文主要分析了余华小说《许三观卖血记》汉韩对译本中自由转述体的对应类型,主要总结了“典型自由转述→典型自由转述”、“较典型自由转述(指称类)→较典型自由转述”、“非典型自由转述(言说类)→直接转述”、“非典型自由转述→非转述(客观)”四种主要类型,并分析了汉韩自由转述表达的异同,通过对汉韩自由转述体及相关表达的分析可知,自由转述体在汉韩两种语言中虽然都有增加语意密度,生动灵活地表达说话人心理活动的作用,但在使用频次和使用特点,尤其是主观性方面存在较大差异,出现这些异同

41) 根据审稿专家的建议,由于原有第六章韩语自由转述体产生异同的动因以及原有第七章结语的内容多有重复,可以将两章内容并入第七章结语部分,因此,我们将原有的两部分内容进行了合并,在此向审稿专家的建议表示感谢。合并调整后的结语内容可能较长,但其实可以将该部分的动因视为对应类型以及两者异同特点的一个延续,该部分的动因分析只是从宏观角度展开的初步分析,今后有待进一步从微观层面展开细致分析,在此对审稿专家的建议表示感谢。

的动因主要同汉韩语自身的类型以及引用体系有较为密切的关联。<sup>42)</sup>

首先,从语言类型方面来看,汉语是孤立语,汉语语法的表达多借助语序和虚词来实现,汉语中有很多类似“零句”形式的表达,即通过灵活的语序来表达不同语义,这其实为汉语自由转述体的应用提供了“天然条件”,即汉语在不改变自身形式,灵活运用语序、虚词的情况下即可表达自由转述体。反之,韩国语属粘着语,其自身的语言类型其实一定程度上会影响韩国语自由转述体及相关形式的表达,原因在于韩国语的语法成分多借助助词、词尾等形式化手段来表达句子语义和语法关系,这也反映在韩国语表引用的范畴中,韩国语表引用的手段,无论是直接引用还是间接引用,亦或兼具直接引用、间接引用特点的其他引用形式都需要借助词尾的形式表达,如:“- (으)라고/ (으)ㄴ다고/냐고”及其变体形式来表达引用或传信范畴,这种形式突出的表达手段一定程度上决定了其引用或转述很可能会缺乏类似汉语灵活的主观性或交互属性,更多反映出客观中立的特征。

其次,从表引用的语法范畴来看,汉韩语的引用体系存在较大不同。汉语的引用范畴多借助标点符号及相关动词表示,如:现代汉语中,能与引号同现表现直接引用的表达必须是“说、写、告诉、问、道、感叹”等言语表达类的动词,而表现间接引用的表达必须是思考、判断、感受等内容的动词<sup>43)</sup>,可以看出汉语引用范畴的表达多借助词汇形式。反之,韩国语引用范畴多借助

42) 审稿专家指出汉韩语自由转述体产生异同的动因,除了两种语言自身的差异以外,翻译因素也可能对汉韩语相关表达的特点产生影响,或者说个人翻译可能会将汉语的相关表达处理为不同的韩语表达。我们十分赞同审稿专家的观点,这也为我们的后续研究提供了很好的启发,即可以通过不同译本的对比对自由转述体的产出情况进行对比,这也是我们亟需展开的工作,在此向审稿专家表示感谢。我们在修改过程中,对之前的语料和译本进行了回顾,尽管译者的翻译过程会对目标语的产出情况产生影响,但整体看韩语译本有关自由转述体的翻译情况,目标语多倾向直接引语或形态标记较为显性,较为客观的表达。我们认为这与韩语自身复杂丰富、形态明显的引用范畴关系密切,或者说,尽管不同译者会对源语做出不同的处理,但我们预期处理后的倾向性可能是较一致的,即韩语引用范畴表达的客观性对目标语的影响是相对恒定的。

43) 吕晓东,日汉语引用范畴的比较研究[J],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2003(02):30-34,p.31.

形式变化进行表达，且与韩国语复杂的词尾表达形式有密切关联。韩国语的直接引语在使用双引号将引文内容标记后直接添加“-라고(하고)+V”，而间接引语则相对复杂，其根据引用文的谓词词干的词性以及句型添加不同的形态标记，如：当引用文的谓词词干是名词时使用“-(이)라고 하다”，是形容词时使用“-다고 하다”，是动词时使用“-ㄴ/는다고 하다”等。可以说韩国语的引用范畴相较汉语是一个较为庞大复杂的系统，从另一方面也可以反映出韩国语表引用或转述表达的语法化程度很高、规约化程度强，其本身的客观性强，不容易打破规约化程度高的语法规则来表达主观性较强的语义。

另外，从语言经济性的角度来看，在表达同一范畴中若某一语法形式或特征较突显，同一范畴中与其互补的形式或特点则不必过于突显，即汉语表引用范畴的语法形式相对简约，表达主观化的能力较强，汉语中自由转述体的使用自然可能相对灵活，韩国语的引用范畴相对复杂，表主观化的能力较弱，规约性、客观性较强，韩国语中自由转述体的使用相对不够灵活，多表相对客观的语义特征。

以上，我们在对汉韩语自由转述体表达的类型以及异同进行总结的同时，对汉韩语产生异同的动因从语言类型、引用范畴、语言经济性三方面进行了宏观层面的初步分析，今后将通过扩大相关语料对相关问题展开进一步研究。

## ◆ 参考文献

### 1. 单行本及资料

- 김완진, 「한국어문체의 발달」, 『한국어문의 제문제』, 일지사, 1983.  
 申丹, 王丽亚, 『西方叙事学：经典与后经典』, 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10.  
 申丹, 『叙述学与小说文体学研究』, 北京：北京大学出版社, 2019.  
 Bally, C., *Le style indirect libre en français moderne, Germanisch-Romanische Monatsschrift IV*, Heidelberg: Winter, 1912.  
 Leech, G. N. & Short, M. H., *Style in Fiction*, New York: Longman, 1981.  
 Lorck, J. E., *Die Erlebte Rede : Eine Sprachliche Untersuchung*, Heidelberg:

Carl Winter, 1921.

Tobler, A., *Vermischte Beiträge zur französischen Grammatik II*, Leipzig: De Gruyter, 1894.

## 2. 论文

- 김혜란, 「Madame Bovary에 나타난 자유간접화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1.
- 박선희, 「〈마담 보바리〉의 자유간접문체와 그 번역」,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7.
- \_\_\_\_\_, 「'목로주집'의 자유간접문체 번역에 관한 비평적 분석」, 『불어불문학연구』 108집, 한국불어불문학회, 2016, pp.95-124.
- \_\_\_\_\_, 「자유간접문체 번역의 다음성 재현: 에밀 졸라의 '목로주집'의 경우」, 『동서비교문학저널』 36집, 한국동서비교문학학회, 2016, pp.31-50.
- \_\_\_\_\_, 「자유간접문체 번역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박소영, 「자유간접화법 분석을 통한 모더니즘 소설의 서술기법 연구」,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 박은경,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에 나타난 자유간접화법 번역 양상」,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 황하진, 「〈연술행위 유형〉의 관점에서 본 자유간접화법」,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9.
- 陈晨, 「俄语叙事话语中的自由间接引语研究」, 黑龙江大学硕士学位论文, 2022.
- 方英, 「论哈代小说中自由间接引语的运用及其文体效果」, 『宁波大学学报(人文科学版)』 第4期, 2004, pp.67-70.
- 胡新宇, 「自由间接引语与主体性的双重生——从巴赫金到德勒兹」, 『文学研究』 第1期, 2022, pp.198-210.
- 胡亚敏, 「论自由间接引语」, 『外国文学研究』, 第1期, 1989, pp.82-84, p.107.
- 黄瑞, 「叙事文本的转述语研究」, 上海师范大学硕士学位论文, 2015.
- 黄友, 「转述话语研究」, 复旦大学博士学位论文, 2009.
- 康响英, 「论自由间接引语在意识流小说中对叙述干预的建构作用」, 『湖南科技学院学报』, 第5期, 2008, pp.58-60.
- 刘煜, 「自由直接引语和自由间接引语在小说中的运用」, 『外语教学』 第2期, 1986, pp.9-13.
- 吕晓东, 「日汉语引用范畴的比较研究」,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 第2期, 2003, pp.30-34.
- 申丹, 「对自由间接引语功能的重新评价」, 『外语教学与研究』 第2期, 1991, pp.11-16, p.80.
- \_\_\_\_\_, 「小说中人物话语的不同表达方式」, 『外语教学与研究』 第1期, 1991, pp.13-18, p.79.



- 谢晓河, 「英语小说中的混合自由间接引语研究」, 『上海电机学院学报』第1期, 2005, pp.31-36.
- 王加兴, 「试论俄语准直接引语」,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4期, 2009, pp.32-36.
- 王黎云, 张文浩, 「自由间接引语在小说中的运用」, 『外语教学与研究』第3期, 1989, pp.59-63.
- 徐赳赳, 「叙述文中直接引语分析」, 『语言教学与研究』第1期, 1996, pp.52-66.
- 杨斌, 「英语小说自由间接引语的翻译」, 『解放军外国语学院学报』第2期, 2005, pp.71-75.
- 尹岩松, 「禁锢与解放」, 上海外国语大学博士学位论文, 2014.
- 张闻琦, 「英语小说中自由间接引语的鉴别」, 『长治学院学报』第3期, 2009, pp.49-51.

논문접수일	2022년 08월 07일
심사완료일	2022년 08월 26일
게재확정일	2022년 09월 08일

*Abstract*

## A Study on the Corresponding Types of Chinese Free Indirect Style in Korean

- taking the Korean translation of Yu Hua's novel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as an example -

Shan, Qingcong

As a special form of citation, free indirect style is an interface issue that is concerned with linguistics, literature, and translation studies. As a special paraphrase in literary works, it can more vividly and flexibly convey the psychological activities of the action subject. The narrator's emotional attitude is also interwoven, making the whole text more obvious polyphony. This paper mainly analyses the corresponding situation of free indirect style in the Korean translation of Yu Hua's novel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Four main types can be analyzed and summarized: "Typical free indirect style→Typical free indirect style", "Relatively typical free indirect style (indication type) →Relatively typical free indirect style", "Non-typical free indirect style (spoken type) →Direct citation type", "Non-typical free indirect style→Non-citation type (objective)". The preliminary conclusions are as follows: in terms of similarities, both Chinese and Korean free indirect style has strong linguistic expression functions; in terms of differences, the Chinese free indirect style is used more frequently than Korean, and have strong subjective and interactive properties; Korean relative expressions are more objective and neutral, but less subjective. The linguistic causes of thes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re closely related to the language types, the complexity of the citation category, and the linguistic economy of Chinese and Korean.

**Keyword** Free indirect style, citation category, the economic principle of language, Chinese-Korean comparison, Chronicle of a Blood Merchant

## 한중인문학회 회칙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학회는 ‘한중인문학회(한문표기 : 中韓人文學會, 이하 “학회”라 함)’라 한다.

제2조(목적) 학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국내 한국학의 진흥 및 그 성과의 해외 소개
2. 재외 한국학 연구자들과의 교류를 통한 해외 한국학의 활성화
3. 동아시아, 특히 중국과의 학술문화사상적 교류 및 관계 탐구
4. 기타 한국학의 국제적 위상 및 정체성 제고를 위한 제반 활동

제3조(사업) 학회의 사업은 다음과 같다.

1. 학술연구발표회 개최
2. 학회지 『한중인문학연구』 간행
3. 한중인문학 관련 도서 간행
4. 국내외 학술단체와의 학술교류

제4조(연구 윤리)

1. 학회의 제반 활동은 학술연구에 관한 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바탕으로 한다.
2. 회원들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별도의 <윤리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

## 제2장 회원

제5조(자격) 학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국내외 한중인문학 관련 언어, 문학, 역사, 철학, 문화, 언어교육 분야 등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2. 기타 한중문화 교류에 관여하는 전문가 및 기관

제6조(가입) 학회의 가입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인준한다.

제7조(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학회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제8조(의무) 회원은 회칙 및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사회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제10조(조직) 학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전공별, 지역별)
3. 분과이사 약간명
4. 감사 2인

제11조(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과 분과이사 및 간사는 회장이 지명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며 사무 전반을 총괄한다.
2. 행정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학회의 사업을 기획·조정한다.
3. 분과이사는 학회의 주요 업무와 의결사항을 집행한다.
4. 감사는 학회의 재무사항 일체를 감사하며 매년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4장 회 의

### 제14조(총회)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2.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① 사업 계획의 심의
  - ② 예산 및 결산의 심의
  - ③ 임원 선출 및 인준
  - ④ 회칙 개정
  - ⑤ 기타 중요사항
3. 임시총회는 학회 운영상 특별히 의결이 필요할 때 회원 3분의 1 이상이나 이사회에의 요청으로 회장이 소집한다.

### 제15조(이사회)

1.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전공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① 총회 의결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②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예비심의에 관한 사항
  - ③ 업무 집행 및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 ④ 기타 중요사항

### 제16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와 기타 출판물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2.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편집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 제17조(연구윤리위원회)

1.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제반 활동 및 회원의 연구 활동을 대상으로 하여 학술 연구 윤리 규범을 홍보하고 <윤리 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정한다.
3. 연구윤리위원회의 제반 사항은 <윤리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결) 회의안건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한다.

##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내역) 학회의 재정은 회원의 기금, 입회비, 연회비,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제20조(회계연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21조(예결산) 예산 및 결산은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6장 기 타

제22조(내규) 이 회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규로 정한다.

## 부 칙

- 이 회칙은 199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회칙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한중인문학연구』編輯委員會 規定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위원회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 편집위원회’라 칭한다.

제2조(발행) 본 위원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는 다음 지침에 따라 발행된다.

1. 연4회 발간하되, 3월 30일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에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학술지 게재 심사 대상은 투고된 학술대회 발표문과 수시로 접수한 논문으로 한다.

제3조(연구 윤리)

1. 본 위원회의 활동은 학술연구자로서의 도덕적 의무와 사회적 책무 이행에 바탕을 둔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의 활동은 본 학회의 〈윤리 규정〉에 의한 제반 규약을 준수한다.
2. 이와 관련한 사안은 연구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처리한다.

###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편집위원회는 1인의 편집위원장과 10인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된다.

1. 편집위원은 이사회에서 추천, 회장이 위촉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편집위원회에서 선출하며, 회장이 위촉한다.



제5조(인원) 편집위원은 아래의 분야에 따라 위촉한다.

1. 한국 인문학 : 문학, 어학, 고전, 역사, 문화, 교육 등 6개 분야
2. 한중 비교학 및 중국학 : 중국 문학, 중국 어학, 중국 사상, 비교 문학 등 4개 분야
3. 위의 기준을 만족시키는 자로서 연구업적과 활동 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임명한다.

제6조(편집위원 선정 기준) 편집위원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학술연구 실적이 뛰어난 자
2.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한 인문학 분야를 전공으로 하는 자

제7조(임기)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자문위원) 편집활동의 제고를 위해 약간의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 제3장 심사

제9조(투고 자격) 투고자는 원칙적으로 본 학회 회원이면서 회비를 납부한 자로 하며, 투고된 모든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게재가 결정된다.

제10조(논문의 범위) 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다른 학술지나 단행본 등에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로 한정한다.(기취득한 학위논문을 요약 및 발췌한 내용이나 이미 발표된 논문과의 접근 방식에서 확연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은 논문은 투고할 수 없다.)

1. 한국학의 내적 특성을 심화시키거나 외연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는 내용
2.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문학 분야 및 한국학의 정체성 탐구와 관련 있는 내용

제11조(심사위원) 심사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전공분야에 연구업적이 있는 자로 논문 한 편 당 3인을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다.

제12조(심사 기준)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평가항목에 근거하여 심사하여 판정 소견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항목 \ 점수	5	4	3	2	1
논문의 창의성					
방법의 적절성					
논리의 타당성					
체계의 적합성					
학문적 기여도					
총점					

## 제4장 심사 절차 및 심사 규정

제13조(접수) 논문 투고는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을 통해 수시로 받는다.

제14조(예심) 투고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세부 분야별로 분류하여 예심을 한다.

제15조(심사 의뢰) 편집위원장은 예심을 거친 논문을 해당분야의 심사위원 3인에게 ‘심사의뢰서’와 함께 보내 심사를 요청한다.

제16조(심사 절차) 심사위원은 심사의뢰서에 근거하여 위촉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 평가란에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택일하여 기록한 후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통보한다.

1. 심사의 공정성을 위해 원고 투고자와 심사위원은 서로 이름을 알지 못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 상에서 직접 심사하고 그 결과를 입력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규정) 편집위원회는 수합된 심사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통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1. 각 심사위원의 평가 결과에서 3인 이상이 게재에 동의할 경우 반드시 게재한다.
2.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게재’로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수정해야 할 사항을 명기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투고자는 1주일 이내에 수정 보완하여 수정확인서와 함께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4. 편집위원회는 수정·권고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된 논문에 한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시 결정한다.
5. 최종평가에서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의뢰한다.
6. 논문 수정에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게재를 다음 호로 미룰 수 있다.
7. 심사결과 2인 이상 ‘게재 불가’ 판정이 있을 경우 무조건 반려한다. 단 1인 이하의 심사위원이 ‘게재 불가’ 판정을 한 경우는, 이 판정은 ‘수정 후 게재’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8. 심사 결과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제시하여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편집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 ① 투고자는 ‘게재 불가’의 판정을 통보 받은 후 7일 이내에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내용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②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에서는 그 타당성과 구체성 여부를 1차 검토한 후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심사위원을 전원 교체하여 ‘게재 가’와 ‘게재 불가’의 한 가지 중에서 판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는 다수의 판정 결과를 참조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한다.
  - ③ 심사 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한 차례에 한한다.
  - ④ 재심사에 들어갈 경우 이의 신청자는 재심 논문 심사비 등을 포함하여

내규에 따른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재심은 심사비 납부 이후에 진행된다.

9. 투고자에게는 논문의 게재여부와 구체적인 심사 내용을 명시한 ‘논문심사 결과서’를 보낸다.
10. ‘수정 후 게재’ 논문의 경우 만약 심사자의 의견에 대한 수정보완이나 구체적 의견 제시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게재를 제한한다.
11. 발행 면수 제한 때문에 논문 편수를 더 줄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사기준표에 따라 최하위 논문을 다음 호에 게재할 수 있다.
12. 외국어 논문을 학회지에 일정 비율 수록하도록 한다. 수록 비율은 편집회의에서 결정한다.
13. (재투고 금지) 재투고는 1회에 한하며, 이전의 심사결과에서 ‘게재불가’ 판정을 받아 반려된 논문과 동일한 내용으로 재투고할 수 없다. 재투고된 논문은 1차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심사를 진행한다.

## 제5장 투고 규정

제18조(투고) 투고는 홈페이지의 논문투고 메뉴를 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투고시 학회에서 요구하는 ‘논문투고신청서’ 양식과 논문표절 방지를 위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서>를 첨부해야 한다. 단 공동저자인 경우 저자와 관련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모든 저자가 ‘논문투고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9조(접수 마감) 접수 마감은 1월 30일, 4월 30일, 7월 30일, 10월 30일로 한다.

제20조(원고 작성) 논문 작성 요령은 제26조의 논문 작성 양식을 따른다.

제21조(투고 제한) 단독 저자 및 공동 저자의 투고 시, 연속 2회 투고 및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가 특별한 사유를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또한 표절 등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된 논문을 재투고할 수 없

다.

제22조(원고의 제출) 논문의 내용 상 그래프나 표 등이 오류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1 부를 출력하여 그 부분을 붉은색으로 표기, 겉표지와 논문을 철하여 아래의 학회사무실로 제출하고 인수증을 받는다. 우편 제출 시 논문 겉표지에 『한중인문학연구』 제 00호 투고 논문'이라 쓰고 보내는 사람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를 쓴다.

#### 학회사무실 주소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관악캠퍼스 1동 314호  
한중인문학회 김유중  
E-mail : kochih@hanmail.net

제23조(심사비) 논문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에 소정의 심사비를 학회 통장으로 입금해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심사서 접수 후 심사위원들에게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게재료) 심사 후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소정의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게재료는 일반 논문과 연구비 수혜 논문으로 구분하여 납부하며, 금액은 편집위원회의 내규로 정한다.

제25조(영문초록) 편집위원회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대해 학술논문 영문교정 전문기관에 영문 초록 교정을 의뢰한다. 영문 초록 교정에 드는 비용은 논문 저자가 부담하여, 게재료에 반영한다. 단 저자가 별도 교정을 원할 경우, 저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서 영문 초록 교정을 받았음을 증빙할 수 있는 '영문 초록 교정 확인증'을 편집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26조(연구 윤리) 연구 윤리를 심의 감독할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회장이 임명한 1인이 위원장을 맡도록 한다.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은 별도로 제정하

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27조(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방지) 논문 투고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논문 투고자는 투고 논문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관련 보고를 요구받았을 때, 즉시 학회 측에 이해상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 후라도 이해상충 관련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연구윤리위원회의 징계 절차에 따라야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가 의심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연구윤리위원회는 즉시 이에 대한 심사 및 판정에 돌입한다.

제28조(논문 작성 양식) 논문 작성 요령은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1. 논문은 “한글(2010 이상)”으로 작성할 것을 기본으로 한다.
2. 원고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120매(편집 후 총면수 24쪽 이내) 내외로 하고, 150매 이상(편집면수 30쪽 이상)은 투고를 제한한다.(출판 편집 후 24쪽을 초과할 경우에는 1쪽 당 2만원의 추가 조판비를 부담한다.)
3. 논문의 체계는 제목, 성명, 국문개요, 국문 주제어, 목차, 본문, 참고문헌, 영문제목, 영문 성명,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의 순으로 한다.
4.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저자의 소속 및 직위 등은 논문 첫 페이지에 각주로 표시하고, 공동 저자가 있을 경우 주저자(또는 제1저자)와 교신저자(또는 제2저자) 등을 빠짐없이 구분하여 정확하게 표기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 및 강사	성명/대학명/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의전담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강사 등
	대학 및 대학원 소속 학생	성명/대학명/학부과정, 석사과정, 석사수료, 박사과정, 박사과정수료
	대학 소속 박사 후 연구원	성명/대학명/박사 후 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유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학교명/교사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학교명/학년
연구기관	연구원	성명/기관명/직위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성인	성명/전)소속명/종별 학위, 전)직위, (또는) 성명/연구자
	소속/직위가 없는 미성년자	성명/최종소속명/학생, 졸업, 재학연도

- 모든 논문은 국문개요와 영문초록을 첨부하고 국문 주제어와 영문 주제어를 각각 5개 이상 표기한다.
- 편집용지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용지 종류	용지 여백		용지 방향
사용자 정의 폭 : 153mm 길이 : 225mm	위쪽	19,0mm	중계
	아래쪽	27,0mm	
	왼쪽	22,0mm	
	오른쪽	22,0mm	
	머리말	13,0mm	
	꼬리말	0	
	제본	0	

- 논문에서 사용되는 기호는 다음에 의거한다.
  - 본문의 항목구분은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 표 및 그림은 <표1> 제목, <그림1> 제목의 순서로 한다. 중국어논문은

〈表1〉 제목, 〈圖1〉 제목의 순서로 한다.

③ 〈 〉 작품, 『 』 작품집, 「 」 논문, 『 』 신문 · 잡지 · 저서,  
 ‘ ’ 강조 및 간접인용, “ ” 직접 인용으로 한다.

8. 논문의 스타일 모양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바탕글	10	90	-6	휴먼명조	0	0	10	170	양쪽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논문제목	14.5	95	-9	신명태명조	0	0	0	160	중앙
1	12	90	-6	신명태명조	10	0	0	170	양쪽
1)	10.6	90	-7	신명중고딕	10	0	0	170	양쪽
(1)	10	95	-8	신명중명조	10	0	0	150	양쪽
①	10	95	-9	휴먼명조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휴먼명조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휴먼명조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신명조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중고딕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신명조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② 중국어논문일 경우

스타일 이름	글자모양				문단모양				
	크기	장평	자간	글꼴	왼쪽 여백	오른 여백	들여 쓰기	줄 간격	정렬 방식
논문제목	14.5	95	-9	신명조 간자	0	0	0	160	중앙
국문요약	8.5	95	-9	휴먼명조	0	0	10	160	
바탕글	10	90	-6	신명조 간자	0	0	10	170	양쪽



1	12	90	-6	신명조 간자	20	0	0	250	양쪽
1)	10.6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210	양쪽
(1)	10	95	-8	신명조 간자	10	0	0	200	양쪽
①	10	95	-9	신명조 간자	10	0	0	170	양쪽
인용문	9	95	-9	신명조 간자	10	0	10	150	양쪽
각주	8.6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14	138	양쪽
참고문헌	8.9	95	-9	신명조 간자	0	0	내어쓰기 30	145	양쪽
영문초록	9	90	-7	신명조 간자	10	0	0	150	양쪽
표제목	8.5	95	-7	신명조 간자	0	0	0	170	중앙
머리말(홀수) (논문 제목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오른
머리말(짝수) (학회지명, 호수 기입)	8.7	90	-5	신명조 간자	0	0	0	170	양쪽

\* 이상 여기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모두 기본값으로 둔다.

※ 중국어 투고 논문은 간체자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글자 모양은 신명조 간자를 사용한다.(다만, 변체자 사용 지역에서 투고하는 경우나 중국의 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변체자를 사용할 수 있다.)

9. 논문에서 사용되는 주는 각주로 작성하며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수정 2016. 01. 13)

① 저자, 「논문명」, 『저서명』,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쪽수.  
(인용쪽수는 p 또는 pp로 표기한다.)

② 영문 각주일 때 논문은 “ ”로, 저서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10. 참고문헌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① 참고문헌은 단행본과 논문으로 나누어 완전한 서지정보를 표기한다.

② 학술지에 실려 있는 논문일 경우에는 해당 논문의 게재 면수(해당 논문의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를 반드시 표기한다.

③ 국내문헌을 먼저 표기하고 다음에 일본어, 중국어, 기타 동양권 문헌 다음에 영어, 불어, 스페인어, 기타 서양권 문헌의 순서로 배열한다.

④ 국내문헌은 저자의姓을 가나다 순서로, 동양권 문헌은 저자 독음을 가나다순으로, 그리고 서양권 문헌은 저자姓의 알파벳 순서로 배열한다.

- ⑤ 외국 논문의 경우 자국 언어의 문헌을 국내문헌으로 간주한다.

## 제6장 논문의 학회 이용권

제29조(학회의 저작권) 학술지 『한중인문학연구』에 게재된 논문은 저작권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학회의 이용권을 자동 허락한다.

제30조(논문의 이용)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면 게시된 논문은 회원에 한하여 무료 온라인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논문 공개) 한국연구재단(KCI) 홈페이지에 탑재된 학술지의 모든 논문은 원문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2조(상업 이용 금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상업적 이용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가 발생하면 저자와 학회 간에 별도 협약을 맺는다.

## 부 칙

제33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통례를 따른다.

제34조(개정) 본 규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2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8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9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2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 한중인문학회 윤리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제반 활동의 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약) 본 학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윤리 규정 준수를 서약해야 한다. 본 윤리 규정의 발효 시 기존 회원은 본 윤리 규정 준수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의무) 본 학회의 모든 구성원은 연구자로서의 규범을 준수하고, 학술 연구를 통하여 학문과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며 연구자로서 지켜야 할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1. 회원은 학술 연구 수행 및 연구 논문 발표 시 본 윤리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학회의 윤리 조사가 있을 때에는 협조해야 한다.
2. 회장은 회원의 연구 수행과 주관사업 진행 시 준수해야 할 연구 윤리 규범을 알리기 위해 홍보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 인력, 체계를 지원해야 한다.

제4조(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본회 회원의 규범 준수와 성실 의무를 심사하기 위하여 본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제5조(대상과 범위) 이 규정은 본 학회의 회원 및 본 학회가 주관하는 사업 및 사업관련자에 적용된다.

제6조(윤리규정 위반의 보고)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 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할 경우 그 회원에게 윤리 규정을 환기시킴으로써 문제를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가 바로잡히지 않거나 명백한 윤리 규정 위반 사례가 드러날 경우에는 연구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규정의 수정) 윤리 규정의 수정 절차는 학회의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윤리 규정이 수정될 경우, 수정 전의 규정에 서약한 회원은 추가적인 서약 없이 새로운 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 제2장 일반적 윤리

제8조(사회책 책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자각하고 전문가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9조(학문의 자유) 연구자는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가로서의 자세) 연구자는 자신의 학술적인 능력과 전문성을 유지 혹은 향상시키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연구의 진실성) 연구자들은 모든 연구 활동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며 타인의 연구 활동을 존중한다. 연구자들은 오직 학문적 근거에 의하여 판단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본인의 전문적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을 삼간다.

## 제3장 연구 관련 윤리

제12조(저자의 의무)

### 1. 표절 금지

저자는 자신이 행하지 않은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않는다. 타인의 연구결과 출처를 명시함과 더불어 여러 차례 참조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 결과이거나 주장인 것처럼 제시하는 것은 표절이 된다.

### 2. 출판 업적

- ①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역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제1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반면, 연구나 저술(번역)에 기여했음에도 공동저자(역자)나 공동연구자로 기록되지 않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연구나 저술(번역)에 대한 작은 기여는 각주, 서문, 사회 등에서 적절하게 고마움을 표시한다.

3. 연구물의 중복 게재 혹은 이중 출판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인 것처럼 출판(투고)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연구물을 사용하여 출판하고자 할 경우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편집자에게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중복 게재나 이중 출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인용 및 참고 표시

- ① 공개된 학술 자료(인터넷 및 SNS 등등 게시 자료 포함)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한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계획서의 평가 시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 ②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참고)할 경우에는 반드시 각주(후주)를 통해 인용 여부 및 참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이나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논문의 수정

저자는 논문의 평가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

능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 6. 공동저자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저자는 논문의 이해상충 및 특수관계인 공동저자 관련 연구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논문 게재 후라도 연구 부정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위원회 규정’ 제27조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가 소집된다.

#### 제13조(편집위원의 의무)

1.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지며, 저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2. 편집위원은 학술지 게재를 위해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은 물론이고 어떤 선입견이나 사적인 친분과도 무관하게 오로지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 규정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3.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지닌 심사 위원에게 의뢰해야 한다. 심사의 의뢰 시에는 저자와 지나치게 친분이 있거나 지나치게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함으로써 가능한 한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 단, 같은 논문에 대한 평가가 심사위원 간에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제3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4. 편집위원은 투고된 논문의 게재가 결정될 때까지는 심사자 이외의 사람에게 저자에 대한 사항이나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면 안 된다.

#### 제14조(심사위원의 의무)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편집위원(회)이 의뢰하는 논문을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편집위원(회)에게 통보해 주어야 한다.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평가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통보한다.
2. 심사위원은 논문을 개인적인 학술적 신념이나 저자와의 사적인 친분 관계를 떠나 객관적 기준에 의해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충분한 근거를 명

시하지 않은 채 논문을 탈락시키거나, 심사자 본인의 관점이나 해석과 상충된다는 이유로 논문을 탈락시켜서는 안 되며, 심사 대상 논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채 평가해서도 안 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평가 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밝히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유도 함께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부드러운 표현을 사용하고,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은 삼간다.
4.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논문 평가를 위해 특별히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논문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논문 내용을 놓고 다른 사람과 논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

## 제4장 연구윤리위원회

### 제15조(구성과 임기)

1.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위원은 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 제16조(임무와 권한)

1. 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한다.
2.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이때 적절한 제재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심사 절차) 위원회의 심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른다.

1. 위원회의 심사 개시는 위원회, 또는 회장의 심사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요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즉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자체 내의 심사 또는 외부 심사위원의 참여 여부 등 해당 안건의 심사 절차를 결정하되, 심사의 진행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원은 심사에서 제외한다.
3. 위원회는 연구자의 연구 결과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다. 위원회는 필요시 해당 연구자, 제보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사위원 등을 면담 조사할 수 있다.
4. 위원장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의 처리를 결정하며, 해당 연구자와의 협의를 통하여 그 결과에 대한 본인의 소명 기회 부여를 검토한다.
5. 본인의 소명은 심사위원회의 비공개 회의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 경과를 충분히 설명하고, 소명을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회의에 참석하도록 통보한다.
6. 심사위원장은 해당 연구자의 소명 이후 심사위원회 결정의 번복 여부를 최종 결정하여 이사회에 보고한다. 번복 여부의 결정은 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동의로 이루어진다.
7. 심사위원은 해당 회원의 신분이나 진행 사항 등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8조(심사 결과의 보고)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즉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심사의 위촉 내용
2. 심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심사위원의 명단 및 심사 절차
4. 심사 결정의 근거 및 관련 증거
5. 심사 대상 회원의 소명 및 처리 절차

제19조(징계) 위원회는 심사 및 면담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징계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으며, 중복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제명
2. 논문의 저작권 취소 및 인용 금지
3. 학회에서의 공개 사과
4. 회원으로서의 자격 정지

제20조(후속 조치)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의 보고서를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회장은 이사회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즉시 시행한다.
2. 심사결과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정할 경우, 이사회는 심사위원회에 재심, 또는 보고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사회회의 요구는 구체적인 이유를 적시한 서류로서만 이루어진다.

## 부칙

제21조(내규)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22조(시행) 본 규정은 200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4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1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 彙報

2022. 08. 11. 한중인문학연구 76집 1차 편집위원회  
 2022. 08. 16. 한중인문학연구 76집 2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08. 29. 한중인문학연구 76집 3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09. 08. 한중인문학연구 76집 4차 편집위원회 및 윤리위원회 개최  
 2022. 09. 26. 한중인문학연구 76집 5차 편집위원회 개최  
 2022. 09. 30. 한중인문학연구 76집 발간

## 2022年度 事業計劃

- 1) 한중인문학연구 74집 투고 마감(2022년 02월 1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74집 발행(2022년 03월 30일)
- 3) 한중인문학연구 75집 투고 마감(2022년 05월 10일)
- 4) 한중인문학연구 75집 발행(2022년 06월 30일)
- 5) 제 49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2년 07월 02일, 온라인(비대면))  
 - 주제: 연변조선족자치주 건립 70년 조선족의 유산과 과제
- 6) 한중인문학연구 76집 투고 마감(2022년 08월 10일)
- 7) 한중인문학연구 76집 발행(2022년 09월 30일)
- 8) 한중인문학연구 77집 투고 마감(2022년 10월 30일)
- 9) 제 50회 한중인문학회 국제학술대회(2022년 12월 17일, 경희대학교(예정))  
 - 주제: 한중수교 30주년의 회고와 전망
- 10) 한중인문학연구 77집 발행(2022년 12월 30일)

## 〈알림〉

### 1. 『한중인문학연구』 중간 안내

2014년부터 학회지 발간을 4회로 증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투고 마감일 : 01월 30일, 04월 30일, 07월 30일, 10월 30일
- 발행일 : 03월 30일, 06월 30일, 09월 30일, 12월 30일

### 2. 『한중인문학연구』 77집 원고 모집

학회지에 논문을 투고하실 회원은 원고 마감 기한을 지켜 학회로 원고를 보내주시시오. 원고 분량은 편집면 기준 30쪽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타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 투고 규정 및 연구윤리 규정을 잘 참고하시어 투고하시기 바랍니다.(학회의 논문 작성 양식에 맞추어 작성한 논문만 투고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투고 : 온라인 투고시스템(<http://submission.kochih.kr/Login>)
- 투고 마감 : 2022년 10월 30일
- 발행 예정 : 2022년 12월 30일

### 3.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 안내

76집부터 심사료 및 게재료 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학술대회 발표 논문 및 외국학자 논문도 동일 적용)

- 심사료 : 7만원(재투고 논문일 경우에도 동일 적용)  
단, 이의제기로 인한 재심사 논문의 경우에는 재심 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심사료 7만원과 회의비 4만원(합계 11만원)을 추가 부담한다.
- 게재료 : 기본 10만원(편집면 24쪽 이내)  
추가분량 편집면 1쪽당 2만원씩 추가(편집면 최대 30쪽까지 가능)  
연구비 수혜논문의 경우 교내지원 20만원, 교외지원 30만원 추가  
단, 두 곳 이상의 지원을 받는 연구비 수혜논문은 항목별로 금액을 다음과 같이 추가 납부한다.(게재료는 연구비 지원이 높은 곳

을 기준으로 청구비는 가장 높은 금액 100%와 나머지는 각각 50%를 합하여 계산한다.)

- 편집면 24쪽 이내 게재료의 예:

교외지원(100%)+교내지원(50%)=40만원

교외지원(100%)+교외지원(50%)+교내지원(50%)=55만원

#### 4. 회비 납부 안내

학회 가입비, 연회비 및 심사료는 다음과 같으며, 논문 심사는 연회비 및 심사료의 납부를 확인한 후에 진행됩니다.

가입비 : 30,000원

연회비 : 30,000원

투고 논문 심사료 : 70,000원

학술지 해외 배송료 : 20,000원 (중국의 경우, 기타 해외지역은 별도문의)

학회통장 : 신한은행 100-029-987203 한중인문학회

\* 연회비를 장기미납하신 회원의 경우 아래의 가, 나, 다 방식 중 선택하여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국내, 국외 회원 동일하게 적용)

가. 1년 연회비 3만원과 재입회비 3만원, 총 6만원 납부

나. 3년 연회비 9만원 납부

다. 5년내 연회비를 납부실적 있을 경우 재입회비 면제, 연회비 3만원 납부

\* 회원 주소록을 정비하오니 소속, 연락처, 주소 등이 변경된 회원께서는 학회 메일로 직접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5. 학회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한중인문학회 신규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중인문학회 도메인 주소 : <http://kochih.kr/>

신규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ID 생성 시 영문 또는 숫자만 허용합니다. 이에 기존 가입자 중 특수기호나 스페이스가 들어간 ID는 교체를 권장해드립니다.

## 6. 학회지 PDF 발송

2018 가을 학회 총회 의결에 따라 제62집부터 기관 회원 등을 제외한 모든 회원님께 PDF 파일로 된 학회지를 발송합니다.

## 한중인문학회 제13기 임원진 및 위원진

(2022.1.1~2023.12.31)

명 예 회 장 :	김상대(아주대명예) 최병우(강릉원주대명예) 임경순(한국외대)	한계전(서울대명예) 박윤우(서경대) 유성선(강원대)	송현호(아주대명예) 한용수(동국대)
고 문 :	김공환(아주대명예) 김현숙(이화여대명예) 박경현(경찰대명예) 박인기(경인교대명예) 송하춘(고려대명예) 윤석달(항공대명예) 전인영(이화여대명예) 최유찬(연세대명예)	김종철(서울대명예) 류종렬(부산외대명예) 박순애(호남대) 박일룡(홍익대명예) 우한용(서울대명예) 윤여탁(서울대명예) 정병현(숙명여대명예) 최학출(울산대명예)	김호웅(연변대명예) 민현식(서울대명예) 박옥걸(아주대명예) 서준섭(강원대명예) 유인순(강원대명예) 이정숙(한성대명예) 조창환(아주대명예)
회 장 :	김유중(서울대)		
전공 부회장 :	이지영(어학:서강대) 김 호(역사:서울대) 민병곤(교육:서울대)	구재진(문학:세명대) 임치균(사상:한중연) 이은희(여성:한성대)	김원중(고전:단국대) 임대근(문화:한국외대) 이해영(중국어:중국해양대)
지역 부회장 :	이병찬(서울:덕성여대) 윤의섭(충청:대전대) 송현정(제주:제주대)	이태숙(경기:단국대) 김성진(경상:대구대)	김풍기(강원:강원대) 김혜영(전라:조선대)
행정 부회장 :	정래필(영남대)		
분 과 이 사 :	<u>[총무]</u> 광명숙(아주대) 박진(국민대)	<u>김형규(아주대)</u> 정진석(강원대) 최미숙(상명대) 황영미(숙명여대)	임대근(한국외대) 조명숙(경희대) 윤선자(전남대) 남연(북경대)
	<u>[기획]</u> 김정우(이화여대) 박진호(서울대)	<u>최미숙(상명대)</u> 황영미(숙명여대)	이영남(광서사범대) 박춘란(사천외대)
	<u>[연구]</u> 김진규(가천대) 송윤미(강원대)	<u>김근호(전남대)</u> 이미옥(서울대)	김원중(단국대) 김명숙(중앙민족대)
	<u>[편집]</u> 최호영(안동대) 조현일(원광대)	<u>우신영(인천대)</u> 신정수(한중연)	송재연(서원대) 최유학(중앙민족대)
	<u>[국제]</u> 진공(국민대) 신영덕(인니국립대)	<u>이영남(광서사범대)</u> 박춘란(사천외대)	지수용(화중사범대) 윤경애(대련민족대)
	<u>[섭외]</u> 조원일(전남대) 이정란(한중연)	<u>김환기(동국대)</u> 홍순애(동덕여대)	박강(부산외대) 유전진(운남사범대)
	<u>[홍보]</u> 박성일(한국체대) 최재선(산업대)	<u>김상일(동국대)</u> 선저이쿠마르(코리아헤럴드)	김현주(한국외대) 김현호(제주대)
	<u>[교육]</u> 류수열(한양대) 김호정(서울대)	<u>권순희(이화여대)</u> 한창훈(전북대)	김미순(한국외대) 전영근(광동외대)
			민재원(전북대) 여호규(한국외대) 김은성(이화여대) 이명아(국민대) 엄홍화(회해공대) 천춘화(숭실대) 이영호(제주대) 여수일(중곡국립대) 김영주(대전대)

[정보] <u>송지언(홍익대)</u>	강남욱(경인교대)	이승준(항공대)	이희정(경북대)
장은영(조선대)	최인자(가톨릭대)	노금숙(호남사대)	
[출판] <u>조하연(아주대)</u>	황혜진(건국대)	오영미(교통대)	권유리아(부산외대)
정혜영(대구대)	유정은(강원대)	김경선(북경외대)	

감 사(2) : 류순태(서울시립대), 차희정(명지대)

간 사(3) : 행정학술-전세진(서울대), 편집정보-신문봉(서울대) 백지운(경희대)

\* 밑줄은 실무담당 상임이사입니다.

### 〈편집위원회〉

편집자문위원 : 권용욱(남서울대 명예)	김석희(인하대 명예)	류종렬(부산외대 명예)
민현식(서울대 명예)	박인기(경인교대 명예)	서준섭(강원대 명예)
손희하(전남대 명예)	윤여탁(서울대 명예)	윤정룡(한남대 명예)
이영춘(한중문화연구소)	전인영(이화여대 명예)	정병현(숙명여대 명예)
최유찬(연세대 명예)	우한용(서울대 명예)	김호웅(연변대 석좌)
심정창(북경대 명예)	윤윤진(길림대)	김기석(상해외대)
허세립(길림대 주해)	김종철(서울대 명예)	김하림(조선대)
박인용(홍익대)	정호웅(홍익대)	유문선(한신대)
이후일(선문대)	공종구(균산대)	박경수(부산외대)
차성만(서경대)	문철영(단국대)	박현규(경북대 명예)

편집위원장 : 이선이(경희대)

편집위원(13) : 이정란(어학(한), 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김원중(문학(중), 수도권:단국대)
이명아(어학(중), 수도권:국민대)	오영미(문화, 충청:한국교통대)
송현정(언어교육(한), 제주:제주대)	김 호(역사, 수도권:서울대)
박성일(언어교육(한·중), 수도권:한국체대)	유정은(철학, 강원:강원대)
민재원(문학교육, 전라:전북대)	신경수(한국학, 수도권:한국학중앙연구원)
최호영(현대문학(한), 경상:안동대)	이혜영(중국학, 해외:중국해양대)
김풍기(고전문학(한), 강원:강원대)	

###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 유성선(강원대)

위원(14) : <u>김유중(서울대)</u>	<u>이선이(경희대)</u>	<u>정래필(영남대)</u>	<u>곽명숙(아주대)</u>
<u>김형규(아주대)</u>	<u>최호영(안동대)</u>	<u>김진규(가천대)</u>	김정우(이화여대)
박성일(한국체대)	서혁(이화여대)	이은희(한성대)	임치균(한국학중앙연구원)
전공(국민대)	조원일(전남대)		

\*밑줄 당원직: 학회장, 편집위원장, 행정부회장, 총무이사, 연구이사, 편집이사



한중인문학연구 제76집

2022年 9月 27日 印刷

2022年 9月 30日 刊行

發行人 : 김 유 중

事務室 : [08826]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관악캠퍼스 1동 314호

한중인문학회 김유중

T. 02-880-6050 F. 02-878-1246

<http://kochih.kr/>

E-mail : [kochih@hanmail.net](mailto:kochih@hanmail.net)

製作處 : 한유북스 E-mail : [hanyubooks@naver.com](mailto:hanyubooks@naver.com)

값 15,000원